

2018 제천간디학교 인문학캠프 일정표

	3일 (토)	4일 (일)	5일 (월)	6일 (화)	7일 (수)	8일 (목)
수업구분	열린인문학		닫힌인문학			
10:00 ~ 12:30	자료 전시 중	인간관계, 우리 소통해볼래요?	병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담배, 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현대미술, 전시 탐방 (MMCA)	성격심리학, 성격 종으시네요
12:30~14:00	점심시간					
14:00 ~ 18:00	청소년 자해신드롬, 후시 너도?	미혼모, 미혼모로 살아가는 거 어때?	음악과 시대, BLACK MUSIC from	영화로 만나는 인문학, I Like To Movie Movie	현대미술, 대체 필 보고 있는 거지?	문화탐방
	행복, 행복은 생각보다...	왜 인문학? 초청강사: 김찬호 성공회대학교수	음악과 시대, Punk Attitude			

목차

청소년 자해신드롬 혹시 너도? -----	7p
미혼모로 살아가는거 어때? -----	13p
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	21p
BLACK MUSIC from_시대 속 음악-----	31p
성격 좋으시네요 -----	37p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65p
인간관계, 우리 소통해볼래요?-----	109p
I Like To Movie Movie-----	119p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139p
행복은 생각보다....-----	147p
Punk Attitude_1970년대 시작된 핑크 문화의 대한 연구---	153p

청소년 자해 신드롬 혹시 너도 ?

목차

1. 시작점

2. 자해 행동: 自害

3. 자해 신드롬

3-1. 리스트 컷 증후군

3-2. 청소년의 자해가 늘고 있다: 현 상태의 심각성

유지현

1. 시작점

(작성못함)

2. 자해행동: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 자상(칼이나 창과 같은 예리한 물체에 찔려서 생긴 창상: 외부에 압력에 의하여 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이라고도 한다. 자신을 상해하는 자살과는 다르다.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손목을 긋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목적을 위해 고의로 자신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흉터를 남기는 일. 특히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 행동은 죽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 없이 주로 정서를 다루는 방법의 일환이다.

자해 행동은 원인이나 종류, 특성 등이 다양하며, 자해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간의 이질성도 크다. 청소년부터 초기 성인기 집단의 자해 행동 유병률이 높고, 경계선 성격 장애나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섭식 장애 등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집단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오래 전부터 자해에 대한 대중과 학자의 관심은 많았지만 심층적인 이해는 부족하다. 자해 행동은 죽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 없이 자신에게 고의로 가하는 해로운 활동을 뜻한다.

3. 자해 신드롬

3-1. 리스트 컷 증후군

우선 리스트 컷 증후군을 먼저 알아보자.

리스트(Wrist: 손목) 컷(Cut: 베인 상처) 증후군(syndrome).

명칭대로 손목을 베는 증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놓인 사람이 자해 행위를 반복하는 현상에 해당된다. 커터 날 등으로 팔이나 몸에 자해를 남긴다.

리스트 컷 증후군은 처음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긋는 경우는 잘 없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스트레스성으로 자해를 하고 나서 자신이 리스트 컷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 게시판 혹은 SNS에 올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리스트 컷이라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인 압박감+스트레스를 토해내기 위한 자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 상황을 알아달라는 발작적인 심리에 기반 한 경우가 많다.

리스트 컷 증후군은 실재하는 증후군은 아니다.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일반적으로 칭하는 이름이 리스트 컷 증후군일 뿐이다. 병원 등지에서조차 증후군이 아닌 증상으로 취급하여 'cut wrist' 등으로 적는다.

사안이 불명확한 변사체를 수사할 때 쓰이는 용어로 '주저 흔'이라고도 칭하는데, 자살을 결심해도 당사자는 본능적으로 단번에 동맥을 끊지 못하고 주저하며 여러 번 긋는 행위라 하여 주저 흔이라고 한다. 변사체가 주저 흔 없이 단번에 자살을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변사체라면 타인에게 살해당했을 경우도 가정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3-2. 청소년의 자해가 늘고 있다: 현 상태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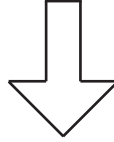
자해 청소년들의 수가 2018년 1학기부터 늘기 시작해서, 여름에 더 많이 발견되고 더 많이 자해하는 문화가 전파되어,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한 반에 하나, 둘은 꼭 있고, 진료하는 정신과 의사, 저를 포함한 정신과 의사들에게는 하루에도 여러 아이들이 손목 긋기 자해를 포함한 여러 자해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신의학에서 진료하는 비자살성 자해질환(non-suicidal self injury disorder)을 넘어 하나의 문화 신드롬처럼 전파되는 것 같은 우려가 들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23일에 "청소년의 자해 전파, 자해 확산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정신과 의사 김현수 그리고 청소년의 자해를 걱정하는 여러 정신과 의사, 교사, 상담 가를 대신해서 올라왔다는 청원의 일부입니다.

-
네이버 검색어, 구글 검색어로 검색해도 현재 엄청난 검색 증가가 있다. 실제 청소년 사이에서 대표적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자해로 게시물을 검색하면 10월 22일 기준 41,6000건 이상의 게시물이 검색된다.

이에 대한 근본적 조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자해문화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그리고 구글 검색에서 만이라도 자해사진, 자해방법, 자해 트윗을 줄일 수 있다면, 전파속도가 줄어들고, 자해문화로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건의 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1. 인스타그램, 트위터, 구글 및 다음, 네이버 포탈 등에서 자해와 관련된 사진이 게재되지 않게 해당 회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적어도 자해사진, 자해하는 법을 전파하는 내용은 삭제되거나 경고 문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기에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가적 기구에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조직을 마련해주세요. 늘 뒷북치면서 대책만 세우는 미온적 행정에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청원을 보고 직접 인스타그램에 자해 관련 게시물을 검색해 봤다. 속이 안 좋아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정도의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SNS 상의 청소년 자해 노출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개인 계정에 자해를 한 사진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등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는 실상이다. SNS가 필수요소가 되어버린 요즘 무분별한 자해사진 노출이 이뤄지고 있다.

-
현재 연쇄적인 연결고리처럼 자해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서로의 '가짜 유대감' (따라 하기)으로 형성되어 나가고, 이는 상호적인 감정 교류의 수단으로써 이용된다. 그러나 서로의 감정 교류의 수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얼마나 더 강도가 높고, 수위가 높은 자해 행위를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경쟁적으로 변질되는 모순을 낳기도 한다.

올해 8월 23일에 올라온 "어디 탈출구 없나요"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SNS 자해 인증 샷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살펴보자.

위에서 말했던 SNS로 확산되고 있는 자해사진의 심각성이 불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학업 등 1등주의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해 인증샷'이 번지는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이 제발 입시 중심, 공부 중심, 1등주의, 획일주의 이런 것을 벗어나는 사회에서 언제 살아보냐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또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말할 사람도 없고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되게 외롭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와 연대해 줄 사람, 진심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SNS상에서 그런 사람 구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실제로 서울대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봉년 교수팀이 서울, 고양, 대구, 제주 등 4개 권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살 관련 설문에서 대상자의 17.6%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3.7%는 자살 의도를 가졌고 5.8%는 의도는 없지만 자해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틱 장애가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불안장애, 우울장애, 섭식장애 비율이 높았다.

이런 자살유해정보는 지속해서 게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18~31일 온

라인상에서 '국민 참여 자살유해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여 17338건의 자살유해정보를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43%가 증가한 수치다.

▼신고 내용을 보면 ▼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039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방법 안내(4566건, 26.3%), △기타 자살조장(2471건, 14.3%), △동반자살자 모집(1462건, 8.4%), △독극물 판매(800건, 4.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은 SNS(77.3%)에서 가장 많이 발견됐고 온라인 커뮤니티(8.9%), 포털 사이트(3.6%) 등에서도 유통되고 있었다.

특히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인스타그램(7607건)으로, 인스타그램 신고 중 자해 관련 사진 신고는 63%에 달했다.

한 창수 중앙 자살 예방 센터장은 "작년 대비 자살 관련 사진, 특히 자해사진이 인스타그램 및 SNS를 통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미혼모로
살아가는 거
어때?**

미혼모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다. 모두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미혼모의 정의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후 아기를 낳는 여성을 말한다. 크게 결혼한 여성이 이혼, 별거 등 독신과부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한 경우 여성이 혼전임신을 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도 ¹혼 외자 생모로서 미혼모라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2. 미혼모 비율



미혼모의 인구 현황

전국조사자료에 따르면 조사의 목적이 전국의 인구관련 사항, 여성의 삶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미혼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전국차원의 조사 자료는 수 없이 부족하다. 미혼모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 사회가 그 존재를 외면하고 덮어 버리기 때문에 미혼모 스스로도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을 드러내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미혼모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3가지 종류

1. 아이를 낳아서 책임지고 키우겠다.
2. 임신중단(낙태)
3. 아이를 낳은 뒤 입양

첫 번째, 아이를 낳아서 책임지고 키우겠다.

우리나라 전체 가족 유형 중 한부모 가족이 10% 수준에 이르고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도 늘고 있지만 아빠 없이 아이를 낳아 홀로 키우는 '미혼모'와 미혼모가 키우는 자녀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한 현실이다. 낙태나 입양 대신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심하는 순간 미혼모는 수많은 편견에 부딪힌다.

- 엄마 입장의 어려움

건강

'출산'을 했다는 그 자체로 산모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1. 산후탈모

출산 후 가장 눈에 띄게 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머리카락이다. '산후탈모' 정상적인 증상이고 출산 후 1~4개월 사이에 탈모가 시간된다. 호르몬의 분비중단으로 모발 성장이 느리고 모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1)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2) 사진출처-http://bit.ly/8mch

2.부종

임신으로 인한 부종은 자궁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자궁이 커지면서 자궁아래쪽에 골반의 그에 따른 혈관, 정맥이 큰 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혈액순환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혈액순환은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해야하는 다리와 발목 쪽에 영향을 주어 다리와 발목이 붓는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

이외 치아, 잇몸의 통증, 피부변화, 근육통 등 출산 후 산모의 몸은 굉장히 약해져있다.

지장해고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지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지장을 다녔던 직장인의 경우 97%가 일을 그만 뒀다고 대답했다. 가족들은 물론 학교와 지장과 단절로 이어지고, 홀로 생계 부담에 도말아 하는 미혼모들은 '빈곤'과 마주한다.

미혼모의 지원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이혼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미혼모 지원조차 받을 수 없었다는 여성도 있었다.



경제적 지원

미혼모들은 생계와 육아, 가사노동이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감당해야한다. 취업도 어렵다보니 빈곤에 맞닥뜨리는 미혼모들이 상당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 쓴 '한 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보고서'를 보면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93만3000 ~ 98만9400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출은 101만8800 ~ 115만5000원으로 소득을 넘어섰으며, 지출 가운데 양육비 비중은 절반에 가까웠다. 하지만 2012년 한 부모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나 됐다.

미혼모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혼모들이 자녀를 입양 보내면 정부는 입양 가정에 월 15만원의 양육수당과 심리치료비(20만원),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기 힘들어 다른 가정에 위탁하면 그 가정에 월 67만원을 준다. 그러나 혼자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미혼모에게 지원은 고작 월 13만원이다. 아이를 키우기에 월 13만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미혼모 시설

미혼모 시설은 전국 20개,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은 전국39개가 있다.

대상: 출산을 앞둔 미혼모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중인 미혼모가 입소할 수 있고 거주시설제한, 나이제한도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어 특히 청소년 미혼모들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소한다. 입소를 해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2년까지 시설마다 다르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된다.

미혼모 보호시설의 문제점

미혼모 시설의 경우 출산 후 아동 양육을 위한 지원이 없다. 현재 대다수 미혼모 시설은 미혼모의 임신과 분만 관리만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후 자녀 양육에 관한 것들은 제외되고 있다.

▶ 입소자는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특수 치료비가 추가 지급되나 의료보호분만, 초음파 검사 등 의료보호 비적용 분야의 의료비 지출이 많다.

▶ 출산 전후의 미혼모 보호시설이므로 응급상황 대처가 필요하나 현재 간호사는 1인만이 주간이 근무하므로 야간의 응급 시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부족하다.

▶ 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 중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는 미혼모들의 초기 자립을 위해 모자원을 퇴소하는 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200만원과 같은 국가의 지원이 전혀 없으므로 아동양육을 원한다고 해도 부모의 도움이 없는 대부분의 미혼모들의 경우 실제로 아동양육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 아이 입장의 어려움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편견과 시선

1)사진출처-http://bitly.kr/3bfs

틱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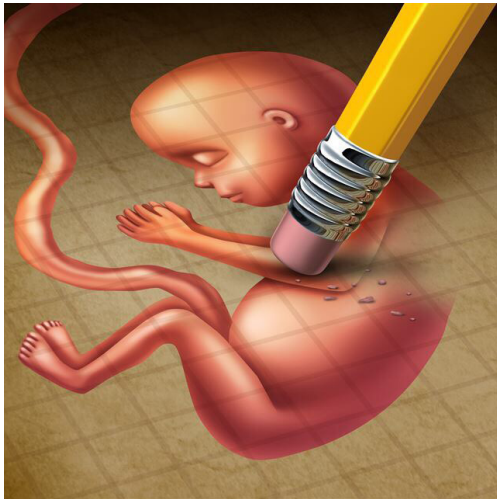
실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봐줄 시간이 부족해 24시간 유치원 또는 보육원에 맡겨봤지만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이가 '틱 장애'가 생겼다. 결국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지만 치료는 단시간 고쳐진 게 아니고 아이와 엄마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한다.

틱 장애 원인은 스트레스, 긴장, 불안 등의 내적 갈등이 틱으로 통해 방출되는 것이다.

두 번째, 임신 중단(낙태)

-낙태

낙태(落胎)가 아니라 '임신중단'이라고 지칭한다. '낙태'라는 단어에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임신중단'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형법 제 27장 제269조에 따라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낙태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조건이 몇 가지 존재한다. 임신부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동의하에 합법적인 낙태가 가능하다.

임신 중단을 선택한 여성들 또한 문란한 성 생활을 즐긴 여성이라는 비난과 조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긴 매한가지다. 여성 혼자 임신을 할리 없건만 남성의 존재는 삭제해버린 채 모든 비난과 책임을 여성에게만 뒤집어 씌어 버린다.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면 원치 않는 이민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낙태도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임신중단(낙태) 후 산모 후유증

1.자궁파열

자궁파열은 분만 중이나 임신 말기에 발생하는 자궁의 상처이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시 기계로 긁어서 자궁에 상처가 생길 확률이 높다. 증세는 상처 부위나 정도에 다르나 복강 내 대 출혈을 일으켜 쇼크 상태에 빠져 위독해질 수도 있다.

2.자궁 외 임신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이후에 임신을 할 경우에 수정란이 정상적으로 자궁에 착상해야 하는데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착상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1) 틱 장애란 얼굴 찡그리기, 눈 깜박임, 어깨 으쓱댐 등의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

3. 습관성유산

습관성유산이란 자연유산이 3번 이상 반복 되었을 때 습관성유산이라고 하는데 인공임신중절수술 후 임신을 할 때 유산이 되게 쉽다고 한다.

4. 우울증

인공임신중절 수술 이후 산모들은 죄책감과 심한 우울함에 빠진다고 한다.

이외에 난관유착, 난관폐쇄, 골반염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

불법 낙태

불법 시술소

지역마다 불법으로 낙태를 해 주는 곳이 있다. 낙태는 불법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 안 되고 기록이 남지 않게 현금으로만 받는다고 한다. 위생적인 면에서, 혹은 수술이후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는 곳에서 여성들은 낙태를 하고 있다.

실제로 외지에 있는 불법 시술소에 갔는데 직전사람이 수술을 한 것 같은 피가 시술도구에 묻어 있어서 "한번 닦아달라고 말할까", "물래 애 지우고 온 사람주제 까다롭다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에 결국에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위생적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옷걸이 낙태



'12살 소녀를 임신시키고 옷걸이로 낙태한 71세 할아버지'

그 외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옷걸이를 이용해 낙태를 시도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난고 있다.

낙태를 할때 태아도 고통을 느낄까?

마취 전문의 박사는 28주(7개월)까지의 태아는 뇌형성이 덜 돼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논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

세 번째, 아이를 낳은 뒤 입양

아이를 낳기로 첫 번째 용기를 낸 순간 이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입양을 생각해 보라'는 말이다. 엄마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이 아빠도 외면하고 가족들마저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 용기 있다는 말은 듣지도 못한 채 낳기까지 '도덕적이지 못하다', '문란하다'등 이런 얘기를 들으며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양을 권고하는 사회는 60년째 해외 입양 1위, '아동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낳았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기를 용기를 낸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인트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우리나라 미혼모 정책은 키우기보다 입양이 유리한 구조"라며 "혼자 아이를 키우기에는 정부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한 편이 많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맡길 경우 시설에는 월 평균 128만원이 지원되고, 가정위탁을 보낼 경우 월 평균 57만원이 지원된다. 입양을 보낼 경우 입양가정에 월 15만원(중증 장애아동은 62만7,000원)의 아동양육수당, 입양기관에 입양수수료 100만~270만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 직접 키우기로 결정하는 미혼모에는 지원이 너무나도 빈약하다.

수입이 생기면 지원이 끊긴다. 정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02만 원의 130~150% 이하 소득(134만 원~160만 원)이면 15만~1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이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순간 수급이 단절된다. 인트리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미혼모들이 초기에는 자립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런데 자립을 하면 할수록 지원이 끊기고, 구청에서도 '수입 찍히면 안 된다'며 전화가 오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택한다."며 "자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있지 않다.

미혼모 입양절차

입양 당시 아이를 낳은 여성이 성인이면 아이의 아빠 입양 동의서가 필요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들에게 혹은 아이 아빠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는데 입양 절차를 밟으려면 가족들 등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상황들이라서 입양을 하지 않고 베이비 박스에 넣는 경우도 있다. 기관을 통한 입양시 반드시 출생신고 후에 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계획입양

가임신

가임신이란 가짜로 임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아이를 낳은 다음에 입양이 결정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입양 갈 집이 결정되면

입양할 부부가 진짜 아기를 뱀 것처럼 가장해 개월 수에 따라 가짜로 배를 부풀려 가다가 출산 예정일에는 병원에 아기 낳으러 가는 것처럼 하고는 아기를 데려가는 것이다.

친모증후군

친모증후군 증상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 고통; 계속해서 부인해도 분노하거나 우울증상을 보인다.

>PTSD증세; 충격적인 회상, 악몽, 불안, 기피 또는 공포반응

>자존심의 상실과 수동성; 목적들을 포기, 무력감과 가치상실감을 느끼고 피동적인 자세

국내입양

남아보다 여아 비중이 2배가량 높다. 이 이유는 아가 남아보다 키우기 쉽고, 상속 등 문제에서 걸림돌이 적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고 세 미만의 아이를 선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은 총 465명이었으며 이 중 여아가 68%(315명)를 차지했다. 국내 입양아동 중 여아 비율은 2001년 58%에서 계속 증가해 2011년 69%로 높아졌고, 이후 2013년 70%, 2014년 65%, 2015년 68%, 2016년 65%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입양에 여아가 쏠리자 남은 남아는 해외로 입양된다.

입양을 원하는 이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

성가족부의 2015년 설문에 따르면, 입양을 원하는 이유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자녀가 없어서'(16.9%),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13.7%), '아이를 더 키우고 싶어서'(11.9%) 등으로 나타났다.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해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대답은 각각 1.9%, 2.0%에 불과했다. 여아 쏠림에 따라 국내에서 입양되지 못한 남아아이들은 국외로 입양된다. 지난해 국외 입양아 중 남아 비율은 75.9%로 나타났다.

입양을 보내려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입양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법원에서 인력 부족으로 입양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비밀입양

: 입양을 보내는 부모도, 받는 부모도 알려지는 게 원치 않아 비밀리에 진행되는 입양

실제사례(입양 보냈더니 유골로 돌아온 은비)

: 은비(가명) 17세 미혼 엄마의 딸로 태어난 여자 아이이다.

엄마는 홀로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며 고졸 검정고시 준비도 병행했다.

은비를 24시간 어린이집에도 맡겨보고 고시원에도 맡겨보았지만 시설에서 크는 은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때 은비는 21개월이 됐다.

신생아가 아닌 은비는 양부모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고, 입양기관에서 1년을 생활한 뒤에서야 '예비' 입양가정에 보내졌다. 하지만 식탐이 많고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 때문에 정이 안 간다는 이유로 4개월 만에 다시 입양기관으로 돌아온 은비는 3시간 동안 울었고, 전 입양가정에서 불렀던 이름을 계속 쓰겠다고 고집했다

한 달 만에 은비는 두 번 입양가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미 4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집이었다. 6개월 된 남아가 은비와 함께 입양 보내졌다. 4개월 후 은비가 응급실로 실려 왔다. '저나트립혈증이였다. 은비 체구에 비해 많은 양인 1.5l)우리 몸 수분이 과다할 때 저나트립혈증이 나타난다.

0 의 물을 강제로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했고, 온몸에 멍과 화장 자국, 눈에는 각막 손상이 발견 되었다. 아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며 수사를 저지했다. 경찰은 그 사건을 오보로 처리했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수사를 방해한 의사는 예비 양부모 지인이었다. 은비는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갔다.

세달 뒤 은비는 다시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왔다. 뇌사상태에 빠졌다. 다시 아동학대가 의심 되었고, 수사를 진했다. 그 와중에 법원은 예비 양부모에게 입양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은비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법원은 예비 양 부모에게 입양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입양기관도 수사기관도 법원에 예비 양부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법에서 그런 의무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입양 부는 구속 되었고, 법원에서 상습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은비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친모는 은비의 장례 과정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이미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과 신고가 이루어져 친권을 소멸해버렸고 양부모가 은비 친권자였기 때문이었다.

은비의 유골은 인천 앞바다에 뿌리며 은비 친모는 오열했다. 좋은 부모를 만나 잘 살 거라고 믿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1위탁가정에서 거부당한 줄 알아다며 1차 응급실행을 알았다면 은비를 데려갔을 텐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오열한 사건이다.동학대를 의심한 응급실 담당 의사의 신고로 경찰은 출동했지만 다른 전문가가 예비 양부모들

외국 미혼모 복지

스웨덴 = 여성복지가 '부업에서 2탁아소까지' 거의 완벽하게 실시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결혼에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에게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

스웨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3명중 1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며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복지제도 덕분에 혼모수당, 유아수당과 아파트 보조금 등을 받고 있다.

1970~80년대 탁아소 설립을 국책으로 마련해 어디서든 걸어서 5분 이내에 탁아소가 있을 정도로 많다. 그 결과 아이 10명 중 8명은 탁아소 혜택을 받고 있고 비용도 국가가 90% 부모가 10%를 부담하고 있다.

■덴마크 = 완전히 개방된 사회 분위기로 인해 미혼모를 특별한 문제로 취급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혼전 임신부나 혼외 출생아에 대해 비난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찍지 않는다.

미혼모에게 모성보호법, 임신건강법, 국민건강보호법 등 모든 복지관계법의 수혜권리가 부여되며, 복지수혜자격에 결혼의 합법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수혜원칙이 적용돼 출산급부, 가족수당, 가사보조 서비스, 법적 서비스 상담 등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차원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미국 = 10대 미혼모를 위한 정책은 임신 및 재임신 예방, 피임,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아동 및 가족부내에 청소년 임신 담당부서를 뒤 10대들의 임신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혼모를 위한 주거서비스의 대부분은 10대를 위주로 하고, 성인이 된 미혼모는 한 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미국에서 빈곤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TANF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 부모들은 아이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청구에 협조하고 생애기간 동안 5년 이내로 제한된 수습기간 규정으로 인해 취업이나 학업 지속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일본 = 대부분 한 부모 정책과 아동정책 내에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 아동 지원 사업은 주로 '모자 및 과부 복지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신 예방을 위해 사춘기 건강고실, 사춘기 임신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주택지원사업으로 모자 생활지원 시설 모자료와 모자 아파트 등이 있다.

- 토론

참고서적

- 별을 보내다
- 걸 페미니즘 241
-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 제 4장 그녀들의 선택
- 연애와 사랑에 대한 십대들의 이야기 4부 임신, 출산, 피임, 낙태

가

목차

1. 우리나라 담배 역사
2. 나의 담배 역사
3. 담배연기의 정체
4. 니코틴의 작용
5. 담배연기 속 폐놀 물질 알아보기
6. 흡연자의 몸
7. 나의 몸
8. 잘 못 알고 있는 담배
9. 금단증상 알기
10. 행복한 금단증상
11. 나의 금연 일기
12. 금연 방법
13. 대마초는 왜 불법일까?
14. 나의 생각

1. 우리나라 담배 역사



조선에는 임진왜란(1592~1598) 때 일본으로부터 고추, 호박 등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령초, 연다, 연주, 담박괴, 담파고, 담바구 등등 다양하게 불렀다. 현재 남아있는 문헌(옛날의 제도나 문물을 아는 데 증거가 되는 자료나 기록) 중 가장 오래된 담배 언급은 1614년 이수광이 펴낸 지봉유설 이다. 서구(유럽+북아메리카 여러나라)와는 다르게 말아 피우는 시가 대신 파이프 담배라 할 수 있었던 '곰방대를 사용하였다.'

2. 나의 담배 역사

첫경험

나의 담배역사는 중학교부터 시작되었다. 14살 겨울방학에 영국으로 WWOF(전 세계의 있는 유기농가에서 일을 도와주는 대신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 활동을 갔다. 런던에서 포래의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는 윌리엄스(Williams) 라는 친구였다. 나와 내친구들과 가까워지고 밤에 거리로 나가 놀다가 말보루 레드를 권했다. 그 당시 난 아버지가 담배를 피고 있으셨고, 담배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한 어린이였다. 몇번의 거부틀 하였지만 끝 없는 권유 끝에 한 개비를 받고 흡연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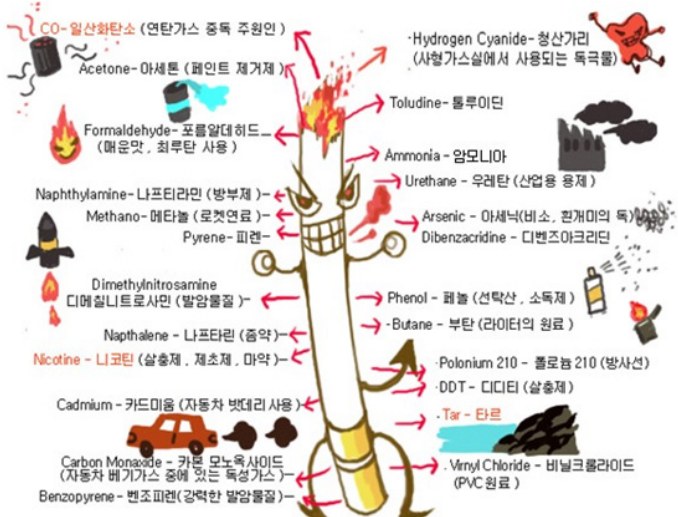
본격적인 흡연

영국을 다녀온 뒤 겨울방학이 끝나 학교로 향했다. 그때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기분을 다시 느껴보고 싶었지만 나는 담배를 살 강도 없었기에 구할 방법이 없어 학교로 가던 중 아버지 자동차 안에 담배 한 보루가 있었다. 아버지가 커피를 사러 가실 때 한갑을 가방에 넣었다. 그 당시 기숙사에는 흡연자가 정말 많았고, 나 또한 선배들이 피는걸 몰랐기에 이들에 한 개비를 하였다. 그러다 친구들도 호기심에 담배에 관심을 보였고 그 당시 같은 반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고 담배를 주었다. 할 기회가 많아지고 점점 피는 회수가 많아졌다. 본격적인 흡연을 한 나이는 어리고 어린 15살이었다.

지금의 흡연

금연을 번번히 실패하며 아직까지 4년째 담배를 입에 물고있다. 10년 20년 흡연을 하신 분도 금연을 하는데 뭐라 핑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에 한 개비가 하루에 한 개비가 되고 많이 핀다 싶으면 이들에 1갑을 피운다. 다만 학교분위기도 그렇고 흡연자의 피해를 흡연 후 냄새를 빼고 입에 가글스프레이를 뿌리고 학교에 들어간다. 옛날에 비하면 진지한 흡연을 진행하는 중이다.

3. 담배연기의 정체



담배연기에는 4,000여 종의 유해성분이 있다. 이 중 80여 종이 발암물질이다. 위 사진과 같이 담배에는 많은 종류의 유해 물질이 있다. 이러한 담배에는 1급 마약류인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 니코틴은 흔히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타르,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에 가려지고 소변으로 배출된다 하여 저평가 받고 있지만, 니코틴은 의존,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시정(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주로 식욕억제, 진정이나 수면과 같은 의약품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남용 효과는 환각, 환청, 뇌손상등이 있다.) 물질로 혈압을 높여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장에서 방출된 혈액이 온몸을 한 바퀴 돌고 나면 흡수된 니코틴의 35%가 뇌에 전달되는 데 이로 인해 뇌졸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세혈관 수축으로 탈모를 유발하기도 한다.

4. 니코틴의 작용



첫번째 심장박동수가 올라간다. 담배를 피운 뒤 7초가 지나면 뇌에 니코틴이 전달된다. 전달이 되면 몸에 반응이 나타난다. 쉽게 알 수 있는 심장박동수가 올라간다. 다음은 심장박동수가 올라가면 혈압이 높아진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마비, 뇌졸중, 신부전(신장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 안에 노폐물이 쌓여서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다음은 혈액순환 장애 담배 연기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생체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일을 한다.) 이 산소를 운반할 수 없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더디게 하게 된다.

두번째 신경계의 문제가 생긴다. 니코틴의 신경계에서의 작용을 보면, 자율신경계(자율신경은 신체의 적절한 내부환경 유지에 필요한 세밀한 내적 조절기능을 한다.)내의 모든 니코틴 성 수용체와 결합하여 모든 고감, 부고감 신경에 흥분 작용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의 대해서는 니코틴은 자율신경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흥분 작용을 일으키지만 나중에는 마비시키게 됩니다.

세번째 내분비계에 문제가 생긴다. 내분비계는 우리 몸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체기관들을 총칭한다. 혈중 지질농도가 높아 지는 것 입니다. 다음으로 혈 중 포도당이 올라갑니다. 포도당이 높아지면 당뇨병이 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과민성 방광을 일으킨다. 과민성 방광은 따로 감염경로는 없고 다른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을 말한다. 심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화장실을 가기도 한다.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방광의 저장기능은 자율신경계가 담당하고 있고, 대뇌는 방광의 수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방광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면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네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발생시킨다. 카테콜라민(교감신경 자극전달물질)이 담배로 인해 생기는데 담배를 피면 정리되고 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담배를 피면 필수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발생시킨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 당뇨병, 심장병에 위험이 됩니다.

다섯번째 소화기에 영향을 미친다. 위액분비량이 많아진다. 위액 분비량이 많아지면 위염으로 속이 쓰리게 되고 위에 구멍까지 나는 사태가 발생한다. 위 운동도 중단된다. 위 운동이 중단되면 소화불량 상태가 된다. 소화불량 상태를 이어가다 보면 체중감소, 구역질, 구토, 피로감이 생긴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간이 구멍이 나는데 이때 위궤양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궤양은 위장 점막(외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신체기관들의 내벽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이 염증에 의해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움푹하게 패인 상태를 위궤양이라고 한다. 위가 무력 하다는 것은 음식을 먹어도 위가 움직이지 충분히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위가 움직이려면 위 근육이 움직여주어야 하는 것 입니다.근육이 움직이려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에너지는 혈액이 운반해주는 영양소와 산소를 가져다가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 입니다.따라서 위가 무력 하다는 것 이나 위염, 위궤양은 위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위 근육세포에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궤양, 위염이 생기는 원인이 혈액이 혈액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왜 혈액의 기능이 비정상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혈액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혈액이 순환하고 있을지라도 일할 수 없는 노화된 혈액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이것은 혈액이 탁하고 병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6. 흡연자의 몸

첫 번째 주름살이 많아진다.

하루에 1갑하는 사람이 30년간 또는 2갑하는 사람이 15년을 피운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2.8배, 50년간 피운 사람은 5.5배 이상 주름살이 많다고 한다. 주름살이 생기는 원인으로서는 태양광선 노출 여부도 중요하다. 하루 5시간 태양에 노출된 사람이 2시간 이내인 사람에 비해 4.8배가 주름살이 많다는 결과도 나왔다. 흡연을 하면서 하루 5시간 이상 태양에 노출된 사람은 흡연을 하지않고 하루 5시간 이내 태양광선에 노출된 사람에 비해 주름살이 11배나 많아 담배와 자외선이 주름살 형성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배가 된다는 사실이 서울대 의대 연구진이 입증했다.

두 번째 백내장

우리 신체기관 중에 세밀하게 우리 건강을 볼 수 있는 혈관이 눈의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담배 피해를 가장 심각하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안구의 수정체(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하는 눈의 한 부분이다.)가 혼탁해져서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이다. 백내장은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며 수술로 치료를 할 수 있다. 백내장은 주로 노화가 원인이 되는데 흡연이 백내장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세 번째 장자기형

정자기형이 발생한다. 정자기형은 정자가 기형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정자기형이 흡연에 끼치는 영향은 뭘까? 흡연은 하루에 1갑 이상 흡연하는 경우에는 적게 흡연을 하는 남성보다 정자의 운동성이 감소되어 있고 기형정자가 많았다고 한다. 담배를 1갑 미만으로 흡연하는 경우도 흡연을 하지않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정자의 운동성이 감소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하루 1갑 이상 흡연을 하는 경우 정액의 양이 감소하고, 기형 정자가 증가하며 운동성이 감소한다.

다섯 번째 혀 백반증

혀 백반증은 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병으로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지만, 40세 이상의 성인에게 많이 나타난다. 특히 음주와 흡연을 하는 남성에게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혀 백반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흡연, 음주와 자극적인 음식과 같은 잘못된 식이 습관에서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혀 백반증은 혀, 잇몸 주위에 자주 발생하며 궤양이 동반될 경우 통증으로 인해 불편감을 줄 수 있다. 보통 일주일일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3주가량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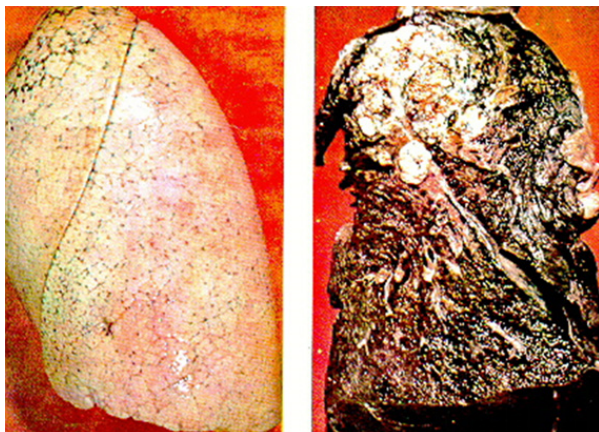
여섯 번째 구강암

구강암은 입안의 혀, 혀 밑바닥, 볼 점막, 입천장, 턱뼈 등에 발생하며 이를 총칭하여 구강암 이라고 한다. 구강암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강암의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음주, 바이러스, 방사선 등이 있다. 위험요인 중 하나인 흡연은 구강암이나 호흡기 암의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암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구강암에 걸릴 위험성이 2배 이상 된다고 한다. 구강암 환자에 약 72%가 흡연자였으며, 이 중 약 60%가 하루에 한 갑 이상의 흡연을 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특히 씹는 담배가 주된 기호품인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볼 점막에서 암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곱 번째 폐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를 구성하는 조직 자체에서 암세포가 생겨난 원발성 암과,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긴 뒤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로 옮겨 와서 증식하는 전이성 폐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암의 위험요인은 흡연이다.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이다. 담배에서는 7,000종 가량의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암 물질로 알려진 것이 60여종 이상이다. 담배를 피우면 그러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이 걸릴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한다.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는 담배를 피우는 양이 많을수록, 일찍 흡연을 시작할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또한 피우는 형태와도 관련이 있어서,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깊이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 한국 남자들의 여전히 높은 흡연율,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는 흡연 인구가 감소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금연운동을 시작하고 30년이 지나야 폐암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여러 나라의 경험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흡연 증가율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왼쪽이 비흡연자고, 오른쪽이 30년차 폐암 흡연자다. 흰부분은 폐암이고, 검은부분은 타르 등 검은물질입니다.

여덟 번째 혈액순환



사진 첨부를 넣지 않으려 했지만,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약한사진이라도 넣었다. 버거시병이라고 불린다. 본명은 폐색성 혈전 혈관염이다. 병명을 보면 어떤 병인지 알 수 있다. 폐색성이라고 하는건 막힌다는 말이다. 혈관이 막힌다. 그리고 혈전 때문에 막히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 병은 암과 함께 흡연으로 생길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병이다. 발끝이 썩어 들어간다, 발끝을 자른다. 그 다음에는 발 중간 부위를 자른다. 그 다음엔 발목 밑을 자르고 이렇게 점차 하체를 절단해 나가는 질병이다. 그 와중에 지독한 통증은 서비스다. 이 질병으로 인해 마약 중독이 되어 전국의 응급실을 떠돌아다니면서 마약 주사를 갈망하던 환자도 있었다. 왜냐하면 마약 중독을 의심받으면 마약을 안줄 수 있으므로, 계속 한 병원에서 마약을 주사 못하니 이 정도만 말해도 얼마나 지독한 질병인지 알 수 있다.

7. 나의 몸



첫 번째 피부

정확히 담배를 처음 물기 직전에 모습이라 사진을 가지고 왔다. 난 흡연으로 인해 제일 피해본 곳은 크게 뽑자면 당연히 피부다. 물론 내가 피부를 관리할 못한 것도 조금은 힘을 붙였지만, 피부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담배를 한 개비, 두 개비 하고, 하고 난 후 이제 몇 갑을 폼을 폼을 수도 없을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하고 피부도 그만큼 안좋아진 것 같다. 담배를 피기 전 얼굴에는 수분이 많았고, 도자기 피부라고 사람들이 부러워 했다. 하지만 이 도자기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지금은 복원을 위해 노력 중이다.

두 번째 혈액순환

흡연하기 전 저는 정말 손발이 따뜻하고 여름에 아이스크림 사면서 땀을 빼는 사람이 었다. 담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싫었지만, 담배를 핀 15살 이후부터 항상 손과 발이 너무나도 차가웠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받아 외부 지인을 만날 때 캔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했다. 봄과 가을, 겨울이 오면 샤워를 하면 항상 몸과 손발이 너무 체온이 달라 샤워를 할 때 마다 등과 몸은 따듯한데 손과 발만 너무 뜨겁다. 소소하지만 이런 사소한거로부터 병이 오는 것이다. 흡연자는 자기가 병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없으니까 요새는 버거시병일까 싶어 항상 손발을 올라와서 확인하며 씻는다.

8. 잘못 알고있는 담배

첫 번째 흡연은 스트레스에 도움이 될까?

보통 의부사람이나 우리학교에 건강위기가 설문한 걸 보며 알았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핀다, 논문(스트레스)" 이런 말들이 대부분 이었다. 그럼 과연 흡연이 스트레스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정신건강을 해치는 행위다. 흡연 시 니코틴은 혈관을 통해 뇌에 도달하여 도파민분비를 활성화시켜 쾌감을 주어 일시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긴 한다. 하지만 굉장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금새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한다. 금연을 할 경우 오히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정신건강도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담배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원인임에도 흡연자들의 잘못된 믿음이 금연의 걸림돌이 된 것 같다.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 보다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비흡연자 보다 스트레스를 인지하는게 1.9배 이상 높으며, 2주 이상의 우울상태는 1.7배 자살생각도 2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 다.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온다.

두 번째 순한담배가 몸에 덜 해로울까?

순한담배가 만덜어진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다. 왜냐하면 니코틴 성질 문이다. 한림대학병원 연구팀이 흡연남성 5백 여명을 대상으로 담배 종류와 체내에 흡수된 니코틴 양을 조사했더니 저니코틴 담배를 피웠을 때 니코틴 흡수량은 일반담배의 84%나 되었고, 초저니코틴 담배를 피웠을 때도 일반담배의 78%나 되었다. 초저니코틴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 양이 일반담배의 30%도 채 안되는 것과 비교하면 체내에 흡수되는 니코틴 양에는 별 차이가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순한담배 라고 하더라도 체내에 흡수되는 니코틴양에서는 표시된 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약간 감소 한다는 것, 또 순한 만큼 많이 피우기 문에 오히려 건강에 더 나쁘고 경제적부담도 증가한다는 것, 하지만 순한 담배를 독한담배 피우던만큼만 피운다면 효과가 없지는 않다는 것 이다. 참고로 최근 미국에서, 담배제조사들이 순한 담배 광고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순한 담배가 몸에 덜 해롭다는 식으로 믿게 만드는 것은 기만이라고 표시한 바가 있다.

세 번째 흡연으로 다이어트가 가능할까?

살 빠지는게 맞다. 왜냐하면 HCN(맹독성의 무색 액체이다.)이 담배안에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비타민B,C,D 아주 클린하게 없애준다. 그럼 우리 몸은 영양공급이 어려워진다. 비타민류가 없어지면 다른 영양조화가 떨어져서 제대로 섭취가 안되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 1kg~3kg 빠질 수 있다. 문제는 몸이 망가진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는 건 1~2kg 때문에 몸이 더 큰 피해를 보기 되었다. 다이어트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한다.

네 번째 흡연은 정신 및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방송국을 가보면 기자, 작가, PD등 이런 분들이 담배를 입에 많이 물고 사시는 분이 많다. 돈이 없어서 광고촬영을 한적이 있는데, 소속사 담당 PD님, 작가님이 "집중도 안되는데, 잠깐 담배나 피러가자." 난 궁금했다. 흡연을 하기 하지만, 난 그런 건 못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흡연자가 아닌 척을 하였다. "담배를 피면 집중 되요?" 그러자 작가님이 "담배를 피면 사고력이 생기고, 그러면 글이 좀 더 잘 써진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것까지 모르겠다만 몸에 끼치는 것만 봐도 아닌거 같다. 몸과 건강이 나빠지는데, 어떻게 사고가 좋아질까 심지어 흡연 때문에 피가 응고되고 그걸 쌓이다 뇌졸중이 그냥 멋지게 등장해버리는데, 이건 아닌거 같다. 단 니코틴으로 인해 느끼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9. 금단증상 알기

지피지기 중요하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거다. 항상 나의 금연 방법은 똑같았다. 막연히 '끊자, 금연하자, 다시는 안 피운다.' 3개 중 하나였다. 이번 인문학으로 금연방법도 알게되었다. 2019년 1월 1일에 잘 써 먹어야겠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담배를 막연히 끊어버리면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반응에 참고있는 것 또한 괴롭지만, 이 반응에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포기한다. 그래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금단증상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그 순간을 넘기는게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금연을 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금단증상을 모아보았다. 흡연 욕구 말 그대로 담배가 계속 피고 싶어지는 것이다. 다음은 우울증이다.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다. 우울증은 흔한 정신질환으로,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고 싶다. 보통 우울증은 성적저하, 대인관계의 문제, 휴학, 등 여러가지 그냥 모든 것 이라 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이를 수 있는 뇌질환이다. 다음은 안절부절이다. 비흡연자에게 비유를 뭘로할까 고민하다 2분이라는 시간 끝에 비유 할 것을 생각했다. 핸드폰을 항상 들고다니고 있다가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안절부절 할 것이다. 흡연자도 금연을 하면 마찬가지다. 항상 담배를 태우다가 담배가 없으면 허전하고 뭔가 안절부절 하는 것이다. 안절부절을 이어서 집중력 저하가 온다. 담배가 계속 생각나고, 하던 일을 하던 중에도 담배 생각에 집중이 안된다. 그래서 집중력 저하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담배가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집중이 안되서 일도 안되니까 짜증이 나고 평소보다 공격적이고, 민감한 것이다.

10. 행복한 금단증상

전에는 금단증상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어떻게 담배를 상대로 정신승리를 하고, 금연을 이어갈까? 음 세가지로 모으고 생각해 봤다. 첫 번째 금단증상은 금연하는 사람만의 특권이다. 두 번째 니코틴으로부터 자유인이 되가는 과정이다. 세 번째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보람을 얻는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다면 담배가 나쁜 것을 바로알고 끊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이건 무한정 괴로운게 아니고 몇 주 참으면 되는데 그 참는방법이 어떻게 있다. 라고 알고있으면, 금연이 가능하다.

11. 나의 금연일기

2016년 9월 2일

금연을 하고 있다. 담배를 부셨다. 근데 중요한 건 집에 혼자있다.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솔직히 피고싶다. 담배 버린 걸 찾으려 가려다 자존심이 있어서 안간다. 조금만 더 참아 봐야겠다.

2016년 9월 4일

미쳤다. 요플레이후~ 뭔가 금연을 하고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담배생각이 너무 난다. 점심에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에 담배가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였다. 처음보다 더 하다. 이건 희망고문이다. 정말 정말 소원이 있다면 담배를 한대만 피고싶다. 참고 자야겠다.

2016년 9월 10일

처음 2~4일이 힘들다. 그 기간만 지나면 덜 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보고 싶다.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다. 처음으로 롤을 하다가 멘탈이 나갔다. 욕을 먹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차단하거나 무시하고 게임을 하는데 오늘 욕을 하도 해서 힘이 빠진다. 좀만 더 참아 봐야겠다.

2016년 9월 26일

여자친구와 싸웠다. 개 웃기다. 웬 만하면 안 싸우는데, 싸웠다. 난 돈까스가 먹고 싶었고, 여자친구는 회를 먹고 싶다고 하였다. 여자친구가 마법의 날인데 내가 챙겨주지 못 하고 오히려 불 난 집에 부채질을 해버렸다. 사실 오늘은 내가 잘못했다. 자기가 밥 산다고 날 질질 끌었는데 아니 그럼 나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지를 말던가 아니다. 모르겠다. 내 잘못이 더 많은 것 같다. 담배로 민감해진 걸 여자친구에게 괜히 불똥이 튀긴 것 같았다. 오늘은 돈까스를 먹었지만 내일은 내가 회를 사 줘야겠다. 중요한건 아직도 담배가 피고싶다는 것이다.

2016년 10월 3일

오늘로부터 금연이 실패로 마무리 되었다. 어제 한달을 참았다며, 기뻐하고 뿌듯했는데 오늘 피워버렸다.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금연일기니까 자세하게 써야겠다. 금연 기간 중 술은 정말 안되는 것 같다. 자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담배를 권했을 때 고민했지만 두 번 가자고 했을 때 난 너무 좋아 방방 뛰며 담배를 피고 혼자 현자타임이 와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친듯이 후회되고 지난 한달에 나에게 너무 미안하다. 언제 금연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동안 하기 싫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은 금연하다 담배피면 그 순간만 좋지 담배 불 끄고 후회하는 건 100%다. 미래의 내가 이글을 보고 알았으면 한다.

12. 금연 방법(일반 적 금연요법)



일반 적 금연 방법을 소개 시켜주겠다. 전문의약품 방법이다. 병원을 가서 담배 끊으러 왔습니다. 하면 의사가 진찰하고 금연약을 처방해 줄 것이다. 그럼 그걸 먹고 금연을 할 것이다. 근데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 있다. 이 약은 사실 원래 금연 약이 아니다. 이 약 말고도 다른 금연약들도 마찬가지다. 전세계 어딜가도 금연약 없다. 뭐 잡아갈 수도 없는 거고 마약처럼 받아드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상담해주고 약 처방해주고 신체기능 향상시켜주고 시간이 지나서 몸이 회복되면 내보내면 된다. 근데 흡연자는 너무 많아서 그게 안된다. 법도 없다. 그래서 안되니까 대안으로 나온게 한 의사가 정신 질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담배 끊는 사람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내고 정신질환자랑 비슷해서 함 우울제 약을 처방했고 이게 도움이 되어서 똑 같은 성분을 이름만 바꿔서 금연약으로 만든 것이다 금연약 다음으로 니코틴 요법이 있다. 말 그래도 니코틴을 몸에 넣는 거다. 담배를 왜 못 끊나 니코틴 때문이다. 니코틴만 몸에 들어가면 담배 태우는 것 보단 안전하다. 그 다음으로 니코틴 문에 담배를 못 끊으니까 몸에 니코틴을 넣어주면 몸이 편안하다. 다만 이것 일정하게 계속 똑 같은 양으로 하면 안된다. 어찌되든 니코틴은 몸에 영향을 주니까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 날마다 니코틴 공 급량을 내 몸이 알아차리지 못 할 만큼 조금씩 줄여준다. 그럼 조금 또 조금씩 몸의 기능이 향상되고 나도 모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 붙여도 몸이 건강하다 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한의원 귀침요법이다. 한의원에 가면 귀에다가 침을 놓고 침을 맞으면 신경을 자극해서 담배 맛을 떨어트리게 하는 방법이다. 누구나 효과를 못보는게 탈이다. 될놈될이다.



다음은 기체흡연요법이다. 전자담배는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사용을 해보았을 것이다. 전자담배는 2가지로 나누어 진다.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다. 수분을 숨에 적셔서 열을 가해서 흡입하는 순간에 입에 수증기가 연기같이 나오는 것이다. 단순 기분전환이다. 근데 다른 한가지가 니코틴이 있는 전자담배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니코틴은 무색, 무취, 무맛이다. 자신이 느끼지를 못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일반 담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니코틴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니코틴 중독이 심해지고 담배를 못 끊는다. 전자담배를 멈추면 일반 담배를 다시 손에 드는 것이다. 이걸 잘 사용해야한다. 니코틴 패치랑 비슷하다고 정리하고 싶다.

다음은 생활 금연법이다. 돈 안들이고 몸도 좋게 끊는 방법이 뭐가있냐 금연 의지다. 담배는 못 끊는게 아니라 안 끊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의지를 가슴 속에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법이다. 우리몸에 영양가 공급이 잘 되면 우리 몸이 편안해 진다. 짜증도 없어진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과일, 채소등을 많이 먹으면 신기할 만큼 담배를 안 피게 된다. 다음은 아주 중요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적인 금단현상이 나타나면 담배 대신 대안을 알려 줄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게 물 마시기다. 그냥 물을 말하는게 아니다. 꿀물이다. 하루 먹을 물(2L)을 병에 만들어서 꿀을 두 숟가락 타고 흔들면 꿀물이다. 따뜻한 체온 정도의 꿀물을 담배 태우고 싶을 때 천천히 나눠먹는다. 그러면 담배 태우는 1~2분 대신 물 한잔을 1~2분 나눠마시면 우리머리가 편안해 진다. 꿀물이 없다면 대추차도 가능하다.

13. 대마초는 왜 불법일까



대마초를 허용한 국가 중 하나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워싱턴 등 6개의 주가 합법화 되어있고, 최근에는 캐나다가 전국적으로 대마초 합법화가 되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이다. 왜 일까 담배는 1급 마약이고, 대마초는 3급 마약이다. 근데 왜 대마는 못하냐 담배는 환각증상을 가장 크게 보고있는 것이다. 담배는 환각증상이 없다. 대마초는 환각증상이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노동의 나라는 특히나 대마초를 풀어 줄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한다. 근데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건 다 핑계라 생각하고 대마초가 합법화 된다면 담배에서 대마초로 사람들이 갈아타게 될 것이고, 대마초를 키우는 사람 또한 생길 것이다. 대마초를 직접 키우면 세금도 불이기 어려우니 우리나라 정부가 좋아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14. 나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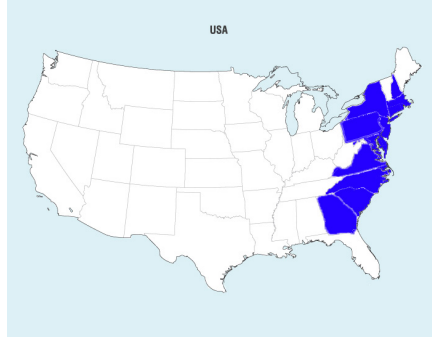
BLACK MUSIC from
시대 속 음악

1. 아메리카 대륙의 시작과 남북전쟁

입성

1492년, 포르투갈 사람 크리스토퍼 콜롬버스는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카리브 해 어느 작은 섬에 도착했다. 그는 새로운 대륙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렇게 아메리카 땅에 유럽인들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16세기 영국 역시 아메리카 대륙에 눈독을 들였다. 영국은 이내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했고, 현재 미국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버지니아에 정착했다. 스페인이 남아메리카 지역을 점령한 반면, 독일은 현재 미국 영토의 동쪽 부분을 지배하게 되었다.



식민지의 성장

영국 식민지에는 새로운 농업사회와 상업사회가 등장했다. 북부의 경우 산업사회가, 반면 남부지역은 농업사회가 주요했다. 북부와 달리 타운과 도시의 성장은 더뎠고, 그들은 플랜테이션에 투입할 노동력이 필요했다. 여기서 노예제도가 시작된다.

노예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허락 없이 주인의 농장을 떠날 수 없으며, 일몰 후 바깥출입을 할 수 없고 교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노예와 모임을 가질 수 없었다. 이외에도 노예제를 통한 여러 규제가 있었는데, 누구라도 아프리카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흑인으로 간주되었다.

흑인의 삶

백인 농장주들은 흑인들이 일을 할 때 서로 대화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 말도 하지 못하자 노예들은 울분을 하늘에 토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필드홀러(Field Holler)라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필드홀러는 종류도 많아졌고 형태도 다양해졌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동요였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구전된 필드홀러는 개신교와 만나서 '가스펠'이 되는 한편, 보다 넓은 사회와 만나면서 발전한 필드홀러가 '블루스'다.

미국혁명

18세기 미국은 일련의 사건들로 영국과 사이가 멀어지고, 이내 혁명을 일으켰다. 1776년 독립선언을 하고 1781년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하게 되었다. 전쟁 당시 영국군은 미국의 전세약화와 교란을 위해 흑인노예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도와 주기도 했다. 또한 자유라는 사상이 전국 흑인노예들에게 퍼지고 저항의 운동이 일어났다.

독립전쟁 이후 미국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운송, 통신, 대량생산 기술 등 여러 변화가 빚어낸 결과였다. 미국 북부는 산업화가 가속되었다. 남부도 마찬가지로 사탕수수, 쌀, 담배, 면화와 같은 환금작물 무역으로 국제 통상의 주요 세력이 되었다.

북부에서는 1804년까지 모든 주가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남부 주에서는 인구가 서부로 이동하면서 노예제가 확대되었고, 꾸준히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제도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미국 남북전쟁

1800년대 미국은 '명백한 운명론'을 믿고 있었다. 그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전 북미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미국의 운명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영토확장에 열을 내고 있었고, 텍사스와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 서부의 대부분의 영토를 획득했다.

1849년 당시에 노예제 반대 주와 존치 주는 각각 15개로 균형이 맞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가 가입하려면 균형이 깨질 것이었고, 남부 주에서 연방탈퇴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슈였던 노예제도와 관련해 북부가 다수가 된다면 본인들에게 불리할거라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 1850년대 내내 이어진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인기,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새로운 정당 출현 등이 남부를 연방 탈퇴로 밀어넣었다. 결국 남북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났고, 노예들은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었다.

2. 시작

래그타임과 재즈

미국에 합병하기 전 루이지애나 주는 프랑스령이었는데,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흑인들에게 관대한 나라였다. 프랑스인들과 흑인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이들을 크레올이라고 부른다. 크레올들은 백인의 혈통을 따라 교육을 받고 백인과 같은 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19세기 말 크레올 사회에서 유행하던 음악양식이 있었는데, 이를 '래그타임'이라고 부른다. 주로 피아노 연주에 싱코페이션 리듬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래그타임을 재즈의 전신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당시 뉴올리언스는 크레올, 백인, 흑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다. 이 과정에서 크레올과 흑인의 문화가 섞였고, 이 과정에서 재즈가 탄생했다고 본다.

1930년대 스윙재즈

20세기 미국에 주요했던 혁신주의가 나타나면서 1919년 금주법이 생겼다. 그러나 금주법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합법적이던 술 판매가 불법이 되면서 범죄조직이 음주시장을 인수했고, 위법사태도 속출했다. 이러한 상황 속 미국 대공황이 도래했다.

대공황은 1929년 주식시장이 무너져내리면서 시작됐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였다. 1930년중반에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으로 어느정도 회복기에 접어들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문화적 산물을 만들어냈다. 바로 라디오와 영화. 그 당시 거의 모든 미국인 가정에 라디오가 한 대씩 있었다. 코미디나 모험물 등이 유행이었다.

이와 더불어 댄스홀 역시 활성화되었는데, 뉴욕의 댄스홀은 중상층 이상이 즐기던 자본이 모여 들던 곳이었다. 그 당시에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밖에서는 많은 젊은 이들이 죽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내의 경제는 비정상적인 호황을 누리며 춤과 여흥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방송이 발달하면서 스윙의 빅밴드라는 요소가 잘 먹혀들어갔던 것이다. 공황을 겪은 대중들은 밝고 희망적인 음악을 필요로 했고 스윙이 바로 그런 음악이었다.



1960년대 민권운동과 소울

1865년 북부의 전쟁 승리로 흑인들은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차별은 심각했다. 당시 미국은 전쟁이 끝난 후 유래없는 호황을 누렸는데, 이와 반대로 흑인들은 여전히 인종분리주의가 만연한 차별 속에서 살았다. 이러한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시작된 건 100여년 후인 1960년대다.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 위원회 사건과 1955년 로자 파크스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시작으로 많은 흑인들의 목소리가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60년대 들어 흑인음악은 점점 메인스트림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의 중심에는 뉴욕의 아틀랜틱과 디트로이트의 모타운 레코드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두 회사는 60년대 흑인음악의 성장과 함께 전국적인 배급망을 갖춘 거대 자본으로 확대되었다. 모타운의 대표적 인물로는 스티비 원더, 마빈 게이, 슈프림스, 잭슨파이브 등이 있다.

소울은 R&B에 기초를 두고 60년대에 만개한 흑인음악이다. 당시 대통령이던 케네디의 대대적인 흑인 유화 정책과 맞물려 흑인들은 자신들의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발 맞춰 그들의 음악에도 강렬한 메시지가 필요했다. 흑인들은 집회나 강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은 음악에서도 나타났다. 그들은 리듬 앤 블루스를 기본으로 하되 보다 선동적이고 뇌리에 남는 샤우트 창법을 사용하여 노래하기 시작했다. 소울은 음악 뿐 아니라 내용 자체에서도 흑인 인권운동에 일조하는 강한 어조를 띄고 있었다. 본래 가스펠의 세속적인 형식으로서의 소울은 처음에는 재즈음악에서 재즈뮤지션과 청취자의 인정성에 부합하는 음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으나 50년대에 이르러 가스펠 스타일의 보컬 창법과 힙크 리듬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음악을 지칭하게 되고, 60년대의 흑인 민권운동의 붐과 더불어 흑인음악을 지배하는 용어로 부상한다. 대중적인 혼 연주에서 스택스/볼트 레이블의 강직한 소울에 이르기까지 소울은 어마어마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힙합의 시작

힙합의 시작은 1979년 DJ 콜러크의 디제잉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뉴욕의 흑인 거주지였던 브롱스에서 매일 밤 하우스파티, 블록파티가 열렸다. 콜러크는 자신의 여동생 시디의 집에서 하우스 파티를 열었는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R&B나 힙크 음반을 자주 틀어주었는데, 그는 때때로 이 음악들의 간주부분을 계속 반복하여 틀어주곤 했다. 즉, 가사가 없는 비트만 계속하여 틀어준 것인데, 이 동안에 춤을 추는 사람들은 중앙으로 나와서 춤을 추곤 했고, 이들을 Kool DJ Herc는 "B-Boy(Break-Boy)"라고 부르곤 그들의 춤은 "Break Dancing"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또 Kool DJ Herc는 이 간주부분에 흥을 돋구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곤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랩의 시작이었으나, 그 내용은 관중들 중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거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의미 없는 두어 마디 정도였다. 그 뒤, Kool DJ Herc는 DJ일에만 전념하고 간주부분 랩을 하기 위해 따로 사람을 두었는데 그들이 Coke La Rock과 Clark Kent로 이루어진 Herculoids 이었고,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emceeing"(후에는 rapping)이라고 불렀다. 즉 이들이 바로 첫 힙합그룹이었던 것이다. Herculoids는 두어 마디 정도였던 랩을 몇 문장으로 늘려 가사에 라임(rhyme)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Kool DJ Herc 이후 많은 DJ들은 그와 같은 스타일로 힙합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힙합은 당시 유행하던 재즈나 펑크, 디스코와 같은 대서블한 음악을 믹스하여 탄생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퍼블릭 에너미, NWA와 같은 뮤지션들이 등장하며 사회비판과 정치색을 띄는 랩을 했고, 그와 대동해 힙합이 메인스트림에 발을 걸치게 됐다.



힙합은 1990년대 황금기를 거쳐 지금의 힙합으로 성장했다. 지금의 힙합은 머니스웍부터 이 사회의 현실을 비꼬는 풍자를 비롯해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음악의 한 장르로서 자리잡았다. 음악 뿐만 아니라 패션, 춤, 그림 등 다방면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빌보드 차트에 오른 많은 곡이 힙합곡이다. 힙합은 시작부터 디스코, 힙크 등과 섞이며 시작한 것처럼 다른 장르와도 잘 어우러지고, 그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넓고 다양한 음악적 문화를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힙합은 단순히 사회를 풍자하거나 지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파티음악이었다. 아무 의미 없는 가사의 노래도 유행을 타고 타서 엄청난 인기를 얻기도 한다. 흑인음악, 특히 힙합의 장악력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서 비유하자면 마치 풍을 싸도 박수쳐줄만한 그런 위치에 올랐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울분을 토하면서 시작했던 필드홀러에서 대중음악을 장악한 힙합까지의 흐름과 그 안에서 탄생한 음악을 통해 흑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음악을 가볍게 소비하는 것 또한 감상의 방식이지만, 그 음악의 역사, 연결고리를 알고 있다면 같은 음악이라도 더 깊게, 더 넓게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내 인문학의 목적이다.

성격 종으시네요

(목차)

0. 동기 - 너무나 다른 사람들, 성격
1. 성격 심리의 역사
2. BIG Five 5대 성격특성
3. BIG 5는 쓸만한 것인가?
4. 성격은 왜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5. 외향성, 초콜릿과 커피 그리고 섹스
6. 신경성,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7. 개방성, 4차원의 사람들
8. 성실성, 도박중독자와 성실맨
9. 친화성, 사이코패스와 공감자
10. 마지막, 성격은 바뀔 수 있을까?
- 끝맺으며.

동기 - 너무나 다른 사람들, 성격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혹은 당신의 주변 사람은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는가? 우리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간다. 그 중에는 친절하며 사고적인 사람도 있는 반면, 차갑고 조용하며 혼자 지내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도 있지만 부처처럼 온화하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우린 이런 특징을 특질, 또는 성격이라 한다. "기숙사를 늦게 내려오는 건 전형적인 이창기 짓이다" 이처럼 독특한 성격이 두드러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행동이 마치 대명사처럼 따라붙기도 한다.

성격은 무엇일까? 성격은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혹은 어떻게 생겼는가?

"성격은 분명 존재하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 . . .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들의 이면에,
그리고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성격이다."
-고든 올포트

성격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볼 수도, 들을 수도, 맛볼 수도 없다. 사전에서는 성격을 더러 '환경에 대하여 특정한 행동 행태를 나타내고, 그것이 유지되고 발전시킨 개인의 심리적 체계'라 한다. 성격심리학의 주창자인 올포트도 성격을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들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성격은 '각기 다르게, 고유하며, 일관되게 유지되는' 심리적 체계이자 하나의 행동양식이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이다.

사람들이 각자 고유하며(서로 다르며) 일관되게 유지되는(잘 변하지 않는) 성격을 가졌고, 성격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을 부추기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성격이 어떤 심리적 작용인지, 환경의 작용인지, 어떻게 다른지 따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럼 이러한 다양한 성격이 생기는 이유와 성격의 영향에 대해 파헤치고 나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면,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를 더 유용하게 할 전략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성격에 관한 공부가 자신과 타인을 더 깊고 효율적으로 이해하며 예측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1. 성격 심리의 역사

1970년 3월 12일 <동아일보>에는 '한눈에 상대를 아는 감정법'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담배 쥐는 법, 립스틱 칠하는 법, 걷는 법 등 사소한 몸가짐도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낸다.
(중략)

담배의 불붙은 쪽을 손바닥 안쪽으로 드는 남성은 비밀형의 성격이고,
재떨이에 크게 비벼 끄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주시를 받고 싶어 하는 인물이다.
립스틱을 입술의 선을 넘어서 그리는 여성은 신경질적이다.
작은 안경을 좋아하는 여성은 내성적이며, 큰 안경은 빈털터리로 파티를 여는 형이고,
사각형은 자신만만한 형이고, 동그란 안경은 정숙한 타입이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종족을 성격을 구분할 때, 위의 기사처럼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왔다. 그것도 길고 긴 인류의 역사만큼 여러번, 다양하고 독특한 기준을 창조해왔는데, 몇몇 역사적인 체계와 점법들이 4 체액설, 손금, 점성술, 혈액형과 같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체계는 모두 명확한 증명과 예측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과학의 반열에도 오르지 못한채 '신비한' 믿음 정도로 치부되기도 한다. 이제, 현대심리학으로 눈을 돌려 지금의 성격 심리학이 어떻게 학문적 차별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체계를 쌓아왔는지 알아보자.

-과학과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을 설명하며 프랜시스 골턴(1822~1911)을 지나칠 수 없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가족의 성격 유전에 관한 연구를 했기 때문이다. 쌍둥이 연구를 통해 ' 타고난 성격'과 '양육'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 확인 한 사람이 바로 골턴이며, 쌍둥이를 이용한 연구 방식은 이후까지 많은 성격연구에 쓰였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연구 방법이 현대적인 인식이라는 것이다. '학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리학과 '그렇지 못한' 심리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계량화의 정도이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의 중요한 주장인 '무의식'은 신경생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에 반해, 골턴의 연구는 몸무게, 반응속도, 머리 크기, 지문 형태와 수많은 특징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골턴은 언어를 이용해 성격을 측정하는 기초연구로 현대 성격심리학의 기초가 되는 특질이론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는 성격을 묘사하는 영어 단어가 최소한 1,000개라고 추산했으며, 이를 검사의 기준으로 이용해 성격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이후 올포트가 정리하는 '성격 어휘 연구'와 특질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이런 골턴의 업적은 과학이 마땅히 가져야 할 '계량 가능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성격'을 과학적 연구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질이론

올포트는 1936년 웹스터 영어사전의 40만 개의 단어를 모두 검토했다. 그중에 인간과 관련된 단어 1만 7,953개를 찾았고, 다시 성격을 나타내는 4,504개의 단어를 찾아 네 범주로 나누고, 특질이라고 명명했다. 여기서 특질이란 '생각이나 행동의 습관적인 패턴'을 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묘사할 때 '지적이며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할 때 <지적>, <성실>, <정직> 이 특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특질의 개념으로 성격을 설명한 것이 특질이론이다. 사람들이 성격을 묘사하는 데에 차이가 있는 건 특정 특질이 표현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특질을 종합해 그 사람의 고유한 성격을 알아낼 수 있다는 이론이다.

-상관관계 분석

올포트 이후로 특질이론은 기존 특질들을 분석해 범주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범주를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골턴이 제안하고 통계학자 칼 피어슨이 개발한 상관지수와 요인분석이라는 통계학적 기술이 성격심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상관지수란 A가 변화할 때 B는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관지수가 0이라면 A의 변화가 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상관지수가 1이라면 A의 변화에 따라 B도 똑같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격심리학 연구에서 상관지수가 0.1이면 적은 관계, 0.3 정도면 중간 정도의 관계, 0.5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특질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특질들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관계를 측정하는 통계학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A와 B의 관계가 아주 높은 0.8로 가정한다면, A를 좋아하는 사람은 B도 좋아할 확률이 아주 높다.

(예로는 키와 몸무게의 상관관계인데, 이 둘의 상관관계는 0.68이다. 1보다는 낮아 키만큼 몸무게가 정확히 비례하지 않지만, 0보다는 훨씬 크며 1에 더 가깝다. 즉, 한 사람의 몸무게를 예측할 때 키를 아는 것은 더 정확한 예측을 돕는다.)

-요인분석

하지만 상관지수 분석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분석할 특질의 수가 2개라면 1개의 상관관계가 추출되겠지만, 4개라면 6개, 5개라면 10개, 10개라면 무려 46개의 상관관계를 추출해야 할 만큼 분석해야 할 변수의 수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경우의 수가 상승한다.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 요인분석이 도입되었다. 요인 분석은 레이몬드 카텔이 처음으로 특질이론에 활용했다. 서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특질을 하나의 복합변수로 묶어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카텔은 올포트가 찾아낸 4,504개의 특질 중 비슷한 단어를 제외하여 묶는 방식으로 16개의 근본특질을 추출하여 정립했으며, 카텔의 16가지 성격유형이다.

(요인 분석은 복합변수가 개별 변수들이 서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해서 한 개별변수와 복합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5대 성격 유형의 등장

한스 아이젠크(1916~1997)는 일반인과 정신병자를 연구하며 '외향성'과 '신경성'을 발견하고 이후 세 번째 '정신병성'을 추가해서 세 가지로 분류했다. 아이젠크는 3가지 성격유형을 이용해 카텔의 16개의 성격특성을 한참 적은 분류로 포용하여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이젠크의 3가지 성격유형은 다른 이론으로 대체되지만, 그가 발견한 외향성과 신경성, 정신병성 등은 이후 이론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주류를 차지한 성격유형 모델은 5대 성격유형이 되었다. 도널드 피스크(1916~2003), 어니스트 투페스(1915~1917)와 레이먼드 크리스탈 같은 학자들이 5대 성격유형 모델을 주장했으며 1980년 루이스 골드버그(1932~)가 이를 'big 5'라는 용어로 정리한 바 있다. 이후 1985년 로버트 맥크레(1949~)와 폴 코스타(1942~)가 정립한 '5대 성격유형 모델'(big five)을 중심으로 학자들의 합의가 이뤄졌다. 맥크레와 코스타가 정립한 5개의 요인으로 카텔의 16가지 성격특성, 아이젠크의 3가지 성격특성이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2. BIG Five 5대 성격특성

맥크레와 코스타의 5대 성격특성은 골턴, 올포트, 아이젠크 같은 연구자들의 통계학적,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립된 견고한 이론이며, 많은 심리학자가 신뢰하는 이론이다. 성격심리학은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안정적이며 신뢰도 있는 체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5대 성격특성 이론은 현재 인지주의 성격 심리와 함께 성격심리학의 양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5대 성격특성'은 학계가 정리한 인간의 기본 성격의 구조라 할 수 있다.

사람 성격의 구조는 5가지 성격특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성격을 구조로 되어 있으며, 마치 키처럼 성격의 수치가 다를 뿐이다. 또한, 5대 성격유형 모델은 차원적 분류다. 성격을 몇 가지 특질로 분류해두고 개인의 특질 수치를 구하는 분류법이기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특질 수준이 집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보여준다.

-5대 성격유형 모델의 한계와 숙제

사실 5대 성격특성에도 불완전한 면은 있다. 특질이론이 '성격 어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이 언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성격심리학이 실제 인간의 신경생물학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 '덜'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PET 스캐닝과 fMRI 같은 뇌 촬영 기술로 신경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뇌를 절개하거나 삽입하지 않고도 뇌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신경과학을 활용한 성격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며 성격특성별로 뇌의 반응이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를 통해 5대 성격특성을 신경생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대 성격심리학의 중심 논제이다.

-나의 성격 진단하기

5대 성격특성은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문헌학 원고는 성격심리학 중에서도 이 5대 성격특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인지주의 심리학은 다루지 않고 있다. 5대 성격유형 모델을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면, 대니얼 네틀의 '성격의 탄생'을, 인지주의 심리학과 BIG 5의 전반을 읽고 싶다면 최현석의 '인간의 모든 성격'을 읽어보길 권한다.

5대 성격특성은 테스트를 통해서 5가지 성격유형의 수치를 구하며 그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 수치를 알아보자. 본문에 성격 검사지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심분 활용했으면 한다. 설명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5대 성격특성에 대한 설명에서 자신의 점수를 해석해보길 바란다.

- 이 진단표는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이렇게 5대 성격의 수치를 평하는 진단표이다.
- 각 문항에 자신이 대체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고, 다음 지시대로 점수를 합산해 자신의 성격점수를 매겨보도록 하자.
- 인종과 문화를 떠나 이 '5가지 성격특성' 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5가지 성격특성으로 모든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성격점수의 결과는 매우 정확하고 분석적이며 유용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중간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수
1.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다						
2. 다른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한지 확인한다.						
3. 그림, 글, 음악을 창작한다.						
4. 모든 일을 사전에 준비한다.						
5. 울적하거나 우울함을 느낀다.						
6. 회식, 파티, 사교모임을 계획한다.						
7. 사람들을 모욕한다.						
8. 철학적이거나 영적인 문제들을 생각한다.						
9. 일이나 물건을 정리하지 않고 어지럽게 둔다.						
10. 스트레스나 걱정을 느낀다.						
11.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다.						
12. 타인의 감정에 공감한다.						

- 다음 수치를 가지고 각 설문에 대한 점수를 기록하십시오.

1~6, 8, 10~12번에 대한 응답점수	7, 9번에 대한 응답점수
전혀 아니다 = 1	전혀 아니다 = 5
별로 아니다 = 2	별로 아니다 = 4
중간이다 = 3	중간이다 = 3
약간 그렇다 = 4	약간 그렇다 = 2
매우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 1

- 다음에 제시된 대로 각 문항 점수를 합해 5대 성격 각각에 대한 자신의 점수를 계산하시오.

성격특성	다음문항의점수를 더할 것	자신의 점수	성격 해석
외향성	1번 + 6번		
신경성	5번 + 10번		
성실성	4번 + 9번		
친화성	2번 + 7번 + 12번		
개방성	3번 + 8번 + 11번		

성격 점수 해석하기

-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 2~4점 : 낮음
- 5~6점 : 중하
- 7~8점 : 증상
- 9~10점 : 높음

- 친화성 - 남성의 경우(다른 남성에 비해)

- 9점 이하 : 낮음
- 10~11점 : 중하
- 12~13점 : 증상
- 14~15점 : 높음

- 친화성 - 여성의 경우(다른 여성에 비해)

- 11점 이하 : 낮음
- 12~13점 : 중하
- 14점 : 증상
- 15점 : 높음

- 친화성-모든 사람의 경우

- 10점 이하 : 낮음
- 11~12점 : 중하
- 13점 : 증상
- 14~15점 : 높음

-친화성은 성별로 점수의 의미가 다르다. 남성과 여성을 따로 놓고 볼 때, 각 점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최고 점수인 15점을 기록한 비율은 여성 약 16%, 남성은 4%로 여성이 상당히 높다).

- 개방성

- 8점 이하 : 낮음
- 9~10점 : 중하
- 11~12점 : 증상
- 13~15점 : 높음

- 5대 성격유형의 '성격특성'은 무엇인가?

5대 성격유형의 '성격특성'은 사전적 성격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지만, 조금 더 많은 의미가 있다. '고유하며 일관되게 유지' 특징은 같다. 다른 것도 있다. '성격특성'이라는 개념은 5대 성격유형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몇 가지 전제가 추가된다.

첫 번째는 성격특성은 그 '특성'과 그 '특성의 정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신경성은 '하나의 성격특성'이자, '신경과민적인 반응속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즉, 신경성이라는 성격특성은 '신경과민적인 반응속도'라는 신경생물학, 행동, 행태의 의미도 함께한다.

두 번째는 성격특성을 가리키는 말은 그 특성의 아주 극단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경성이라는 말은 '신경성 수치가 아주 높은' 상태와 '신경성 수치가 아주 낮은' 상태라는 의미를 모두 쓰인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을 한 특성으로만 직접 묘사할 수 없다. 대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는 '특성의 정도'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누구도 항상 특성의 극단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누구도 항상 신경과민상태에 있을 수 없다. 다만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신경과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3. BIG 5는 쓸만한 것인가?

그래서, 5대 성격특성은 유의미한 것일까? 이를 통해 내린 자신의 평가가 장기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용하다. 5대 성격유형이 유용하다는 것에는 여러 증거가 있다.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주변인들이 그 사람을 평가한 점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일정했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12년 동안 세 번 자신의 성격을 진단했는데, 12년 전과 12년 후의 점수 사이에는 0.68에서 0.85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순간의 기분이 약간의 차이는 만들겠지만, 그 차이는 아주 작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성격 점수는 10년이 지나도 사실상 일정하다. 또한, 자신이 평가한 성격 점수와 그를 잘 아는 사람이 평가한 점수 사이에는 보통 약 0.5에 달한다. 이 수치는 그를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상승한다. 성격은 꽤 정확히 측정되고, 꽤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성격 수치로 결혼생활을 예측할 수 있다.

성격점수와 행동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성격점수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골딘이 주장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스스로 외향성이 높다고 평가한 사람은 실제로 더 많은 말을 많이 했고, 신경성이 높다고 평가한 사람은 기분 나쁜 것을 보거나 생각했을 때 더 많이 기분 나빠했다. 이런 예는 아주 많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을 확대해 유의미한 주제는 성격 수치를 이용해 한 사람의 삶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로웰 켈리(1905~1986)와 제임스 콘리(1955~)의 연구이다. 켈리는 연구에서 논문을 발표하기까지 무려 52년에 걸친 연구를 했다. 연구를 간략히 소개한다.

- 1935년~1938년 주로 미국 코네티컷 주 출신의 약혼자 300쌍을 모집했다.
- 1954년~1955년 와 1980년~1981년 사이에 이들을 일일이 만나 그들이 어떤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 1930년대에는 각 부부와 가까운 5명의 지인에게 부부의 성격 수치를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를 통해 켈리는 부부의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의 4가지 평균 성격 수치를 뽑아냈다.

1930년대 지인들이 평가한 성격 수치를 통해서 부부의 결혼생활을 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첫 번째 남자나 여자 둘 중 한 명이라도 신경성이 높다면 이혼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높은 신경성을 가진 사람은 평소 더 많이 신경질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 수 있다. 또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결국엔 실제 삶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두 번째 남자의 성실성 수치가 낮다면 이혼 가능성이 더 컸다. 성실하지 않은 남자는 기본적으로 가장으로서도 좋지 않았다. 이 수치는 남녀의 역할이 전통적으로 구분되던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계 2차대전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이미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와 이혼한 부부 사이에는 대체로 외향성과 친화성의 차이가 있었다. 이 둘이 높을수록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보다 이혼할 확률이 높았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데 능숙하고,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불행한 결혼생활을 벗어나는 이런저런 노력을 하므로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신상태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냉담, 적의에도 개의치 않고 그냥 살 가능성이 크다.

-성격으로 수명 예측하기

성격 수치를 통해서 사람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을까? 1921년에 시작된 루이스 터먼의 연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의 연구를 간략히 소개한다.

- 1921년 지능이 높은 1,500명의 캘리포니아 주 소년 소녀를 모집했다.
- 이 아이들을 성인이 된 이후 1991년까지 추적했다.
- 터먼이 모아둔 아이들의 성격 자료를 이용해 하워드 프리드먼과 그의 동료들은 성격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1991년이 되자 터먼의 아이들 중 남자는 1/2, 여자는 1/3가량이 사망했다. 그중 성실성이 낮은 경우, 특정 연도에 사망한 비율이 30% 높았다. 성실성 수치로 죽을 예측한 것이다. 터먼의 아이들의 주요한 사망원인은 암, 심장병이었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았는데, 성실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술과 담배를 적게 하고 생활습관이 더 성실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린 시절 낙천적이고 사고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4. 성격은 왜 사람마다 다른 것일까?

성격은 '고유하며' 라는 조건이 있다. 즉, 사람들은 성격의 기본구조를 벗어나지 않지만, 그 수치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심리학 같은 행동과학에서는 '왜'라는 질문은 때로 '특정한 성격을 유발하는 신경시스템 구조는 뭔가?' 이기도 하다. 성격 심리학도 동일하게 기술 발전으로 PET, fMRI 같은 뇌 촬영 기술 덕분에 뇌 신경계의 크기와 형태를 측정하고 성격 수치와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성격이 뇌 구조와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 오랫동안 감정, 언어 등에 의지하던 성격이 뇌 영역의 조직의 크기, 구조, 반응의 차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성격의 차이 역시 뇌 구조와 작용의 차이로 설명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성격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지지 못한 것이 많다.

-성격, 타고난 것인가?

성격은 유전된다.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고유한 유전자 변이를 물려받고 발현되어 자신의 고유한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유전적 영향이 복사기처럼 부모와 똑같은 성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쌍둥이와 형제 연구를 통한 유전의 영향 연구는 이렇다.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100% 같은 유전자 변이를 공유하지만, 이란성 쌍둥이는 50% 만큼 같은 유전자 변이를 공유한다. 또한, 친형제 역시 50%의 유전자 변이를 공유한다. 따라서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이용해 유전적 요인과 양육환경이 성격의 탄생에 서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형제, 쌍둥이를 같은 혹은 다른 환경에 두면서 유전이 성격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된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가정의 일란성 쌍둥이는 성격 유사성이 거의 같다. 그런데 서로 다른 가정에 입양된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가정의 이란성 쌍둥이 역시 성격 유사성이 비슷한 수준이다. 심지어는 형제의 사례에서도 다른 가정에 입양된 형제들의 성격 유사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유일하게 다른 것은 생물학적 부모가 다른 형제간의 성격 유사성은 타인 만큼이나 유사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성격의 탄생을 40~50%는 유전자 변이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키의 유전율이 80%나 체중의 유전율 60%보다 약간 낮고, 지능지수의 유전율 50%와 비슷하다.

-성격, 환경의 영향인가?

성격을 발달시키고 만드는 요소에는 유전과 환경이 있다. 행동 유전학에서는 환경을 영향을 '공유환경'과 '개별환경'으로 구분한다. 이는 형제를 대상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공유환경은 두 형제가 같은 가정환경에 있다면, 그 둘은 부모가 조성하는 식습관, 양육 방식, 인생철학, 성적, 가족규모, 이혼, 재혼 등의 요소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개별환경은 두 형제간의 서로 다른 경험을 가리킨다. 동생은 2살 때 독감을 앓았지만, 형은 그렇지 않았다. 형은 부모가 키웠지만, 동생은 할머니가 키웠다든지 하는 것과 둘이 다른 유치원을 다니거나 하나가 다니지 않았거나 하는 것이다.

이 공유환경과 개별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성격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보건학자 앤드루 존슨이 1955년부터 2006년까지 발표된 145개의 연구에서 언급된 8만 5,640쌍의 일란성, 10만 6,644쌍의 이란성 쌍둥이와 4만 6,215명의 친족 관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5대 성격유형 모델의 유전과 환경의 영향은 이렇다.

특질	유전성	개별환경	공유환경
외향성	0.50	0.47	0.08
신경성	0.41	0.53	0.08
개방성	0.46	0.47	0.12
친화성	0.43	0.49	0.17
성실성	0.49	0.48	0.11

<표> 성격특질별 유전과 환경의 영향

이러한 행동 유전학의 연구에 의하면 환경의 영향은 유전의 영향과 유사하게 40~50% 정도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유환경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극단적으로 낮다.

- 공유환경

공유환경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관된 연구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것이다. 공유환경은 형제가 똑같이 겪는 환경을 가리키는데, 공유환경이 성격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꽤 명확하게 말해 주는 예가 있다. 같은 가정과 각기 다른 가정에 입양된 가정의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 의하면 공유환경이 성격에 미친 영향은 0에 가까웠다. 부모가 만드는 양육환경이나 양육태도가 성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심오한 결과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에 대한 두 가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부모의 행동과 가정환경이 자식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틀림없다. 평생에 걸쳐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이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뿐이다.

둘째는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것이다. 폭력적인 양육환경과 아동학대가 아이의 성격에 영구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공유환경에 관한 연구는 상식과 충돌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렇지 않다. 이런 대규모 연구는 대부분 정상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정상적인' 가정은 아동폭력, 학대가 아닌 적절한 자제와 지지를 보내주는 가정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공유 환경은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 가정환경

따라서 가정환경이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단순한 관념을 폐기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 정면으로 반박하는 몇 사례가 있다. 이혼한 부모 가정의 자식은 커서 이혼을 할 확률이 높고,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식이 폭력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 것 사례들이다. 그래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이혼과 우울증의 가능성이 더 큰데, 이들의 자녀 역시 그럴 확률이 더 큰 것은, 이들이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서가 아닌 애초에 신경질적인 부모의 유전적 변이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식이 폭력적이라는 것은 환경에 관한 연구가 아닌 유전에 관한 연구로 귀속된다.

가정환경의 대표적인 예는 부모의 차별적 대우다. 부모의 태도가 첫째에게는 따뜻하지만, 둘째에게는 차갑고 신경질적이거나 하는 식의 차별이다. 하지만 부모의 차별적 태도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다. 부모의 차별적 대우가 부모 자신에게서 왔는지, 혹 아이의 타고난 성격이 부모의 다른 태도를 유도하는 것인지다. 결과적으로, 후자가 맞다. 연구를 통해 부모의 차별적 태도는 아이의 성격이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이의 유전적 성격이 부모에게 상황으로 작용하여 아이에게 차별을 유도한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 차별적 대우의 원인 역시 유전적이라는 것이다.

-출생 순위 효과

다른 개별환경에는 학교,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들이 여기에 속하며 형제, 자매간의 서열도 있다. 형제, 자매의 서열이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아들러가 주장했다. 아들러는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성격에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를 꼽았다.

첫째 아이는 둘째가 태어나면서 상실감을 느끼기며 힘과 권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남을 지배하려고 드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이뤄놓은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둘째 아이는 형·오빠·누나·언니를 극복해야 할 경쟁자로 인식한다. 여기서 첫째가 화를 내고 약의적으로 대하면 신경증을 앓을 가능성이 커지고, 첫째가 보호적이며 지지적이면 건강하게 자란다.

가정의 막내는 보편적으로 가정의 '아이'로서 온 가족의 관심과 보호를 받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고 한다. 한편 외동아이는 대부분 경우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며 자라나는데, 그런 아이를 원치 않았던 부모라면 아이는 부모에게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게 될 것이며, 이후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진다.

아들러의 '출산 순위 효과'다. 이후 출산 순위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5대 성격특성에도 장남·장녀의 경우 성실성이 높았지만, 친화성이 낮았으며, 동생들은 말을 안 듣고 반항적이며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들러의 출산 순위 효과가 무의미하다는 연구결과도 매우 많다. '형은 성실하고 동생은 충동적이며 반항적이다.'라는 관측자의 관점은 결국 '형은 나이가 많고 동생은 나이가 어리다.'와 같을 수 있다. 따라서 형제간의 순위가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격을 예측하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크다.

-태아의 환경

우리에게는 키, 몸매, 힘, 지능, 매력 같은 신체조건을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영양결핍 상태에 놓이면, 태아는 결핍환경에 맞는 작은 체구와 심혈관 및 신진대사 시스템을 갖춘다. 이는 임신한 쥐가 스트레스와 위협상황에 놓였을 때 이런 주변 상황을 자식에게 호르몬의 방식으로 환경을 전달해 주변 상황을 '튜닝' 시킨다. 그 결과 아기 쥐들은 다른 환경의 쥐들보다 더욱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행동했다. 인간이 쥐처럼 반응하지는 않겠지만, 임신 중 남편이 죽거나 기근, 전쟁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어미의 자식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정신장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엄마의 스트레스가 직접 태아의 성격을 바꾸는지, 자식의 생리적 환경이 나쁜 영향을 받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즉 태아환경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몇몇 연구는 아이가 태어나는 계절에 따라서 외향성 수치가 변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북유럽에서 겨울과 가을에 태어난 아이들은 봄과 여름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새롭고 획기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능한 한 가지 설명은 가을/초겨울에 태어난 아이들이 더 건강하다는 것이다. 실제 태아 생존율은 현대까지도 가을/초겨울이 가장 높고,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는 것은 더 외향적일 수 있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신체조건

우리는 자신의 신체조건, 키, 몸매, 힘, 지능, 매력 등에 따라서 성격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몸매가 좋은 사람은 더 외향적이다. 몸매가 좋다는 것은 건강함을 의미하고 이런 특징은 성격매력이 된다. 외향적이라는 게 위험을 무릅쓰고 보상을 추구하는 성향이라면, 당연히 그 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육체적)을 가졌을 때 더 큰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이 위험한 보상을 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사람이 강하고 매력적인가에 많이 달려있다. 강하면 위기가 발생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매력적이라면 사회적으로, 또는 성적인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능이 높으면 어려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이런 사례는 아주 아주 많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체 조건에 맞게 성격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예로 남성의 경우 키가 클수록 대체로 외향성이 비례했다. 키가 큰 남자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이 남자의 욕망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의 키는 수입과도 대체로 비례했다. 수입 증가는 외향성의 결과이다. 외향적인 사람은 야망있고 경쟁적이며, 사고성 역시 풍부하여서 많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육체적 특징은 어린 시절의 질병이나 사고같이 이따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건으로도 영향을 받는다. 우연과 사건도 유전만큼이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의 사고가 한 사람의 평생 성격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동년배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 따위도 성격 형성에 미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외향성, 초콜릿과 커피 그리고 섹스 따뜻함, 사고성, 자기주장, 활동성, 흥분 추구, 긍정 정서.

아이젠크와 움 이후 현재의 5대 성격특성을 정립한 코스타와 맥크레가 이야기하는 외향성의 의미는 이러하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사고적이며, 자기주장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자극적인 일을 추구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말이 적고 침착하며, 처음 보는 사람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성향이 있으며, 지나치게 바쁜 생활을 싫어하고 평온한 상태를 좋아하고,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에리카라는 외향성 수치가 아주 높은 여성을 삶을 잠시 살펴보자. 그녀는 젊은 시절 외국어를 하나 배워 외국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10년 이상을 이탈리아에서 살았다. 그녀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가수를 꿈꿨는데, 이탈리아에서 한 밴드의 보컬로 노래했다. 관절염에 걸리기 전에 그녀는 "지칠 줄 모르고 걷는 두벌이었고, 기수였으며, 항해자였고, 오토바이족이자 요가선생이었고, 대서였다."

에리카는 충동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이런 그녀의 충동과 열정은 그녀가 표현한 로맨틱한 삶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녀는 사춘기 이후 인생을 지배한 것이 성욕이었으며, 결혼 전까지 상당히 난잡한 생활을 했다. 그녀는 남편과 이탈리아에 살 때 몇몇 유부남 애인을 둘 만큼 로맨틱한 생활을 했다. 그녀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풍부한 각각의 요소들, 여행에 대한 열광과 성적 욕망, 지칠 줄 모르는 다양한 활동들, 음악공연 등이 외향성의 특징들이다.

-내향적인 사람들

25세의 앤드루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뛰어난 청년이다. 현재 그는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으며, 매주 주말 만나는 좋은 친구들도 있다. 그런데도 그는 때로 한두 달 동안 친구들 만나지 않는다. 그는 몇 번 당일치기 여행으로 스코틀랜드에 간 적이 있지만 그 정도에 그쳤다. 그의 말대로 그는 "여행을 약간 좋아하기도, 약간 싫어하기도 한다."

그는 프로그래밍, 컴퓨터 음악 등 재능이 다분하지만, 그를 통해 돈을 벌고 유명해지는데 적극적이지 않는다. 앤드루는 곧 좋은 일자리를 얻겠지만, 오히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얻는 데 별로 흥분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다지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이 없었으며, 결혼, 소비, 지위를 얻는 일들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금융주의적이며 쾌감을 느끼지 못해 보이기까지 한다.

정상적이라면 쾌감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울증의 한 증상인 '쾌감상실'이라고 한다. 이런 쾌감상실, 우울증은 공포나 근심이 동반된다. 그러나 앤드루에게서 공포나 근심은 없었다. 그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으려는 부, 위치, 경력 등이 좋은 것을 분명히 인지하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가지겠지만, 생기지 않았다고 괴로워하거나 추종하지 않을 것이다. 친구 역시, 있다면 만나겠지만 없다고 안달하지 않을 것이며, 어쨌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데이비드 역시 외향성이 낮은 내향적인 첨단 생화학 연구원인데, 그의 연구소는 최근 연구비 조달에 실패해 연구소를 그만둬야 한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실업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의 기회로 보며 '실업자가 되면 자유를 얻게 되고, 돈과 지위에 별 관심이 없다.' 고 했다. 또한,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주는 보상에 무관심하며, 보상에 구애받지 않는 비범한 힘과 독립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외향성과 사회성, 외향성 친화성, 외향성 성실성.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수치가 낮은 사람보다 사고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말이 더 많으며, 파티를 더 좋아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한다. 또 외향적일수록 다른 사람보다 사람을 더 빨리 사귈다. 실제 대학 신입생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내향적인 사람보다 더 빨리 친구를 사귀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외향적인 사람일수

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고 관계를 좋아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며 더 빨리 사귀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외향성과 사회성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성이 좋다'의 반대인 '수줍음'은 외향성 수치가 아닌 높은 신경성이 원인이다. 즉 외향성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사고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것은 수줍은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뿐이며, 수줍음 없이 타인과 어울리기도 한다. 다른

그리고 외향성 수치가 높다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높은 외향성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이 '파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고모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새 친구를 얼마나 쉽게 사귀는지'의 지표가 될 뿐이며 '다른 학생들과 얼마나 조화롭게 어울리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는 친화성이었다. 외향성과 친화성 사이에는 명확한 특성이 차이가 존재한다.

외향성 수치가 높지만, 친화성 수치가 낮은 사람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친구를 무시하기도 하며, 파티와 술에 취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대판 싸우기도 하는 사람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있다면 그 행위를 즐기기도 한다.

외향성의 진정한 특성은 이런 것이다. 이들은 야망을 가진 경우가 많고(물론 그 야망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높은 지위와 사회적 관심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여가활동도 좋아하지만, 명예와 돈을 좇아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운동, 여행 그리고 신기한 것을 좋아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주변에서 보기에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

오랫동안 어느 정도의 충동성이 외향성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 충동성이라 미리 고려하지 않은 개인적,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박, 마약, 법 경시,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충동성은 외향성과 성실성의 공통영역이다. 하지만 마약과 같은 위험한 행동은 외향성보다는 성실성을 통해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밝혀지겠지만, 외향성과 성실성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행복한 감정

외향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낀다. 일상생활에서 외향성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외향성 수치가 낮은 사람보다 기쁨, 욕망, 열정, 흥분 등의 상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에리카의 경우, 그녀는 지금 상대적으로 조용한 삶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 일상을 "즐기고 있다"고 말한다. 또 그녀는 토요일 오전 그녀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나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자는 것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표현했다.

윌리엄 플리슨은 순간순간 변하는 외향성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대학생 46명을 모집해 그들이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를 검사해 분류했다. 처음에 외향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2주간 대부분 그 외향성을 유지했고, 내향형인 사람들도 자신의 내향성을 유지했지만, 순간순간의 변동이 있었다.

외향성, 내향성이 아닌 기분에 관한 평가도 2주간 우울함과 쾌활함이 유지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변동을 보였다. 긍정적인 기분과 외향성-내향성을 분석하자 긍정적인 기분은 대부분은 외향적일 때 경험했다. 사고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기찰 때 대개 즐거움을 함께 느꼈다. 또한, 성격평가에서 내향형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외향적일 때 더 기분이 좋다고 느꼈다.

이 연구에 이은 플리슨의 추가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감정과 외향성 관계는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토론과제를 주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외향성을 연기하도록, 한쪽은 내향형을 연기하기로 시켰다. 여기서 외향형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고, 적극적이고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역할이다. 내향형의 역할은 말을 삼가하고, 수동적이고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토론은 두 번에 걸쳐 역할을 바꿨다. 연구 결과는 두 번의 토론에서 모두 외향형을 연기한 경우 내향형 연기보다 자신의 역할을 즐겼고, 원래 내향형인 사람들도 외향형을 연기할 때 더 즐거워했다.

-긍정적인 감정과 보상심리

외향적인 사람들은 왜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낄까? 혹은 왜 더 그렇게 행동할까? 긍정적인 감정이란 무엇일까? 긍정적인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외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다. 긍정적인 감정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얻을 때 그 반응으로 활성화되는 감정이다. 욕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원하고 추구하게 한다. 또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는 흥분하고, 기쁨을 느낀다. 그것들이 바로 중요한 타인의 관심(친구를 사귀는 것), 지위(승진, 정치적 등), 물질적 이득(돈), 새 짝을 얻는 것,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과제를 완수하는 것 등이다. 또는 즐거운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감정이 생긴다. 나열한 것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끌어내며 추구하게끔 하는 모든 것을 '자극' 혹은 '동기', 보상심리이다.

-보상의 동기, 파블로프의 개

이 동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새겨진 선천적인 '무조건 동기'다. 무조건 동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과 동물이 자연스럽게 어떤 보상을 추구하게 한다. 먹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정상적인 남자가 여성에게 흥분을 느끼는 것 따위다. 이러한 무조건 동기는 진화로 형성된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세대를 거쳐가며 배고플 때는 더 적극적으로 먹으려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을 것이기 때문이고, 더 열성적으로 짝짓기했던 사람들이 자손을 더 많이 퍼트렸기 때문이다. 지위를 추구하는 것, 친구를 구하는 것, 기술을 익히려는 무조건 동기들도 이런 진화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두 번째 동기는 '조건 동기'이다. 유명한 예시가 바로 파블로프의 개다. 파블로프의 개는 음식을 주면 침을 흘렸다. 그

런데 음식을 줄 때마다 종 치기를 반복하자, 나중에는 파블로프의 개가 음식이 없이 종만 쳐도 침을 질질 흘렸다는 것이다. '종소리가 나면 음식이 나온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음식과 전혀 상관없는 종소리가 울렸을 때 음식이 나온다는 조건화되면서 하나의 동기가 된 것이다.

인간의 대표적인 조건 동기는 돈이다. 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지만, 이것은 무조건 동기는 아니다. 우리는 온전히 동전, 지폐(오래전에는 조개껍질)을 보고 행복을 느끼거나 보상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돈은 아주 복잡한 문화적 방식으로 조건화된 동기이다. 돈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동기가 된 것은, 돈이 있으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내적 즐거움 같은 자연적인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돈이 무조건 동기, 삶에 즐거움을 사는 도구라는 사실을 학습한 것이다.

또한, 우리가 돈과 돈으로 사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돈이 소비의 즐거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많은 돈과 비싼 물건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돈은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동기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라는 무조건 동기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력한 조건 동기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인 노동 윤리와 소비 과잉의 원인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인간의 무조건 동기가 초래한 것일지 모른다.

뇌 속의 긍정적인 감정 메커니즘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조건, 조건 동기의 실마리를 찾아 우리가 행동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기에 따라 움직이고, 관심 가지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을 한다. 구직신청을 하거나 이성을 유혹하는 일들 말이다. 즉 긍정적인 감정은 행동방식이나 행동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상을 획득하게 한다.

-사람마다 성취동기가 다른 이유

외향적인 사람은 더 많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보상심리가 더 많은 긍정적인 감정을 추구하게 하고 또 느끼게 한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도 이들이 사고활동, 야가, 위험하고 짜릿한 스포츠 등을 열정적으로 즐기며, 명예와 돈을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외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것은, 자극과 동기(보상심리)에 반응하는 긍정적인 감정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외향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자극과 동기에 대한 반응성이 크다. 따라서 사고, 성공, 칭찬, 로맨스를 통해 열정적으로 흥분을 느끼려고 한다. 반면 외향성 수치가 낮은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시스템의 반응성이 적다. 따라서 사고, 성공, 칭찬 등에서 얻는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심리적 혜택이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적다. 사고, 성공, 칭찬 등을 얻기 위해 드는 비용이 같다고 고려하면, 내향적인 사람은 그런 것들을 성취하려는 보상심리가 약한 사람이다.

외향성의 보상심리 정도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살펴보자. 한 연구에서는 외향형과 내향형 그룹에게 즐거운 영화, 무서운 영화,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그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아질지 예측했다. 그 결과, 외향성 수치가 높은 사람의 기분은 많이 좋아졌지만, 외향성 수치가 낮은 사람은 기분이 조금 좋아지는데 그쳤다. 즉 외향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즐거운 자극에 대한 감정반응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런 견해는 뇌 촬영에서도 확인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MRI 촬영 중 연구대상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영상이나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 긍정적인 영화를 보았을 때 나타나는 뇌의 신진대사 증가량과 외향성 수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몇 가지 뇌 영역이 있음을 발견했다. 강아지를 보았을 때 외향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이런 뇌 영역의 신진대사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외향성 수치가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외향적인 사람의 도파민에 사로잡힌 뇌

연구 대상자의 혀에 클레이드라는 달콤한 음료수를 주입하자 인간의 복측피개 영역과 측좌핵의 활성화도가 증가했다. 활성화 정도가 특히 높은 사람은 컴퓨터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이었다. 설탕물뿐만 아니라 돈이나 매력적인 여성의 얼굴 같은 다른 보상에도 이 영역의 활성화 정도가 증가했다.

쥐의 복측피개 영역이나 측좌핵 중 하나에 작은 전극을 삽입하고 점선으로 발판에 연결하면, 쥐는 이 영역에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판을 누른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 무시하고 말이다. 복측피개 영역이 난 측좌핵 같은 보상 관련 뇌 영역은 도파민을 신경전달 물질로 사용한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과 관련도니 화학물질로 알려져있다. 도파민과 동기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는데, 도파민이 증가할수록 보상을 받으려는 동기도 강해진다는 것이다. 도파민은 코카인처럼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쾌감과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며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실제로 쥐의 중뇌에 도파민을 증가시키면 탐구성과 성적 활동, 먹이 찾기 활동이 증가한다. 이 모든 활동은 보상을 얻으려는 활동이다.

인간의 경우 도파민 효과를 내는 약물에 대한 중뇌의 반응은 외향성 수치와 정비례한다. 즉 외향성이 높을수록 도파민 효과를 내는 약물에 대한 중뇌의 반응성이 높으며, 복측피개 영역과 측좌핵을 포함한 도파민 관련 뇌 영역에서 반응성이 높은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다.

이런 뇌 영역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동기를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외향성 수치가 낮은 사람은 이 부분의 반응성이 낮고, 따라서 보상을 찾아 떠나는 일도 적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성공과 위험

그래서 외향적인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사고활동, 위험하고 짜릿한 스포츠, 로맨스, 명예와 지위라는 보상을 쫓는 것이었으며, 내향적인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은 조용하며, 수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외향적인 사람의 비용과 혜택을 무엇일까? 모든 성격특성은 환경과 결합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낸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용기 있게 도전하고, 때로는 그 도전이 성공해 부와 지위를 얻는다. 평생 관계하는 섹스파트너와

외향성의 수치는 다소 비례하며, 외향성이 낮은 사람보다 결혼은 물론이고 우연한 섹스와 정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사는 환경에서 섹스를 많이 하는 것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은 많은 자식을 번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화과정에서 외향성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흔히 잘살게 되는 많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외향성이 높다는 것이 모든 도전에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전에 성공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무리한 도전으로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 반면 더 신중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많은 재산을 벌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번 돈으로 여생을 편히 보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에리카의 경우를 보자. 에리카가 다른 남자들과의 일탈을 즐길 때,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그러나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들 부부의 파란만장한 결혼생활을 고려할 때, 아이는 아버지와 살지 못했을 것이다. 외향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바람을 피우거나 여러 번 결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는 양부모와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담으로 양부모는 알려진 데로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크고, 이혼은 아이들의 삶에 분명 해악을 끼친다. 이처럼 외향적인 사람의 부유하지만 안정되지 못하는 불안한 삶은 실제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에게 수반되는 위험은 훨씬 더 직접적인 것일 수 있다. 외향적인 사람은 항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육체적으로 활동적이고 위험한 일을 한다. 버스 기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기사들은 그렇지 않은 버스 기사들보다 외향성이 높았다. 이런 연구결과를 광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고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광부들은 그렇지 않은 광부보다 외향성이 높았다. '터민의 아이들'의 인생사 연구에서도 어려서 '낙관적인 성향'을 외향성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더 일찍 죽었다. 그 원인을 부분적으로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술, 담배를 더 많이 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원인은 아직 규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스타일 넘치는 보상 추구 성향이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6. 신경성,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취약성

신경성은 아이젠크가 주장한 것이 5대 성격특성까지 이어진 특성이며, 정서적 안정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코스타와 맥크레가 1990년 제시한 신경성에 대한 정의는 이렇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불안증을 많이 느끼고, 좌절로 인한 적대적 분노를 자주 느끼며, 우울한 기분에 빠지고, 수치감과 같은 자의식이 강하고, 충동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니까 신경성 수치가 높으면 평소에 우울한 기분에 젖어있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정신과적으로 우울증과 불안증을 많이 앓게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조울증·조현병·경계성 성격장애 등을 동반하는 때도 많다.

-걱정, 불안,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

외향성이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 있는 것처럼 신경성은 부정적인 감각과 관련 있다. 앞서 외향성과는 다르게 부정적이며 무섭고 나쁜 경험을 쓰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지는 그들의 신경성 수치와 관계가 있다. 신경성 수치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신경성이란 부정적인 감정시스템의 반응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인가? 공포, 걱정, 모욕감, 죄책감, 혐오, 슬픔 등의 감정으로, 이런 감정을 경험하면 불쾌하며, 이런 불쾌감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경험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하나의 설계특징(어떤 역할을 하도록 미리 설계, 계획된 특징. 예를 들면 공포는 위협과 무서운 것을 경계하고 피하게 하는 것)이 된다. 긍정적인 감정 시스템이 우리가 좋은 것을 쫓게 한다면, 부정적인 감정 시스템은 우리가 나쁜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다.

걱정은 우리 주변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 모를 문제를 위협을 찾아내도록 만들며, 혐오는 해롭거나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한다. 모욕감과 죄책감은 복잡한 감정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화재경보기와 같다

부정적인 감정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 '화재경보기 원칙'을 살펴보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은 이 화재경보기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 화재경보기는 불이 났을 때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즉 불을 알리는 것이 화재경보기의 설계목적이다. 불이 났을 때 화재경보기가 울린다면, 위험을 정확히 경고한 것이니 그 설계목적에 맞춰 잘 작동한 것이다.

그런데 화재경보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오작동할 수 있다. 하나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 경보기가 울린 것이고(거짓 양성), 다른 하나는 불이 났는데도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것이다(거짓 음성). 거짓 양성의 경우 잠시 놀라긴 하겠지만 그리 치명적이지 않다. 하지만 거짓 음성반응의 결과는 그것과 전혀 다르게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가끔 잘못된 경보가 울려도 센서의 화재감지 수준을 민감하게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잘못된 경보로 건물 밖을 뛰쳐나가더라도 다시 들어오면 그만이지만,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면 그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 부정적 감정은 본래 포식동물의 공격, 사회적 지위, 사회로부터 추방 같은 심각한 위협을 감지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 모든 위협은 우리 선조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 위협을 감지하지 못했을 경우 치러야하는 비용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대를 거듭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 방식으로 매우 민감하게 설계한 것은 당연하다. 특히 생존 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은 매우 날카롭게 갈고닦아진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도 단점이 있다. 걱정을 예로 들어보자. 화재경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순간에도 사실 대부분의 걱정은 거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별 생각 없이 한 사소한 행동이 자기 전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기 힘들다면 그건 우리 선조가 그랬기 때문이다. 별걱정 없이 잠을 잘 자던 선조는 우리의 걱정 많은 선조에 비해 잠은 잘 잤을 테지만, 그들은 때로 치명적인 판단 오류를 범했고, 공격을 받았으며, 잡아먹히거나,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부정적인 감정이 화재경보기와 같다면,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센서를 아주 민감하게 조절해놓은 화재경보기와 같다.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의 뇌

외향성은 도파민에 반응하는 뇌 영역의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수치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 신경성 역시 이를 추측할 수 있는 뇌 영역이 존재한다. 아이스크림, 강아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에 반응하는(외향성과 관련된) 뇌 영역처럼, 총, 화난 얼굴, 공동묘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에 반응하는 뇌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핵심은 측두엽 하단의 편도다. 편도는 부정적인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편도의 크기나 밀도 차이가 신경증과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있다.

편도와 관계된 것이 해마와 우측 전두엽이다. 우울증 환자의 경우 이런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있지 않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려할 때 이 영역이 매우 활성화된다. 즉 우울증 환자의 이 뇌 영역이 비활성화되어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신경성과 우울증

신경성 수치가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울증이다. 신경증이 바로 우울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성과 우울증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차이는 신경성은 고유하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성격인 반면, 우울증은 시기가 존재하는 하나의 질병이다. 그러나 우울증은 재발의 성격이 강하다. 우울증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은 2년 내 재발 확률이 50%, 미래에 다시 재발할 확률이 80%에 이른다. 우울증은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 때문에 발생했다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 우울증 이면에 있는 성격특성이 종종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보는 것이 좋다. 우울증은 부정적인 감정이 분출되어 스스로 확산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분출될 수록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우울증이 성격의 탓일까? 환경의 탓일까? 하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땅이 낮아서 홍수가 나는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지 따질 만큼 의미 없다. 종종 인생살이로 인해 우울증이 촉진되며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우울증에 걸리는 반면, 어떤 사람은 큰 스트레스도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신경성 수치는 사람들이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이나,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 신경성 수치가 매우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사소한 위협에도 크게 반응한다. 따라서 이들은 고도가 낮은 땅에 살고 있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쉽게 홍수를 겪는 사람들과 같다. 이를 부정적 감정이 촉발되는 감정역이 낮아 쉽게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그만큼 우울증에도 더 취약하다.

신경성과 우울증이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우울증만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불안장애, 공포증, 섭식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장애 등이다. 이런 병들은 모두 높은 신경성을 특징으로 한다. 물론 다른 성격특성과 개인적 차이로 증상의 정도는 다양하겠지, 이런 병은 모두 신경성과 관련되어 있다. 외향성이 낮다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특히 크지만, 불안장애는 외향성 수치와 별 관계가 없다.

-정체성 불안, 낮은 자부심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정체성 불안이나 자아 개념이 약할 수 있고 자부심이 낮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외부세계를 평가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높은 신경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매우 위험한 것' 혹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자기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수전이라는 여성은 2년 월반을 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타지의 사립학교에 다닐 만큼 머리가 좋았지만, 예술 학교의 경쟁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단순히 '겁이 나서' 진학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기괴한 결혼과 연애를 했는데, 첫 번째는 폭력적인 건축업자 남편이었고, 두 번째는 오입질재이 재즈 음악가였으며, 마지막은 빈털터리 술주정뱅이였다. 원래대로라면 그녀의 높은 신경성이 그런 남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이런 문제를 피하거나 최소한 곧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신경성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녀는 분명 그런 남자들 때문에 겪게 될 문제를 사전에 느꼈을 것이며, 그것을 걱정하며 스트레스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남는 것 역시 두려웠고 자부심이 낮았기 때문에, 자신 혼자 잘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모교 역사상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음에도 대학에도, 예술 대학에도 진학하지 않았다. 자신을 믿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수전은 자부심뿐만 아니라 자아 개념도 불안했다.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제대로 살아왔는지, 또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걱정하며 평가한다. 인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걱정 역시 감지해야 하는 위험 중 하나다. 부정적인 감정이 꾸준히 활성화되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인생의 경로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할 것이다.

수전은 다른 연구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목표가 여러 번 바뀌었으며 "과연 내가 내 인생에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종종 의심하곤 했다"고 말했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걱정하는 탓에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는 잘 몰랐다. 그러나 신경성 수치가 낮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정체성 불안은 이른바 경계성 인격장애 상태에서 절정에 이른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높은 신경성을 특징으로 하고, 삶과 개인적 목표의 불안정을 주 증상으로 하며, 만성적인 자괴감이나 공허함을 느낀다. 삶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하지만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비정상적인 결혼을 여러 번 한다. 그 이유 역시 자신에 대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만성적인 회의감 때문이다.

불안한 정체성과 낮은 자부심은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걱정거리를 갖게 된다"라는 신경성의 잔인한 특징에 일조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생사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실제로 부정적인 인생사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신경성은 가족을 통해 유전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우울증, 자살, 그리고 친척들에게 여러 다양한 유형으로 고통을 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낮은 자부심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큰 일에도 지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수전이 "슬주정뱅이에 돈 한 푼 없는" 스티브랑 결혼한 것처럼 말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트리기 위해 내린 결정은 합리적일 수 없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떠날까 봐 불안해하고 간섭하는 행위 때문에 오히려 여자친구가 떠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비극을 기다리는 인생을 사는 것만 같다. 이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그리고 모든 스트레스성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은 신경성 수치가 낮은 사람보다 더 자주 의사를 찾고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다고 느끼며, 장기적으로 볼 심장병에서 위장장애, 그리고 고혈압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다소 크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아 면역기능이 더 약할 때도 잦다.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은 결혼과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다.

-자신을 보호하라

5대 성격특성은 대개 그 특성의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그런데 신경성의 경우 장점을 조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 같아 보인다. 신경성이 불행하며 심지어는 병적인 것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신경성은 순수히 악한 것은 아니다.

신경성의 핵심 특징인 부정적인 감정은 분명 존재 이유가 있으며 설계특징에 의해 작동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며, 부정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재앙이다. 비슷한 예로 나병으로 감각을 잃은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몸을 다쳐도 알지 못한다. 또 선천적으로 물리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대부분 매우 어린 나이에 죽고 만다.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끔찍한 비용을 치러야 하며, 공포나 슬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임을 고려하고, 문제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좋은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화재경보기의 사례처럼 부정적인 감정의 감동역이 아주 낮게, 즉 민감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경보 오류는 많겠지만 정말 중요하며 치명적인 순간에 위협을 놓치지 않고 감지해낼 것이다.

실제 예로 손 이건은 2000년 봄 에베레스트의 베이스캠프 등산가 39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산악인의 신경성은 수치는 일반인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 차이는 꽤 큰 수치였으며 이들은 외향성 역시 일반인보다 더 높았다. 이들은 에베레스트 등정이라는 위험한 일을 시도하는 이들이어서 그런지 불안감도 낮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경성 낮은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삶을 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약 300명의 등산가가 에베레스트에서 죽었다. 반면 지금까지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오른 사람은 약 1,000여 명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했는지는 모르지만, 1,000명이 성공할 때 3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충분히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산가들의 용기를 칭찬할 수 있지만, 이들은 낮은 신경성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군인, 경찰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이들 직업 모두 전통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직업이다. 신경성 수치가 매우 낮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위협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경성과 예술, 혁명가, 성취동기

앞서 소개한 '생존에 어느 정도 유리한' 특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왜냐면 현대의 대부분 문명 환경은 몇백 년 전처럼 맹수에게 잡아먹힐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회에서 유익한 신경성의 혜택은 무엇일까?

기분장애의 증상이나 결과는 부정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기분 장애인의 사회경력 중에는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특히 많다. 즉, 최소한 신경성이 높은 사람 중에 일부는 높은 신경성 덕분에 뭔가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작가, 시인, 작곡가 등의 예술가의 우울증 비율은 매우 높다. 이는 이들의 신경성 수치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세운 위대한 업적이 혹 높은 신경성의 영향을 받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그들은 일종의 치료요법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글을 써도 그 글은 다른 사람에게 읽히는 글이어야 한다. 따라서 신경성이 높다고 해서 창조적인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신경은 창조적인 작가의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개방성 기질도 높은 수준이어야 하고 자질도 있어야 한다.

둘째,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대개 부정적임으로 외부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자신 내부의 일 모두가 울지 않게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 따라서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다양한 영역, 특히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의 영역에서 혁신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이라면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정도가 심해 좌절하지만 않는다면 그만큼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신경성이 노력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런 증거는 아주 많은데, 일 중독자들이다. 특히 재미나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가 아닌 '일하고 있지 않은 자신'에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은 신경성 수치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제임스 메케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 강도'가 강한 학생 중 신경성이 높은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아 강도는 체계적인 사고와 자기 수양 정도로 측정하며, 이는 5대 성격특성에 성실성에 해당한다.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을 동기 삼아 더 노력하고 더 높은 성적을 내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이 체계적인 사고를 못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병적인 수준에 이르면 신경성은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동기 삼아 더 노력하고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신경성의 '동기 이점'(말 그대로 동기에 이로운 점이다.)이다. 신경성에는 '인지 이점'(의식하고 지각함에 이로운 점)이라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다른 가능한 결과들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기업이 그렇다.

-우울한 현실주의

사회심리학자인 셸리 테일러는 이런 자신감이 좋은 것이며, 특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단계'에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낙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가능성이 보이고 용기와 열정에 가득 차 목적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낙관적인 시선은 현실적인 기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실행 이후 '숙고 단계'에 접어들면 냉정한 평가를 하고 목표치를 변경하거나 하향조정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숙고 단계에서 덜 낙관적이며, 보다 조심스러워지고 더 많고 상세한 정보에 관심 가지며 걱정한다.

신경성의 인지 이점이란 여기서 작용한다.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런 숙고적인 정신상태에 훨씬 자주, 더 많이 빠진다. 건강한 정상인은 미래를 낙관하며 주변 환경을 과신하지만, 우울증 환자들은 다소 냉철하고 정확한 태도를 보인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낙관적인 태도를 과신한 채, 사태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경우를 겪을 수 있다. 때문에 '우울한 현실주의'를 살고 있는 이들은 이런 면에서 사태를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한다. 신경증적인 기질이 세상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눈이 되어주는 것이다.

실제 신경증은 직업적 성공과 미약하지만,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은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이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육체노동보다 사고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7. 개방성, 4차원의 사람들

공상, 심미안, 감성, 실행력, 아이디어, 가치

개방성은 사뭇 특별한 특성이다. 기괴하기도 하며, 순수하기도 하며,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개방성의 초기 개념은 '지적 추구'였으며 한때 '지능'을 거쳐 코스타와 맥크레가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명명했다. 이렇게 개방성이 지능, 지적 추구와 관련을 하는 이유는 실제 개방성이 이 둘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능과 개방성은 0.3 정도의 상관관계가 언어 및 지식기반 지능과 상관관계가 있다. 더욱이 개방성은 사람들의 학력에도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 능력은 개방성의 한 경향에 불과하며 완전히 비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대 성격 특성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가장 개방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개방성은 '문화성'으로도 주목받았는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개방성 수치를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의 예술 및 문화 활동의 참여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이것은 놀랍게도 누구는 독서를 좋아하고, 누구는 전시관을 좋아하는 게 아닌 독서, 전시, 영화, 오페라 등의 문화 전체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과 이것 전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

단 여기에 두 가지 문화 활동은 예외로 개방성이 올라갈수록 참여도가 떨어졌는데, 드라마와 애정 소설이다. 드라마와 애정 소설은 다른 예술 및 문화 활동에 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떨어졌는데, 이는 다른 문화 활동보다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쉽기 때문이다.

-개방적인 사람들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확실한 원칙이 있는 세상을 좋아하며, 권위와 전통을 존중한다. 또한, 안정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때문에 고리타분하거나 융통성이 없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주관은 확실하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습관과 익숙한 일을 유지하려고 하고, 시험 삼아 하는 뭔가를 싫어한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하는 일, 예를 들면 현대미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며, 비현실적인 논쟁도 싫어한다. 우주에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하는가? 외계인과 소통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이나 고민 자체를 싫어한다.

개방성은 새로운 가치체계를 수용하려는 태도이다. 이런 열려있는 마음은 지식이나 신념이 끊임없이 새로운 증거들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늘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한다. 언뜻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을 거스르는 특성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는 보수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보수 신문을 읽고, 진보주의자는 진보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진보신문을 읽으며 서로의 중간에 있는 중립적인 정보에 집중하기 보다 극단의 정보를 받아들이며 점점 자신의 성향을 강화해간다. 하지만 열려있는 마음은 이런 성향을 의도적으로 거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가적 기질 : 너무 자유로운 의식

개방성이 지능과 연관되어 있지만, 개방성을 지능으로만 볼 수 없다. 오히려 개방성에 가장 대표적이며 많은 사람이 동의할 특징은 예술가적 기질이다.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개방성이 특히 높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방성은 특히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능력, 그리고 독창적인 예술작품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개방성이 높은 시인과 예술가는 누구인가? 1960~1970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저항문학가 앨런 긴즈버그는 <아우성>이라는 장신에서 젊은 예술가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밤이라는 기계 속의 발전기 별
 그 별에 달았던 고대의 하늘을 열망하는 천사의 머리를 가진 박식한 사람들
 아칸소 주를 매혹시키는 이글거리는 차가운 눈과 전쟁의 학자들 가운데
 블레이크의 빛 같은 비극 속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
 미쳐서, 그리고 해골을 그려 넣은 창문에 불경한 송시를 써서 대학에서 쫓겨난 사람들

 상상으로 만든 양고기 스테이크 먹고
 바우어리 강 진흙 바닥에서 잡은 게를 소화시켰던 사람들

 새벽녘이 되면 횡설수설이 되어버리는 고상한 주문을 외고
 밤새도록 로큰롤을 불러대며 글을 갈겨쓰는 사람들

이 시를 통해서 개방성이 아주 높은 시인과 예술가들의 특징을 미루어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시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특징은 은유적인 내용과 광범위한 연상이다. 예술가들은 일반인보다 서로 다른 개념을 분리하는 막이 얇고, 따라서 서로 다른 인식 영역 간의 관계가 일반인보다 넓다. 이러한 특징이 바로 광범위한 인식 또는 연상이다. 뇌의 전혀 다른 인식의 영역이 저마다 개방되어 자유롭게 소통하며 합쳐지고 어우러지는 것이다. 개방성은 이러한 자유로운 의식의 교류가 특징이다.

<아우성>의 두 번째 특징은 사회 규범에 대한 저항이다. '대학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규범 저항에 대한 대목이다. 많은 예술가는 대부분 기존의 전통적인 것들에 대해 도전하고 반항한다. 긴즈버그 역시도 반체제 문화운동가였으며, 진보 정치에 가담하고, 당대의 섹스 관행과도 충돌했다. 긴즈버그의 시 <아우성>은 외설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많은 예술가가 자신의 독특한 사회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는 관점도 자주 바뀐다. 다른 시인들처럼 긴즈버그도 여러 작업, 철학, 삶의 방식을 시도하고 사진, 음악, 영화 등의 다양한 수단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려 했다.

세 번째 특징은 초자연적인 믿음이다. "밤이라는 기계 속 별이라는 발전기"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이처럼 신비하며 초자연적이고 당최 규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영성에도 관심을 보인다. 긴즈버그 자신도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결국에는 불교를 하나의 영성체제로 인정했다.

네 번째는 특징은 정신병적 기질이다. <아우성>에서는 환상에 대한 언급, 현실감 부족, 횡설수설로 드러나는 신비한 주문(?)이 가득 차 있다. 긴즈버그의 어머니 나오미는 정신병에 시달려 환청을 들었고 사람들이 자기를 독살하려고 한다고 믿었다. 긴즈버그 역시 한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며 많은 예술가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일반인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대부분 정신분열적인 특징이다. 예를 들어 환청과 자아 경계감 상실, 모든 장면이 아주 인상적으로 보인다거나 어떤 힘에 의해서 뇌가 신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도 있었다. 긴즈버그와 <아우성>에서 보이는 시인의 네 가지 특징, 광범위한 연상, 규범과 인습에 대한 반항, 초자연적인 믿음, 정신병적 기질은 개방성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정신병적 기질 : 특이한 생각과 믿음

우리는 이 네 가지 개방성의 핵심 특징 중 마지막, 정신병적 기질을 먼저 살펴보자. '정신병적 증상의 경험'을 개방성과 연결 짓는 이유는 첫째, 시인과 예술가들 가운데 정신질환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이 둘은 관계가 있다. 또한, 시인과 예술가들은 높은 개방성을 보유한 전형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정신질환이 완전한 정신분열증은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정신질환인 우울증은 개방성이 아닌 신경성과 연관을 가진 정신질환이고 더욱이 정신분열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방성과 완전한 정신질환에 차이가 나온다. 정신분열형이란, 정신의학 진단 매뉴얼과 상관없이, 사람을 정신병자와 비정신병자로만 분류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면서도 주기적으로 환청, 환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분명 정신병자의 특징처럼 환각, 환청을 경험하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정신분열형 수치를 구하는 설문지가 있다. 이 설문지를 통해 사람들의 정신분열형 수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설문지는 사람들은 정신분열적인 증세를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답하게 된다. 이 설문지의 효과는 입증되었다. 실제 검사에 참여한 사람 중 정신분열증 환자이거나 미래의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검사에 참여하며 혼란스러운 결과가 일어났다. 일부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설문에서 꽤 높은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설문을 분석한 결과 정신분열형은 단순히 하나의 특성이 아닌, 증상별로 몇 개의 서로 다른 증상군으로 나뉜다는 것과 정신병 환자들은 모든 증상군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반면, 일반인은 한 증상군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도 다른 증상군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한 증상군이 바로 '독특한 경험'이라는 증상군이다.

독특한 경험이란 환청과 준 환청, 지각 혼란(모든 것이 이상해 보이거나 이상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현상), 그리고 신비로운 의식(초자연적인 힘, 텔레파시다)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독특한 경험은 정신분열증 증상 중 비정상적인 생각이나 믿음과는 관련이 있지만, 정신분열증의 또 다른 증상인 감정적 단조로움, 사회적 고립, 동기의 결여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즉, 시인과 예술가는 '독특한 경험' 수치가 일반인보다 높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그것과도 거의 비슷하다. 중요한 것은 '독특한 경험' 수치가 '개방성'의 수치 간에는 0.4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신분열증의 약소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분열형 성격장애(기이한 언어와 사고, 유별난 자각 경험 등)와도 개방성 수치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개방성이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정신병적 경험과 관련 있는 것은 틀림없다.

-신비로운 믿음과 규범의 저항

두 번째 특징인 '영적' 혹은 '초자연적 믿음'과 개방성의 관계는 무엇일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방성 수치가 높다는 것은 보통 전통에 반항하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고, 기존의 제도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초자연적이거나 영적인 독특한 신비로운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국적인 종교나 신조, 뉴에이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 '개방성'과 '신비로운 믿음'의 상관관계는 0.47 정도로 나타나며 이는 놀랄게도 '독특한 믿음'과 '개방성'의 상관관계와 거의 동일하다. 이들은 최면에 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특징은 '규범 거부' 성향이다. 예술가 기질이 있는 사람은 보통 시대의 관습에 반하는 믿음을 가지거나 가지려 한다. 또 다른 집단과 달리 사회적 금기에도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개방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예술적인 일이나 부정을 폭로하는 일을 하는 경향이 많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전통적인 제도와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특히 크다.

-개방성은 지능인가?

마지막 남은 네 번째 특징은 가장 흥미로운 '광범위한 연상'이다. 광범위한 연상이란 뭘까? 광범위한 연상은 기본적으로 지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언어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광범위한 연상은 예술가와 시인의 시에서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혀 다른 영역의 언어와 표현이 서로 합쳐지거나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설문을 해보면 IQ(지능 수치)와 개방성은 약 0.2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개방성은 초자연적인 믿음, 최면 감응성, 신비로운 경험과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초자연적 믿음, 독특한 경험, 최면 감응성은 IQ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독특한 경험의 경우 되려 상관관계가 반비례한다. 독특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IQ가 떨어지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특질은 서로 상관관계가 플러스를 나타내는 것들이 모여 하나의 '성격'을 이루었는데, 개방성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분류는 성격특성과 지능의 연관성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4가지 성격 유형 모델은 지능과 아무런 관련을 짓지 않는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지능에 대해 알아보자.

지능은 잘 연구된 자료가 많으며 대부분 그것은 재치와 기민함이 특징이다. 지능은 성격과 완전히 다르다. 지금껏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능은 뇌 시스템 전체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언어와 비언어, 문제에 대한 해결과 손재주 등 대부분의 일에서 우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신경세포의 자극이 팔로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격특성은 신경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이 아니라, 외향성의 보상 메커니즘, 신경성의 위협감지 메커니즘 같은 어떤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활성화 정도와 관련된 것이다.

-도미노 같은 개방성의 뇌

따라서 하나의 성격특성으로서의 개방성은 독특한 경험, 해체되고 자유로운 정신 등으로만 이루어진다. 지능은 개방성의 특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개방성의 핵심 특징인 확대된 의식, '광범위한 연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한동안 개방성은 '확산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확산적 사고와 관련된 테스트는 '미망인-깨물기-원숭이' 같이 사이의 관계없어 보이는 명사 사이에 관련성을 찾는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용도로 쓰이고 있는 물건의 다른 용도를 찾는 테스트도 있다. 참여자는 물건의 본 용도를 답하고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용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벽돌을 바비인형의 장례식 관으로 쓰는 것들이다.

이 테스트들에서 개방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용도를 찾아냈다. 또한, 정신분열증 환자들 역시 일반인보다 더 많은 용도를 찾아냈다. 개방성이 높은 일반 사람들과 정신분열증 환자가 확산적 사고 테스트에서 더 많은 용도를 찾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확산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개방성이 높은 사람) 한 대상을 보고도 더 많고 넓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들은 한 물체나 그 물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마음속에 떠오르면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수많은 개념까지 활성화된다. 예를 들면 '상어'라는 단어를 글이나 말로 읽으면 그다음 '바다' 그다음 '물고기' 그다음 '회' 같은 단어가 등장했을 때, 단어를 읽기 쉬워져 후속 반응 시간이 짧아진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활성화의 확산'이라 부른다. 이런 현상은 삶에서 접하는 수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 효율적이다. '바다'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그와 가까운 개념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확산적 사고는 어디까지 필요한 것일까? 우리는 상어를 통해 최고 포식자인 사자를 떠올려야 할까? 상어를 통해 지느러미 수프를 떠올려야 할까? 한 의미가 떠올랐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그 의미가 확산되어야 할까?

-창조자와 정신병자

사람마다 어디까지 의미가 연상되어야 하는가에 답은 정해지지도 않았으며 나름의 답을 내리기도 복잡하다. 하지만 사람마다 연상에 대한 수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개방성, 즉 뇌의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연상의 정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개방성이 낮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각각 영역이 분리되어 존재하고 서로 다른 의미영역이 서로 다른 의미처리 과정을 밟는다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의 마음속에선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의 생각이 청력과 연상된다면 환청이 될 것이고, 우연한 사건을 그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과 연상하면 텔레파시를 느끼거나 신비한 관념을 가지게 된다. 이런 환청과 환영 그리고 비과학적인 신비한 믿음은 모두 이런 광범위한 연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연상은 언어적, 시각적 창조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언어를 독특하고 은유적으로 구사하면서 다른 영역에 속한 의미들을 서로 관련시키고 예술로 만든다. 자유롭고 광범위한 연상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재발견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시킬 수도 있으며, 사물을 새로운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예술이나 문학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를 표현하며, 예전의 인습이나 사회적 금기에 저항하며 다양한 시도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성의 심리학적 기초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영역과 그의 의미를 처리하는 영역의 활발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즉 광범위한 연상이다.

-개방성과 섹스?

그렇다면 개방성의 기본적인 특징인 광범위한 연상은 부정적일까? 모든 성격 특징과 같이 개방성 역시 오직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다. 개방성이 뚜렷한 장점으로 떠오른 것은 언어의 등장과 함께다. 언어가 부족하던 원시시대에는 힘이 곧 지위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이득을 더 독특하게 사용하여 관심을 끌 수 있었고, 뛰어난 표현으로 자신의 견해와 시각을 다른 사람에게 퍼트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언어능력은 새로운 지위의 원천으로 떠올랐다. 또한,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짝을 찾는 데에도 유리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개방성이 발달했을 것이라고 제프리 밀러(1965-)는 주장한다. 개방성이 높아져서 더욱 광범위한 사고영역을 하나처럼 사용할 수 있을 때, 구사하는 언어는 독특해지고, 구사하는 언어가 독특해질수록 사회 속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 또한, 이것은 짝짓기의 기회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전구 하나를 갈아 끼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인이 필요한가?

실제 많은 연구와 주장에 따르면 예술적 창조성은 성적 매력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언어의 등장과 힘에서 언어로 지위의 원천이 이동하면서, 인간은 더 많은 개방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자연선택에 따라 개방성이 높게 발달하지는 않았다. 개방성이 많도록 진화하는 것 역시 일정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분리되어 있던 뇌 회로 간에 상호작용과 간섭이 증가하면서, 회로 각각의 전문적인 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둘째, 독특한 경험과 지능은 약간 반비례하고, 개방성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쉽게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이런 탓이다. 그 때문에 개방성 수치가 낮은 사람은 개방성 수치가 높은 사람보다 쉽고 간단하며 실용적인 문제를 더 잘 풀어내며, 심지어는 복잡한 문제조차 더 쉽게 해결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광범위한 연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신병이다. 사고와 인지의 영역이 복잡하게 얽히고 교차하면서, 점점 더 이상한 관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학적인 것과 신비주의적 관념에 얽히고, 신비주의적 관념은 비과학적인 관념으로, 비과학적인 관념은 서서히 망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 망상은 괴짜스러운 개성으로 얽혀 정신분열형 성격장애가 되고,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는 진짜 정신분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방성이 증가하면 예술가적 명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신병적 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커진다.

8. 성실성, 도박중독자와 성실맨

유능성, 질서정연한, 책임감, 성취 추구, 자기규율, 신중성

1992년 코스타와 맥크레가 정립한 성실성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하다. 이들은 정리 정돈을 잘하고, 책임감 있으며, 성취욕이 높고,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꾸준히 노력하고, 언행에 앞서 숙고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이들은 성실하다, 착실하다, 근면하다, 끈기 있으며 책임감 있다는 말을 듣곤 한다.

개방성이 광범위한 연상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면 성실성은 '총동 절제'와 관련이 있다. 성실성 수치가 낮은 이들은 충동을 잘 절제하지 못해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여러 중독에 취약하며, 사회에서도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직업적 성공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아이오와 도박과제

당신의 앞에는 4가지, A, B, C, D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카드가 각각 52장이 있다. 이 카드들을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해 뽑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카드에 적힌 숫자만큼 금액을 받는다. 하지만 간혹 나오는 벌금 카드가 나온다면 당신은 거꾸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참여자는 모르지만 사실, 이 카드들에는 일정한 상금과 벌금이 함께 있다. 그래서 참여자는 다양한 카드를 선택해가며 카드 속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어, 어떤 카드가 더 이득인지를 찾아내어 가능한 많이 뽑고, 가능한 많은 이득을 남겨야 한다.

이윽고 참여자는 시행착오를 거쳐 가며 카드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냈다.

- A는 뽑을 때마다 100달러를 받는다. 하지만 10번에 1번, 1,250달러의 벌금이 나온다.
- B는 뽑을 때마다 100달러를 받는다. 하지만 4번에 1번, 500달러의 벌금이 나온다.
- C는 뽑을 때마다 50달러를 받는다. 하지만 10번에 1번, 250달러의 벌금이 나온다.

- D는 뽑을 때마다 50달러를 받는다. 하지만 4번에 1번, 100달러의 벌금이 나온다.

이때 당신은 어떤 카드를 뽑을 것인가? 어떤 카드를 뽑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가정을 해보자. 각각 10번을 뽑는다는 가정에서 A, B, C, D 각각의 총액은 이렇다.

- A는 1,000달러를 받지만, 1,250달러의 벌금을 한 번 뽑아 -250달러가 된다.
- B는 1,000달러를 받지만, 500달러의 벌금을 평균 2.5번 뽑아 -250달러가 된다.
- C는 500달러를 받지만, 250달러의 벌금을 한 번 뽑아 +250달러가 된다.
- D는 500달러를 받지만, 100달러의 벌금을 평균 2.5번 뽑아 +250달러가 된다.

아이오와 도박과제는 사실 A와 B 카드로는 이득을 낼 수 없다. A와 B는 순간에 주는 상금이 크지만, 그보다 벌금이 더 큰 까닭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C와 D 카드는 주는 상금이 적지만, 벌금 역시 그보다 적어 250달러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뒤로 갈수록, 큰 벌금을 맞을수록 C, D 카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A와 B 카드의 유혹이다. A와 B 카드는 한 번에 100달러를 벌 수 있는 카드로 C, D 카드보다 무려 상금이 2배나 된다. 물론 벌금은 더 크지만, 50달러를 받는 것보다 100달러를 받는 것이 더 쾌감 있고 행복한 일인 것은 틀림없다.

여기서 4번째 성격특성인 성실성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 성실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이런 100달러라는 보상의 유혹을 꿰고 집요하게 작은 이득을 챙기며 C, D 카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후 아이오와 도박과제를 발전시킨 후속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과거 전두엽 일부분을 뇌졸중이나 머리 부상으로 손상되면 신중하고 정확하게 사람도 부주의해지고 충동적으로 변한다고 하며,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충동을 실행한다고 알려졌다.

이런 사람들은 사고 직후 자신의 충동성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분명히 불법임을 알지만, 차를 훔쳐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어딘가에 버리거나 하는 짓을 벌이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억력, 언어, 지적 능력은 모두 정상이며 이것이 잘못된 행동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만, 충동을 절제할 수 없었다. 동일하게 이들은 아이오와 도박과제에서 A와 B 카드를 뽑는 것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충동에 사로잡힌 이들

도박중독은 말 그대로 도박을 아주 많이 하며, 도박을 하는 자신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협에 빠트리기도 한다. 이런 도박중독자들은 아이오와 도박 실험에서 다른 일반인보다 압도적으로 A와 B 카드를 선택했다. 이들은 A, B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손해임을 인지했음에도, A와 B의 보상 유혹을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도박중독자들 그룹은 일반인들에 비해 특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한 결과를 보여준 또 다른 그룹이 존재했다. 바로 알코올, 마리화나, 코카인에 의존성이 있거나 의존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었다. 이들 역시 A와 B 카드를 많이 선택했는데, 이들의 장기적인 알코올과 마약류의 의존이 이런 결과를 내어놓을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알코올, 마약류를 오랜 기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똑같이 A, B 카드를 많이 선택했다. 따라서 이들은 약물의 영향 없이도 다른 '어떤 성격'의 영향으로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A와 B 카드를 더 많이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 그 어떤 성격이란 주변에서 늘 우리를 유혹하는 보상들에 쉽게 흔들리며 부단히 그것을 추구하는 성격이며, 그런 것 때문에 도박, 알코올 등의 중독에 빠진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또한, 웬디 슬러츠케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을 가진 사람은 니코틴에 대한 의존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4배 더 높았으며, 마리화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진 사람은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6배 높았다. 또한, 도박중독자의 3분의 2가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의 알코올, 마리화나, 니코틴 중독의 비율은 일반인의 3배 이상이었다.

그런데 이런 도박, 알코올, 니코틴 등의 중독은 생물학적인 가족 구성원들에서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자식이 도박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도박중독자인 어머니의 자식에서 알코올중독자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도박중독자와 알코올중독자가 있는 친척 중에서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성 면을 일반인보다 더 많이 보여줬다.

-중독된 뇌는 유전이다

쌍둥이, 가족을 통해 각종 중독과 반사회적인 면모를 연구한 결과 이런 방만한 행동에는 어떠한 유전적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특정 가족에서 알코올, 도박, 니코틴 등의 중독이 쉽게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개인의 유전된 기질이 함께 발휘된 것이었다. 이 기질은 다른 성격들과 마찬가지로 통제력에 대한 수치를 가리키며, 더 자세히 충동을 통제하는데 관련된 성격이 바로 성실성이다. 성실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절제력 있고, 체계적이며, 자신을 잘 통제하는 반면, 성실성 수치가 낮은 사람은 충동적이며, 제멋대로에, 의지가 약하다.

성실성은 도박, 알코올, 니코틴 등의 중독과 관련된 특성인데, 술과 약물에 굴복하는 정도는 외향성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외향성은 스틸 넘치는 자극과 반응성의 정도를 가리키고,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도박과 알코올 같은 강렬한 자극에 쉽게 굴복한다.

언뜻 보기에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실 둘은 상충하지 않는다. 외향성이 높아 음주, 마약, 도박 같은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열광할 수는 있으나, 이들이 가져다주는 흥분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날 해야 하는 일이나, 더 짜릿한 일을 즐기기 위한 돈을 저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일보다 더 중요한 다른 목표나 규범을 지키기 위해 주변 환경을 뿌리치는,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뇌 메커니즘이 있으며, 그것이 성실성의 핵심 특징이다.

이 통제 메커니즘이 강한 사람은 매우 절제력 있고, 성실하며, 그 통제 메커니즘이 약한 사람은 충동적이다.

-당겨진 시위처럼 일촉즉발의 뇌

충동성이 높은 사람과 중독자 같은 충동 억제 장애인의 경우, 아이오와 도박과제를 할 때 전두엽의 여러 영역, 우뇌의 전전두피질, 전두대상피질, 안와전두피질의 활성화 정도가 낮았다. 전두엽 뇌 메커니즘의 반응 정도가 충동을 절제하는 메커니즘을 담당하는 것이며, 이는 충동성의 반대 개념인 성실성의 메커니즘이다.

스크린에 X와 다른 문자를 불규칙적으로 띄우고 피실험자는 다른 문자는 스위치를 누르고, X면 누르지 않는 'GO-NO-GO' 실험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실험 중 피실험자들은 다른 문자가 띄워졌을 때 최대한 빨리 스위치를 누르려고 한다. 따라서 X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이려는 손을 억제하기 어렵다. 이 순간 뇌 촬영기술로 확인한 결과, 전두엽의 활성화가 증가했다. 또한, 실험 이전에 있었던 피실험자들에 대한 충동성 테스트에서 충동성 수치가 낮게 나온(충동을 덜 느끼는) 사람일수록, X가 나왔을 때 전두엽의 활성화 정도가 높았다. 즉 충동성이 성실성의 반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성실성은 전두엽, 그중에서도 안와전두피질의 활성화 수치의 정도이며, 전두엽 뇌 메커니즘의 반응이 클수록 성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성실성은 직업적 성공에 도움을 준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 중에는 도박, 마약, 알코올 등의 중독자들과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들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들 중에는 단순히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으며, 이들 중 몇몇은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게으름과 싸우는' 중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승진을 바라지만 선천적으로 '초점이 부족'하여 빈둥거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실성이 높다면, '성실하게' 일하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직업적 성공을 점칠 수 있다.

성실성과 직업적 성공의 상관관계는 약 0.2 정도이며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또 이 상관관계가 의미하는 것은 직업적 성공은 다른 요소들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성실성은 승진에 영향을 미치며 이 연구와 검사의 결과는 상당한 일관성이 있다. 어떠한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변호사, 경찰관, 경영인, 전문가 등이 그랬으며, 더 일반적인 분야로 갈수록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직업적으로 성공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어떤 직장이든, 일을 얼마나 잘하던, 직장에서 일을 더 잘한다. 이들이 일을 더 잘하는 이유는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자율적으로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따라서 자율적인 업무환경에서 성실성이 낮은 사람보다 더 많은 계획을 실천하려 추구한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목표를 세우지 않으려고 하며, 목표를 고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목표를 실행하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일을 미루고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

-낮은 성실성은 장점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낮은 성실성은 왜 존재하는 걸까? 낮은 성실성이 부질없고 쓸모없는 단점이라면, 이는 자연선택으로 사라져야 했다. 낮은 성실성은 분명 나름의 쓸모가 있으며 장점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높은 성실성이 높게, 혹은 과평가되어 있는 것은 현대의 환경이 대단히 인위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매일 아침 똑같은 길을 따라 하루 8시간 동안 일 관적으로 체계화된 환경에서 일하지 않았다. 또한, 시간이라는 개념 역시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 모든 것을 반복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수렵과 채집은 이렇게 규범 되거나 체계화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사건의 연속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었다. 갑자기 지나가는 먹이, 갑작스러운 타인의 공격, 집단의 변화 등 수많은 가능성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계획을 포기하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즉각(충동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조상들이 더 잘 살아남았을 것이다.

-ADHD와 강박성격장애

ADHD 증상이 있는 청소년들은 보통 성실성 수치가 낮고, 신경성 수치가 높으며, 친화성이 다소 낮다. ADHD 증상이 있는 청소년의 중 여성의 경우는 1/5에 불과하며 남성의 경우가 압도적이다. 이들은 오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충동적이라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 같은 권위자와 자주 충돌한다. 이들은 즉각적인 자극에 매우 강력하고, 충동적이며, 활기차게 반응한다. 그래서 ADHD 증상이 있으면서 프로 스포츠에서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다. 예측이 어렵고 무법애도 폭력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 매우 활동적이며 변화무쌍한 수렵 채집인의 세계에서는 아주 유리했을 것이다. 수렵과 채집의 시기에는 낮은 성실성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시대 주변 환경은 시간과 일관화된 인위적 환경으로 높은 성실성이 장점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성실성은 단점 없는 절대적인 장점일까? 그렇지 않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사실 성실성이 극단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성인 남녀의 약 2%가 강박성 성격장애이며,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 포진된 많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현재 강박성 성격장애자의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나 더 많다. 강박성 성격장애 증세가 있는 사람은 규칙, 리스크, 스케줄, 기타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반드시 6시 45분에 일어나 8시 15분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그 후 일과도 아주 엄격하게 스케줄에 따라 지내는 것이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마다 서로 다른 스케줄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목적을 위한 수단인 계획, 스케줄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행동의 목적은 완전히 실종된다. 예를 들면 먹는 것, 멋진 하루를 보내는 것,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것, 성취하는 것들에 실패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너무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나머지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고 세세한 부분에 집중하고 씨름하는 나머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조차도 그들의 깐깐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이들은 대인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강박성 성격장애를 겪는 사람은 재미나 여가 또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사교활동을 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보기에 이들은 엄격하고 금욕적인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의 깐깐하고 지루하고

고집스러운 생활을 타인들이 받아들이기란 의미도 없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의 관심과 정신은 오로지 규칙과 계획을 지키는 일에만 있어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 이성, 직업, 등의 기타 영역에서 다가오는 소중한 기회를 포착하기도 어렵다.

-여성의 경우, 거식증

여성의 경우 성실성이 너무 높게 오는 문제로 거식증이 있다. 거식증에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거식증에 걸린 사람은 신경성과 성실성이 모두 높았다. 일단 신경성은 대부분 정신질환에 기초한다. 그래서 정신적 문제에 신경성 수치는 항상 높게 나온다. 그러나 완벽주의와 거식증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사실 완벽주의의 병적인 경우인 강박성 성격장애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거식증 환자 중에는 강박성 성격장애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식증 역시 '과도한 완벽주의'의 한 산물이다.

신경성 수치가 높은 젊은 여성의 경우 자부심이 낮고 자신의 몸매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녀들은 음식에 충동적으로 반응해 자연스럽지 않게 섭취하기보다 전두엽의 억제 메커니즘을 이용해 섭취를 통제한다. 그리고 이 전두엽의 통제 메커니즘이 아주 강력하면, 음식 통제가 매우 잘 된 나머지 굶어 죽기도 한다. 이만큼 성실성은 단지 유리하기만 한 특성이 아니다. 오히려 양 극단의 성격 보유자들은 자신이 살아갈 만한 적절한 환경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9. 친화성, 사이코패스와 공감자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 생물학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번 친화성 항목에서 다룰 점은 친사회성에 관한 것이다. 방이 하나 있다. 그 방은 중간이 유리로 막혀 있으며 유리 너머로 각각 한 마리씩 침팬지가 들어가 있다. 한 쪽 유리 너머에는 그냥 빈방이지만, 나머지 한쪽에는 레버가 두 개 있다. 레버가 있는 쪽의 첫째 침팬지가 한쪽 레버를 당기자 먹이가 떨어진다. 첫째 침팬지가 먹이를 먹을 동안 유리 너머의 둘째 침팬지는 그 광경을 보고만 있다. 첫째 침팬지가 두 번째 레버를 당기자, 자신과 둘째 침팬지 모두에게 음식이 떨어진다.

당신이 이 실험에 참여한다면 어떤 레버를 계속 당기겠는가? 아마도 두 번째 레버를 당길 것이다.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당신과 비슷한 근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신은 두 번째 레버를 당길 것이고,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도 두 번째 레버를 당길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이와 똑같은 실험을 서로 다른 세 곳에서 잡아온 침팬지를 대상으로 하자, 침팬지들은 건너편의 침팬지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침팬지들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고 첫째든 둘째든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한, 개의 치 않고 아무 레버나 당겼다.

인간은 그렇게 대부분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서로에게 호혜적인 선택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친사회성, 초사회성이라 불리는 인간의 커다란 미스터리 중 하나다. 헌혈, 기부, 친절, 대접 등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뭘까?

-타인 존중 선호

인간에게서 보이는, 침팬지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타인 존중 선호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자연선택에 의하면 생존을 위해서는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더 이득이다. 어떤 근본적인 이유, 혹은 현상적인 이유가 있어서 인간은 타인 존중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까?

일단, 인간이 타인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마음이론'이라는 광범위한 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마음이론을 통해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의 감정,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표현할 수 있다. 즉 마음이론을 통해 우리는 유리 너머 사람의 배고픈 '허기'를 느낄 수 있고, 음식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이 두 번째 레버를 당기기를 믿으며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반대로 침팬지들은 다른 침팬지의 허기, 욕망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이유는 침팬지의 마음이론이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공감능력의 개인 차이

인간의 '마음이론'은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마음 읽기'와 그 마음을 내 것처럼 느끼며 공감하는 '공감하기'가 있다. 이 중 마음 읽기 능력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다. 사회적, 학습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두 꼭두각시 인형을 이용한 실험에서 확인되었는데, 첫째 인형인 샬리가 양동이에 대리석을 하나 채우고 사라진다. 그 사이 둘째 인형인 앤이 나타나 그 대리석을 상자에 숨긴다. 그리고 샬리가 돌아왔다. 이 때 이를 지켜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샬리는 어디서 대리석을 찾을 것인가?'이다. 4세 이하의 아이들은 샬리가 상자에서 대리석을 찾을 것이라 했다. 4세 이후의 어린이들은 샬리가 양동이에서 대리석을 찾으려 할 것이라 답했다. 4세 이전의 아이들은 자신이 아는 사실에 기초해 샬리의 행동을 예측했지만, 4세 이후의 아이들은 샬리의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이를 예측했기 때문이다.

자폐증 환자의 경우 마음이론의 마음 읽기를 어려워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성인들 사이에서도 마음을 읽는 능력은 개인차를 보인다. 마음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한 방법으로 인물의 마음을 묘사한 어려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에드워드가 제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수전의 생각을 짐이 믿기를 톰은 바랐다.'

피터 킨더먼이 개발하고 제임스 스틸러와 로빈 던바가 발전 시킨 이 실험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이 약 4명까지 등장 인물들의 마음을 편하게 읽어낸다. 하지만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마음 읽기가 좀 어려워진다.

'수전이 원하는 것을 존이 안다고 쉬일라가 믿는지 아닌지를 페니가 알아내기를 틈이 원했다고 페니가 생각한다고 존은 믿었다.'

아주 복잡하지 않은가? 어떤 피실험자들은 이런 문제를 더 어려워했고, 어떤 사람은 더 잘 풀어낸다. 따라서 마음 읽기에는 다양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제를 잘 푼 사람은 더 넓은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마음이론의 두 번째 기능인 '공감하기'는 마음 읽기와 조금 다르다.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도 공감하는 것이지만, 타인의 감정을 더 느끼고 그로 인해 내 감정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 사람 참 끔찍했을 거야, 그 사람 참 슬펐을 거야' 같은 식의 반응이다. 공감하기는 마음 읽기가 이루어지는 뇌 영역의 약강과 관련된 감정을 느끼는데 직접 관련된 뇌 영역을 사용한다. 따라서 마음 읽기와 공감하기는 서로 중첩되는 작용이다. 하지만 이들의 비중이 같지 않고 한쪽이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친화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마음이론은 친사회적, 초사회적 행의 기초가 되는 심리작용이다. 하지만 여기는 개인마다 크거나 작은 차이가 존재하고 이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친사회적, 초사회적 행동에도 개인 차가 존재한다. 우리가 모두 이미 경험적으로 이런 차이를 잘 알고 있다.

5대 성격특성 모델은 사람들의 자기평가 자료를 통해 친화성이라는 성격특성을 확인했다. 친화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협조적이며, 사람을 잘 믿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하지만 친화성 수치가 낮은 사람은 차갑고, 적대적이며, 온순하지 않다.

친화성 점수와 마음이론 능력점수 간에는 0.5라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완벽하진 않지만, 공감지수는 친화성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친화성 수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단어를 처리하는 데 쓰는 시간을 예측할 수도 있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유괴하다' '구타하다' '괴롭히다' 와 같은 단어를 처리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반면 '돌보다' '위로하다' '돕다.' 같은 단어를 처리하는 데에는 더 짧은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여러 경향과 연구결과를 종합했을 때, 친화성은 친사회적이고, 따듯하며, 사람을 잘 믿는 행동을 낳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돕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가지며, 선행을 즐기고, 사람들과 싸우거나 부딪히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들은 쉽게 사람을 용서하며,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도 화를 잘 내지 않는다.

-도덕적 기쁨과 적대적 경쟁

연구원인 마리아는 친화성이 높은 사람이다. 마리아는 자신 주변의 모든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인간관계는 결혼생활, 가족관계, 친척 관계, 대학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 친구들과의 관계 모두 좋아요. 이들의 애정과 우정에 깊이 감사하죠.

마리아의 연구실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시끄럽다. 그러나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연구에 집중하는 시간 때문에 타인에 소홀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위해 자신의 성취를 양보하는 행동을 보였다. 또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학문 외에도 '도덕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히스패닉계 이민자를 위한 자원 봉사과 헌혈이다.

이런 봉사와 헌혈 등에서 도덕적 기쁨을 느끼는 것은 높은 친화성을 잘 보여주는 전형이다. 상담사, 사회복지사, 자원 봉사자 중에는 친화성이 높은 사람이 많았다. 관계지향성과 도덕적 기쁨이 높은 친화성의 특징이라면, 낮은 친화성은 특징이 무엇일까?

타인을 믿거나 돕는 경향이 적고, 냉정하거나 적대적인 경향이 많으며, 인간관계가 별로 조화롭지 못하고, '위로' 같은 상호주의적이고 협력적인 단어보다 '공격' 같은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단어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마음 읽기와 공감하기 같은 마음이론의 수준이 낮으면, 타인을 불신한다. 결국, 타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적대적으로 본다.

잭이라는 사람은 친화성이 낮은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주변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그는 어릴 시절 "가족에 대한 회의로 고통받았다." 고 하며, 부모를 "자식을 낳은 자격은 물론, 자식을 기를 자격도 없는 두 명의 매우 무책임한 바보" 라고 묘사했다. 잭의 아버지는 "죽대 없고 질투심만 많은 어른 아이", 어머니는 "계으르고, 허약하며, 바보 같고 이기적이며, 유아적인 똘똘러 식언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그의 사례가 개관적으로 어떨든 간에, 친화성이 낮은 사람이 타인을 매우 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만은 분명했다. 또한, 마리아가 관계에 초점에 관점을 맞추는 것에 반해, 잭은 자신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었다.

내 생각을 이기적으로 보는 것은 저급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의 자부심을 깨뜨리려는 짓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서로 동등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항상 이타주의적 관념에 휘둘러야 하는가?

나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 . . 생존이란 그런 것 아닌가?

책의 말이 다윈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복지를 앞세우는 것은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다. 하지만 재미난 것은 그의 말에서 타인 존중 선호는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관심이 없으며, 배아주의적 사람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런 책의 생각과 마리아의 도덕적 기쁨은 친화성 스펙트럼의 정 반대편 끝에 위치하고 있다.

-사이코패스

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친화성 스펙트럼 맨 끝에 속하는 사람 중 우리 사회에서 큰 혼란을 주는 사람들로 사이코패스가 있다. 물론 사이코패스도 여러 영향이 종합되어 사이코패스 성향이 측정되는 것이기에, 사이코패스나, 아니냐로 나눌 수는 없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낮은 친화성이 사이코패스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

사이코패스들은 특별한 자극이나 도발 없이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고만하고 사취하며 기만하고 공격을 일삼는 충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거나 이런 행동을 저질러도 이내 후회나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들은 주변의 도발 없이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공격성을 보이며, 그 후에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사이코패스의 성향은 아주 복잡하며 그만큼 탄생하기도 어렵다. 사이코패스들은 대부분 친화성과 성실성과 신경성이 모두 낮은 경우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구속하고 있는 세 가지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심리는 공감이다. 둘째는 사려이며, 셋째는 공포, 두려움이다. 타인의 마음을 직접 공감한다면 그렇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기란 쉽지 않다. 죄책감, 죄의식을 느끼게 되니 말이다. 또한, 사려 깊게 생각한다면, 충동적으로 폭력, 갈취 등의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자제할 수 있다. 또한, 이 일로 보복당하거나, 실패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면 실천으로 옮기기란 여간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 심리들이, 사이코패스에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낮은 친화성은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며, 낮은 성실성은 충동적인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낮은 신경성은 공포,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을 억압해줄 심리들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심리를 모두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하나의 심리 상태만 결핍되어도 사이코패스 성향에 가까워지는 것이며, 그런 경우 역시 드물기 때문에 약 125,000명 중 한 명꼴로 이런 사이코패스가 발견된다고 한다.

-낮은 친화성은 모두 폭력적인가?

그러면 친화성이 낮은 사람은 모두 공감능력, 즉 마음이론이 낮으며 폭력성을 보일까? 사이코패스가 친화성이 떨어지고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론의 수준 역시 낮을 것이며 폭력적인 성향의 단초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낮은 친화성이 늘 적대성과 관련되어있지 않다. 친화성 수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친화성이 낮지만, 착실한 남편이며 아버지이며 능력 있는 선생이자 동료인 데이비드의 사례를 보자. 그는 자신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며 철학과 과학과 자신이 사는 시골을 즐긴다. "조용하고 맑은 날 아침, 꽃과 벌레와 새와 짐승, 그리고 모든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 나에게서 천국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충분한 관심이 있으며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소 제한적이며 사람에 관한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은 지루해요. 차라리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으면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이것저것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어요.

데이비드는 타인에 관한 관심 부족이 인간사회에서 잘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에 관한 관심을 다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그는 인간관계에 엄매이지도, 의지하지도 않아 보인다.

대체로 나는 불필요하게 복잡한 일에 연루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종종 불필요하게 복잡해요.
인간관계에는 지위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행동과 동기들로 가득 숨겨져 있어요.
나는 그런 게 싫고 그런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와 같은 인간관계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데이비드의 생각은 흥미롭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 이면에 숨겨진 마음 상태를 해석하는 데 관심 없는 사람은 대화에서 뭔가 숨겨져 있다고만 느낄 수 있다. 이런 데이비드 같은 사람에게 대화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것으로 가득하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공감능력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폐증 환자는 공감능력과 관련 있는 마음이론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이코패스 역시 공감능력, 마음이론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자폐증 환자는 마음 읽기 능력에 장애를 보이지만, 타인의 고통을 정상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사이코패스 중에는 마음 읽기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마음이론의 마음 읽기와 공감하기는 같은 뇌 영역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읽어낸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즉 마음 읽기와 공감하기를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읽는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따라서 친화성은 마음 읽기보다 공감하기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화성이 낮다는 것은 자폐증처럼 타인의 마음을 읽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처럼 읽어낸 마음에 대해 별로 '개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타인 존중 심리의 근원은 무엇인가?

타인 존중 심리는 어떻게 자연선택 속에서 만들어지고 보전되었을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는 존재들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이타심이, 남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걸까? 이에 대해 완벽한 설명을 찾을 순 없지만 아마도 추측하기로, 우리의 조상들은 함께 어울리면서 받는 혜택은 크지만, 추방당하면서 생기는 비용은 매우 큰 것이다. 아마도 우리 조상들은 항구적이며 조그마한 사회 집단을 이뤄 협동하며 살았을 것이고, 그 사회 안에서의 좋은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면 보상을 얻고, 반사회적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추방될 위험을 안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인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자신의' 이득이 되는 특이한 상황이다. 또한, 언어라는 요소를 통해 서로의 평판이 쉽게 공유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나쁜 소문이 반복되거나, 커질수록 공동체 전체는 불신으로 가득하여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이유다.

반면에 협동을 통해 얻는 혜택이 줄어드는 환경이라면, 타인 존중을 선호하는 경향은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개인의 친화성 정도는 환경에 따라 달랐고, 최적의 친화성 정도 역시 달랐다는 것이다.

-친화적인 사람과 반사회적인 사람

그러나 협동을 해야 하는 한 사회 안에서 모두가 타인 존중 선호를 보이지 않고, 반사회적이며, 이기적인 사람이 섞여 사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협동과 좋은 평판으로 얻게 되는 혜택이 더 크다면, 자연선택으로 인해 이기적인 사람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 하지만 빈도의 의존성이 작용하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시장흐름이나 틈새시장과 비슷하다. 한 사회 안에 타인 존중적인 사람이 많다면 호전적인 사람은 이득을 보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호전적인 사람의 위협에 즉각 양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에 호전적인 사람이 늘어나 다수를 차지하면, 다시 타인 존중적인 사람이 유리해진다. 호전적인 사람이 많다면 대부분의 다툼이나 분쟁은 싸움으로 번질 것이며 여기서 비호전적이며 친사회적인 이들은 진즉에 싸움을 피하거나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호전적인 이들보다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그 결과 한 집단에서 착한 사람과 호전적인 사람의 빈도는 어떤 평형을 중심으로 늘었다 줄기를 반복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친화성이 낮다.

앞의 논의를 약간 종합하자면, 좋은 사회 및 인간관계 차원에서 친화성이 높은 것은 유리하나, 개인적인 성공의 차원에서 약간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식이다. 앞서 살펴본 마리아도 소중환 사람들을 위해 자기 일과 성취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이러한 성향은 직업 세계에서 볼 수 있다. 사십 대의 기업 임원 4,000명의 경력과 성격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친화성이 높을수록 수입, 승진, 그리고 고위직에 이르는 데 불리했다. 친화성이 높을수록 경력이 좋았고, 친화성이 낮을수록 경력이 나빴다.

-남녀의 친화성 차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친화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것은 단적인 사례가 아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성격 테스트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는 남녀의 비율은 여성 16%에 비해 남성은 4%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낮다. 또한, 평균적으로 남성의 친화성 수치는 여성의 그것보다 70% 낮다고 한다. 이런 차이는 유전적 차이가 크데, 여성에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하자 친화성이 떨어졌다.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여러 이유는 이렇다. 진화과정에서 여성들은 조화로운 구성원이 되는 것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 개인적 지위에서 얻는 혜택이 더 컸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번식의 제약이 없으며 활발하다. 남성의 경우 지위에 비례해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었던 반면, 여성의 경우 생물학적 한계에 부딪힌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식에 있다. 자식의 경우 엄마에게 의존해서 성장했는데,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이웃들과 네트워크를 이뤄 함께 보호하고 살피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웃 네트워크 사이에서 좋은 평판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육아와 생계에 있어 여성들의 협력과 유대는 여러 문화에서 공통으로 두드러지는 특성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우정을 중요시하고 친척을 보살핀다.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조망에서도 친화성은 살펴볼 만한 유효한 관점이다. 여성 CEO의 비율이 50%보다 훨씬 미미하다는 사실을 들어 성차별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대개 페미니즘 진영의 논리인데, 사실 성차별보다 사회적 관계를 희생해 가면서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는 여성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녀는 같은 동기와 생물학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서 같은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고 기대해선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친사회성, 높은 친화성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며 감사해야 한다.

10. 마지막, 성격은 바뀔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성격은 대단히 일정하고 개개인마다 고유하며, 나쁜 믿을 만한 예측을 준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에게

는 5가지 성격의 특성이 존재하고 나뉘고 고유하게 각기 다른 성격 수치를 보인다. 또한, 이 수치는 나뉘고 일관되게 유지되며, 우리 삶의 사랑, 관심사, 인간관계, 경력과 건강처럼 인생의 수많은 일이 성격에서 비롯된다. 그런 이유는 우리의 뇌 메커니즘이 어떻게 발달했고, 어떤 기능이 더 활성화되었는지, 덜 활성화되었는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뇌 구조와 작용이 다른 이유는 첫째, 유전에 따른 것이며, 둘째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유년기의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성격은 바뀔 수 없는 것인가?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남았다. 더 나아가자면, '인지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한 노력은 이처럼 유년기를 지나면 불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 5대 성격특성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5대 성격특성을 너무 고지식하게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편의 상을 위해 성격특성 각각을 10개의 수치로만 측정할 수 있다고 해도 이미 100,000개의 엄청난 다른 성격이 존재한다(물론 더 많지만). 또한, 그를 한국 인구에 비교할 시 대한민국에는 나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500명이나 존재하는 셈이다. (한국 인구 50,000,000/100,000)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있지 않다. 즉, big 5를 통해 한 사람의 모든 걸 설명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성격의 두 번째 범주처럼 '개인별로 독특한 행동 패턴'은 성격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성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한 사람은 스쿠버다이빙가 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극지탐험가가 될 수도, 한 사람은 둘 다 즐길 수도, 둘 다 즐기지 않지만, 사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이 서로 다른 행동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의 인생사, 기회와 선택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 500명의 한국인은 저마다 다른 외향적인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들은 자신에게 객관적인 인생사가 아닌 주관적인 인생사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 등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사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내러티브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개인적인 이야기, 인생사를 써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두가 똑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겪어도 개인적인 내러티브와 라이프스타일은 다 다르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서로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직업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실패의 기록으로 이야기할 수도, 가혹한 경쟁에서 벗어난 즐거운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500명의 한국인도 같거나 비슷한 경험을 모두 다르게 서술할 것이다. 그만큼 이들의 정체성은 모두 조금씩, 혹은 많이 다를 것이다.

-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

첫 번째 성격 수치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십 대에 외향적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외향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성격 수치의 서열은 대체로 유지되는 되면서 전체적인 분포는 나이에 따라 다소 변한다. 성인이 될수록 친화성과 성실성이 높아지고, 외향성, 개방성, 신경성은 낮아진다. 인생사를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

- 늙을수록 좋은 공동체원이 되고 싶어한다.

높은 외향성과 개방성에 관련된 행동인 야망과 창조성, 탐구성 경쟁성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재산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된다. 좋은 짝을 찾고 지위와 돈을 모으는 일이 가장 열렬하고 경쟁적일 때가 젊은 시절임을 가만하면 당연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생존이 확실해지면 이제 공동체원이 되려는 욕구가 더 커진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외향성과 개방성으로 치우쳐진 균형이 친화성과 성실성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 핼 대신 닭, 순방향과 역방향

또한, 성격을 행동 패턴으로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다른 행동 패턴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향적인 사람이 오토바이를 즐기다 문득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이를 포기하고 덜 역동적이며 쾌감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격에 맞으면서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면 된다. 기본적인 성격을 포기할 필요 없다. 그 성격을 표현하는 활동을 바꾸면 된다. 성격을 표현하는 활동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순방향'과 '역방향'이다. 예를 들어 성실성이 낮은 알코올 중독자는 역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술을 계속 마셨을 때 초래할 문제가 치명적이기도, 중독자가 한 잔이라도 마신다면 계속 마시는 것을 제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술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과거에 그가 지나치게 음주에 의존한 것은 음주에 있어 지나치게 솔직한 '순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역방향 행동은 상당히 많다. 최악의 사람을 피하는 것, 부정적인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것, 사람을 잘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일부러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자신의 성격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역방향 행동이다.

-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자.

또한, 자신의 주관적인 라이프스토리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라이프스토리는 객관적인 현실 사정에 덜 구속받는다. 당신이 돈이 없다면, 그 사실을 성공으로 볼지, 실패로 볼지는 상당 부분 자신에게 달린 일인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현실을 바꾸기는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그것을 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누려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랜 노력과 인지행동 요법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가장 큰 사람은 그렇게 할 능력이 가장 적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가장 적은 사람은 그럴 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 성격을 바꾸기 위한 행동전략

라이프스타일을 재해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행동들이 유지된다면, 다 지난 후 이를 즐거운 추억으로 삼는 것은 허무한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낮은 성실성을 가진 사람은 순방향 행동을 통해 충동성과 역동적인 반응능력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나 일을 찾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매일 아침 억지로 정해진 일을 하거나, 문제가 생길 법한 장소를 멀리하는 등의 행동을 병행해야 한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평생에 걸쳐 지고 살 무시무시한 고통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굴복하기보다 역방향 행동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신경성에 저항할 행동 전략들이 나와 있다. 운동과 요가, 명상, 인지행동 요법, 그리고 항우울증제와 신경안정제 복용 등이다. 운동은 기분을 전환하고 육체적인 만족감을 준다. 명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며, 인지행동 요법은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게 해준다.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 세로토닌 시스템이 생화학적으로 강화해 다소나마 행복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행동전략이 신경성 수치를 낮추지는 못하지만, 신경성으로 초래된 문제 일부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행동 전략을 추구한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약점을 강점으로

지금까지와 다른 나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볼 여지는 상당히 많다. 기본적으로 성격을 바꾸기란 어렵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5대 성격특성은 모두 그 수치에 따라 단점뿐만 아닌 장점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더 좋거나 더 나쁜 성격은 없다. 수치가 극단적일수록 장점도, 단점도 극단적이다. 반대로 수치가 중심을 이룰수록 특별한 장점도, 단점도 없다. 문제는 자신이 물려받은 성격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행동 패턴을 찾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자신의 성격은 저주가 아닌 자기계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도덕적, 지적 성찰을 통해 환경운동에 참여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외향성이 낮고 신경성이 높다고 해보자. 이는 공개토론, 언론활동이 미숙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운동에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와 연사가 필요한데, 여러분은 그런 역할을 잘 못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환경운동을 포기해야 할까?

여러분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보다, 뒤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최근 연구를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조사원도 필요하다. 바로 이 분야에서 여러분은 경쟁력 있다. 내향성을 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조용히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모른다. 대중 앞에서 여러분을 떨게 하는 신경성은 통계적 방법론적으로 치밀한 조사를 수행하는 데 이상적이다. 반대로 높은 외향성과 낮은 신경성을 가진 '카리스마' 넘치며,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중요한 업무 수행 능력이 쟁점일 것이다.

두 번째 사례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을 힘들게 살았던 개인적인 경험으로 젊은이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보자. 오늘날 많은 젊은이를 우울증과 자학 충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친화성이 낮아 자원봉사나 상담이 잘 맞지 않는다. 상담이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낮은 친화성이 유용한 분야는 따로 있다. 친화성이 낮으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호한 조직가가 될 수 있다. 자원봉사와 젊은이들을 위한 자선행사에는 사실, 착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선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프로그램의 비용을 낮추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조직 관리자가 됨으로써, 젊은이를 돕는 대의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다.

즉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저주 같은 성격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 그보다 자신의 성격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고 그에 알맞은 역방향, 혹은 순방향의 행동 전략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

- 끝맺으며.

조잡한 글이었다. 이 원고는 대니얼 네틀에 『성격의 탄생』과 최현석의 『인간의 모든 성격』을 재구성하거나 옮겨쓴 것뿐이다. 또한 오타자와 잘못된 문장도 아주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의미한 글일 것이라 긍정해본다. 성격은 우리 행동과 행동 패턴, 남들이 날 평가하는 이미지의 원인이 된다. 때로 그런 성격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기도, 긍정하기도 하지만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격에 대한 관심이나 개념,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자신을 구원하고 보살피는 데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특히 장단점을 활용하고 극복하기 위한 행동 전략(역방향 순방향)은 앞으로 남은 많은 삶에 잘 활용될 부분일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격과 행동 패턴에 대한 이해가, 자기 정체성은 물론 타인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기를 기도하며... 재밌었다.

간단한 퇴고를 도와준 한결이, 재미난 심리학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덕래쌤, 편집해주는 위하늘, 차민경 함께 인문학 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하며.

순서

1. 현대미술 첫인상

2. 현대미술사 흐름 (서양)

3. 본문

위하늘; 몸

차민경; 과학

남궁연; 장소

전하성; 언어

4. 주제별 토론

5.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A

6. 참고자료 및 부록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위하늘, 차민경, 남궁연, 전하성

1. 현대미술 첫 인상

차민경

현대미술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는가?

누군가가 갑작스레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난해해.' 라고 답할 것이다. 모든 현대미술이 난해한 것은 아니지만,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충격이었다 할 수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난해했기 때문이다.

변기에 자신의 사인을 적은 것이 전부인 것을 작품이라 하고, 심지어는 예술가의 똥이 들어있다며 통조림통을 작품으로 칭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신선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딱 거기까지다. 솔직히 현대미술에 관한 책을 읽기 전에는 '이게 왜 여기에 걸렸지?' 하는 생각을 했다. 저런 그림이면 나도 하겠다는 생각도 했다.

드로잉 기법으로 그렸다는 재스 폴록의 액션 페인팅도, 바닥에 대지를 두고 페인트 통을 두고 휘두르면 그만이지 않은가. 또, 밥 로우의 '두려워 할 게 없다.' 작품은 아무것도 그려 놓지 않은 빈 캔버스다. 이쯤 되니, 내가 작품을 읽어낼 줄 모르는 것인지, 적절한 의미만 부여하고, 신선하다 싶으면 갤러리에 걸릴 수 있는 것인지 헛갈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알고 싶다. 현대미술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위하늘

현대미술 작품을 바라 볼 때면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 어디선가 주위들은 이야기로, 기본적으로 예술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탄생했다고 한다. 원시미술의 동굴 벽화부터, 종교, 신화이야기, 부자들의 초상화 등. 그리고 감상은 나중의 몫이었다고 한다. 지나온 미술사를 살펴보면 그 작품의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작품의 이해를 도울 수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현대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예술의 개념이 변화해 왔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오늘날의 예술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현대미술도 참 다양하겠지만, 내가 현대적이라고 느끼는 미술 작품은 대개 추상적이고, 난해하다. 어쩌면 현대 미술의 작품은 예술 활동의 기록일 뿐 그 과정이 예술 자체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며 행위예술과 혼동되는 고민이 생긴다. 끝도 없는 고민이 펼쳐지다 이제 예술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에 도달한다. 애초에 예술이 뭔지 알지도 못했으면서 말이다.

'순수 미술이란 정교하게 갈고 닦은 선과 형태를 다루는 솜씨와 기술, 대가의 기교가 합쳐져 이루어지며 우리가 감탄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지금도 지배적이다.' 라는 말에 공감한다. 나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그렇지 않은 현대미술에 반감이 든다.

무엇이 이것을 예술로 만들고 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까. 여전히 내가 현대미술을 감상할 때 드는 고민이다.

남궁연

사실 현대미술을 많이 본적이 없다. 현대 미술에 대해 처음 생각을 해본 건 영화 '언터처블'에서 큰 캔버스에 코피를 뿌려 놓은 듯한 그림을 보고 주인공들이 얘기 하는 장면에서 저판 그림을 몇 억에 사는 멍청이가 있나 라는 대사가 나온다.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현대미술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현대미술 전시나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피곤하다고 느꼈고 나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 최근에 와서 현대미술 작품들을 보면 난해하거나 도가 지나친 퍼포먼스 임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여 놓고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을 보면 현대미술에 질을 떨어뜨려 놓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또는 정말 순수하게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괴랄 하고 이상한 짓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유명세를 얻어 돈을 벌려는 생각을 많이 들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이쪽 업계도 포화상태 인 것 같다.

전하성

우선 현대미술은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미술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1970년대 이후의 미술은 동시대미술로 구분된다 한다. 시작 시점은 대체로 리얼리즘이나 인상주의를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시기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사진이 등장하면서 회화가 더 이상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임무를 맡지 않게 되었고 그림으로 이후 미술은 대상을 얼마나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그리는 가의 대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조형미나 개념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이로부터 현시대 미술을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은 난해하고 복잡하고 캔버스 전체를 한색으로 칠하거나 점 하나만 찍는 다던지 자질 같은 문제도 같이 떠오르게 된다. 또 다른 문제로는 부패와 대작 같은 문제로 이미 많은 반감을 쌓았다.

이 시대 현대미술을 생각해보자 종이 한 장에 낙서한 예술작품이 생각 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생각해보자 어

린아이의 코 묻은 그림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가? 현대미술이 개념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4살짜리 아이의 그림도 말만 그럴 듯하게 포장하면 완벽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버린다.

현대미술은 이해시켜야 하는 미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시각적인 부분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대미술은 시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 아주 감성적이고 생각이 깊거나 칼 같은 눈치를 소유하고 있다면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도 있고 그럼으로 작품을 공감하고 느낄 수도 있겠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 작품을 그린 이에게 설명을 주구장창 들어도 고개를 갸우뚱 할 확률이 몹시 높다.

그래도 한 20억쯤에 구매했다 치자 나는 정말 후회할 것이다. 왜냐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이다. 그럼 0.1%의 상류층 부자들은 왜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는가. 가식적이고 오글거리는 생각을 해보자면 작품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자면 유명하고 커리어 있는 자가 곧 가치이기에 그림 한 점이 아주 훌륭하더라도 커리어가 없다면 구입하기 꺼려 할 것이다.

또한 2012년 이전에는 그림에 세금이 붙지 않았다 많은 부자들은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또는 재산증식을 위해 그림을 구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2. 현대미술사 흐름

0. 현대미술에 오기까지

낭만주의 이후 화가들은 점차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주문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화가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고자 했다. 이러한 독자적인 예술표현은 근대미술로 가는 포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과 전선 신화와 같은 허구와 이국적인 소재를 그리는 낭만주의는 점점 공산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강하게 풍겼고, 이런 경향을 우려한 화가들은 자신 주변의 현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때 나타난 미술이 사실주의이다.

1. 사실주의

사실주의는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뜻이다. 주로 농민과 도시노동자의 삶을 그렸다. 쿠르베는 "나는 천사를 본적이 없어 천사를 그리지 않는다."는 현실이 아닌 것은 그리지 않는다는 사실주의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2. 그러나

그러나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사실주의의 의미가 퇴색하였고, 그림을 아무리 사실적으로 그려도 사진보다는 똑같을 수 없었다. 화가들은 그림에 현실을 담는 일 보다 실험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빛에 따라 시시각각변하는 색채를 담은 인상주의가 나타난다.

3. 인상주의

인상주의 화가들은 야외에 나가 빛의 색이나 정도에 따라 똑같은 나뭇잎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고, 빠르게 캔버스에 담았다.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은 같은 장소를 여러 시간대에 그린 그림들이 많다. 아침, 낮, 밤, 맑은 날, 흐린 날 등 날씨와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과 색채를 표현한다.

4. 신인상주의

하지만 인상주의는 색의 변화를 빠르게 담아내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상은 무시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색만 표현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인상주의 광학 이론과 색채 이론을 연구해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한다. 그것이 바로 점묘법이다.

우리 눈이 인식할 색을 예측하고 점을 찍어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분석적이면서 형태를 잘 구성해야한다. 그래서 인상주의는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반면, 신인상주의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 한다. 하지만 신인상주의 또한 과학에 집착해 풍부한 감정표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 화가의 주관적 감정과 내면표현을 중요시하며 나타난 이들이 후기 인상주의이다.

5. 후기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에는 반 고흐, 폴 고갱, 폴 세잔이 있다. 폴 세잔은 사물의 본질적인 형태를 그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연속성을 표현하려 했고, 폴 고갱은 현실에 자신만의 상상을 더해 그림을 그려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그림을 남겼다. 반 고흐는 강렬한 색채와 두꺼운 붓질로 자신의 열정과 격렬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들을 후기 인상주의로 묶어 있지만 그림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도 없다. 그만큼 점차 화가의 개성표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야수주의

인상주의가 색을 통해 자연을 재현하려고 했다면, 야수주의는 색으로 화가의 감정과 이념을 표현하고자 했다. 특히 이들은 아프리카 예술의 강한 원시성과 색채를 참고했다. 고흐가 남긴 "나는 나 자신보다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색채를 사용한다."는 말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을 받은 야수주의 화가들의 이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7. 표현주의

강렬한 색채, 형태의 단순화와 대담한 변형,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향과 사색적인 내용은 주관적인 화가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현주의자들은 감정과 감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됐다. 이들에게 선, 형태, 색채 등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으며, 구도나 구성의 균형과 아름다움 같은 이전 회화의 전통은 감정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무시되고 왜곡되었다. 표현주의 미술은 자연의 단순한 모방에 반대하고, 인간의 감각과 감정의 표현과 구성에 주목한다.

8. 입체주의

입체주의는 야수주의가 너무 화가의 주관적 표현에 치우쳐 색채 감각만을 좇고 있다고 생각해, 형태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그리려는 시도를 했다. 이 때 입체주의가 주목한 화가가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세잔이다. 그는 자연을 그대로 그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모든 자연을 원뿔, 원통, 구의 형태로 환원하는 본질의 모습을 그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세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입체주의다. 입체주의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수많은 조각으로 나눈 후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본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의 화면에 담으려고 했다. 즉, 정면, 측면, 후면에서 본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그린 것이다. 이것을 르네상스 이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단일시점의 원근법을 한 번에 무너뜨린 혁신적인 시도였다.

9. 초현실주의

초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자유로운 상상을 추구하는 미술이다. 이성의 지배를 거부하고 비합리적인 것, 의식 아래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 혁신 운동이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쟁의 원인이 이성에 의한 합리주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꿈의 세계를 표현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또 초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기법들을 창조해냈다. 무의식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자동 기술법, 비논리적 상황을 표현하는 데페이즈망, 그리고 우연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콜라주, 앳상블라주,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등으로 초현실주의를 표현했다.

10. 추상표현주의

194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시작된 광범위한 회화운동으로 1950년대에 서양회화를 주도하는 경향이 되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잭슨 폴록이 있다. 그 시대 유럽을 점령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초현실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현실세계의 형태들을 묘사하지 않으려 했고, 자유로움과 개인의 감정표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자유롭게 사용했고, 특히 물감이 지닌 다양색의 물리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감각성과 생동감, 대담함과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추상표현주의 작품들은 전통적인 구성을 버리고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작업을 했다.

잭슨폴록은 그의 회화에 대해서 "내가 그림에 파묻혀 있을 때 나는 나의 일을 의식하지 못한다. 작품과 내가 서로 낯을 익힌 뒤에야 나는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 알게 된다. 나는 변화를 만들거나 이미지가 파괴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화는 그 나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끝내 발현하도록 한다." 라고 설명하였고, 그 표현 방식에 대해서 "회화의 방법은 필요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성정이다. 나는 내 감정을 그리려고 하기 보다는 표현하려고 한다." 라고 설명하였다.

11. 팝아트

대중 문화적 이미지를 미술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한 구상미술의 한 경향이다. 대량 소비사회에 접어들면서 대중문화가 발달하고, 그에 따라 나타난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주로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했는데 영국에서는 주로 순간적, 대중적, 대량 생산적, 청년 문화적, 성적인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경향이 짙은 반면, 미국에서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비판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워홀은 "예술가는 사람들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들을 생산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다. 대량 생산 제품을 예술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예술품 또한 대량 생산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는 예술품도 제작 그 자체보다는 콘셉트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 아닐까?

12. 개념미술

미술작품의 관념성의 비 물질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경향 혹은 그에 의한 표현양식을 말한다. 개념미술을 주로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 사이에 미국, 유럽, 라틴아메리카의 예술가들이 '완성된 오브제는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에 비

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전제로 실험했던 미술 사조를 일컫는다고 한다. 개념미술은 상품으로서의 작품을 거부함으로써 미술작품의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켰다. 이것은 곧 수집가 미술가 및 전통적인 미술작품에 적용하는 모든 가치기준을 거부하는 공격의 화살이다. 따라서 이 미술가들은 자신을 장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주장한다.

피에로 만초니의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은 내용물: 1961년 5월에 신선하게 제작되고 보관되어진 통조림이라는 안내 문구가 영어, 이탈리아어, 불어, 독어로 적혀져 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이 세계 미술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부자들을 중심으로 미술시장이 과열되는데, 이러한 현실에 반대하던 예술가들이 기존 예술에 대한 조롱하는 뜻 혹은 갤러리에 소장할 수 없는 작품을 목표로 만든 것이다.

이처럼 개념 미술은 물질적인 작품은 없고 비 물질적인 개념만 있다는 뜻이다.

3. 본문

위하늘: 몸

몸 : [명사]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이루는 전체. 또는 그것의 활동 기능이나 상태.

intro

몸은 나에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주체성이다. 영적인 것이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닌 물리적인 존재이다. 나의 몸에 대한 인식은 오로지 나의 신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했으나, 나와 타인의 몸을 인지하면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목말라했다. (다빈치처럼 불법으로 신체 해부를 하진 않았다) 시작은 나 자신에 대한 표현(정체성)을 위해 신체 이미지로 관심이 간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으로 몸이나 몸이 의미하는 바에 초점을 맞춘 현대미술에 대해 흥미가 갔다.

몸은 생물학적 기관인가 아니면 문화적 인공물인가? 이 질문에 나는 생물학적 기관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몸의 많은 특징은 본질적으로 육체적이며, 신체적 경험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가 놓치고 있던 몸의 또다른 측면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가기 쉬운지 어려운지, 머리카락이 백발이거나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직장에서 환영받는지 아닌지 같은 문제가 그러하다' -테마 현대미술노트

-

최근 과학실험이나 생명공학 실험이 인간의 신체를 다른 존재와 혼합하는 유전자변형 생물이 탄생할 가능성을 한 것 높여놓기 전까지, 우리는 거처하는 몸은 인간을 지구상의 다른 종과 구분하는 근거였다. 백 만년 이상의 진화 이후, 살과 뼈, 피와 근육 (다른 손가락과 마주 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가진 인간 고유의 손을 포함)으로 이루어진 인간 공통의 생리학, 감각기관의 구조, 우리 뇌의 복잡한 시냅스 네트워크는 우리의 육체적 현존을 구성하고 인간성에 대한 개념을 형성했다. 우리의 몸은 그것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는 프리즘처럼 작동한다.

여러종교(그리고 이런 종교가 스며든 사회의 세계관)에 따르면, 몸은 영혼을 위한 지상의 집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각은 과거 서구미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페디디아스에서 미켈란젤로, 로댕에 이르는 전통적인 서구의 인체 조각은 육체 안에 담긴 영혼 혹은 영혼이 담긴 육체를 표현하려 애썼다. 영혼은 인간 성정의 근원적인 지리였고, 조각가는 이 정수를 묘사(궁극적으로는 육화)하려고 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술사가이자 비평가인 토머스 매케빌리

이와 반대로 포스트모던적¹ 견해에서는 영혼은 없으며 몸만 존재한다. 우리는 그저 몸일 뿐인 것이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스트모던 미술은, 매케빌리에 따르면 몸을 텅 빈 그릇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러한 조건을 다룬다. 예를 들어 제임스 크록은 라텍스를 주조해 마치 영혼 혹은 정수가 제거된 것처럼 텅 비어 보이는 살가죽 모양의 인간 껍데기를 만든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몸이나 몸이 의미하는 바에 초점을 맞춘 현대미술을 살펴볼 것이며, 테마현대미술 책을 바탕으로 공부했다.

text

현대 미술가들은 인간의 형상을 물질이자 육체적인 실체로서, 살과 체액의 조직으로 묘사한다. 그들은 또한 정체성처럼 몸이, 바람직한 행동과 사회·경제적 역할, 권력 관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임을 여러 방식으로 탐색한다. (역할)

1 포스트모더니즘; 1960년에 일어난 문화 운동이면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한 시대의 이념. 모더니즘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

몸을 주제로 다루는 대다수 작품은 구상 이미지를 포함하지만, 인간형상을 보여주는 작품이 시간 영성 장소 같은 다른 주제를 다루는 작품일 수도 있다. 반대로 인간 형태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더라도 몸이 주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몸을 은유적으로 대체하는 의미로 옷 한 벌이나 침대 같은 가정용 가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모린코너의 <당신보다 더 마른>은 극도로 마르기 위해 분투하는 오늘날 미국 여성들이 겪는 압박감에 대한 은유로서 팽팽하게 늘어뜨린 드레스를 이용했다.



과거의 구상미술

인간형상은 종교적 이유로 ¹구상 이미지(구상미술)를 금지하는 소수 문화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가장 오래 되고도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다. 서구의 경우 20세기 들어서 비구상을 실험하기 전까지 화가들은 인물을 그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수년간을 바치곤 했다. 사진 역시 발명 초기부터 인간을 주요 모티브로 삼았다. 역사를 통틀어 인간형상은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명암이나 복합적 형태 시각적 관계에 있어 무수한 변주가 가능해 특히 도전적이고 쓰임새가 많은 형식이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종교적 믿음과 정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때로 물질로서의 몸이라는 사상을 재현하는 데 쓰이기도 했는데, 섹슈얼리티나 유한성 같은 개념을 표현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작가의 제스처와 창조적인 제작과정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잭슨 폴록이 흘리기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유명한 사진을 떠올려 보라. 자신의 신체적 행위와 창조적 제작과정에 대한 작가들의 자의식은 다양한 형태의 실험 예술로 가는 길을 터주었다. (해프닝, 플럭서스, 행위예술, 신체미술처럼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성행했던 퍼포먼스아트가 그것이다.) 그중 신체미술은 퍼포먼스아트의 하위 장르로 인체 위에 행하거나 인체를 수단으로 하는 미술이다. 문자 그대로 작가의 몸이 매체로 작용하는 신체미술은 몸이라는 주제와 명백히 연관되어있는데, 그 형태는 문신이나 피어싱, 스캐러피케이션(상처를 내서 만드는 문신)처럼 여러 시대와 지역을 아울러 존재해왔다.

현대미술의 한 사조로서 신체미술은 자해나 육체적 한계의 실험에서부터 작가의 몸을 공간의 한 형식으로 제시하는 보다 온전한 종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망라한다.

몸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신체라는 주제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 미술은, 여성 인권을 향한 의식 고양이나 정치적 행동주의에 고무된 여성 미술가들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제작한 작품에서 명백하고 극적으로 표면화되었다. 페미니스트 작가들은 여성의 경험과 감정, 꿈 목표가 미술의 적법한 주제라고 부각시켰다. 여성의 성적 욕망은 여성의 역사와 여성의 영성을 비롯해 교육이나 직업, 수입에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주의의 쟁점과 더불어 페미니스트 작가들이 처음부터 표방한 주요 주제 중 하나였다. 1세대 페미니스트 작가들은 여러 예술 매체를 아우르며 해방된 섹슈얼리티를 탐색한다.

여성의 성적인 측면이 오랜 시간 억압되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의 작가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삼기 위해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했다. 사적인 영역으로 남아있던 여성의 성욕을 선동적으로 공공연히 드러냄으로써 종종 기존의 경계를 넘어섰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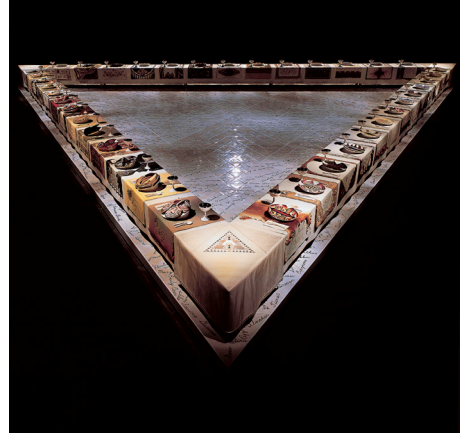
캐롤리 슈니만, 해나윌크 등 1960-1970년대 일부 여성 작가들은 새롭게 발견한 자신들의 성적 힘을 자축하기 위한 예로

1 구상미술; 현실세계에 존재하여 눈에 보이는 여러 대상을 사실대로 묘사하는 미술.

틱 퍼포먼스를 통해, 과도하게 강조된 자신의 몸을 과시하기도 했다. 비평가들은 자기도취적이고 과시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여성의 적극적인 성 역할을 역설하는 데 분명 효과적이었다.



해나윌크



디너파티

주디 시카고의 합동설치 <디너파티>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디너파티의 도상(그중에서도 특히 접시위에 놓인 여성의 성기모형)은 역사의 쓰레기통에 분리되어 버려진 여성들을 구제하는 일 외에도, 서구남성들이 부여한 정형화된 이미지의 여성의 몸을 구출하기 위한 호소였다. '보지이미지'는 남성의 관음증에 저항하고 여성의 지각에 기초한 여성적 섹슈얼리티를 주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되풀이해서 이용되었다.

1990-2000년대 초반 작가들은 신체적인 것과 촉각적인 것을 강조하는 구상미술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고 재창조했다. 이들은 그 어느 때 보다 강렬하게 몸에 대해 발언을 한다. 작가들은 과거 금기시하던 섹슈얼리티의 측면에 시각적 형태를 부여했으며, 컴퓨터 기술과 의학, 생명화학의 발전이 몸에 미친 충격에 대해 탐색했다. 또한 언젠가는 죽게 되고 육체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취약한 몸을 지니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이들은 몸이라는 주제를 탐색하면서 몸을 중첩시키거나 신체의 부분을 분리시켜 몸을 파편화하기도 하고, 몸의 대응물로 머리카락이나 피 같은 체액을 사용하거나 신체기관 혹은 내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나아가 인간의 이미지 실제 사람을 표현하지 않고도 몸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도 많다.

/몸은 전쟁터다; 문화전쟁

바바라 크루거는 1989년 한 작품에서 "너의 몸은 전쟁터다."라고 선언했다. 이 말은 특히 낙태 합법화 운동 여성 출산권 투쟁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이는 몸이 성적인 표현을 포함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정치적인 영역 중 하나"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몸 위에서 벌어지는 '문화전쟁은 대중매체에서 거리에서 전 세계 주거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몸매와 치수, 나이, 피부색에 대한 관습, 특수한 형태의 성적 표현에 대한 금기, 무엇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태도,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의료적 결정이 도덕적이고 법적인 결과, 마지막으로 죄수나 환자 혹은 기타 시설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대한 처우를 지배하는 규칙이 그것이다. 몸을 둘러싼 전투는 결국 다음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누가 몸을 통제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몸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언제 볼 것인지, 왜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몸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1 문화전쟁; 전통주의자(보수주의적 가치관)와 진보주의자(사회민주주의, 진보주의, 자유주의적 가치관) 사이의 충돌

몸을 탐색하는 현대미술의 실천은 문화 일반이 몸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하지만 몸에 대한 태도는 좀처럼 명쾌하지도 않고 대개 완전히 한쪽만의 입장을 취하지도 않는다. 미국에서 근본주의 교회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일례로 그들은 광고를 사서 혼전 성관계를 삼가야 하는 도덕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많은 돈을 쓰곤 한다. 이런 메시지는 팝문화의 주류를 관통하는 강력한 메시지, 즉 성적 욕망과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대단히 쾌락적이며 젊은이들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표현이라는 생각과 경합을 벌인다.

지난 20년동안 미국에서 벌어진 문화전쟁은 종종 몸의 통제에 관한 쟁점을 뒤집었다. 이 시기에 널리 논쟁된 유명 작품 대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신체 작용, 육체욕망을 관객들에게 대면시킨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동성애 하위문화를 다룬 로버트 메이플소프의 사진과 폭행당한 여성으로 분하기 위해 초콜릿, 달걀, 강낭콩 같은 음식을 자신의 몸에 바른 하는 캐런핀리의 퍼포먼스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전쟁은 정치적 행동주의 저항 미술, 종교적으로 불경해 보이는 미술, 아울러 성적으로 노골적인 미술에 대한 거부와 연관되어 있다.

/몸은 기호다; 대중매체 메시지, 사회적의미의 언어에 대한 기호

몸은 나이, 젠더, 인종처럼 우리 자신의 타자의 정체성을 특정 짓는 여러 시각적 기호를 전달한다.

몸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종종 타인의 몸에 부여된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매겨진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 여성은 날씬함에 남성은 크기와 힘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가치는 다른 특성과 결부시키는 다수의 대중매체 메시지에 의해 통용된다.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실시한 한 연구는 TV프로그램에서 마른 여성 캐릭터가 뚱뚱한 캐릭터보다 연애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가치는 시청자로 하여금 몸을 기호로 해석하게 한다. 날씬한 여성의 몸을 보게 되면 성적 가능성을 임도록 훈련되는 것이다. 몸은 사회적의미의 언어에 대한 기호다. 이런 전가된 기호는 거식증 폭식증 등 극단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성별에 따른 정체성은 어떤 이를 '남자'와 '여자'로 명명하는 신체적 기호에 의존하는 주된 영역이다. 젠더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관점은 남성성과 여성성 같은 젠더 정체성이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성 역할은 언제나 도전받을 수 있고 절충될 수 있으며 다시 정의될 수 있다.

젠더 유동성과 성 정체성은 독일예술가 콜리어 쇼어의 주제 중 하나다. 작품은 모델의 몸을 에로틱한 대상으로 제시하지만 막상 모델의 성별은 모호하다. 모델인 서구 남성 화가들이 여성을 묘사하던 관례 중 하나인 비스듬히 기대 자세로 누워 있다. 얼굴은 화장을 하고 가슴은 단단히 덮어맨 거즈로 브레이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머리모양이나 털이 수북한 다리, 가랑이가 남근 모양으로 볼록한 팬티는 '남성다움'의 기호를 나타낸다.



시각예술에서 몸을 상징적으로 이용하는 예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고대이집트 조각과 회화에서 파라오는 종종 보통 사람들보다 크게 그려지는데, 이는 파라오의 높은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곧추세운 딱딱한 자세는 왕의 꺾이지 않는 장엄과 권위를 의미한다.

작가들은 상징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다. 몸에 대한 미술은 부분이 전체를 표상하는 '환유metonym'라는 방식을 도입하곤 한다. 현대미술에서 불완전한 몸이나 신체 일부를 도입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전통에 대항하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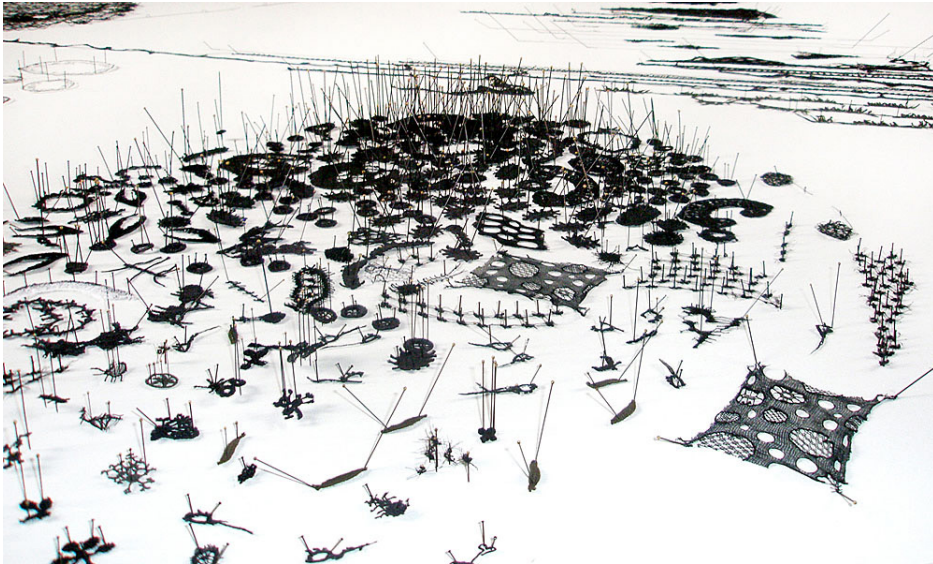
밀로의 비너스처럼 유명한 역사적 걸작과 달리 현대미술에서 파편화된 몸은 우연한 파손 때문이 아니라 고의적인 것이다. 영국작가 마크 퀸은 대리석으로 사람크기의 조각을 만든다. 그의 작품은 처음 볼 때 손백의 표면 때문에 팔다리가 없어지거나 부분만 남은 고전적인 조각상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팔다리를 하나 이상 잃은 실제 사람들의 동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크 퀸의 조각상은 "'미'에 대한 고전적인 이상과 영웅적이고 완벽한 누드라는 범주에 도전하고 이를 다른 기준으로 대체한다."

"20세기 후반 미술에서 몸의 절단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폭력과 억압, 사회적 불의,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가 우세한 세계에 사는 결과다. 어쩌면 우리 역시 과거 세대가 지냈던 미와 완전함에 대한 확고한 이상을 갈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런 세계관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 헬렌 포스너 / 파편화된 몸에 대한 유명한 전시 <몸의 정치학> 기획자

/실연하는 몸

우리는 몸을 통해 세계를 경험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다. 인간은 촉각적이고 육체적이며 본능적인 존재다. 작가들은 실제 몸을 도구로 삼거나 신체물질을 매체로 삼아서 이런 사실을 열정적으로 탐색해왔다.

앤 윌슨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오래된 테이블보를 수놓은 작품을 만들었고



에이드리언 파이퍼는 아직 진행 중인 작품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 1985년부터 모은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톱, 각질을 꿀통에 담아 선보인 바 있다.



1 환유; 어떤 낱말 대신에 그것을 연상시키는 다른 낱말을 쓰는 비유.(예를 들어 서른 개의 뚫이 서른 척의 배를 뜻하는 경우와 같다.)

많은 현대미술가들이 몸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경우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작품 제작에 대한 행동주의적 입장이 표출된 결과다. 수잔 레이시는 미국 페미니스트 미술 운동의 형성을 분석하는 글에서 '몸은 작품 제작의 장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중요한 원천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많은 것이 몸에 근거해 있다. 폭력이나 출산, 섹슈얼리티, 아름다움 같은 이슈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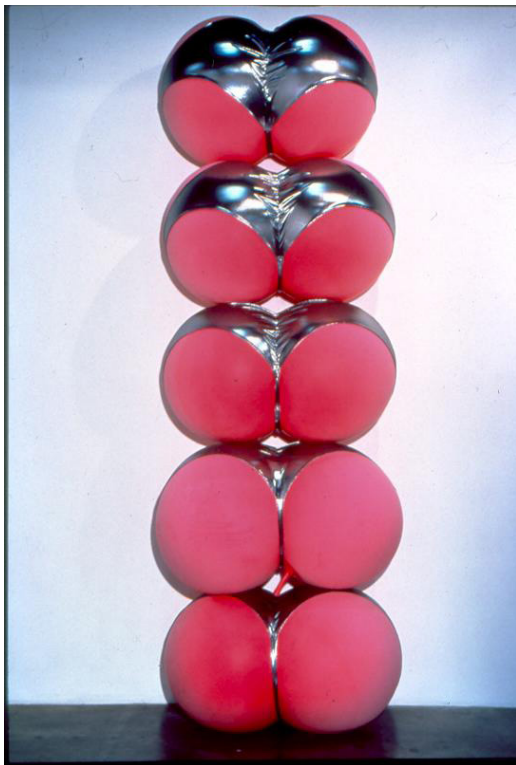
아름다운 몸

인간의 몸은 미술의 영원한 주제지만, 신체 이미지 모두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 몸에 대한 서구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그리스 인들은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육체적으로 가장 완벽한 인간은 신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의 구상미술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체는 인간이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완벽함의 모델로, 그리스 문화에서 가장 이상적이라 여긴 비율을 지닌 젊고 완전한 건강한 몸이었다.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이상은 르네상스 이래 유럽미술을 지배했다. (아름다운 몸의 발단)

고전적 비율을 지닌 젊은 몸을 향한 그리스 식 이상은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지만,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와는 다른 대안적인 이상도 여러 문화에 존재했다. 현대미국에는 여성의 마른 몸과 남성의 잘 다듬어진 몸에 대한 페티시가 존재하지만, 16세기와 17세기 유럽에서는 풍만한 육체가 부와 권력의 증거로서 가장 촉망받는 몸이었다. 해당 문화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체형은 미술 속 몸의 재현에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몸이 어떠한 문화적으로 선호되는 체형 이미지가 굉장히 자주 노출되는 까닭에, 사람들은 그런 몸이 평범하고 본래 우월한 것이며, 이와 다른 몸은 열등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아름다움에 대한 특정 문화의 이상이 선천적으로 우수하다는 환상은 깨지게 된다. 모든 문화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특정 체형이 욕망의 이상적인 대상으로 제시되며, 그러한 이미지들은 광고나 영화를 비롯해 기타 시각문화를 지배한다. 반면 이와 다른 체형은 비하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된다. 한 예로 오늘날의 서구 문화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상은 대단히 한정된 요소 (젊고 날씬하고 건강해야만 한다)로 정의 된다. 서구 여성들은 이 비현실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

"더는 날씬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 탄탄한 근육이 있어야 한다. 처지거나 늘어지거나 힘없어 보이지 않는, 선이 뚜렷한 몸 말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통제가 중요하다. 노화나 신체적 변화, 몸무게, 임신, 근육 정도, 피부 상태, 움직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날씬하든 그렇지 않든 장애인 여성은 신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 이네스트라킹은 장애인 여성에 대해 논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전략 중 하나는 이상적인 몸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복시키는 데 유머와 패러디, 과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저속한 농담이나 신성모독, 의상, 마스크를 통해 역설적으로 위계질서와 금지를 유지하는 일종의 합법적 일탈인 카니발 전통에서 표현방식을 차용한"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비평가나 작가들은 러시아 문학평론가 미하일 바흐친의 용어인 ¹카니발과 ²그로테스크한 몸 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1 카니발은 긍정하기 위해 부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조롱하며, 올라오기 위해 내려간다. 궁극적으로 카니발 속에서 삶은 죽음을 내보이고 죽음은 또 삶을 내보인다.

2 바흐친 카니발 이론 중 하나.

낸시 데이비슨은 부풀린 거대한 일기예보용 풍선에 망사와 코르셋, T팬티 같은 페티시 소품을 입혀, 육감적인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빚어낸다. “나는 유머와 과장, 커다란 여자에 관심이 있다. 이런 태도는 오랫동안 페미니스트였고, 여성임을 의식하고 있으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현대 소비문화(TV, 영화 -특히 액션영화- 같은 대중매체와 광고)에서는 여전히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협소한 이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미술에서 인간의 몸은 대단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작가들은 온갖 체형의 몸을 재현할 뿐 아니라 이상적인 육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편협하고 인위적인지를 알장서서 폭로하기도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규범적 시각에 저항하는 미술은 크기와 모양이 갖가지인 여러 유형을 몸을 보여주거나, 완전함이나 아름다움, 건강 같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규정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우리는 거둬 미와 성적 매력에 대한 협소한 기준을 비판하는 작가를 찾는다. 어떤 작가들은 늙거나 거대하거나, 장애나 흉터가 있지만 여전히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에 발견되는 ‘완벽한’ 몸만이 매력적이라는 생각에 도전한다. 이들 작가는 이렇게 묻는다. 왜 나이든 사람은 젊은이처럼 아름답거나 에로틱하다고 여겨질 수 없는가? 장애나 흉터, 잘라낸 가슴이나 팔다리가 비정상이고 감춰져야 한다고 정하는 이는 누구인가? 몸에 입은 상처나 장애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주지만 사회적 가정과 가치 평가는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더한다.

성적인 몸

서구 현대미술에는 육체가 노골적으로 성적으로 표현된 구상미술의 예가 많다. 미술에 나타난 성적인 몸은 때로는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상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차별, 인종차별, 성 역할, 성 정체성, 동성애 혐오, 여성의 재생산권, 성폭력, 포르노그래피와 예술의 경계 같은 문제를 탐색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세기 후반과 오늘날의 성적 소수자 작가들은 동성애적 욕망과 동성끼리의 사랑을 작품에서 공개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을 가시화 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현대 시각예술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는 성적 쾌락과 욕망을 재현하는 여성 작가들이 전에 없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여성 작가들이 재현하는 여성상은 수동적인 성적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필요와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여성이다. 여타의 성적인 주제처럼 에로티시즘의 재현도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해왔다. 해방된 여성 작가들은 처음에는 이성애적 욕망이라는 관습적인 방식을 표현했다. 이때 그들의 돌파구는 여성의 ‘리비도를 주장하고 남성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후 여성 작가들은 점차 동성이나 다른 인종과의 성적 욕구 같은 금지된 영역에 접근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1980년대가 되자 작가들과 비평가들은 점차 섹슈얼리티의 생물학적 표출보다 섹슈얼리티가 사회적,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표명되는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자전적 내용을 기반을 둔 사적이고 지역색이 강한 작품에서 좀 더 개념적인 작품으로 제작 성향이 변화했다. 일부 여성 작가들은 육체적이고 구성하거나 제한하는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는 쪽을 택했다.

피오나 카슨이 설명하듯 ‘여성의 몸이 지니는 육체성은 1980년대 초반 그 자체의 역사적 무게 아래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여성의 육체는 작가들에게 금기에 가까운 주제가 된다. 왜냐하면 단순히 여성의 육체를 제시하는 것은 지배 문화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대상화되고 상품화된 여성 이미지의 목록에 그저 이미지 하나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육체적 재현이 갈수록 문제시 되면서, 여성의 몸은 변화하는 기표와 부수적 참조물의 홍수 속으로 녹아들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몸에 투사된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해체하는 것, 그 표면 위를 가로지르는 기호들의 질문에 다하는 것이었다.’

시각예술에서 여성의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논란이 많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쾌락적으로 묘사하는 것, 특히 성적으로 보게 하는 대중매체의 방식이 너무나 패배하기 때문에, 관객이 순수미술 맥락의 여성적 에로티시즘 이미지를 볼 때도 이런 관점이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보는 방식을 미리 결정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페미니스트 작가 중 많은 이들이 만약 어떤 여성 작가가 여성의 몸을 지니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온전히 표현하고 싶다면, 작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적 표현과 재현에서 주제성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여성 작가들은 종종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하나는 어떻게 성적 표현의 자유를 진척 시킬 것 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 관찰자들이 훔쳐보며 통제하려는 시선을 어떻게 물리칠 것 인가 이다. 가능한 전략 중 하나는 모호함을 도입하는 것이다.

패티 챔의 비디오 작업은 성적 쾌락과 에로틱한 반응에 대한 미묘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2001년 작 <무제>에서 여학생 차림을 하고 앉아있는 작가는 하얀 블라우스 아래에서 젖은 얼룩을 남기며 요동치는 무언가로 인해 얼굴과 몸을 뒤틀고 있다. 작가가 몸부림 칠 때 우리는 짧은 검정 치마 밑으로 팬티를 슬쩍 엿볼 수 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작가의 블라우스 안에는 살아있는 커다란 뱀장어가 돌아다니고 있어서다. 이 장면은 소름 끼치면서도 에로틱하다. 작가의 표정은 그녀가 성적으로 흥분한 것인지, 징그러워서 몸서리치는 것인지를 모호하게 만든다. 매혹적인 동시에 배타적이고, 자극적인 동시에 불안한 야기하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여성의 에로티시즘을 지현하는 작가들은, 어쩌면 요즘 문화에서 벌어지는 섹슈얼리티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응시; 성적인 몸에 대한 시각적 통제와 권력구조

1 ; 정신분석학 용어로 성본능(性本能)·성충동(性衝動)의 뜻.

미술에 표현된 성적인 몸에 대해 생각할 때 유용한 개념 중 하나가 사회 속에서 뒤엎혀 있는 시각적 통제와 권력 구조의 관계를 반영하는 응시라는 용어다. 서구에서는 세상을 해석할 때 시각에 우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시각적 인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와 보이는지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우리가 누구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사회권력자들이 권력없는자들의 시각적 재현을 “응시”를 통해 제한함으로써 그들을 조정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미지만을 바라보고 싶어 한다. 권력 없는 자들은 그 이미지에 순응치 않으면 무시당하고 소외될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쉽다. 존버거와 미셸 푸코 같은 학자들이 연구한 응시 이론에 따르면, 본다는 것은 결코 중성적인 것이 아니다. 시각적 재현은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관중이 아닌, 특정한 성이나, 계급 인종, 연령의 관객을 가정한다. 영화 이론가 로라 멀비는 페미니즘관점에서 응시 개념을 정교화 했다. 그녀는 서구 사회에 나타나는 응시는 역사적으로 우월한 지배층 즉 남성, 백인, 부유층의 것이었으며, 이는 젠더와 인종, 계급에 입각해 구축된 가부장적 권력 구조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시각적 재현은 보통 여성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남성 관객을 상정한다. 더욱이 여성이 쾌락적인 성적 대상으로 제시될 경우 응시는 관음증적인 성격까지 띠게 된다. 서구 미술사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재현은 반복되어 나타는 오랜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작가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남성작가들이 성적으로 묘사한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는 대상화된 것으로, 여기서 여성은 남성의성적인 만족을 위해 정복당해야 할 대상으로 완전히 수동적으로 그려졌다.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응시와 관련해 지금까지 가장 자주 등장한 주제는 여성이미지를 에로틱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남성의 관음증적인 시선이다. 유럽과 미국의 시각 문화에서 성적으로 묘사되는 대부분의 몸은 이성애자 남성의 상상에 부합하는 상투적인 여성 이미지로, 대개 전신 누드나 부분 누드로 묘사된다. 여기서 여성은 편협한 기준으로 정의된, 종종 과하게 자극적인 이상형에 따라 수동적이고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그려진다.



에드키엔 홀츠와 낸시 키엔홀츠는 <라인스톤 비버 퓌 쇼> 라는 작품에서 권력과 욕망을 짝짓는 강도 높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돈을 내고 낯선 여자의 벌거벗은 몸을 훑쳐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괴한 모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가진 여성들을 등장시켜 페티시화 되는 여성의 신체부위에 대한 시선을 매혹시키는 동시에 내치는 작업을 하는 리사 유스카바지, 남성의 시선이라는 개념을 주제로 삼는다.

응시 개념은 페미니스트 여성 작가들에게 핵심 연구 분야를 제공했다. 페미니스트 작가들은 여성적 자의식이 존재를 주장하거나 역으로 스스로 응시함으로써 남성적 시선에 저항했다. 더욱이 1980년대 이래 작가들이 미술사와 시각 문화 일반에서 상투적인 이미지를 해체하면서, 바라보기의 과정에 내재된 남성 우월 주의적 가치를 노출시키는 데 많은 노력이 행해졌다.



남성적 시선을 표명한 역사적 이미지 속에 숨겨진 성차별을 해체하려는 페미니즘적 의도가 뚜렷한 예로, 조 레너드의 설치<무제>가 있다. 작가는 남성 화가들이 그린 17세기의 여성 초상화를 자신이 찍은 여성의 노골적인 음부사진과 병치시켰다. "음부를 애무하는 손 옆에는 가슴과 어깨를 노출하려고 머리카락과 베일을 만지작거리는 17세기 숙녀가 있다. 직설적인 현대사진과 나란히 놓인 덕분에 회화사에 표현된 성적 자극의 기술이 두드러진다."고 헬렌 맥도널드는 분석했다.



모나 하툼은 자신의 몸 내부부터 살살이 재현했다. 초음파 조영술 전문가를 고용해 몸 내부의 소리를 기록했으며, 내시경과 결장경 기술을 동원해 몸의 내·외부 표면을 스캔했다. 근접 촬영된 이미지는 몸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 연속적인 비디오 이미지로 흰색 원통형 구조물 안 바닥에 투사되었는데, <낮선 몸>이라는 제목의 설치작품이다. 작가의 심장 박동 소리와 호흡 소리를 들으며 영상을 보는 관객은 몸 전체를 훑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따라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신체의 여러 구멍을 통해 위와 장, 질의 내부까지 관통하게 된다. 작가는 한편으로는 오늘날 몸 내부 공간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임상 의학적 시선의 증대하는 권력과 관음증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에로틱하지 않은 여성의 몸을 제시해 관습화된 남성적 응시에 저항하고 이를 와해시킨다.

/성과 폭력; 에로틱한 이미지

미술사를 돌아보면 여성의 에로틱한 이미지가 종종 남성의 폭력의 맥락에서 그려져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영화나 티비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비디오게임 등 거의 모든 형태의 대중매체에서 폭력적인 줄거리와 야릇한 이미지의 결합이 널리 활용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문화에 점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성적으로 자극적인 이런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작가들은 폭력적인 성적 경험을 고통스럽게 묘사한다. 이들은 여성이나 남성이 강간, 구타, 살인, 성희롱을 겪으면서 받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트라우마를 묘사하거나, 때로는 이 같은 성적 학대를 감추거나 외면하는 사회적 관습과 태도를 비판함으로써 섹슈얼리티와 폭력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검토하는 작품을 제작해왔다. 1960년대 페미니스트 행동주의가 등장하면서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을 다루는 미술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오노요코는 초대받은 관객들이 무대로 올라와서 자가의 옷을 자르는 <잘라내기>라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작품은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 의식을 지켜보고, 실제로 가담하기까지 하는 관객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남성적 억측을 정상화 하고 심지어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은 관례적으로 남성의 협조자나 추종자, 고용인으로 인식되며, 이 같은 불평등은 정복과 혹사, 학대로 이어진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 미술은 학대가 팽배함을 보여주거나 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식으로, 일종의 시각적 의식 고양의 수단처럼 작용하는 일이 많다. 서구 대중문화는 폭력에 열광하고, 젊고 관능적이며 매력적인 여성을 폭력의 희생물로 묘사하는 데 사로잡혀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폭력의 희생자들은 성적 매력이 넘치거나 에로틱하지 않다. 그들은 상처받기 쉽고 각기 다른 고통과 분노를 지니고 있는 존재일 뿐이다.

유한한 몸

많은 현대 미술가들은 인간의 조건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원초적인 육체의 측면에서 몸이 변화하는 모양과 상태를 온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한성을 연상시키는 조건 (늙음, 장애, 고통, 병, 죽음)은 결코 감춰져서는 안 된다. 존 코플런스 John Coplans 는 자신의 늙어가는 몸을 대형 사진 연작으로 기록했는데, 이 사진들은 주름과 축 처진 살을 가까이서 보여준다.



1980년대 에이즈가 발병한 이래 인간의 몸을 약하고 병들고, 부상당하거나 죽어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미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대형칼라사진인 아드레스 세라노의 연작 <시체공시소>는 힘하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 부자연스러운 죽음의 음울함이 비스하게 베어있는 연작 <최후의 밤>을 제작중인 루신다 데블린은 미국 전역의 고도소에서 사형실이나 죽음의 도구들(교수대, 가스실, 독극물 주사 장치)을 찍어왔다. 이 기묘한 방이 지니는 위생적인 무미건조함은 이곳을 죽음이라는 오싹한 종말을 대용물로 만든다.

최근 미술에서는 신체 작용이나 근육 상태, 몸무게, 이동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신체 이미지와 형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순응적이고 무정부주의적인 몸은 '그로테스크'의 또 다른 형태로, 영구불변한 완벽함이라는 고전적인 이미지를 거부한다. 샐리 베인즈에 따르면 "고전적인 몸은 부드럽고 마감이 잘 되어 있으며, 마무리가 불완전하고 열려있으며 틈새가 많다." '그로테스크한 몸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과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비록 당혹스럽고 불쾌하거나 공격적으로까지 느껴지더라도, 그로테스크한 몸은 몸의 육체적 실존과 유한성을 역설한다. 또한 용인될 수 있는 외양이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개인적인 차이를 억압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적 규범을 뒤집어엎고 저항한다.

유한하고 고통받고 상처입은 그로테스크한 몸의 재현은 관객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반응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질리아 크리스테바가 최초로 개념화한 아브젝트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아브젝시옹은 절단된 사지나 피, 정액, 머리카락, 토사물, 배설물처럼 몸에서 분리되어 더 이상 전체의 일부가 아닌 대상과 마주칠 때 느끼는 고조된 공포나 수치심을 뜻한다. 우리는 이런 대상과 마주칠 때 어린 시절 어머니와 분리될 당시 느꼈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부감은 여기서 기인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로테스크한 미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우리는 결국 물질로서의 육체를 지니고 있으며, 그 몸이 얼마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몸의 '불순함'은 우리 자신의 몸이 지니는 불확실성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공포에 질리게 하며 위협하기도 한다.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지가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하던 시대와 원초적으로 맞닥뜨리고 관계를 맺게 만든다" - 시각문화 이론가 프란체스카 알파노 밀리에티

포스트 휴먼 몸

약물과 보철, 생명공학, 사이버네틱스, 중간 장기이식, 인공지능, 유전공학은 몸을 지닌 살아있는 유기체가 의미하는 바를 확장시키며 몸과 신체기능의 조작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제이프리 다이치가 사용한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는 인류가 진화의 새로운 장으로 진입했음을 알려준다. 생명공학과 컴퓨터과학덕분에 생물학적 진화를 훌쩍 뛰어넘는 인공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몸을 재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이라는 생물은 더 이상 완전한 유기체가 아니다. 사람과 동물, 기계 사이를 어디서 구분할 수 있으며 어디서 구분해야 하는가? 포스트휴먼 세상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행위와 구조를 양산한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기술과 접합시키는 일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기술 때문에 소외되었다고 느끼거나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에 매혹되고 항상 최신 기술을 갈망하기도 한다.

몸 주제에서는 생명공학과 로봇공학, 컴퓨터과학이 인체를 주제로 한 미술에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인간과 비인간이 결합된 몸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돌연변이되거나 변형된 혼성 몸의 이미지(인간과 짐승, 곤충, 광물, 기계의 결합)는 최근의 생명공학보다 훨씬 앞서 나타났고, 예술과 문학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20세기 초 미래주의 회화에 나타난 인간과 기계의 융합이나 초현실주의 그림에서 인간과 곤충, 기계가 뒤섞인 경우를 들 수 있다.



1 그로테스크; 장식적 패턴을 떠나서 기괴한 환상적인 표현을 통상

벨기에 작가 빔 델보예가 2000년에 시작한 프로젝트 <배설장치>는 인간의 기능을 기계가 모방하려는 노력과 소비중심주의에 대한 개념적 패러디다. 이 프로젝트는 생물학자와 화학자, 공학자들의 도움으로 만든 일련의 대형 장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장비는 인간의 소화기관을 기계적으로 복제한 것이다. 실제 음식이 유리 와 금속으로 된 구조물 한쪽 끝으로 투입되면, 음식은 튜브를 통과하면서 기계로 된 기관에 의해 삼켜지고, 갈리고, 소화된다. 그리고 장치의 맨 끝에서 똥과 흡사한 형태의 유기물로 배설된다. 원한다면 웹사이트에서 진공 포장된 똥과 기타 <배설장치>가 만들어낸 물질을 주문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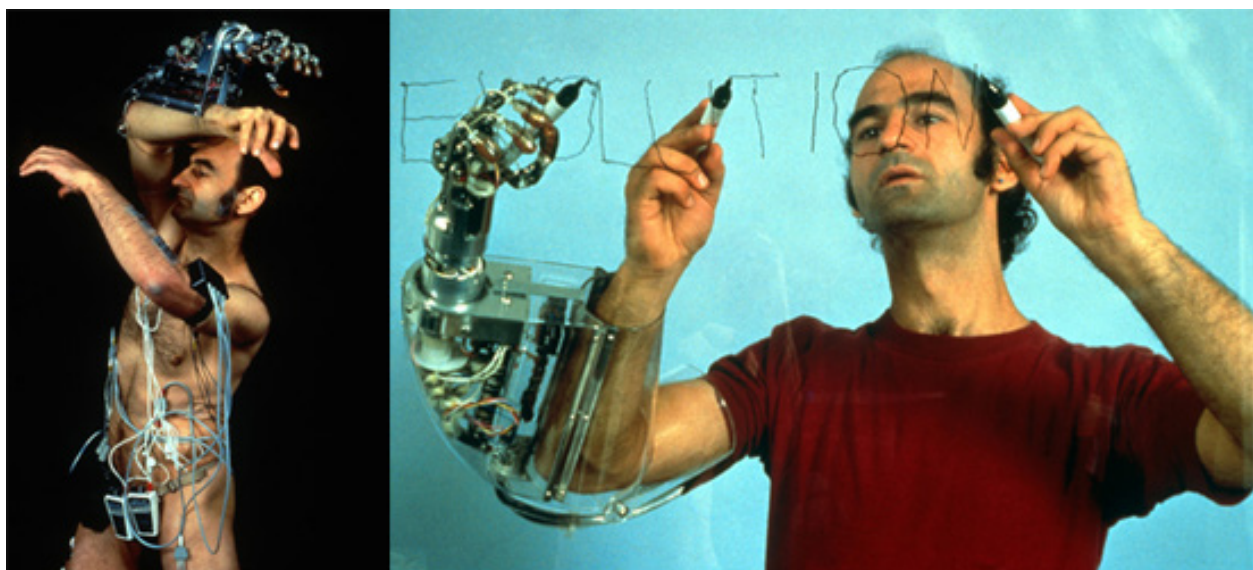
성형수술이나 보철, 약물, 생명공학을 통해 신체적 변형이 일어나는 오늘날의 새로운 세상은 작가들의 상상력을 강하게 자극한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 프랑스 작가 오를랑의 경우다. 오를랑은 1990-1993년 사이에 아홉번의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를 차츰 변형시켰는데, 이를 퍼포먼스라 칭하고 영화로 찍어 전 세계의 갤러리에 생중계했다. 각 수술에는 미술사에서 고른 견본이 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의 이마, 산드로 보티첼리 원작 <비너스>의 뺨 등이었다. 오를랑의 행위들 과연 예술이라 부를 수 있는지, 조각과 성형수술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정체성과 신체적 외형, 몸의 변형, 아름다움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등이 주로 거론된 문제였다.

작가들은 유전자 조작이나 수술 혹은 기계적으로 변형시킨 몸이 어떻게 보이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주목한다. 마르히 헤이르링크스는 디지털 조작으로 주름이 지워진 할머니들을 묘사함으로써, 영원한 젊음을 추구하다가 생긴 시각적 괴이함과 개념적 혼란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생트 오를랑(Saint Orlan), Omnipresence, 퍼포먼스, 1993

부분적으로는 유기체이고 부분적으로는 기계인 혼성 생명체, 사이보그의 개발을 촉진해온 것은 자신의 몸에 정교한 보철과 기계이식을 실험해온 오스트레일리아 작가 스텔락이다. 그는 제 33의 기관으로 몸에 부착시킨 로봇 팔과 손을 이용해 퍼포먼스를 한 바가 있다. 스텔락은 인체의 퇴화 가능성에 매료된 사람이다. 그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합성 피부와 더 큰 뇌 용량, 보다 적은 수의 기관, 청각과 시각 및 기타 감각이 강화된 초소형 회로가 존재하는, 더 강하고 덜 취약한 몸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스텔락은 인체를 기술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은 그저 재미난 실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몸과 기술의 접합에 대한 매혹은 작가나 일반인 모두에게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유기체로서의 인간에 대해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디지털 기술이 우리 자신의 몸이 지닌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언젠가는 살과 피를 가진 인간 대신 아바타 친구를 더 좋아하게 될까?

포스트휴먼 세상의 패턴을 해독하고 영향을 끼치는 일은 현대 미술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우리의 가상 자아는 이미 포스트 신체성을 형성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우리는 물질적인 몸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포스트 신체 인간성은 예술과 삶의 관계를 역전시킬지도 모른다. 미술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이 미술의 일부가 될는지 아는가.

차민경: 과학

Intro

'과학'은 나와 거리가 먼 학문이다. 과학 공부라고 해봤자 초등학교 때와 중등 검정고시 뿐이지만, 번번이 낮은 점수와 과학에 대한 공부 욕심이 없었다. 그렇기에 과학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없었고, 아무리 현대미술에 판을치고 있다 하는 과학 테마라고 해도 피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과학 테마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다. 강의에 참고한 <테마 현대미술 노트>의 책장을 훑어보듯 넘겼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들이 가장 많았던 테마를 선택했다. (작품이미지들이 내 스타일이었다.)

내가 알고 있던 과학과, 예술과 결합된 과학은 전혀 달랐다. 작품을 보며 던져지는 질문들, 미래에는 얼마나 더 실험적이고 도발적인 작품들이 나올까하는 기대감, 동시에 걱정들이 이렇게나 흥미로울 수가 없다.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한 예술은, 우리에게 익숙한 카메라와 같은 매체부터 바이오, 유전자변형 미술 등 새롭고 다소 파격적인 기술들까지 다양하고 폭넓다. 소개하고 싶은 작품들을 비롯해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아쉽게도 인문학 강의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과학적 예술보다는 생소한 기술을 도입한 예술을 위주로 다루려고 한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

천문학, 수학, 물리학, 광학, 의학, 심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과학의 여러 분야는 역사적으로 각기 다른 시점에 작가들에게 영감을 제공했다.

생명과학은 현대 미술가들에게 특히 강한 반향을 얻고 있는 분야다. <정보 예술 Information Arts>의 저자 스티븐 윌슨 Stephen Wilson은 21세기는 '생물학의 세기' 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우리 몸을 포함한 유기적 세계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
전자와 컴퓨터 혁명은 애들 장난처럼 보일 것이다."*

과학자 같은 미술가

오다니 모토히코 Motohiko Odani는 생물학과 유전학을 공상과학소설과 융합시켜 돌연변이와 형질전환을 탐색하는 조각, 사진, 비디오로 알려진 일본 작가다.

이미 '돌연변이'라는 소재는 대중문화에 들어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의 어벤저스에 등장하는 영웅들도 돌연변이의 형태를 하고 있다.



오다니 모토히코, <롬퍼스 Rompers>(스틸컷), 2003, 비디오
https://www.youtube.com/watch?v=W_YhqSP5ldg

디지털로 만들어낸 피조물들은 유전자변형transgenic 생물로 보인다. 개구리는 인간의 귀 모양을 한 날개를 펼치고, 비정상적으로 긴 손가락과 발가락, 노란 눈을 가진 소녀는 눈썹이 있어야 할 자리에 뿔이 나 있다.

<롬퍼스>는 대중문화의 섹슈얼리티가 가미된 유머러스한 작품이지만, 과학적 실험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만약 동물이 인간의 특징을 갖게 된다면 인간과 다른 종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언제나 가능할까? 이런 구분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법적인 권리나 성적 매력, 도덕적 행위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게 될 것인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0년에 시작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2003년에 이미 마무리 되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 유전체의 모든 염기서열을 해석하는 프로젝트다. 과학자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30억 개 정도 되는 유전자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프로젝트 결과 20,000개에서 25,000개가 있다고 밝혀졌다. 이제 게놈의 서열을 해석하는 일만 남았다.

유기체 정보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가 언젠가는 인류의 진화를 조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대담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 만약 게놈 구조와 염기서열이 완전히 파악되고 유전자 코드도 완벽하게 해독되면, 원하는 속성을 지니도록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마저 마음대로 재설계 될지도 모른다.

미술가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특징과 행동이 대부분 유전자에 담겨 있다고 말하는 듯하다.

만약 몸무게, 키, 질병, 성적 취향, 범죄 성향, 지능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사회문화적 경험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정교한 혼합체가 우리의 인성을 결정한다면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인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가져다줄 이익으로 유전자를 이용해 의학, 약학, 생물학 등 치료의 목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낸 성과들로 치료의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할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있겠지만 분명 부작용도 존재할 것이다.

아마추어 과학자로서의 미술가

전문 과학자는 아니지만 진지하게 과학적 관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때로 과학 지식의 발전에 기여하

거나, 과학적 결과물을 모니터링 하기도 한다.

-바이오 아트

바이오 아트 bio art라는 용어는 과학자들과 똑같이 살아 있는 유기물로 작업을 하는 미술가들의 작품을 일컫는 말이다.

어떠한 매체도 그러하듯 특정 물질이나 실천이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바이오아트가 되기 위해서는 아트 재료인 생물학적 물질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처럼 말이다.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의 칼텍에서 '생물학 분야에서 저명한 개념미술가'로 임명된 바 있는 데이비드 크레머 David Kremers는 박테리아로 그림을 만든다. 크레머는 '다양한 색깔을 내는 효소를 생산하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한 박테리아'를 이용하며, '배양기에서 18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미지는 박테리아와 내가 공동 작업한 모양과 색깔로 성장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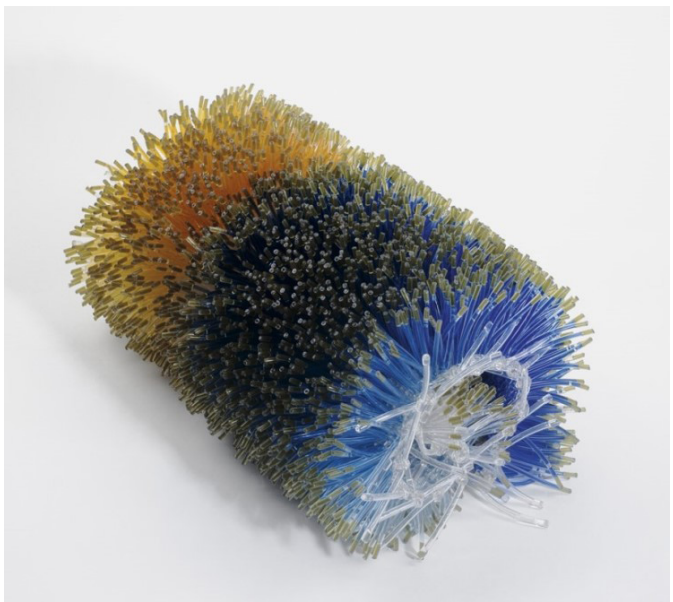


과학은 미쳐 날뛰고 있는가? 행동주의 미술이 답하다.

과학의 어떤 결과에 대해 발언하는 행동주의 미술가들은 종종 모든 과학이 진보적이라거나 심지어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다. 그들은 과학의 발전을 목격하고 감시하는 관객을 찾는다.

오스트리아 태생 로베르트 게슈반트너 Robert Gschwantner의 <기름 양탄자 Olteppiche>는 난파나 산업재해로 발생한 기름 막에 대해 주의를 주는 작품이다.

관련 연작인 <말랑말랑한 장난감 Peluche>은 기름 유출로 인해 수가 격감한, 가시 달린 작은 바다 생물체를 닮았다.



바이오 이미징

모나 하툼 Mona Hatoum은 의학적 바이오 이미징 bioimaging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작가 중 하나로, 비디오 설치 <낯선 몸>은 작가의 몸 외부보다 내부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자화상이다. 비디오는 장과 위, 기타 기관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미술가들이 분자나 유전자 현상과 시스템에 주목하는 것은 아직도 대부분의 미대에서 가르치는 지각적 접근 방식과는 굉장히 대조적이다. 학생들은 인체를 정확히 그리려고 관찰하고 시도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작가들은 살아 있는 신체 만큼이나 두개골과 해골 모형을 그리도록 훈련 받았고, 지식을 쌓기 위해 해부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19세기의 토머스 에이킨스는 인체의 내부 구조에 몹시 매혹된 나머지, 시체 해부에 참관해도 좋다는 시 당국의 허가를 받으려고 애썼다.

미국 작가 게리 슈나이더 Gary schneider는 현미경 사진을 찍는 과학자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유전적 자화상 Genetic Self-Portrait>을 만들었다. 설치는 슈나이더의 귀와 손, 치아 사진을 작가 자신의 DNA와 염색체, 세포, 정액, 혈액, 체모 같은 생물학적 표본을 크게 확대한 이미지와 나란히 놓아둔다. 신체 표면에서부터 세포, DNA에 이르는 단계 중 어떤 수준의 재현이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대변해주는지를 묻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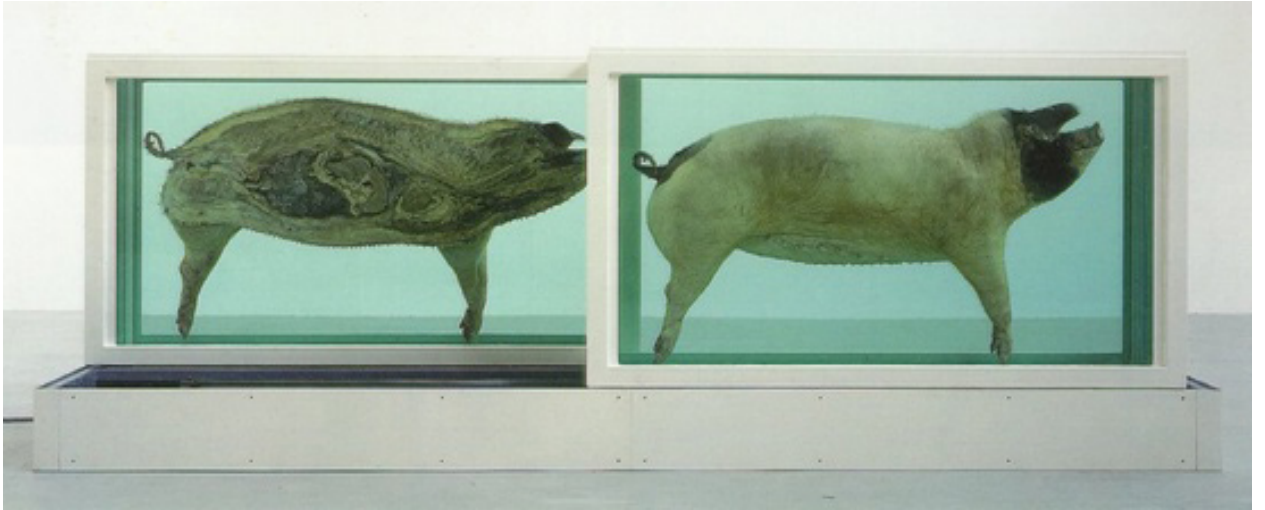


Gary Schneider - *Retinas*, 1998 - Silver Gelatin Prints, At the Warehouse Gallery - Syracuse, NY

게리 슈나이더, <유전적 자화상 Genetic Self-Portrait>, 1997~1998

과학적 디스플레이와 아카이브

동시대 미술가 중 가장 주목받는 영국 미술가, 데미안 허스트가 처음으로 유명해진 계기는 상어나 젖소, 양 같은 생물학적 표본이 담긴 포름알데히드 진열장으로 구성된 전시에서였다. 이 표본들은 가시상태에 빠져있는 것처럼 통째로 전시되거나, 내부가 잘 보이도록 횡단면으로 잘려 진열되었다. 전시장에서 선보인 소름 끼치는 내용물이 담긴 진열장은 오래된 의문을 제기한다.



데미안 허스트 Damien Hirst, <마트에 갔던 작은 돼지, 집에 있었던 작은 돼지 This Little Piggy Went to Market, This Little Piggy stayed at Home>, 1996

무엇이 미술을 미술로 만드는 것인가? 미술을 미술이 아닌 것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아마 이 질문은 평생토록 해야 할 고민거리일 것이다. 현대미술을 처음 접했을 때, '난해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도, '저건 나도 하겠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모두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누가 미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다. 현대미술은 현대의 시대상을 반영한 미술이라 정의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 마디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자연은 자연스러운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전적으로 자연적이기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인간은 농업과 축산을 통해 자연에 개입해왔다.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동식물을 선택적으로 교배시켰는데, 그중에는 곡물을 생산하려는 실용주의적인 이유와 경주에서 우승하는 경주마를 기르고 싶은 경쟁 심리, 그리고 새로운 색깔의 튜립을 만들고 싶은 미학적인 이유도 있었다.

생물학을 연구하는 개념미술가 데이비드 크레머에 따르면 "생물학자들은 진짜로 야생이라 부를 수 있는 종류의 자연은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 단 2퍼센트에 불과하다고 추산한다. 그 외의 생물은 인간 문화의 산물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작가 나탈리 제레미젠코의 <나무의 논리 Tree Logic>는 1999년 매사추세츠현대미술관 부지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조각설치다.

생물공학과 자연스럽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해 비꼬며 논평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여섯 개의 단풍나무 뿌리를 강철 용기에 심고는, 이를 지지대에 연결된 무거운 케이블에 거꾸로 매달아놓고, 물을 공급하는 관개시설도 설치했다. 이 작품은 나무에게 태양의 힘이 중력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뒤집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들은 빛을 향해 거꾸로 자라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나무줄기는 놀라운 모양을 만들면서 위로 구부러진다.



“나무를 자연계의 변함없는 상징이 아니라 성장 반응의 총체로 바라볼 때, 나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한다.”
-큐레이터 로라 스투어드 헤운

제레미젠코는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가진 생물은 없다고 말한다. 모든 생물체는 자기 주변의 환경에 역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형 농업일지라도 식물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제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넘지시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태생부터 심성이 나쁜 사람은 없다. 살아온 환경에 의해 부딪히고, 깎이면서 변화한다.

유전적

유전적 변이의 속도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작가 알렉시스 록먼은 통제되지 않은 생명과학 기술이 내포하는 윤리적, 환경적 의미에 대해 염려한다. 그는 유전체학 genomics이 과학이자 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록먼의 그림 <농장 The Farm>은 농업 사업의 요구가 동식물의 온전한 모습을 압도해버린 세상을 보여준다. 그림 왼쪽에는 흔히 보는 농장의 동물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같은 동물들이 유전공학으로 바뀐 가상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작가는 실험실에서 이미 성공한 변형된 동식물도 묘사하고 있는데, 포장하기 편하게 네모난 모양으로 길러진 채소나 그림 맨 아래쪽에 있는 등에 사람 귀가 달린 쥐 등이 그 예다.



알렉시스 록먼, <농장 The Farm>, 2000, 나무판에 유화물감과 아크릴 물감

우리를 특히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동식물의 개념을 바꾸고, 서로 다른 종의 특징을 한 몸에 지닌 새로운 생물까지 만들고자 하는 유전학 실험이다.

독일 작가 토마스 스킨펠트 Thomas Grunfeld는 1989년에 <부조화들 Misfits> 이라 불리는 연작을 시작했다. 작가는 서로 다른, 박제된 동물 두세 마리의 몸을 합쳐 종이 뒤섞인 자신만의 생물체를 만들어냈다.



토마스 그린펠트 <부조화들 Misfits>, 1994, 박제, 플렉시글라스, 나무로 된 진열장

그중 하나가 양의 좁은 얼굴에 세인트버나드 종 개의 단단한 몸을 한 그림의 변종 동물이다. 이 잡종 동물은 유전학 실험의 괴상한 결과물처럼 보인다.

인간이 유기계에 더 많이 개입하기 위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조작이 가해져야 자연적인 어떤 것이 인공물이 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는가? 몸의 모든 요소가 유기체라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종 역시 자연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복제와 로봇공학 시대에 개인의 정체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물에게 인간 유전자를 이식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유전자배열로 특허를 낼 수 있다면 생명은 누가 '소유'하는 것인가? 자연에 개입할 때 인간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만약 인간 형상을 한 피치니니의 유전자조작 생물이 실제라면, 그들은 생명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인가?

패트리샤 피치니니 Patricia Piccinini



패트리샤 피치니니는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여섯 개의 조각군으로 구성된 설치 <우리는 가족이다>로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했다.

그 중 하나인 <젊은 가족>은 암태지같이 생긴 생물체와 그 옆에 누워 품을 파고들며 젖을 빠는 세 마리 새끼의 모습을 보여준다. 실리콘과 아크릴 수지, 혼합 매체로 만들어진 <젊은 가족>은 실감나게 사실적이다. 감정이 넘치는 눈을 한, 지켜보이는 어머니는 불편할 정도로 자의식이 있어 보인다. 이 어머니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몸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패트리샤 피치니니, <젊은 가족 The Young Family>, 2002, 실리콘, 폴리우레탄, 인간의 체모, 가죽, 합판.

유전자 변형이라는 과학적 도구를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특히 인간의 유전물질이 개입되었을 때 심각한 도덕적, 철학적 문제를 야기한다.

피치니니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은 피하는 편이지만, 그녀의 조각은 혁명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시나리오를 가시화한다. 그 조각들은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 정체성에 수반되는 기본 권리의 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는다.

"여기에는 애초에 우리가 개입해서 일어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또다시 개입한다는 역설이 분명히 존재한다."

절반만 사람인 존재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어찌 될까? 인간인 우리들은 여러 종의 동물들을 먹는 데 전혀 거부감이 없고, 동물들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하도록 강제하며,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옷을 만들고,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그들을 가둬놓는다. 부분적으로 인간인 존재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할 것인가?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하는 데 그들을 이용할 것인가?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관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그들을 사육할 것인가? 유전자변형 생물을 먹기까지 할 것인가?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정치적 세력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만약 그들이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기를 들고 저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피치니니는 <나눌 수 없는 Undivided>이란 작품에서도 인간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만들어진 또 다른 도우미를 상상했다. 인간의 얼굴을 한 개와 흡사한 생물체는 작은 침대에서 잠옷 차림을 한 인간의 아이를 보호하듯 꼭 껴안고 있다.

여기서 또다시 의문이 떠오른다.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이 유전자변형 경호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녀는 새 생명체를 만들고 이들을 지구 생태계에 풀어놓는 과학자들이 '부모'로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말한다.

에두아르도 카 Eduardo Kac

에두아르도 카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것은 바이오 아티스트로서의 작업 때문인데, 이는 그가 생물학 및 다른 생명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과학자들과 똑같은 도구와 기술을 채택한다는 의미다.

카는 미술작품으로 전시되는 유전자변형 생물을 만드는 데 유전학과 세포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웨트랩 방식의 생물공학 기술을 차용했고, 이를 지칭하기 위해 1998년에 유전자변형 미술 transgenic art 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카의 유기체는 앞서 소개한 피치니니가 만든 가짜 생물과는 달리, 바이오아트는 정말 살아 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살아 있는 존재를 창조해내기 위해, 합성 유전자를 생체에 이식하거나,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자연 유전물질을 이식하는 유전공학 기술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미술"로 정의한다.

유전자조작이 고등 포유류에 적용될 경우 위험부담은 커진다. <GEP 토끼 GEP Bunny>에서 작가는 포유류의 계통을 조작하는,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실험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그는 프랑스에 있는 생물학 실험실의 과학자들에게 알비노 토끼 (색소가 결핍된 토끼)의 수정란에 젤리피시에서 추출한 GFP(녹색 형광 단백질)를 주입하도록 의뢰했다. 태어난 토끼는 알바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특수한 파란 조명에서 형광 녹색으로 빛난다. 작가에게 토끼는 가끔 빛을 내는 미학적 대상으로서 생물공학으로 태어난 동물 이상을 의미했다. 그의 작품은 알바를 다른 동물과 인간 대중, 작가와의 지속적인 관계망 속에 통합된, 살아 있는 사회적 형질전환의 주체로서 포용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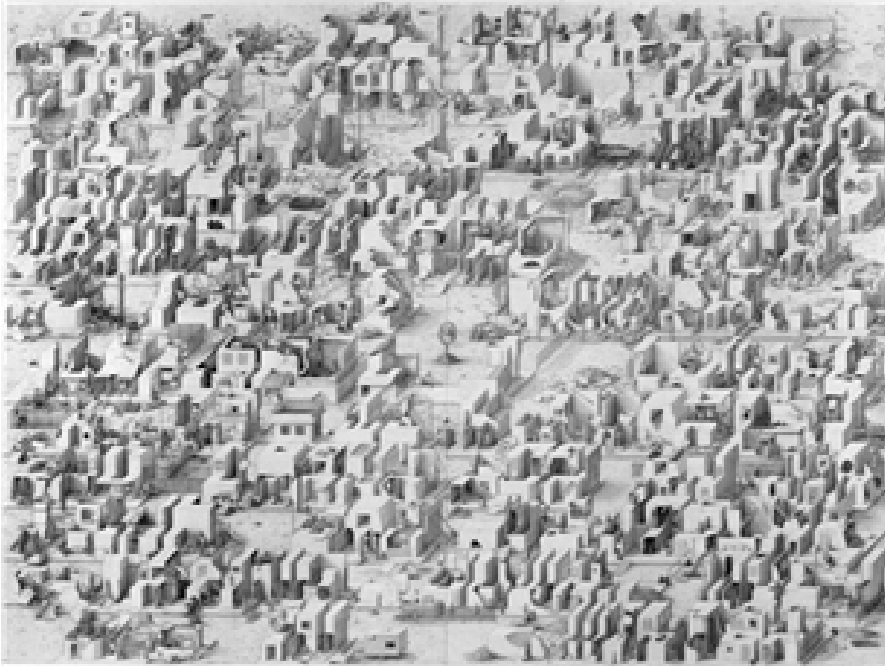
남궁연: 장소

Intro

장소와 공간, 출신지와 거주지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디서세요? 라고 묻는 건 흔히 많이 들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고향이라는 말에서 이유를 찾았다. 고향은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혹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림고 정든 곳이라고 사전은 정의한다. 하지만 오늘날에 고향이라는 말은 꼭 그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온 곳을 의미 하지 않는다. 장소의 의미와 가치 역사에 영향을 현대미술에 끼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 나는 장소라는 테마로 현대미술을 공부했을 때 한 장소의 역사적인 사건이 작품에 주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소가 주는 가치와 의미도 큰 영향을 미친다.

PS. 대부분에 내용은 테마 현대미술이란 도서를 참고했다.

어디 출신이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는 누군가에 대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두 가지 요소다. 장소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살아온 장소는 그에 따른 물리적, 역사적, 문화적 속성과 함께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보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지리적 이력은 분명 작품의 외양과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장소를 주제로 작업하는 많은 작가들은 눈앞에 펼쳐진 특정 장면에 반응하거나, 자신이 기억하는 장소의 외양이나 감정을 잡아내려고 애쓴다. 좀 더 추상적인 경우에는 개념적인 방식으로 장소라는 관념을 붙들고 씨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리적 위치(나이저리어나 중국, 대도시나 시골의 작은 마을)가 의미하는 바를 상징하거나 재현할 수도 있으며, 특정 장소(황무지나 도시 광장, 정신병원, 침실)가 주는 문화적이고 감성적인 특징을 담아내려 노력할 수도 있다. 미술가들은 또한 가상의 장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일례로 영국작가 폴 노블은 닙스타운 뉴턴이라는 가상 도시를 그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이 그림은 벽면 크기의 드로잉은 상상의 건축물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광경을 보여준다.



장소를 다루는 많은 작가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 사는 방식을 바꿔놓는, 보다 큰 흐름과 발전에 반응한다. 지난 30년간 세계지도는 여러 차례 다시 그려졌고, 앞으로도 새롭게 그려질 것이다. 지도는 사람들이 지리적 조건에 따라 어떻게 정체성을 규정하고 정치적인 힘을 구축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경제 발전의 세계화와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한 정보의 전 세계적인 흐름은 예전에는 멀기만 하던 장소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다.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인간은 자연환경을 점점 더 잠식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일하는 장소는 인공적인 환경이 되었다. 이는 야생 환경을 직접 체험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환경에서 작가들이 장소에 대해 변화하는 생각을 표현하는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당연하다.

장소는 의미를 가진다

시간과 공간은 장소에 이르러 하나로 합쳐진다. 장소는 특정 풍경이나 건축양식의 표면적인 외양보다 훨씬 깊은,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사회는 기억과 역사, 상징적 중요성을 붙여넣으며 장소를 변모시키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장소는 인간 행위가 벌어지는 무대이자 특정한 시대정신이 주입된 환경이기도 하다.

장소는 시간이라는 주제와 교차한다. 특히 기억과 역사는 세부주제와 관련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장소는 현실의 물질처럼 사건에 해당하는데, 장소가 필연적으로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아무리 느리게 진행될지라도 말이다. 사건이 특정 장소에서 펼쳐짐에 따라 해당 장소에는 역사적 중요성이 부여된다. 이러한 장소의 의미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채워지는 것인지도 모른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상륙작전이 벌어졌던 노르망디 해변을 생각해 보자). 또한 역사적 중요성이 배어 있는 장소는 한 나라의 정체성과 집단 기억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나치의 강제수용소를 생각해 보자). 장소의 이러한 측면을 다룬 작가 중 한 명이 독일 화가 안젤름 키퍼다. 1980년대 초부터 키퍼는 시커멀게 탄 벌판과 활활 타오르는 가마가 놓인 행한 방을 묘사한 그림을 제작해 왔다. 이는 독일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 태생의 작가 막달레나 예테로바 역시 독일 역사와 관련해 장소와 시간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예테로바의 사진 프로젝트 <대서양 방벽>(1995)은 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노르웨이에서 스페인에 이르는 대서양 연안을 따라 구축한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들이, 전후 50년간 파도라는 강력한 힘에 마모되어 부서져 폐허로 변해버린 과정을 탐색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작가 프리츠 해그는 장소의 현재 정체성과 과거 정체성 사이의 급격한 단절을 보여준다. 그는 2008년 휘트니비엔날레에서 지금은 뉴욕 시에 속하는 값비싼 땅이 예전에는 동물들의 야생 보금자리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작품을 제작했다. 작가는 미술관의 안마당을 <동물의 땅 Animal Estates>으로 바꿨는데, 비버의 오두막과 독수리 둥지를 비롯해 지금은 인간 거주지로 교체된 열두 가지 재래종의 서식지가 설치되었다.



여기서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시적, 심리적으로 장소를 함축하는 작업을 탐색하는 현대미술가 들을 살펴볼

것이다. 장소의 물리적 측면과 인지적 의미를 연구하는 데는 여러 학문 분야가 연관되어 있는데, 역사학과 지리학, 지도학, 지질학, 인류학, 문학, 건축, 연극 등이 포함된다.

현대미술에서 장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일상 담론에서 장소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유용하다. 장소는 위치다. 장소는 아프리카처럼 아주 넓을 수도 있고 벽장처럼 아주 작을 수도 있다. 실제 일 수도 가상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가능성과 가정, 환상이 일어나는 곳, 무언가가 일어나는 어떤 곳인 것이다. 오늘날 장소는 심지어 비 장소 일 수도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이미지와 오브제, 텍스트를 해석하듯이 장소를 해석한다. 모든 사회의 사람들은 장소에 대해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장소를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여기에 속하는가? 이곳은 누구의 장소인가? 이런 질문들은 특징 묘사와 지향, 정체성, 소유권을 표명한다. 장소를 탐색하는 능력은 인간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장소는 가치를 지닌다

문자 그대로 장소는 가치를 지닌다. 목재나 석유, 풍부한 물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도로나 다리, 공공건물 같은 사회 기간 시설의 대형 출처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장소는 또한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의 목표가 된 세계무역센터는 단순히 비싸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건물이 미국과 국제 자본주의의 어마어마한 특권과 전 지구적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테러 대상이 된 것이다. 어떤 문화 이론가들은 장소의 사회적, 심리적 측면을 언급하기 위해 공간이라는 용어를 도입한다. 장소의 심리적 측면은 변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거주자들이 장소를 점유하면서 재정의 된다. 같은 장소에 다수의 심리적 공간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장소는 물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듯이 문화적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

어떤 장소는 현기증이나 밀실공포증, 방향 상실 같은 강렬한 신체적, 감정적 반응을 유발한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빌딩이나 다리에서 고소공포증을 경험하고, 또 다른 이들은 광장공포증으로 공공장소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어린이이라면 침대 밑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장소가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소의 소유권이나 사용, 개발, 작명을 둘러싼 논란이 흔히 일어난다.

역사의 영향

50년 전 미술에서 장소라는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해 기술된 책의 한 장을 펼쳤다면, 자연 풍경과 도시 풍경을 그린 회화와 사진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될 것이다. 만약 책이 다루는 범위가 넓다면 정원과 공원, 도시 광장 디자인에 대해 읽게 될지도 모른다. 장소를 주제로 한 현대미술은 대단히 광범위한 재료와 양식으로 만들어지며 그 이상으로 다양한 예술적 목표를 위해 제작된다. 장소를 주제로 한 작업의 선구자들에게 풍경화의 전통은 매우 중요하다. 서구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경화가 어떤지 알 것이다. 지난 700년간 이 같은 그림이 무수히 그려졌고, 오늘날에도 많은 직업 화가와 아마추어 화가들이 여전히 풍경화를 선호한다.

풍경화에 대한 서구의 전통은 자연 풍경을 묘사한 로마 시대 빌라의 벽화에 이르기까지 약 2천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그 후 풍경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지면서 잊혔다가, 16세기에 이르러서야 부활했으며 이때부터 독립적인 장르가 된다.

유럽과 비슷하게 19세기에 번성한 미국의 풍경화는 허드슨강파와 미 서부 탐험을 그렸던 화가들이 주도했다. 풍경이라는 소재는 유럽과 미국에서 20세기 내내 계속되었고, 형식에 대한 문제를 탐색하고 개인적 감정과 시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아방가르드 미술에 공헌했다.

장소 주제와 관련해 미술사에서 많은 연구가 행해졌지만, 여기서는 초기 세대 작가들이 개발하고 활성화시켰으며, 현대 미술에서 새롭게 전환되어 돌아온 개념과 전략에 한정해 검토하려고 한다.

장소는 공간속에 존재한다

실제 장소는 공간이라는 일상생활의 경험이 펼쳐지는 3차원의 장 안에 존재한다. 하지만 작가들은 공간을 재현하거나 개입시키는 데 있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진다. 조각이나 설치 같은 입체 매체를 활용하는 작가라 하더라도 공간을 재현하거나 조정하는 데 절대적인 접근법 같은 것은 없다.

20세기에 2차원 매체로 작업하는 많은 작가들이 대안적인 공간 시스템에 매력을 느꼈다. 그중 특히 두 가지 전략이 현대 미술가들에게 적합했다. 첫 번째 전략은 한 작품 안에 물리적 공간을 마디로 나누어 재현하는 것이다. 선 원근법을 사용한 일반적인 사진이나 회화의 재현이 하나의 단일한 공간을 묘사하는 것과는 달리, 분절적 재현은 동시에 공존하는 다수의 공간이나 공간에 대한 다수의 시점을 보여준다. 대안적인 공간관과 관련된 두 번째 전략은 지도 제작의 기법과 가늠, 이미지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도 작성법은 정보를 층층이 겹쳐놓을 수 있고, 고정된 단일 시점에 갇히지 않고 장소를 기

특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모든 위치는 동시에 존재한다. 이론적으로 관찰자는 지도 위의 모든 점 위에서 같은 거리를 유지한 채 떠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작가들은 위성으로 위치나 움직임을 추적하는 GPS시스템 같은 정교한 신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지도를 기반으로 한 작품 중 더 흥미로운 경우는 장소의 정치적, 정서적 측면을 탐색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작가 모나 하툼은 예루살렘의 한 갤러리에〈현재 시제〉(1996)라는 작품을 설치했다. 이 작품은 비누와 빨간 구슬을 이용해 웨스트뱅크 지역(팔레스타인의 서안지구로 대부분 이스라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의 분리와 조정에 관한 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쇼핑과 여리에 대한 사진이 함께 전시 되었다. 지도는 이 지역을 둘러싼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투쟁을 추상화시켜 제시하는 반면, 일상생활의 이미지와 비누 향기는 거주지와 관습을 둘러싼 일상 차원의 갈등을 암시한다.



미술작품은 장소 안에 존재 한다

미술은 장소 안에 존재한다. 이 사실은 역사상 무수히 많은 프로젝트의 미학적 핵심 개념이었다. 미술과 본래의 소재지 사이의 강한 연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서히 약화되다가 결국 대부분의 작품에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다. 이러한 분리의 한 측면은 물리적인 것이었다. 물론 장식 꽃병처럼 이동 가능한 소규모 미술 오브제야 항상 있었지만, 회화나 조각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장소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약500년 전 유럽에서 이젤 회화가 보급되면서, 휴대 가능한 회화 이미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정 건물용으로 디자인된 벽화와 조각 혹은 특정 교회틀 위해 제작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같이 여전히 건축 부지와 결부된 프로젝트들이 행해지기는 했지만, 환경과 무관한 미술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이 흔해졌다. 한편 사진의 발명과 작품을 정밀하게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사진의 능력 역시, 미술은 장소와 결합되게 마련이라는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이제 작품의 본래 환경을 보지 않고도 미술작품의 재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미술과 소재지의 분리는 또한 정신적, 인식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근대에 들어 눈에 띄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형식 주의자였던 모더니스트들은 미술작품의 의미는 작품이 어디에 전시되느냐와 무관하게 일관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형식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동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던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후반의 미국의 색면회화 같은 모던 아트의 전형적인 작품들은 전시 장소와 무관하게 관객들에게 동일한 시각적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배경의 역할을 줄이도록 강조했던 당시의 모더니스트 작가들과 큐레이터들은 절제된 갤러리 공간을 선호했다. 하얀 벽과 은한 조명, 창문이 없는 갤러리 공간은 중성적으로 보이면서 공간 자체가 눈에 띄지 않도록 고안해낸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작품이 전시되는 장소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화제 되었다. 외부에 설치된 작품이야 당연히 주위 풍경이나 건축과 상호작용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갤러리도 그 속에 담긴 미술작품 시각 체험의 일부가 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건축을 가지고 있다.

장소 바라보기

많은 현대미술가 들은 장소라는 주제 중에서도 그랜드캐니언이나 도쿄, 동네에의 저녁식사, 작가의 작업실 같은 특정 공간이 신체적, 정서적 특징을 내포하는 작품을 제작했다. 이러한 작품에서 장소의 촉각적이고 심리적인 특질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장소는 우리의 사고와는 독립된 바깥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장소를 조직하고 해석하는 개념은 인간 사고의 발명이자 개입이다. 어떤 지방 특유의 풍경을 묘사하는 작업은 미구그이 경우에 뉴멕시코의 유명한 산타페나 타우스, 메사추세츠의 프로빈스타운, 메인 주의 해변처럼 풍경이 멋진 장소에서 여전히 인기가 많다. 이들 지역에는 상업 갤러리들이 번성하고 있어서 우아함이나 장엄함 아니면 적어도 매력이 있는 풍경 이미지를 찾는 많은 컬렉터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풍경 모티프를 강조하는 태도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중국 남부 리장 연안의 화가들은 그 지역의 특징인 가파르고 둥근 산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다. 물론 2차원 매

채만이 현대미술가가 특정 지역의 풍경을 재현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많은 작가들은 실제 물질을 가지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장소를 재현한다.

현대미술에서 인공적인 장소를 재현하는 경우는 자연적인 장소를 재현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생활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구가 밀집된 장소에서 거주하면서 자연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때로는 소외되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비춘다. 작가들이 탐색하는 장소의 범위는 다양하다. 그들은 도시환경이 어떻게 보이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느끼고 소리 내고 냄새를 풍기면서 거주자와 방문자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보인다. 작가들은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흥미를 갖는다. 도시와 기타 건축 환경의 다른 부분을 탐색하면서 작가들은 혼잡함이나 감정적 상처, 빈부격차처럼 일반적으로 도시 거주자들을 가시게 하는 많은 문제를 표명하는 한편, 밤낮으로 마주하는 현기증 나는 감각과 같이 도시를 살기 흥미진진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특징도 언급한다.

웨이 티보의 1980년대 초반 그림을 보면 지진 다발 지역인 샌프란시스코의 지형을 과장했다는 것을 금세 알아챌 수 있다. 가파른 언덕위에 자리한 건물과 거리를 묘사한 작품은 만 인근에 위치한 이 도시의 물리적 불안정함과 감정적 분주함을 잘 융합하고 있다.



좀 더 최근 예로 중국 조각가 잔왕의 <샌프란시스코 도시 풍경>(2008)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작가는 샌프란시스코 풍광을 묘사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된 스테인리스스틸 조리 기구를 이용했는데, 약 6.7미터 길이의 이 설치 작품은 건물이나 선창, 금문교를 비롯한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을 놀랄 만큼 정밀하게 재현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도시 풍경>은 북부 캘리포니아를 함께 개척한, 가난한 중국인 이민자들과 다른 문화권 이주민들의 맞물린 역사를 주제로 한 잔왕의 서너 작품 중 하나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장소의 청각적 측면에 대해 실험하는 작가들이 점점 늘고 있다. 비디오, 퍼포먼스, 설치미술 작가들은 우리가 사는 장소를 잘 보는 것은 물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게다가 현대미술 전시에서는 자주 작곡가와 사운드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포함된다.

장소 찾기

왜 어떤 장소는 작가들이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작품 창작에 혼신을 쏟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수많은 요소가 작용한다. 어떤 작가들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야생의 자연에 영적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는 믿음, 즉 자연에

대한 범신론적 관점을 채택하기도 한다. 자연을 신성한 의미를 지닌 장소로 보는 관점은 미국 원주민 출신 작가 트루먼 로우의 <붉은 독>(199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건축 자재 상점에서 사온 나무로 만든 약 6미터 길이의 조각품으로 야생의 나뭇가지처럼 꾸며져 있다. 이작품은 호청크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선조가 처음 발을 들인 장소라고 믿는 강둑을 묘사한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문화권의 작가들 중 많은 이들이 이와 흡사하게 자연의 장소를 자기네 문화나 사회의 기원과 연결시킨다. 전 세계의 창조 신화에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종종 신들의 장소에서 출발하는데, 이는 지구상의 생명들이 사는 장소를 창조한 힘이 유래한 곳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이미지를 "신들의 축복을 받은 천연의 땅"으로 강조하는 대자연 신화는 오랫동안 미국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현대에 와서는 이 신화를 향수나 아이러니로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말이다.

실제 장소와 만들어진 장소

장소라는 주제를 표명하는 작품 중 일부는 인공적이고 가상적이며 환상적인 장소를 재현하고 해석한다. 이러한 장소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만들어진 환경(디즈니랜드나 라스베이거스, 할리우드의 영화 세트, 동물원, 자연사박물관의 서식지 모형)과 가상과 실재가 뒤섞인 작가들의 상상으로 꾸며낸 환상의 세계가 포함된다.

21세기가 진행될수록 인간은 자연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자연적인 장소는 개발을 위해 불도저로 밀리고, 우리는 공원이나 운동장처럼 인간이 조성한 환경의 형태로 야외를 접한다. 야생의 자연은 TV이나 영화의 필터를 통해 학습되고, 유전공학자들은 동식물을 인간 육망의 구성물로 변화시키며, 음식은 미리 가공되어 포장된 형태로 제공된다. 미술가들은 디자이너나 기업 개발자, 유전공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미술관 큐레이터 및 다양한 사회경제적 목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공 환경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작가들에게 창작욕을 고취시키는 합성 환경 중 하나는 디오라마다. 여기에는 건축 모형이나 모형 기차 전시, 인형의 집 같은 축소 모형과, 과거의 한 장면을 재현하기 위한 박물관의 실물 크기 디오라마가 모두 포함된다.

2차원과 3차원 작업을 결합하는 현대미술가의 경우, 먼저 그림이 될 장면을 구축한 뒤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 촬영하곤 한다(대개 컴퓨터 이미지 보정이 추후 추가된다). 최종적으로 모형은 파괴되며 사진이 결과물로 전시된다. 장소에 대한 느낌을 환기시키는 구성된 그림을 제작하고 촬영하는 많은 작가 중에는 미국 작가 샌디 스코글랜드나 독일 작가 토마스 메만트가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럴듯한 환영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작가들이 실제와 상상의 장소를 모의 실험하는 데 강력한 새 도구를 제공했다.

장소 없는 공간

시각 예술가들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이메일, 전자은행 업무, 감시 카메라처럼 급속도로 진화하는 기술이 불러온 변화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방대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늘어난 정보의 흐름은 다수의 미디어 공간이 어떤 물리적 장소에나 존재할 수 있고, 동일한 미디어 공간이 다수의 물리적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의 탄생을 가속시켰다.

현대미술가들은 정보의 디지털 화에 반응하고 이를 재현하면서, 만질 수 없고 가상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장소에 대해 탐구한다.

무엇이 공적이고, 무엇이 사적인가

실제와 가상 사이의 영역이 무너지듯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 또한 흐려지고 있다. 뉴스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라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사회적, 법적, 심리적, 도덕적 경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정치권과 학교, 교회, 가정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구체화되어왔다는 사실을 안다. 통신매체는 삶의 너무 넓은 측면을 관통해왔기에, 공공에 알려지거나 다른 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없는 장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삶은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과 거주지에서 이동이 잦아짐에 따라, 무언가를 훔쳐볼 기회도 많아졌고 익명성도 훨씬 심화되었다. 그러나 도시가 점차 과밀해짐에 따라 중상류층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주거 공동체의 요새로 물러나고 있다. 한편 전자 감시 장치나, 추적 장치, 원격조종 센서 같은 신기술이 개발되고, 무엇이 사적이어야 하고 공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우리가 점유하는 장소와 그곳에서의 행동양식이 영향을 받고 있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차원을 탐색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질문과 씨름한다. 누가 어떤 장소의 활동을 통제하는 권력을 쥐고 있는가?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있는가? 누가 사적 공간(침실, 욕실, 부엌, 거실)과 공적 공간에서의 행동 규범을 결정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을 끌어들었다. 철학자로는 공간의 사회화에 대한 책을 쓴 미셸 푸코를, 사회학자로는 공적인 행동과 사적인 행동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다층적 행위를 연구한 이빙 고프먼을 꼽을 수 있다.

푸코는 감옥이나 병원, 학교, 공장, 수용소 같은 시설에 작용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하면서, 감시당하는 쪽이 통제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푸코는 판옵티콘 모델을 이용했는데, 이는 중앙의 한 지점에서 모든 수용자(죄수, 환자,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으로, 많은 수의 경비나 감독관, 기타 인원 없이도 수용자를 통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감시의 힘이 지속적이고, 어디에나 존재하며 감시당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



사이 장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장소에서 살지 않는다. 또한 우리 중 많은 수는 일생에 서너 번은 이동한다. 미국인들은 근처로 이사하거나 아예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등 사는 곳을 자주 바꾸는 편이다. 실로 이동이라는 개념은 미국인들의 의식 깊이 박혀 있는 듯하다. 미국은 이민자들과 그 후손의 나라이고,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새로운 장소로 옮긴다는 생각은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다.

20세기 전반기 유럽의 모더니즘 전성기에, 외국으로 이주한 작가(파블로 피카소, 마르셀 뒤샹)들은 타국에서 지내며 작업하는 모험을 위해 스스로 태어난 곳을 떠난 낭만적이고 영웅적이기 까지 한 사람들이었다. 오 날의 작가들은 훨씬 모호하다. 그중 많은 경우는 스스로를 추방자나 난민 혹은 방랑자로 여긴다. 어느 순간에나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동 중이었다. 이 주 많은 이들은 사업상 여행자와 관광객으로, 공항 라운지나 호텔 객실, 기차역, 고속도로 같은 개성 없는 비장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관광객이나 사업상 여행자처럼 일시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 심각한 경우는 모국을 떠나 멀리 이주하게 되어 장소에 대한 이해가 파편화된 이들이 겪는 경험이다.

문필가이자 큐레이터인 엘라 쇼샷은 "사람과 자본, 디지털 정보, 생태학적 흐름"이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경계를 넘나드는 오늘날의 이동"을 묘사한다.

현대의 호소력 있는 미술은 이 같은 변위를 입증하려는 작가들이 만들어낸다. 이런 작가 중 일부는 스스로가 (종종 언어

도 다른) 새로운 나라로 온 이주민으로, 급격하게 변화된 맥락에서 작품을 제작한다. 나머지는 역사 초기에 문화가 뿌리 뽑힌 경우로, 이러한 상황은 많은 이들에게 다른 살 만한 장소를 찾도록 강요한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자발적이든 그렇지 않든 사람과 사상, 개념의 대규모 이동”을 뜻한다. 오늘날 세계는 정착할 나라나 고향이 없는 뿌리 뽑힌 사람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 민족과 쿠르드족 역시 그렇다. 영국작가 휴 로크는 <방주>(1992~1994)라는 작품에서 디아스포라 개념을 환기 시킨다. 색색으로 아낌없이 화려하게 장식된 모형 배는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강제 이주되면서 옮겨온 사상이나 관습의 풍부함을 상징하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디아스포라와 이민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의 이동을 의미한다.



여행은 다른 언어와 관습, 물질문화, 사상을 지닌 장소들 사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호미바바가 사이(In-betweenness)라고 부른 상태를 의미한다. 작가들은 구경과 경계의 의미와 위치를 탐색 할 수 있고, 남겨진 장소('거기')와 채택된 장소('여기') 혹은 그 둘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다.



야나기 유키노리의 <세계 개미 농장>(1990)은 장소의 잠정적인 특징을 포착한 작품이다. 튜브로 연결된 170개의 플라스틱 상자에는 각각 색 모래로 만든 각기 다른 국기 그림이 담겨 있다. 개미가 튜브를 통해 상자와 상자 사이를 이동함에 따라, 모래는 섞이고 국가의 상징은 서서히 잠식된다.

전하성: 언어

언어는 독립적 존재로 의미를 갖는 동시에 미술과 교류하면서 그 의미가 다양해진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전시에서 언어는 미술 제작의 주제로 탐색되어왔고 언어라는 폭 넓은 화제 중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초점을 맞추느냐는 각 전시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경우에는 큐레이터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전시를 조직하는 원칙이 미술계에 널리 퍼진 유행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달라진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의 전시들은 언어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으로 도입한 작품을 선보였고, 1990년대가 시작되자 몇몇 전시들이 시각적인 이미지와 언어적인 이미지의 관계 같은 좀 더 이론적인 주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2000년대인 현재에는 시각예술 프로젝트에 소리를 도입하는 최근 경향에 따라 언어의 음성적인 측면을 탐색하는 전시가 등장하고 있다.

2007년 코네티컷 리치필드의 엘드리치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목소리와 공백> 전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재현하거나 표현하는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출품된 작품들은 다양한 형태와 형식으로 언어의 소리를 도입했다. 줄리안느 슈워츠는 속이 빈 나무상자로 만든 <여시오>(2007)라는 조각을 전시했다. 관객들은 상자를 열어볼 수 있었는데 상자를 열면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다.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상자 뚜껑을 닫을 때까지 계속된다. 1997년 이래 진행 중인 레이첼 버워의 <메이포워>는 두 마리의 살아 있는 앵무새와 갖가지 식물이 들어 있는 새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전시 전에 작가는 앵무새에게 메이포어(한때 베네수엘라에서 사용되던 부족 언어)를 말하게끔 훈련시켰다. 사라진 언어에 대한 유산을 품은 채, 새장은 투명한 비닐 막으로 가려졌다. 버워의 프로젝트는 어떤 의사소통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고 의미는 사라지며, 의사소통은 배운 단어와 개념에 한정된다.

1. 역사적 개괄

언어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출된다. 문자언어는 시각예술과 좀 더 관계가 깊는데, 두 경우 모두 인식되는 데 있어 전통적으로 시각에 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문자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방식의 문자가 수많은 상징적인 의사소통 체계에 의해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선사시대의 선조들이 그림과 상형문자(관습적인 의미를 담은 단순화시킨 그림)를 만들었다는 것도 안다(상형문자의 예로 여자 화장실 문을 표시하는, 치마를 입은 사람의 윤곽을 들 수 있다). 고대 이집트 같은 후대 사회는 좀 더 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상형문자를 연속으로 배열하여 연결하는 표기법을 개발했다. 관례적으로 말소리와 연관된 상징 시스템에 근거하는 실제 알파벳 문자는 4,000년 전에나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서구 사회의 알파벳 문자와는 대조적으로, 아시아 사회의 전통적인 문자 언어는 오래전부터 시각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합 체계 안에 결합했다. 말소리를 적는 데 26개의 글자만을 배열해 표현하는 영어의 알파벳 체계와는 달리 3,500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 중국의 언어 체계는 각각 하나의 뜻을 담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글자로 구성된다. 한자는 언어의 소리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표상하는 문자라서, 서로 다른 사투리를 구사하는 사람들끼리도 문자를 동일하게 이해 할 수 있다.

잉크나 붓을 이용해 글씨를 쓰는 다양한 방법과 양식은 서예라고 불리는데, 중국의 여러 시대에 걸쳐 발달했고 문화적인 통합의 원동력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현대 중국에서 서예는 여전히 시각예술의 형식이자 시적 감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존중받고 있다. 서예에서 시적 감수성은 그 속에 담긴 사상뿐만 아니라 뉘앙스를 실은 붓놀림으로도 표현된다.

세계 문학사에는 글이 시각적 형식이 강화된 특성을 드러내는 수많은 예가 존재한다. 또 다른 전략으로 시를 특정한 패턴이나 모양(사물이나 인물을 묘사하는 형태)으로 창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형태시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페르시아, 이탈리아 르네상스, 16세기 영국을 비롯해 서로 다른 시공간의 창의적인 시인들에게 인기 있는 시작 활동이었다. 20세기 중반이 되자, 형태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구체시라고 알려진 운동을 불러온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구체시는 엄격하게 수평적인 행으로만 구성된 전통적인 시작 형식을 파괴했다. 구체시에서 같은 글자, 같은 단어, 짧은 구는 페이지를 가로질러 반복되면서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기도 한다. 구체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유럽과 미국, 남아메리카의 실험적인 시인들에게 널리 인기가 있었다. 그로부터 20~30년 후 1980년대 그림시라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고 그림시는 혁신적인 추종자들을 꾸준히 불러 모으고 있다. 문학 이론가들은 그림시를 구체시의 발달로 묘사하지만 그림시는 언어표현과 시각적 요소가 우세한 인터 미디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터 미디어는 시와 드로잉의 영역 사이이다.



형태시



구체시



그림시

2. 역사적 개괄

문필가들이 언어의 시각적 속성을 실험하고 시각 예술가들이 관심사와 중복되는 작품을 발전시킨 것처럼, 시각 예술가들도 작품에 언어를 도입하는 실험을 했다. 중세 유럽의 채색 필사본과 성서의 이야기에 근거한 르네상스 프레스코 연작, 18세기 후반 영국과 북부 유럽의 저지대에 등장한 '한담화' 장르는 언어와 시각예술을 혼합한 사례의 일부에 불과하다. 20세기에도 다양한 시각 예술가들이 언어를 작품에 도입했다, 일례로 20세기 초반 콜라주 기법을 개척했던 유럽의 입체주의 화가들은, 신문이나 인쇄된 상표를 비롯해 이와 흡사한 텍스트 재료를 회화나 드로잉 표면에 잘라 붙이는 행위가, 예술과 삶의 구분을 철폐하는 방법임을 발견했다. 예술과 일상을 허무는 것은 지난 백년간 작가들의 중요한 제작 동기이기도 했다. 입체주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유럽과 미국의 전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타이포그래피와 사진, 그림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결합하기 시작한다.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앤디 워홀을 비롯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유명해진 미국의 팝 아티스트들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시각적, 언어적 이미지의 조합을 전유해 미술의 영역을 넓혔다. 이들이 특히 즐겨 사용한 것은 상품 디자인과 대중문화의 생산품이었다. 지금도 활동하는 팝 아티스트 로버트 인디애나는 정치적인 이슈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단어를 이용했다(그는 열렬한 인권운동가였다). 그는 단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가능성에 주목했는데, 'LOVE'라는 단어를 VE위에 LO를 올려서 재배열한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사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대중들의 일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책 속 낙서나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 말이다.



1960~70년대 개념 미술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으로 이주한 프랑스의 마르셀 뒤샹의 획기적 시도를 토대로 시각 예술과 언어의 관계를 재정의 했다. 크리스틴 스타일스에 따르면 "1917년에 이미 마르셀 뒤샹은 예술가를 망망의 즐거움을 위해 시각적인 오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 세상을 다시 생각하고, 언어를 통해 의미를 재창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로부터 50년 후 로렌스 와이너 같은 개념 미술가들은 뒤샹의 명백한 가치를 더욱 지적시켰다. 개념 미술가들은 미술의 중심요소로 언어를 활용하며 극단의 경우 언어는 그 자체로 미술이 되기도 했다.



로렌스 와이너 <무제>



뒤샹 <샘> 1917

3.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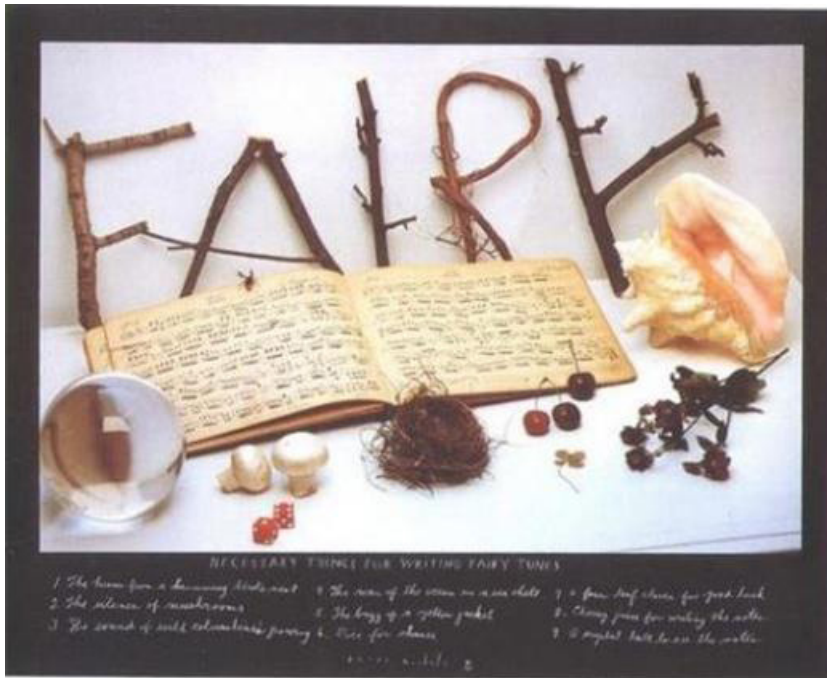
현대미술에서 언어의 이용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급증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던 개념미술의 발달은 언어를 매체로 도입한 작품을 급증시켰고 작품이 유행처럼 비물질화 되어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에 개념미술은 결코 실현 될 리 없는 계획안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요즘 작가들은 예전처럼 '순수한' 형태의 개념주의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언어에 관심을 가진다. 이는 언어가 복잡한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출신의 개념미술가 우마리는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도서관>이라는 설치를 제작했다. 여기서 작가는 (초기 작가들의) 문학 책을 분쇄기에 집어넣은 후 파쇄된 종이 파편을 책체목이 금박으로 새겨진 아크릴 박스에 담아 전시했다. 우마리의 행위는 관객의 마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잃어버린 문학적 결작의 상징인 책들의 영원한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마리 <도서관>(1995)

영국 작가 리처드 롱과 헤미쉬 풀턴은 각기 오랫동안 자연에서 홀로 걷은 작업을 진행했다. 어쩔 때 롱은 걸었던 과정을 암시하는 방편으로, 산책하면서 주운 돌과 다양한 자연 재료를 나중에 갤러리에 들여놓기도 했다. 롱과 풀턴 모두 사진과 아티스트 북을 제작했는데, 이때 걷는다는 행위의 대한 반응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실리기도 했다. 일례로 <풍경의 평면>(1983)의 한 페이지에는 작가 주변에 있던 사물을 뜻하는 단어 14개가 수직으로 적혀있다. "까마귀, 구름, 나무들, 산을 타리, 풀, 부츠, 키가 큰 풀..." 여기서 '부츠'라는 단어는 여정을 걷고 있는 작가 자신을 재치 있게 비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듯 언어가 도입되는 이유는 일시적 행위나 순간적인 형태로만 존재했을 사건이나 작품을 기록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사진가 듀안 마이클스는 이미지 자체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종종 사진에 캡션을 집어넣는다. 그는 이미지에 글을 첨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통적인 사진가들은 자신들이 진짜인 척하는 가장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외양이라는 엄연한 현실만의 사진기록이 가능하고 유일한 소재라 생각한다.".....

언어를 미술에 도입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글을 듣고 읽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평범한 미술관 관객이 고작 몇 초 동안 그림이나 조각을 바라보고는 그것으로 작품을 다 봤다고 장담하는 세상에서, 상당한 분량의 텍스트를 도입한 작품을 읽으려면 관객은 평소보다 훨씬 오래 작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듀안 마이클스 <동화를 쓰기 위한 필수품>(1989)

4. 언어는 의미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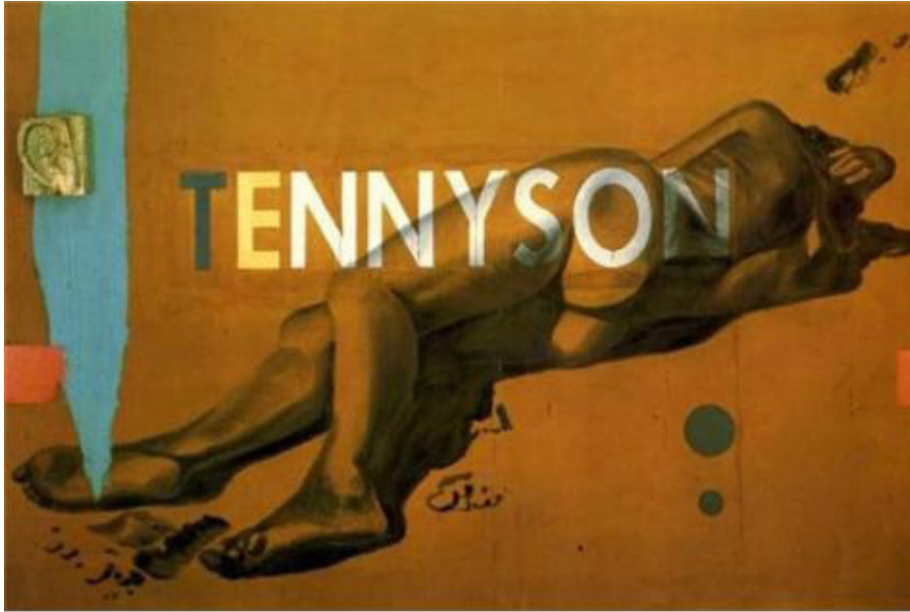
많은 작가들은 단순히 이미지 하나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상이나 묘사, 논쟁, 이야기, 가상과 허구 등 의미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텍스트를 사용하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이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언어는 실제와 가상의 대상을 모두 가리킬 수 있는데 언어는 추상적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 가상의 장소 사물 사건을 가리켜 볼 수 있다. 미술가는 언어를 이미지와 결합시켜 연관성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의미의 참신한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예상치 못한 결합을 창조해낸다. 1960년대 이래 개념미술가로 활동해온 로렌스 와이너의 멀티파트 작품 <도시 프로젝트- 프라하>(1996) 와이너의 프로젝트는 약 61cm 길이의 색칠된 글자로 이루어진 문구를 스티실을 이용해 건물과 벽면에 부착한 것으로 <바닥까지 떠밀렸다 다시 불러온 것들>이라고 불리는 작품이었다. 그 글귀는 프라하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관객들에게 정신적인 연상을 일으켰다. 글귀는 추상적인 범주를 자칭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물들은 짓밟힌 사람들에 대한 은유로 작용하게 된다. 와이너의 작품이 가리키는 프라하는 20세기 후반 체코인들을 통치한 일련에 전제정권(나치-소련) 치하에서 건물 벽에 자유로운 글귀나 메시지를 쓰는 것이 전복적인 정치행위로 보일 수 있는 장소다. 붕괴된 소련을 뒤따른 동유럽에서 와이너의 글귀는 특별히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다.



<바닥까지 떠밀렸다 다시 불러온 것들>

작가가 언어를 이용한 의미의 결합에 대한 또 다른 예로는 미국 작가 데이비드 살이 1980년대 초반에 그린 대형회화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살은 하나의 단어나 이름 ('킹콩', '테니스', '못생긴' 등)을 그림에 써 넣었는데, 이 글자들은 묘사된 대상 앞의 평면에 떠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단어들은 지시된 대상을 가리킨다('킹콩'은 영화에 등장한 고릴라 같은 생물을 뜻하고, '테니스'는 죽은 시인을 가리키며, '못생긴'은 매력적이지 않은 외모를 묘사한다).

1980년대 초반, 이론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하나의 구성 안에 여러 이미지와 단어를 배치하는 살의 전략은 기존 이미지와 단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누군가의 창조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작가들은 언어의 구조 자체를 해독하기 위해 언어를 도입하기도 한다. 말과 글 모두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언어의 의미가 발음이나 스펠링의 미미한 변화, 한 문장 내에서 단어의 위치 변화, 단어나 어구를 말할 때 억양의 변화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출신의 림마 게를로비나와 발레리 게를로빈이 1980년대 후반부터 제작해온 <사진-그림문자> 연작은 언어에 대한 이 같은 탐색 중 하나를 반영한다. 게를로빈 부부는 작가가 직접 제작 출판하는 지하출판 전통을 적극 실천하는데 지하출판은 구소련의 전위적인 작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인가된 미술만 보여주는 전시 시스템을 우회하는 저렴한 전략을 제공해주었다.



이들 중 부부 한명에 얼굴사진에 <민다 - 거짓말하다 1990>은 언어가 어떻게 역설적인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



작가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이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작품에 제목이나 캡션을 붙이는 것이다. 제목을 다는 행위는 약간의 언어를 출발점으로 제공함으로써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듯 흥미로운 현대 미술가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시각이미지의 대한 우리의 해석을 바꿔 놓는 제목과 캡션을 보여준다. 존 발데사리는 1982년에 독일 카셀 도큐멘타 7에 전시할 작품 여섯 점을 제작했다. 연작의 각 작품은 서로 다른 영화 정지화면에서 무작위로 뽑은 12개의 사진 이미지를 격자 모양으로 조합한 것이었다. 제목 역할을 한 격자 위의 글자판은 관객에게 카셀에 살았던 그림 형제의 특정 동화를 암시했다. 서로 관계없는 영화에 나온 12점의 사진 격자는 실제로 어떤 즐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목으로 인해 동화와 관련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사진 간의 연관성이 절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5. 언어는 형태를 가진다.

인간은 오로지 의식에서만 존재하는 언어라 조용히 생각한다. 질리언 웨어링은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이 언젠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재미있게 반복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런던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머릿속에서 스치는 생각을 종이에 적어달라고 부탁하고, 생각을 쓴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투명 반투명

음성언어든 문자언어든, 일반적인 환경에서 언어는 투명한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언어가 의미하는 사물이나 생각이 무엇이든, 파악을 위해서는 언어를 '통해' 읽거나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글은 어떠한 재료로 쓰이든 간에 철자나 의미에 는 차이가 없다,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감정적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음색과 손짓, 얼굴 표정을 자세히 살피는다.

언어가 미술 작품에 포함될 때 우리는 언어의 형식이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작품 표면 위에 거슬리는 색깔로 칠하거나, 강한 명암 대비를 이용해 사진을 찍거나, 돌로 조각을 할 때 단어와 글자 각각은 구체적인 시각적 현존을 가지게 된다. 미술에 텍스트가 도입 될 때 어떤 경우에는 투명성을 잃고, 실제로 읽히지 않고 보이기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때 언어는 특정 작품을 구성하는 다른 형태와의 혼합물 속에 있는 다른 유형의 재질처럼 취급된다. 그러나 미술에 텍스트가 도입될 때 가장 흔한 경우는 '읽히기도 하는 동시에 의식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시각적이면서 언어적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단어들은 반투명성의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반투명성은 언어적 강조와 시각적 강조 사이의 균형이나 변동을 의미한다. 음성언어에 대해서도 똑같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반투명성 개념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들리기도 하면서 비언어적인 소리로도 들리는 음성언어에 적용된다. 언어의 반투명한 이용은 미국 작가 케이 로젠의 회화에서 발견된다. 일례로 <마, 말해>에서 반복되는 글자는 실제로 말을 더듬는 사람의 불안한 말투를 재치 있게 흉내 낸다. 비슷한 맥락에서 로젠의 1987년 작 <존 윌크스 부스>는 처음 보면 중복된 단어로 이루어진 짧고 별난 목록으로 보인다.

ass ass
in in
the the
ater**

로젠의 전략은 시간 차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글자를 특정 형태로 배열하는 것은 어구 전체를 지나치게 빨리 해독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구성의 시각적 특징 (색채 선택과 글자 서체)을 두드러지게 한다. 우리는 글자 세트가 반복되는 것과 '존 윌크스 부스'와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이해 단계에 도달한다. 이제 글자는 역사적 무게가 실린 문구 '극장에서의 암살 assassin in the theater'을 의미한다. 또 다른 미국 화가 크리스토퍼 울은 행의 끝에서 단어를 임의로 자르고 단어 사이의 공간을 없애는 자신만의 전매특허 양식을 개발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평범한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구는 놀랄 만큼 낯설어진다.

RUND
OGRU
NDOG
RUN***

공간성과 물질성

언어를 탐색하는 작업은 흔히 글자와 단어를 순차적으로 읽는 서구 문화의 통상적인 독법과 긴장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글을 한 방향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이 순서를 따라 단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문단이 되고 문단이 페이지가 된다. 문법 규칙과 출판 전통은 이 경로(단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행은 위에서 아래로 읽고, 페이지는 앞에서 뒤로 넘기는 원칙)를 벗어나는 어떠한 것도 금지한다. 텍스트를 다른 순서로 읽는 것은 저자가 의도한 의미에 도전하거나 의미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지난 세기 동안 많은 시각 예술가와 그래픽 디자이너, 실험적인 시인들이 언어를 순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했다. 대신 그들의 언어는 공간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눈은 공간 구성을 여러 방향으로 가로지르며 시선을 던지고, 언어의 엄격한 선형성은 폐기된다. 공간성이 강한 작품에서 언어는 처음에는 전체 구성의 한 요소로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서야 내용으로 읽힌다. (구체시와 모더니즘 그래픽디자인 또한 언어를 공간적으로 구성한 예) 현대의 시각 예술가들은 제작에 사용하는 매체나 취하는 형태, 글자 크기의 따라 어떻게 언어가 다른 뜻을 품게 되는지 탐색해왔다. 개념미술가 비트 아콘치는 [언어의 대한 노트]에서 서로 다르게 이용되는 언어의 두 가지 규모를 대조했다. '페이지에 적혀있는 언어는 작은 언어고, 대형 광고판에 쓰여 있는 언어는 큰 언어다.

큰 언어는 의미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판 등에 사용되는 언어는 반투명한 성격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은 '언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텍스트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광고판의 언어는 '읽는 것'이라는 행동을 강조하여 그 이후의 부차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종류의 텍스트일 것이다.

'큰 언어'에 대한 아콘치의 정의는 <이름을 부르는 의자>라는 조각에서 재치있게 표현된다.

언어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방법은 검열이다. 검열은 혐오스럽거나 파괴적이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발언은 은폐하는 것이다. 책을 불태우거나 시가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는 권력자들이 일찍이 자신과 상반되는 생각과 믿음을 근절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이다. 이 시대의 검열문제는 드레드 스콧 같은 작가들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는 갤러리 바닥에 미국 국기를 펼쳐놓고 관객이 텍스트를 읽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려면 국기를 밟고 서게 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작가가 다니던 시카고 미술학교의 학생 전시에서 처음 선보인 이 작품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현대 미술가들은 검열 행위 뒤에 있는 편견과 편협함을 드러내려는 작품을 제작했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스스로 자유로운 발언의 한계를 시험하기도 했다.

4. 주제별 토론

활발한 토론 진행과 동시에 테마에 얽매이지 않은 미술에 관련한 주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토론 진행 방식: 본 캠프 강의 후 [보기]에 나와 있는 토론 주제들에 투표를 진행.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 하는 주제가 많은 곳들을 묶어, 가닥을 나눈 후 토론 진행.

무엇이 미술을 미술로 만드는가?

민경: 나는 새로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아무도 안한 걸 하면 그게 미술이 되는 것 같아.

연: 1차원적으로 작가의 화려한 언변(말발).

민경: 그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작품이 되는 거 아닐까?

연: 대중의 반응, 작가의 유명세

민경: 작가가 어떻게 유명해지는데?

연: 솔비, 하정우, 빈지노, 유아인 이런 애들. 유명세를 이용한 예술 같은 거. 우리는 항상 신제품에 반응을 해왔잖아.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는 거지. 독보적인 것. 저런 것도 예술일 수 있구나 싶은 것.

하성: 타고난 재능으로 남들에게 미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고 아름다움을 선사하거나,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을 담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것.

연: 그림의 완성도가 중요하지 않아. 그것보다 작가의 가치와 신념이 얼마만큼 뛰어나고 잘 풀어내었느냐가 중요하지.

민경: 확실히 그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확고하면 미술이 되는 것 같아.

하늘: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모두 미술은 아니지 않을까.

하성: 미술은 손끝에서 나와. 어떤 판 위에 그려지는 모든 것은 그림이 될 수 있어. 색감이 있고 글씨가 있듯, 그것부터가 미술의 시작이야.

연: 미술은 말로 하는 거야.

민경: 그 작품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 그렸든, 점 하나를 찍었던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 같아. 작품으로 바라볼지 아닐지.

[보기]

1. 예술교육이 필요할까?
2. 미대교육은 왜 현대의 예술계와 다른가? (미술가가 되려면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어야하는가.)
3. 무엇이 미술을 미술로 만드는 것인가?
4. 작품이 이토록 비싼 이유는?
5. 그래피티, 예술이냐 범죄냐?

5.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 A

현대미술의 첫인상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작품을 바라볼 때 이상한 시선뿐이었는데, 이제는 작가들이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했고, 자신의 일부를 그려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난해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난해하기만 하지 않다. 작품의 의미를 부정했다면 이제는 그것에 담긴 뜻을 이해하려 한다. 한 마디로 '오픈 마인드'가 된 것 같다. 그 동안 무의식중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인식들이 개선된 것 같다.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낯선 작품들을 받아들일 때 거부감이 사라졌고, 이해하려는 수준까지 온 듯하다.

6. 참고자료 및 부록

- 도서

<현대미술은 처음인데요>

<발칙한 현대미술사>

<테마 현대미술 노트>

<철학의 눈으로 본 현대 미술>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영화

<폐기 구겐하임>

<프리다 칼로>

-전시

또 다른 시작; 현대미술관

코코카피탄; 대림미술관

김상인; 온그라운드갤러리

청소를 위한 공예; 보안아트 스페이스

-활동

연결 상태: 아트 플랫폼과 네트워크; 보안아트 스페이스

미술사조 파트를 나누어 공부 후 발제, 서로의 발제문 읽기.

<현대미술은 처음인데요> 도서를 바탕으로 토론.

현대미술 첫인상 글쓰기.

인간관계, 우리 소통해볼래요?

0. 출발점

1. 목적

2.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3. 감정표현

- 기본적인 감정
- 감정 별 단계
- 감정이 생기는 원인
- 감정 조절이란?
- 감정 조절을 해야 하는이유
- 감정 조절 방법

4. 음성언어란

5. 나의 감정 인간관계 일대기

간디학교 입학 후 생겼던 나의 감정 및 인간관계

6. 말의 중요성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말

7. 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하는가

-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
- 사회에서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인가.
-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인가.

0. 출발점

2학기 초반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읽었다. 읽고 나서 내가 내 주위사람들에게 했던 말들은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말에서 생겨나는 감정, 감정에서 엮이게 되는 관계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을 중심으로 말, 감정, 관계의 연계성과,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공부하며 공부한 내용을 사람들과 공유 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

말_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 감정, 관계의 중요성
말, 감정, 관계의 연계성

불편한 사람들과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제를 잡고 관련 책을 읽다보니 조금 방향을 틀고, 주제를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



인간관계_소통

말, 감정, 전달방법, 인간관계
말과 감정에 대해 공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모든 것은 인간관계를 위해 생겨난 것들이다.
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

처음에 말에만 중심을 두었다면 최종 주제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거쳐야 할 것에 대해 더 깊이 공부를 했다.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선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우리 소통 해볼래요?' 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1. 목적

우리가 평소에 지나치고 있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 인간관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알려주고 함께 나누고 싶다.

2.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관계의 첫 시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기분'을 뜻한다. 즉 '말하기 바로 전 단계'를 뜻하기도 한다.

나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공부했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간관계는 많이 달라진다.

특히 청소년기에 인간관계를 힘들어 한다. 하지만 대학교, 직장에서 까지도 인간관계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나를 돌아보며, 강의를 시작한다.

3. 기본적인 감정

우리는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대부분 스쳐지나가거나 잊고 살 때가 많다. 나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되짚어 보고, 감정에 대해 알아가고자 한다.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항상 일치 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겁을 먹었거나, 화가 나서 울고 있는 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종종 '슬픔의 모자'를 쓰고 그 밑에 다른 감정들을 숨긴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은 행복, 슬픔, 불안/ 두려움, 분노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망감은 슬픔과 분노가 혼합된 감정이고, 긴장감은 불안과 행복이 혼합된 감정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파악되지 않을 때, 네 가지 기본적인 감정을 토대로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에 화를 내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슬픈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내가 인지하지 못한 행복한 감정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면, 그 감정을 더 쉽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감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감정의 단계를 알아보자.

감정의 강도는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나의 감정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연결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라면, 내가 느끼는 감정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감정은 어떤 단계로 표현할 수 있는지 표로 적어 보았다.

감정 별 단계

행복의 단계

노래 부르고 싶고 누군가를 포옹하고 싶다	1
따뜻함	2
내면의 기쁨	3
열정	4
가벼운 느낌	5
에너지	6
아무것도 안 해도 기분이 좋음	7
즐거운 느낌	8

행복한 감정은 가볍고 기분 좋은 느낌으로 시작된다. 행복한 감정이 최고조에 도달하면 노래를 부르고 싶고 누군가를 포옹하고 싶어진다.

슬픔의 단계

영원히 잠들고 싶다	1
심한 피로감	2
흐느껴 운다	3
큰 소리로 울고 싶다	4
얼굴이 떨림	5
목이 메임	6
눈물이 맺힘	7
몸이 무겁게 느껴짐	8
불쾌한 감정	9
약간의 피로감	10

슬픔의 초기 단계에서 감정을 인식하면 슬픔에 대응할 에너지를 더 많이 충전할 수 있다.

분노의 단계

최고조의 분노	1
격렬한 분노	2
심한 분노	3
분노	4
짜증	5
대체로 어떤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느낌	6

분노는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을 잃는 단계에 이르면 명료한 생각을 하기 힘들다.

이 단계에서는 흑백의 이분법에 치우쳐서 극단적인 사고를 하기 쉽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불안의 단계

어지러움, 속이 메스꺼움	1
가슴통증	2
호흡 곤란	3
떨림	4
식은땀	5
다리에 힘이 빠짐	6
현기증	7
아무 생각이 안 들	8
초조함	9
긴장	10
걱정	11
마음이 안정되지 않음	12
가벼운 불안감	13

불안감은 무언가 위협한 것이 존재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 반대로 어떤 것이 당신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말고 오히려 그쪽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는 암시일 수도 있다.

나는 감정의 단계를 위와 같이 표현 하였다. 이제 행복의 감정을 제외시키고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원인을 알아보자.

슬픔의 원인

슬픔은 상실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렸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슬픔을 느낀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는 희망이나 꿈을 상실했을 때도 애도의 감정을 느낀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껴 울 것이다. 한동안 울고 나면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해방되고, 후련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분노의 원인

첫째_자아가 상처를 입었을 때

자신의 허영심이 상처를 입었을 때 일어나는 분노를 '자기애적 분노'라고 한다. 자아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면,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거나 반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둘째_자기 방어를 위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폭발적이니 분노를 표현해서 상대방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_가치관이나 삶의 원칙이 손상됐을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그 행동이 당신의 삶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넷째_바라는 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누군가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영역을 침범하거나, 당신의 가치관이나 삶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분노를 느낄 것이다. 또 어떤 일이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과 일치되지 않을 때도 분노를 느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감정들을 감추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신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은 수준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분노를 표현하는 대신 무기력감이나 불안, 슬픔을 표현해라. 서로의 따뜻한 감정을 수용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불안의 원인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간혹 두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무모해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기 쉽다.

불안과 동반해서 일어나는 몸의 감각에 익숙해질수록 불안감을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불안감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불안을 수용하고, 그것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라. 그러나 불안이 자신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기본적인 감정과 원인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강의에선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감정 조절이란?

감정조절은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을 조절하기를 시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거부, 강조, 약화, 축소, 위장 혹은 그 감정들을 완전히 숨기는 것이다. 감정조절은 또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 순간에 대한 감정의 강도를 늘리거나 줄이며 수정하는 과정 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만약 감정이 없다면 생물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에 동등한 처리 시간을 부여할

것이다.
에너지를 조절하고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감정과 에너지를 이해하고 외부로 배출하는 것이 진짜 감정 조절이다.

감정 조절을 해야 하는 이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의 조절은 기본 덕목이므로, 상황에 따라 적당히 웃고 적당히 울고, 때로는 참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융통성 없이 꼭꼭 참고 나중에 내뱉는 것 또한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 실제로도 한국의 경우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슬픔을, 여성은 분노를 표현하는 능력이 약해진다고 하는데, 이는 곧 정신 건강에 악화를 가져오며 화병을 가져올 수 있다.

대부분의 인간은 논리나 지성, 이성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감정을 내세우는데, 그건 이미 자신의 논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라 생각해도 된다. 물론 지성이 다른 의미로 안 통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감정만을 내세워 상황을 보게 되면 스스로의 행동만을 정당화하게 되고, 결국 심증팔구는 역관광 당하게 되어있다. 사회는 한 사람의 감정을 위해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감정조절을 해야 하는 이유 중 다른 한 가지는 분노를 자신에게 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자살 문제가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확히는 감정표현이다. 상호작용이라든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을 느끼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서 다른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조절을 해야 하며, 감정 조절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감정 조절 방법

우리의 뇌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익숙한 감정을 찾으려는 성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습관적인 경향이 크다.

미국의 나키아 고든 박사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실제 일어난 일과, 상상한 것을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느끼는 이 감정에 대해서 상상 속에서 이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실제로 그 상황이 됐을 때, '변화시킨 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조절 행위에는 크게 표현해야 하는 감정을 진실 되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내면행위와 표현해야 하는 감정을 위장하여 표현하는 표면행위가 있다.

내면화 행위는 심층적 행동이라고도 하며, 고객(상대방)에게 보여주려는 감정(상냥함, 친절 등)을 실제로 느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황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외적 태도를 조정해가지만 내적인 감정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표면화 행위는 자신의 감정과 달리 고객에게 거짓 감정을 표현하거나, 실제 감정과는 다른 행동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의 규칙에 일치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보이는 측면들을 조정해가는 상태를 말한다.

1. 현재 감정상태 바라보기

자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아 인식을 수용하고 이해할수록 타인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향상되고,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2. 호흡을 통한 감정조절하기

아주 길게, 세 번 정도 내 쉰다. 가슴에 답답한 기운들을 빼낸다는 생각으로 내 쉰다.

3.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것을 인정하기

보통 슬픔, 좌절, 분노, 근심 등의 감정은 타인이나 다른 일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감정도 행복, 기쁨, 환희와 같이 스스로 만들어 낸 감정이다.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은 밖이 아닌 안에서 파악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근원'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은 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도 스스로가 만들었기에 자신이 통제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

위에서 배웠던 감정, 감정 조절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써야 한다. 언어 중 음성언어를 설명할 것이다.

4. 음성언어란?

말소리로 나타내는 언어. 음성 언어는 문자 언어나 몸짓, 표정 등의 비언어와 상대되는 언어이다. 음성 언어는 말하기와

듣기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로 쓰기와 읽기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자 언어와 다른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음성 언어는 일회적이다. 말소리는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으며, 특별히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오래도록 기억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둘째, 음성 언어는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조직하여 전달하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 음성 언어는 듣는 이와 대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그 대신 몸짓, 손짓, 표정 등의 부수적 표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말하면서 동시에 듣는 이의 반응을 살필 수 있다.

말과 관계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나의 간디학교 일대기를 쓰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떻게 말했으며 인간관계는 어땠는지 돌아보았다.

일대기를 통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나서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

5. 나의 감정, 인간관계 일대기

1학년 때 까지만 해도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랐고,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짜증이 섞인 말투와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고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

2학년 때는 나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나 표현 방법을 몰라 방황하고 있었다. 진지한 자기 들여다보기를 하며 자신이 무언에 관심이 있고 잘하는지를 발견해 나가고 있다.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느낌과 감정도 솔직하다. 1학년 때 친구들한테 눈치를 보며 맞춰 나갔다면 2학년 때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시키며 편안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친구들과의 관계 면에서도 한층 더 자연스러워졌다. 아이의 티를 벗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말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단단해 졌고 선후배 가릴 것 없이 평등하게 접근했다.

3학년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다. 친구들에게 이야기 할 때 거칠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근사근 조용조용히 조언해주며, 타인의 선의에 항상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 관계에서는 어른스럽고, 완벽주의자 같은 느낌이다. 조용히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할 말을 다 하는 친구이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치에 다른 친구들을 맞추려고 하거나 안 따라와 준다고 힘들어 모습이 많았다. 13시반을 좋아하는 아이. 13시반 친구들이 철없이 행동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 주위를 잘 챙기고 쌤들도 너무 잘 챙겨준다.

4학년 반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반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 억지로 만남을 강요하는 것을 싫어함. 친구들과 한 번도 싸우지 않았으며, 남자친구들과는 필리핀을 가기 전보다 친해진 듯. 학생회장 선거 준비를 하면서 13여학생 친구들과과는 더욱 관계가 깊어진 것 같다.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잘 챙겨 줌. 친근하게 다가가주고, 후배들을 잘 챙기며 빠트린 부분을 찾아서 이끌어 주기도 한다.

5학년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있고, 자신의 멘탈이 이제 슬슬 근력이 붙어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많은 말을 하기 보다는 먼저 듣고 있는 모습이 자신이 생각했던 소통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6학년 자신에 대한 성찰력과 더불어 현실에 대한 통찰력도 뛰어나다. 주체적인 자기 의지가 강하면서도 관계에서 신뢰성을 주어 두터운 관계를 형성해 내었다. 성실하고 말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 평가서로 일대기를 정리했을 때 대부분의 나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라는 말이 매년 있다. 중등부 때는 남을 도와주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

6. 말의 중요성

일대기를 정리하며 내가 했던 말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직설적인 말을 함으로써, 주위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고, 내가 나를 상처 주기까지 했다. 말을 할 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때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부분에서 말의 품격의 한 구절을 써보겠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뉘는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언어처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흘러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되돌아온다. _말의 품격

자신이 뱉은 말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는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

리는 말을 할 때 좀 더 생각하고 말해야 하며, 말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말(행동)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말에 상처 받고, 그로인해 인간 관계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 어떤 말들이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다.

직장, 가족, 친구관계 등등 모든 인간관계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자기주장만 늘어놓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고립되어 행복한 삶을 살수 없게 된다.

7. 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결국은 침묵하며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이기에 상대와의 소통 없이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다.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

소통의 부재는 결국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결국은 상대에게 원치 않은 나의 첫인상만 안 좋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의견충돌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인간관계 성공의 핵심 전략이다. 상대와의 참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마음을 열고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진심으로 듣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이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적절히 맞장구쳐 주고, 긍정적인 표정과 미소 등 비언어적인 화술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이끌어준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입을 열어라, 그러면 당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느끼게 될 것이다.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매듭을 풀어나가는 정교함이 필요하다. 실타래가 꼬여버리면 풀어 내기 매우 어렵다. 이것을 푸는 방법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실타래가 꼬였다고 무조건 잘라 버리려고 한다면 관계는 늘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엉킨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나가는 침착함과 차분함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항상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즉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충돌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사회가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

학교나 직장에서라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 거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가정의 구성원처럼, 깊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냉정하고 잔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서로에게 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직장이나 학교에서 서로 가깝게 지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존중을 하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상처를 많이 입는다.

경쟁이라는 구조 속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는 가까워지는데 한계가 있다.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경쟁 관계에 놓인 이상 서로 영원한 라이벌이 되며,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마음속에 영원한 견제의 벽을 두고 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가까운 것 보다는 적당히 관계를 두는 것이 업무에 하는데 있어서도 편하다. 상대와 너무 친해지면 일을 진행하는데도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제대로 의사 표현도 못하고, 너무 상대를 배려한 나머지 지시할 일이나 힘든 일을 제대로 시킬 수도 없다.

차라리 서로 관계가 가깝지 않다면 편하게 일을 시킬 수도 있으며 업무적인 부탁도 하기 쉽다. 그리고 사람들은 직장에서 대화 보다는 이메일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스마트폰과 더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관계 맺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과거 보다 사람들은 사람과 대화가 부족해지고, 기기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인가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수만 가지의 사정이 있고 개인의 경험이 녹아든 각자의 세계관이 있다. 그것이 본인에게 그리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우린 모든 이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는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설령 그것이 울퉁불퉁하고 험난한 방향일지라도 나는 기다려주면 된다.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강요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그가 내게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바람직한 일이며, 누구나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고민을 한다.

즉,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인간관계'에서 '좋은'이란 말을 서로 존중하며, 배려를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사람이 속하는 모든 단체에서 좋은 인간관계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를 내기 보다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따라서 무작정 어느 곳에서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일부 구성원의 노력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또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비사교적인 면을 탓할 필요도 없으며, 굳이 좋은 인간관계를 추구할 필요도 없다.

좋은 인간관계는 그야 말로,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추구되어야 하지만, 예외가 되는 곳이 있어야 한다.

사회에 나가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1. 영화

- 1) 영화의 역사
- 2) 영화와 인문학
- 3) 영화해석

2. 이터널 선샤인

- 1) 개요
- 2) 해석 : 망각은 행운일까?

3. 타이타닉

- 1) 개요
- 2) 해석1 : 어떤 사랑을 하고 싶니?
- 3) 해석2 : 죽음에 대하여

4. 결론

박성현, 김태은, 신비아

I Like To Movie Movie

1. 영화

1) 영화의 역사

▶ 영화의 기원 : 인간의 두뇌는 눈이 실제로 보는 것 보다 사물의 상을 조금 더 오래 보존한다. 이러한 현상을 '잔상'이라 부른다. 1824년 영국의 의사인 로젯에 의해 처음 과학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림 크로노포토그래픽 건

19세기 후반에는 몇몇 사진사와 과학자의 중심으로 사진을 연속적으로 찍는 방법이 탐구되었다. 영국 사진사 출신인 마이브리지는 1878년에 달리는 말의 동작을 연속사진으로 찍었다. 사진을 회전하는 유리 원반에 올려놓은 뒤 회전시켜 말이 달리는 형상을 나타내었다. 1882년에는 프랑스 생리학자인 마레가 동물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총 모양의 사진기인 '크로노 포토그래픽 건'을 개발했다. 이후 마이브리지와 마레가 힘을 합쳐 활동사진의 시대를 연다.

▶ 키네토스코프로 개척한 영화시장 : 활동사진은 에디슨과 디슨에 의해 현실화되었다. 1888년 영상을 녹화하는 장치와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1891년에 '키네토그래프'라는 활동사진 촬영기와 '키네토스코프'라는 활동사진 영사기를 발명해냈다. '키네토스코프'는 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 전기모터를 장착하고 필름을 감아놓은 것이다. 모터가 돌아가면 필름이 이동하며 상자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림 키네토스코프를 통해 영화를 보는 모습

에디슨은 영화의 수요까지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893년에 최초의 영화 스튜디오인 <블랙 마리아>를 차렸고 1894년에 영화 사업사인 <에디슨 제작사>를 설계했다.



그림 시네마토그래프

▶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 : 1894년 파리에서는 '키네토스코프'로 활동사진을 보기 위해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이 벌어졌다. 사진업을 하던 뤼미에르 형제 역시 활동사진에 매료되었다. 형인 오귀스트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계 속에서 행진하는 작은 활동사진들을 보고 나는 홀딱 반했다. 만약 이 사진들을 대형화면 위에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본다면 얼마나 대단할까 하고 나는 상상했다. 그리고 즉시 이 문제에 매달리기로 결심했다."

뤼미에르 형제는 힘을 합쳐 '시네마토그래프'라는 기계를 설계했다. 카메라와 동시 영사기도 되는 기계로서 각 사진이 초당 16장의 속도로 화면에 비쳤다. 1895년 2월 13일에는 뤼미에르 형제의 이름으로 '시네마토그래프'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었다. 영화를 뜻하는 '시네마'도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네마토그래프'는 '키네토스코프'를 넘어섰다. '키네토스코프'로는 상자에 있는 구멍으로 한 사람씩 영상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반면, '시네마토그래프'의 경우에는 많은 대중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세계 최초의 대중영화 상영 : 1895년 3월 19일 루미에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래프'로 <리옹의 루미에르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다. 이어 형제는 9편의 활동사진을 추가로 제작한 후 1895년 6월 11일 사진가회의에서 상영했다.

전문가 집단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루미에르 형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기획하였다. 1895년 12월 28일 오후 9시에 세계 최초의 대중적인 영화가 상영되었다. 바로 <라시오타역으로 들어오는 기차>다. 보통 <기차의 도착>으로 불린다. 상영시간 3분, 입장료 1프랑, 관객은 33명이었다. 첫날에 비하여 3주 뒤에는 하루 수입이 2000프랑을 넘어섰다. 첫 상영날은 영화의 탄생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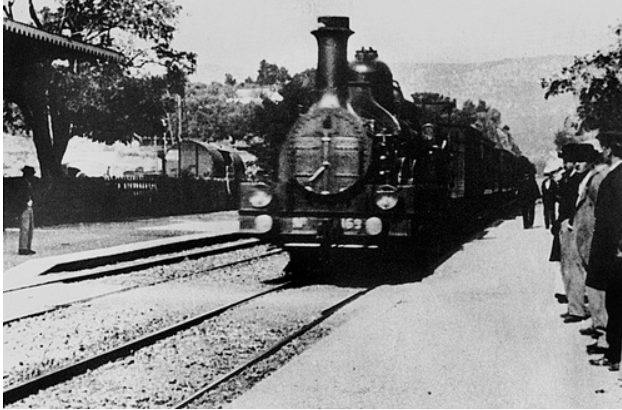


그림 <기차의 도착>

▶ 고전영화의 발전 : 초창기 영화는 움직임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을 매혹하기에 충분했다. 에디슨이 1893년 최초의 스튜디오 <블랙 마리아>에서 촬영한 스포츠 영화들, 루미에르 형제의 '기차의 도착' 등 일련의 영화들은, 움직이는 사람이나 물체를 그대로 찍은 영화들로 단순한 기록물이었다. 당시 영화들은 1분이 채 안 되었고, 하나의 연속된 샷¹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객들은 점차 꾸며진 이야기 형태를 가진 영화에 관심을 돌렸다. 사람들은 잘 꾸며진 이야기 형태의 영화들에 환호하였고, 영화는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는 쪽으로 발전했다. 즉 영화는 선호도에 따라 현실을 기록하는 매체에서 환상과 허구의 세계를 담은 매체로 발전해나갔다.

날짜	내용	비고
1824년	'잔상' 연구 시작	
1878년	사진가 마이브리지, 말의 동작을 연속사진으로 담아냄	
1882년	생리학자 마레, 동물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총 모양의 사진기 '크로노 포토그래픽 건' 개발	
	- 마레와 마이브리지의 연구로 활동사진의 시대 시작	
1888년	영상 및 녹화 재생장치 연구 시작	
1891년	최초의 영상 촬영기 '키네토그래프'와 영사기 '키네토스코프' 발명	
1893년	에디슨, 최초의 영화 스튜디오 설립 <검은 마리아>	
1894년	에디슨, 영화 사업사 설립 <에디슨 제작사> 루미에르 형제의 대형스크린 연구 시작	
1895년	2/13 루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 특허 등록	< 기차의 도착 >
	3/19 루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를 이용한 영화 제작	12/28 9:00pm 개봉
	6/11 사진가 회의에서 첫 제작영화 상영	상영시간: 3분
	12/28 세계 최초 루미에르 형제의 대중영화 상영	입장료: 1프랑 관객: 33명 * 세계 최초 대중영화상영 * '영화의 탄생일'로 지정
1927년	유성영화 시작	
1935년	컬러영화 시작	
1970년	컴퓨터 그래픽 사용 시작	

3) 영화와 인문학

영화는 대중에게 매우 익숙한 문화이다.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종합예술로 누구나 가볍고 재밌게 관람할 수 있다. 동시에 영화는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철학을 담아내기 위해 등 많은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즉 영화

1 '카메라가 작동해서 끝날 때까지의 시간(카메라 테이크) 동안 빛에 노출되어 촬영된 필름의 길이'를 말한다. 중단되지 않은 촬영 또는 녹화, 컷과 컷 사이의 장면.

를 보는 관점에 따라 재밌는 대중문화이기도, 복잡한 철학이 내포되어있는 예술이기도 한 것이다.

인문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인문학(人文學)이라는 이름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마치 복잡하고 심도 깊은 개념을 다루는 듯이 보이는데, 때문에 인문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인문학은 말 그대로 인간의 삶과 사고에 관해 탐구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와 밀접한 학문이다.

우리의 삶과 가까운 인문학을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일상에서 익숙한 매체를 수단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누구나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영화에서도 인문학을 할 수 있다. 영화를 관람에 그치지 않고 내포되어있는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나아가 영화를 더욱 깊이 해석해내기 위해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게 된다면 (책을 한편이라도 읽는다면) 그것이 바로 인문학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4) 영화해석

영화를 본 관객들은 영화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친구나 가족에게,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 속 인물과 주제에 대해 혁신적인 측면을 분석한다. 또는, 기술적 맥락에서 성취한 것들을 발견하고 언급한다. 영화이론 교수인 '티모시 코리건'은 '영화해석이란 영화를 더 잘 즐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영화해석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영화평론, 영화분석 등이 있다.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매체의 성격, 지면의 분량, 영화의 시의성, 내용의 전문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영화분석이란 영화의 지식을 재생산하는 이론작업이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영화를 한 편의 텍스트로 사고하는 구조주의적인 분석과, 이야기의 구조와 테마를 분석하는 내러티브 분석이 있다. 특정한 시퀀스(sequence)¹를 설정해 이미지나 사운드를 분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샷(shot)² 별로 구분하여 정밀한 분석을 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작품이 지닌 역사성이나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영화해석은 감독과 관객 양쪽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 영화의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데 기여한다. 해석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영화는 비로소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2. ETERNAL SUNSHINE



1) 개요

감독: 미셸 공드리
출연: 짐 캐리(조엘 역) 케이티 윈슬렛(클레멘타인 역)
장르: 멜로/로맨스 드라마
개봉: 2005.11.10.
상영시간: 107분
국가: 미국
연령: 15세 관람가

(1) 줄거리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애인 사이였다. 2년간의 만남에 지친 둘은 싸우다 헤어졌다. 클레멘타인은 슬픈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기억을 지워주는 '라쿠나사()'에서 조엘에 관련된 기억을 지운다. 뒤늦게 화해를 하러 찾아온 조엘은 자신을 기억

1 장소, 액션, 시간의 연속성을 통해 하나의 일화를 이루는 것.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독립적인 구성단위.
2 순간의 시간단위를 한정 짓는 표현단위. 중단되지 않은 촬영 또는 녹화. 컷과 컷 사이의 장면을 말한다.

하지 못하는 클레멘타인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다가 자신 또한 '라쿠나사()'를 찾아가 기억을 지운다. 기억을 지우는 방식은 대상과 관련된 물건들을 바탕으로 뇌에 지도를 만든 다음,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하나씩 지워가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기억은 싸우는 모습이었다. 클레멘타인은 조엘이 자신을 믿고 속내를 털어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조엘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떠들어봐야 마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야."라고 말한다. 이에 클레멘타인은 "널 알고 싶을 뿐이야."라고 대답한다. 이렇듯 대화방식이 맞지 않았던 둘은 지쳐갔다. 싸움은 잦아졌고, 식당에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 자신들의 모습에 조엘은 '우리도 딱한 커플이 되어가는 걸까, 둘이 멀뚱히 앉아 먹어대기만 하는'이라 표현한다.

부정적인 기억을 지워가던 중, 클레멘타인이 자신의 과거와 상처를 털어놓았던 날이 떠오른다. 내면에 숨겨놓았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고 위로해주었던 소중한 시간마저 지워지려 하자 조엘은 그제야 기억을 지우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이 기억만큼은 남겨주세요."

하지만 조엘의 의지와 다르게 '라쿠나사()'의 시스템은 계속하여 소중한 추억들마저 지워갔다. 결국 마지막 기억인 첫 만남에 다다르게 된다. 조엘은 발버둥을 멈추고 기억을 찬찬히 회상한다. '넌 오렌지색 후드티 차림이었지. 이제 익숙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때 멋진 후드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클레멘타인이 말한다. "이 추억도 곧 사라지게 돼." "알아." "뭘 해야 하지?" "그냥 즐기자." 둘은 처음 만난 날과 같이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낸다.

2) 해석 [망각은 행운일까?]

(1) 망각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사람들은 사랑을 한다. 짝사랑, 내리사랑, 우정과 같이 세상에선 여러 형태의 사랑이 존재한다. 그 다양한 형태의 사랑 중, 영화 <Eternal Sunshine>에서는 애인과의 사랑을 표현하였다. 서로를 사랑한 어느 한 커플의 행복했던 순간과 헤어짐의 순간을 담아낸 작품이다.

<Eternal Sunshine>에선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자세, 외면과 대면에 대해 볼 수 있다.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라쿠나사()'의 직원 매리는 하워드를 사랑한다. 하워드는 '라쿠나사()'의 원장으로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매리는 하워드를 꾸준히 사랑했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명언도 줄줄 외우고 다닌다. 매리는 "망각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잊기 때문이라."는 영화의 핵심 대사를 벨게 되는데 이것은 니체(F. W. Nietzsche, 1844~1900)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 대사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

매리의 모습은 마치 영화를 관람하는 많은 사람의 욕망을 대변한 듯 보이기도 한다. 현실 어딘가에 '라쿠나사()'가 있다면 누구든 잊고 싶은 기억 하나쯤은 떠올릴 것이다. "기억을 지우는 것은 행운이다."라고 생각하게 유도하는 것이 영화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 욕망에 의문을 던진다. 자신의 실수와 괴로움을 잊는 것이 과연 복 받은 것일까?

만약 망각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영화의 의도였다면, 어쩌서 기억을 지운 사람들 모두 과거 자신이 했던 실수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 영화에서 기억을 지운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조차 잊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였다. 그리하여 과거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 망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 대목에서 대면과 회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살아가며 겪게 되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강자와 약자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강자는 고통에게 위축되지 않는다. 도리어 고통 안에서 자신의 배움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약자에게 고통은 공포의 대상이다. 고통 앞에 위축되어 피하려 한다. 강자는 안 보이는 것도 보려 애쓰는 반면 약자는 보이는 것도 보지 않으려 한다. 또한 강자는 어디서든 배울 점을 찾고 약자는 어디서든 비꿀 수 있는 점을 발견한다. 즉 넘어서려는 자와 회피하려는 자다.¹

영화에 대입해본다면 조엘과 클레멘타인 그리고 매리는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약자의 입장으로 회피한 것이다. 매리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큰 죄책감을 느꼈다. 처자식이 있는 하워드를 사랑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버렸단 사실이 고통이었을 것이었다. 매리 역시 망각을 통해 회피하였다. 하지만 망각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수마저 잊어버린 매리는 또다시 하워드를 사랑하였다.

조엘과 클레멘타인 역시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랑을 끝냈을 때 행복했던 추억이 남듯이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 역시 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억을 지운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망각하게 되었다.

(2) 사랑의 가치²

1 <살을 위한 철학수업> 이진경

2 <살을 위한 철학수업> 이진경

그러나 조엘과 클레멘타인은 아픈 기억을 망각함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잃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랑의 경험이다.

평소 우리의 의식은 선호하는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고도, 감각도, 행동도, 욕망도 그렇다. 스스로의 힘으로 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 바로 자아다. 그러나 자아는 사랑을 통해 벗어남을 경험해볼 수 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각자의 삶을 살던 두 세계가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만나는 두 세계는 서로가 낯설다. 적응하기 위해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이내 자연스럽게 두 세계의 중간지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중간지점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법, 넘지 말아야 할 선 등, 상대를 존중하며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그들만의 규칙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의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저 대화와 경험 그리고 시간을 통해 형성된다.

이 중간지점이 만들어지는 첫 단계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하는 것이다. 그의 시점에 다가가려 애쓰며 상대의 사고를 이해하려 하고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모방한다. 이것은 상대의 세계에 들어가보는 경험이다. 그리하여 어느새 의도하지 않았던 세계를 접하게 된다. 즉 상대에게 빠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뜻이다.

한 사건 혹은 물건을 보며 지금껏 A라고 생각해왔다면 새로운 세계에서 B라는 시선을 접하게 된다. A만 알던 나의 세계에서 B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값진 경험인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이처럼 값진 성장을 뜻한다. 누군가와 미친 듯이 사랑했다면, 상대방의 시야를 보려 애썼다면, 사랑한 이후 넓어진 나의 세계는 이별 뒤에도 유효할 것이다.

(3) 결론 : 이별을 통한 성장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의미는 아픔을 통한 성장일 것이다. 매리는 이렇게 말한다. "아기를 보면 순수하고 자유롭고 순결하지만, 어른들은 슬픔과 공포에 찌들었어. 하워드는 그걸 없애주잖아." 그러나 아이는 순수한 만큼 서투르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잦다. '어른'은 '아이'가 경험과 세월을 거쳐 성장한 모습이다. 어른은 아이의 성공과 실패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찌들어진 어른의 모습 역시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지금의 '나'인 것이다. 실패를 부정한다면 지금의 '나'도 없다.

위에서 말했던 강자와 약자의 개념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실패 역시 고통이지만 아이는 실패를 통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른은 슬픔에 찌들었지만,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증표 정도라 말할 수 있겠다.

영화의 등장인물들도 자신의 실수가 반복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뒤 자신의 고통과 다시 대면하였다. 그리고 회피하고 망각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나아갔다. 영화에서 나타내려는 주 메시지는 "실수 혹은 고통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법"일 것이다.

사랑에 대입해볼 수도 있다. 이별을 경험한 사람은 슬픔도 가지고 있지만 슬픔을 통한 성장도 있을 것이다. 이별에는 떠나는 사람과 남겨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도 어느 쪽이 나쁜가를 가려낼 수 없다. 그저 상황과 타이밍, 변해버린 마음의 탓일 뿐이다. 몇 번을 반복하든 이별은 쉽지 않다. 같은 사랑을 하더라도 각자에게 다른 사랑으로 기억되듯이 이별 또한 서로가 다르게, 각자의 자세로 받아들인다. 이별한 뒤 진정으로 나아가는 법은 무엇일까? <Eternal Sunshine>을 보며 실수, 괴로움, 망각 그리고 성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3. TITANIC1)



1) 개요

감독: 제임스 카메론

출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잭 도슨 역) 케이트 윈슬렛(로즈 드위 부가터 역)

장르: 멜로/로맨스 드라마

개봉: 1997.02.20.

상영시간: 194분

국가: 미국

연령: 15세 관람가

(1) 줄거리

여주인공 로즈는 몰락한 귀족 출신으로 요조숙녀로 자라왔다. 그러나 로즈는 돈과 가문에는 관심도 없는 그저 즐거운 일을 좋아하는 쾌활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엄마에게 출신과 명예를 지키기를 강요받아 한 평생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타이타닉에 승선하게 되는 이유 또한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다. 로즈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피츠버그의 철강 왕인 칼 허클리와 약혼하여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타이타닉에 승선한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타이타닉은 모두에게 꿈의 배였으나 나에게겐 노예선이었어요.
죽쇄를 차고 미국으로 송환되는.. 걸으로는 나도 요조숙녀였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죠.”

상류층의 대화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신들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등의 속물스러운 이야기밖에 없다. 주변 사람들인 엄마, 약혼자 모두 로즈를 한 사람이 아닌 사회적 지위로만 바라보았다. 가문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로즈는 미래까지 훤히 내다보이는 자신의 삶에 숨막혀 한다.

“이미 인생을 다 산 듯 제 인생이 보였어요.
항상 똑같은 편협한 사람들과 의미 없는 수다만 존재하죠.
까마득한 절벽에서 있는 것 같았어요. 날 잡아줄 사람도 없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죠.”

결국 로즈는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배 위에서 뛰어내리려 한다. 삶을 끝내기 위해 선미¹의 난간에 매달린 순간, 한 남자가 말을 건넨다.

“그러지 마요.”
“거기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손을 내밀어요. 제가 잡아줄게요.”
“싫어요! 움직이지 마요. 농담 아니에요. 뛰어내릴 거예요.”
“못할걸요.”

남자는 대화하며 로즈가 뛰어내리지 않게 설득하고 로즈는 난간에서 내려온다. 남자는 잭 도슨이라는 미국인 화가였다. 잭은 로즈를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로즈는 자신을 인생의 역경도 모르는 부자 처녀라 표현하자 잭은 오히려 어째서 스스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죽음을 택하려 했는지에 대해 물어본다. 즉 잭은 '부자 처녀'가 아닌 '로즈'를 바라보는 것이다. 로즈는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잭에게 참아왔던 속내를 털어놓는다. 자신의 인생은 설계되어있고 그것을 바꿀 수 없음을 토로한다.

잭은 첫 만남 이전 로즈를 본적이 있었다. 잠시 바람을 쏘러 갑판으로 나온 로즈의 모습을 보고 잭은 한눈에 반했었다. 잭은 로즈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계속하여 로즈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고 점차 가까워진 둘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로즈의 약혼자인 칼이 이를 알게 되었고, 로즈에게 더러운 계집이라며 손찌검을 한다. 칼은 늘 돈과 지위로 로즈를 유혹하여 소유하려 하였으나 로즈는 그런 그에게 마음을 줄 리 없었다. 얼친 데 덮친 격으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려 하고, 긴급탈출이 시작된다.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우던 중 로즈는 잭의 곁에 남기 위해 탑승을 거부한다. 배는 계속해 물에 잠겨가고 잭과 로즈는 살아남을 길을 찾는다. 결국 타이타닉호는 침몰한다. 잭은 배의 잔해를 찾아 로즈를 올려주었으나, 자신이 타면 가리앉아버리는 바람에 물속에 있어야 했다. 1~2도의 차가운 바닷물에서도 자신보다 로즈를 살리고자 로즈가 버틸 수 있게 다독인다.

1 배의 뒷부분

“당신은 탈출할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아 아이도 많이 낳을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할머니가 된 다음에 편히 죽을 겁니다.
 오늘밤은 아니에요. 이렇게 죽진 않아요. 살아남겠다고 약속해요.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약속해줘요, 로즈.”

이윽고 구명정이 생존자를 태우기 위해 돌아온다. 로즈는 잭에게 보트가 왔음을 알린다. 그러나 잭은 이미 저체온증으로 죽어 있었다. 로즈는 절망하였지만 곧이어 잭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린다. 구명정이 로즈를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굳은 몸을 움직여 있는 힘을 다해 구명정을 부른다. 그렇게 구조된 로즈는 잭이 바라던 바대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

3) 해석 [어떤 사랑을 하고 싶니]

(1) 사랑을 하다

〈사전적 정의〉
 사랑:
 1.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2.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3.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에 빠지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 것일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일까?

나²는 가족애를 제외하고는 사랑이란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다. 특히나 연인관계에서의 사랑이 무엇인지,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상하지 못한다. 어떤 사랑들이 있기에 그렇게도 싸우고 사랑하고, 세상 떠나가라 슬퍼할 수도 있는 걸까.

영화 <타이타닉> 속에도 다양한 사랑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희생적인 사랑,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이 대표적이다.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일주일도 안 된 만남에도 자신의 약혼자보다 더 상대에게 빠져들기도 한다. 이들은 어떻게 사랑을 시작했고, 또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을 통해 <타이타닉> 속에는 어떤 사랑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사랑의 종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끼리 만드는 사랑 또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사랑을 도형과 색상으로 나타낸 이론 두 가지를 바탕으로 사랑의 형태와 유형을 알아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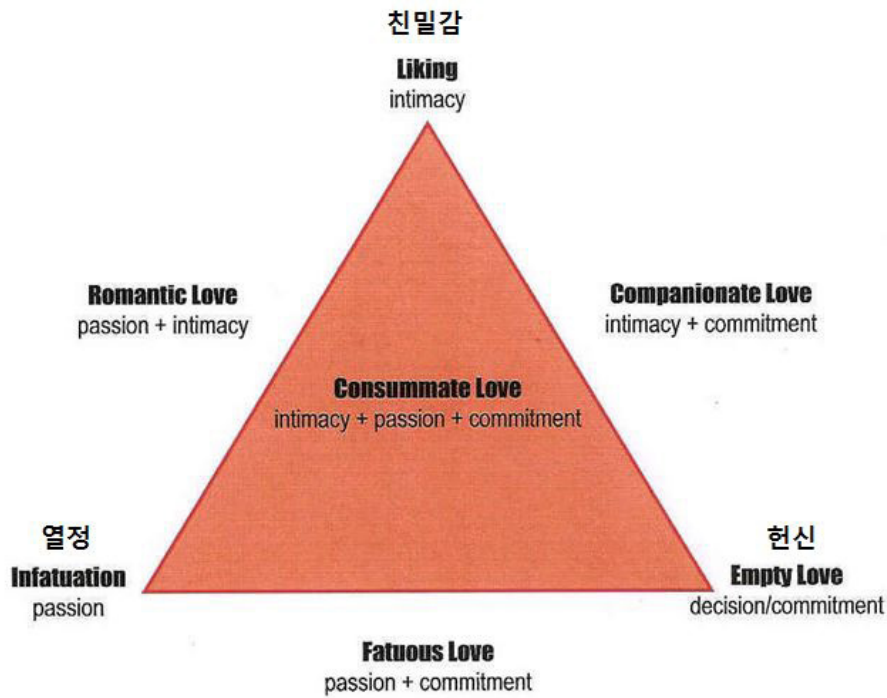
① 사랑의 삼각형 이론

사랑의 모양이라고 하면 보통 하트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는가. 그러나 심리학자 로버트 스텐버그 Robert J. Sternberg는 사랑의 모양을 하트가 아닌 삼각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여러 가지 요소가 버무려져 탄생한다. 가장 결정적인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들을 각각 꼭짓점에 두고 삼각형이 그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스텐버그가 주장하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다. 그가 말하는 결정적 요소, 사랑 삼각형의 꼭짓점은 ‘친밀감’, ‘열정’, ‘헌신’ 이 3가지를 말한다. 사랑이란 이 3가지 요소가 조합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로 구분할 수 있고,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이루는 친밀감, 열정, 헌신을 모두 충족하면 사랑의 형태는 정삼각형에 가까워진다.

1 네이버 국어사전단어

2 김태은



■ 친밀감 Intimacy

: 친밀감은 사랑의 '정서적인 부분'이며 사랑하는 사이의 형성되는 따뜻한 신뢰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친밀감은 서로 가깝게 맺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상대방의 태도에 긍정적인 지지를 해주고 존중해주며,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느껴 함께하는 것이 즐겁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친밀감이란 이러한 감정을 연인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연애 관계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 열정 Passion

: 보통 열정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 연인관계 초반에 볼 수 있는 사랑이다. 흔히 '나는 사랑에 빠졌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와 같은 사랑이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욕구', 성적인 욕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친밀감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 약화되는 속성이다. 형성이 급격하듯 소멸 또한 급격하다. 첫눈에 반해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헤어지는 연인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열정이란 보통 어떤 자극에 의해 촉발되는데, 매력을 보고 느꼈던 자극이 사라지면 열정도 사라진다.

■ 결심/ 헌신 Commitment

: 헌신은 '인지적 부분'이다. 어떤 결정이나 행동에 관여한 정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상대에 대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이다. 사랑에서 헌신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는 결심과 그 사람을 지속시키겠다는 책임감의 두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전자는 단기적, 후자는 장기적인 것으로 이 두 측면이 항상 함께하는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사랑하겠다는 결심이 그 사랑을 계속 지키겠다는 헌신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헌신의 대표적인 행위는 약혼과 결혼이며, 그 밖에 사랑의 약속이나 맹세를 하는 것, 사랑의 징표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인을 소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¹

② 사랑의 8가지 유형

스텐버그는 사랑의 세 요소를 유형화시켰다. 따라서 사랑의 유형 8가지는 '사랑의 3가지 요소'를 조합하거나, 또는 그 자체에서 파생된 것이다.

1 네이버 포스트 참조

조합	유형	내용
친밀감	호감	사랑에서 열정과 결심/헌신 요소가 모자란 채 친밀감 요소만이 경험될 때 나타난다. 이는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우정과 같은 것으로, 뜨거운 열정과 상대에 대한 헌신적 행동은 없지만, 가깝고 따뜻하게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좋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좋아한다.'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의미가 아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람, 지나치는 사람을 향해 느끼는 단순히 좋은 감정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종류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강한 열정이나 장기적 헌신 없이도 상대를 향해 친밀감,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 따뜻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열정	도취적 사랑	열정만 있는 경우는 '홀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첫눈에 빠진 사랑이다. 이 유형의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상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연한 계기로 첫눈에 반해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느낄 뿐이다. 도취적 사랑의 이런 홀린 듯한 특성은 사랑받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의 사랑이 자신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욕구가 투사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때문이다.
헌신	공허한 사랑	열정이나 친밀감은 없고 헌신만 있는 경우에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랑', 공허한 사랑이라 말한다. 열정은 있어도 식은 상태이거나 서로에 대해 의무감만 존재하는 사랑이다. 오래 사귄 연인 사이에서 종종 나타나는 관계로, 최종 단계에서는 서로에게 부담을 느끼면서 관계만 유지하는 경우다.
친밀감 + 열정	낭만적 사랑	서로 친밀하여 열정은 느끼지만, 의지가 없는, 즉 결혼과 같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확신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경우에는 낭만적 사랑이라 할 수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인공처럼 처음 보자마자 강한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일시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특징이 있다. 친밀감과 열정이 강해 열렬한 사랑을 하지만, 커미트먼트(헌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기도 하기에 관계가 계속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친밀감 + 헌신	우애적 사랑	우애는 친밀감과 커미트먼트가 높은 상태이다. 열정과 욕구같이 격하게 몰아치는 감정들은 비교적 열어진 상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친밀감과 긴 시간 만큼 쌓인 헌신과 이해심은 훨씬 더 견고하고 깊어진 사랑이다. 사이가 좋은 중년 부부나 친구 사이에 생기는 감정을 말한다.
열정 + 헌신	얼빠진 사랑	첫눈에 반해 설بری 헌신을 약속하는 '얼빠진 사랑'이다. 충분한 시간동안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단번에 생략해버린다. 몰아치는 감정만으로 빠르게 결혼을 하는 모습을 두고 '할리우드식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친밀감이 채 싹트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지속이 힘들고, 대개 성적인 욕구 충족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요소의 부재	가식적 사랑	사랑을 구성하는 3가지의 요소(열정, 친밀, 헌신) 모두가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3가지 요소가 모두 결핍된 사랑은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가식적인 사랑이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표면적이고 사무적인 인간관계에 해당한다.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	3가지의 요소가 모두 균형 있게 존재할 때 이를 성숙한 사랑 혹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며, 세 요소 중 열정은 관계 형성 초기에도 생길 수 있으나 친밀감이나 헌신 요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한다. 즉, 사랑도 뿌리 내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랑 삼각형의 기하학은 사랑의 강도와 사랑의 균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사랑의 강도가 클수록 사랑 삼각형의 면적은 커지며,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일 때는, 사랑의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잡힌 '완전한 사랑'이 된다. 하지만 하나의 요소만 강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이등변 삼각형과 같은 한쪽으로 치우친 모양으로 불균형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부족한 요소를 알고 잘 맞춰 정삼각형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③ 사랑의 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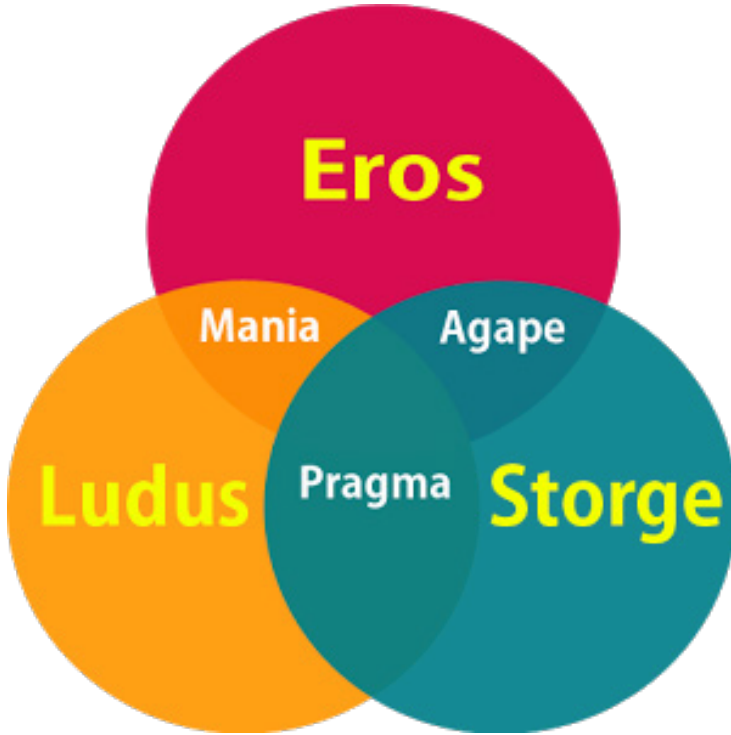
스턴버그는 사랑의 형태에 대해, 그리고 사랑을 하는 관계에 대한 이론을 펼친 것으로 간주한다. 연애 심리학에서 빠질 수 없는 이론 중 하나가 있다. 캐나다 심리학자인 리 J. A. Lee의 '사랑의 색채 이론'이 그것이다. 그만큼 '사랑의 색채 이론'은 심리학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론을 내놓았다.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연구라고 볼 수 있겠다.

'리'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6가지의 사랑 양식에 대한 유형론을 개발했다. 세 개의 원색에서 여러 개의 색채 조합이 이루어지듯이 사랑 또한 세 개의 원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합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 1차색: 에로스, 스토르게, 루두스
- 2차색: 아가페, 마니아, 프라그마

이를 바탕으로 총 6가지의 사랑 유형이 나왔다. 6가지로 분류된 사랑의 유형은 그 사람의 생활양식으로도 유용하다고

한다. 따라서 1차색에 기본적인 사랑의 유형은 사랑 자체의 분류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유형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기도 한다.



< 1차색 >

▶ 에로스Eros (열정적 사랑) :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연애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연애의 신'이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에로스이다. 에로스 타입은 외모나 신체적 매력에 이끌리며, 육체적인 자극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원한다. 자신의 이상형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상대를 만나면 첫눈에 반한다. 로맨틱한 말과 행동을 잘 표현하며, 사랑을 지나치게 갈망하지는 않으나 언제나 사랑할 준비가 되어있다. 같은 뜻으로 상대가 자신에게 몰두하기를 원하지만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경쟁자의 존재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

▶ 스토르게Storge (친구 같은 사랑) : '자연적인 애정'을 뜻하는 희랍어로, 부모의 자식 사랑, 형제애와 같은 가족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가 발전해 정열적인 사랑보다는 평온하기만 한, 일종의 우정인 '우애'를 의미하고 있다. 스토르게 타입의 사랑은 친구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대개 자신들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때가 많다. 또한, 열정보다는 친구로서 알게 되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서로에게 우정이나 동료의식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랑의 근처에는 우정의 힘이 있으며 태도와 가치 면에서 유사한 동반자적 관계이다. 안전하고 신뢰적인 관계라고 본다. 때문에 질투나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서서히 발전해가는 정에 근거한 지속적이고 진화적인 사랑이다.

▶ 루두스Ludus (유희적 사랑) : 라틴어로 놀이나 유희를 의미한다. 이름과 같이 유희적인 사랑을 가리킨다. 사랑을 일종의 게임으로 여기는 타입. 따라서 사랑에 빠지거나 헌신할 의사가 없다. 한 상대에서 다른 상대로 떠나는데 손쉬우며, 상대에게도 허용적이다. 루두스 타입은 여러 상대를 동시에 사랑하기도 한다. 그만큼 특정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신 또한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한다. 이러한 타입은 그저 다양한 사랑을 즐기는 것일 뿐이며 감상적인 깊이도 없다. 다소 놀이적인 애정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예다.

< 2차색 >

▶ 마니아mania (소유적인 사랑) : 희랍어로 '미친'을 뜻하는 마니아 유형은 뜻과 같이 광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의존성과 질투가 특징이며 독점욕이 강하다. 때문에 사랑받는다든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욕구가 있다. 감정이 지나치게 격렬하기 때문에 극적인 미련과 질투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사랑에 대한 필요를 느끼면서도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생각에 사랑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애인 관계는 먼저 끝을 용기가 없어 대부분 상대방에서 결별을 선언하며, 그 후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방향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무엇보다 마니아 유형은 불안감을 느끼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잠을 못 이루는 식으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 아가페Agape (헌신적 사랑) : 절대적인 사랑. 하느님의 인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로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가리킨다. 상대의 이익을 생각해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타적인 사랑. 이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베푸는 사랑이다. 사랑의 관계는 성취보다는 이상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성

숙하다. 이들은, 사랑은 책임이고, 의지에 의해서 지배되며 감정도 매력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특성이나 외모가 어떠한 간에 그리고, 장점이나 단점이 무엇이든 간에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경쟁자가 나타나면 기꺼이 그 관계를 단념할 수도 있다. 이런 유의 사랑이란 현실에서 극히 드문 유형이며 애정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이런 과정이 나타날 수는 있다.

▶ 프라그마Pragma (실용적 사랑) : 프라그마는 '직업'이라는 의미를 가진 희랍어에서 유래되었다. 이 유형은 냉철하며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이다. 자신이 원하는 자질을 상대가 가졌는지 계산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적절한 상대를 선택한다. 어울리는 상대를 구하는데 노력을 다하는 것이 사랑에 있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늘 접촉하는 사람들 주에서 상대를 찾으려고 항상 면밀히 평가하고 따져본다. 상대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헌신이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꺼려한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관계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즉 상대에게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즉 가슴보다는 머리가 앞서는 사랑이다. 논리적이고 현명한 연애를 하는 타입이다.

사랑의 유형은 나름의 성장환경과 성격, 가치관 등의 차이 때문에 고유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대부분이 혼합된 사랑을 하며, 어떤 시기에 어떤 대상과 사랑 하느냐에 따라, 또는 사랑 관계 양상에 따라 개인의 유형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특정 한 유형이 더 가치 있고 성숙하다 단정 지을 수 없다.¹

(3) 타이타닉

<타이타닉> 속에는 어떤 사랑의 유형들이 있을까. 그 유형의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사랑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까. <타이타닉>에서 연인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잭', '로즈', '칼'을 대상으로 각자의 사랑 유형과 그 유형들이 만나 어떤 사랑을 이루었는지 해석해보자.

① 타이타닉 속 사랑의 유형

▶ 잭 도슨 : 에로스Eros, 아가페Agape



에로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함을 잃지 않는, 보는 사람까지 자유로워지는 듯한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잭이다. 자신의 소신이 분명하여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다. 이러한 잭의 성격은 외모적인 매력에 강하게 이끌리는 에로스 유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상형이 확실하여 첫눈에 반하는 경우가 많은 에로스 유형은 잭이 로즈를 처음 본 날의 상황과 같다. 1등실 갑판에 바람을 쐬고 있는 로즈에게 첫눈에 반한 잭은 이후 우연인지 운명인지 로즈와 인연을 맺어간다. 즉 잭은 로즈의 외관적인 모습으로부터 사랑에 빠지며, 그 사랑을 위해 열정적이다.

그러나 3등실의 잭이 1등실의 로즈를 사랑한다는 것은 둘의 사랑은 '둘의 사랑 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뜻한다. 잭은 여러 불편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로즈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토록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잭의 성향과 에로스 타입을 비교해보면, 로맨틱한 말과 행동을 잘 하는 에로스타입은 로즈를 향한 잭의 적극적인 사랑 표현 방식과 닮아있다. 로즈에게 약혼자가 있음에도 끊임없이 다가가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주는 모습 또한 사랑을 위한 희생정신, 경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에로스의 특징과 매우 흡사하다.

아가페: 잭은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는 순간에도 로즈를 감싸고 있고, 침몰 후에도 배의 자재 위로 로즈만 올려줄 뿐 자신은 차가운 바다 속에서 로즈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다. '온 몸이 칼에 수천 번은 찔리는 듯한 고통'을 견디며 잭은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두게 된다.

에로스는 초반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로스 유형인 잭의 사랑이 가장 최고점을 도달할 때 배가 침몰한 것이 아닌가, 때문에 로즈를 위한 희생을 할 수 있던 것이라 추측해본다.

결론적으로 초반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잭은 로즈를 위해 희생하여 죽음을 맞이한다. 이는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아가페 유형에 해당된다.

1 <심리학, 연애를 말하다> 이철우, 로버트 스텐버그 '사랑의 삼각형 이론', 존 앨런 리_ '사랑의 색채 이론' 각종 자료 참조

▶ 로즈 드윗 부카터 : 스트르게 Storge



어려서부터 높은 신분으로 자라며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제한 받고 자랐을 로즈다. 위 대사와 같이 자신을 신경써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삶 속에서 로즈는 따뜻한 사람을 찾고 있다.

처음 만난 잭보다는 오래 알고 지냈을 칼에게 더욱 마음을 열법하나, 오히려 칼을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칼에게는 열리지 않은 마음이 어째서 잭에게 흰히 열렸을까?

일방적이기만 한 칼의 사랑 방식은 로즈의 마음을 굳게 닫히게 만들었다. 반면 로즈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잭은 로즈가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주었다. 로즈는 잭과의 대화를 통해 감춰있던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찾는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로즈는 친구같이 편안한 관계의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로즈가 잭에게 완전히 마음을 주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스트르게의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 즉 서로가 안정적이고 신뢰 깊은 사이의 특징이 보인다. 따라서 로즈의 사랑 유형을 스트르게 타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칼 허클리 : 마니아 Mania



성향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인물이다. 그만큼 언제나 자신의 행동이 확실하다 믿고, 그것을 타인에게 아주 많이 드러내며 강요하기도 한다. 칼은 로즈에게 사랑을 강요한다. 계속해서 하인을 시켜 로즈를 미행해 확인하고, 선물을 주면서도 자신을 '좋아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칼의 사랑유형뿐만이 아니라 '칼 허클리' 자체의 권력을 남용하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나타는 그 사람의 특성이다. 영화 내내 로즈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감정과 똑같은 애정과 헌신을 요구하는 칼의 모습은 '광적인 사랑'을 하는 마니아의 특성을 아주 제대로 보여준다.

② 타이타닉 속 사랑은?

타입 1

인물	유형	내용
잭 도슨 & 로즈 드윅 부카더	<낭만적인 사랑> 열정 + 친밀감	이 둘의 사랑을 단편적으로 보면 '완전한 사랑'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사랑은 열정으로 시작해 친밀감을 쌓으며 서로에게 헌신하며 희생까지 다다른다.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다. 로즈는 구명정에서 뛰쳐나와 지하에 갇힌 잭을 구하러 목까지 차오른 물을 헤엄친다. 잭은 배가 완전히 침몰된 후 로즈를 물속에서 꺼내준다.(배의 자재 위 로즈를 올려주었다) 반면 자신은 차가운 물속에 머무르다 저체온증으로 결국 숨을 거둔다. 그러나 둘의 사랑은 '타이타닉 호의 침몰' 사건으로 '헌신'이라는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그저 일시적인 사랑이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만약 배가 침몰하지 않고 온전히 미국에 잘 도착했다면 둘의 사랑은 처음과 같은 열정적인 사랑을 이어갔을까의 의문이 든다.

타입 2

인물	유형	내용
칼 허클리 & 로즈 드윅 부카더	<비아(非愛)> 모든 요소의 부재	편안하고 따뜻한 사랑을 하며 관계를 서서히 발전해가는 스토르게storge 유형의 로즈는, 예민하고 독점욕이 강한 마니아Mania 유형의 칼과 약혼했다. 이들의 사랑은 '칼'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모든 요소의 부재', 즉 비애 이다. 둘의 사랑은 가식적이며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관계이다. 과연 둘 중의 어떤 사람이 바뀌면 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약 칼의 사랑 유형이 루두스Ludus와 같이 사랑을 그저 재미로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잭과 로즈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애초에 로즈를 사랑하는 상대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 칼이다. 하나하나 모든 틀이 정해져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까지 모두 다른 이가 정하는 삶을 살아가며 로즈는 자신을 소유한 칼이 아닌, 자신과의 사랑을 '나누고' 이해해주는 자유로운 잭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다.

(4) 결론 :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가. 사랑을 하고 싶기는 한가. 사랑에는 왜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건가. 연인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 같다. 때문에 잭과 로즈의 사랑을 보며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았다. 일주일도 만나지 않은 사람과의 사랑을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가. 하고 싶은 사랑이야 당연히 '완전한 사랑' 이지 않을까 싶다. 최고로 좋은 게 있는 데 굳이 부족한 것을 선택할, 생각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완전한 사랑'을 하기까지의, 그 사랑이 되기까지의 서로의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사랑'을 위해 서로 바뀌어가는 사랑을... 기대한다...

3) 해석 [죽음에 대하여]

(1) 타이타닉

1912년 4월 15일 침몰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다. 큰 빙산은 쉽게 눈에 띄어 피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스미스 선장의 판단은 빗나가버렸고, 타이타닉호는 배 밑에서부터 들어오는 바닷물로 인해 배의 기계실에 바닷물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총돌이 생긴 뒤 2시간의 시간을 남겨 놓은 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 신비아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다. 죽음을 맞이하는 타이타닉의 사람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죽음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죽음은 모두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갑판에서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게 부드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이었다. 그리고 구명보트에 올라타기 위해 아우성치는 승객, 여자와 아이를 먼저 탈출시키려는 선원들의 철저한 싸움, 객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죽음을 맞는 노부부, 브랜드를 마시며 의자에 앉아, 불어나는 물살을 보며 죽음을 맞이하는 부자의 모습 등은 살아가다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마주해야할까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타이타닉을 처음 보았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기라고만 생각했지만 타이타닉을 여러 번 보니 단순히 사랑을 다룬 영화가 아닌, 로즈의 성장기와 죽음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타이타닉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이 등장한다.

(2) 죽음의 형태

① 퀴블러로스 사망단계

스위스에서 태어난 미국의 정신과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불치병환자를 관찰·연구하였다. 죽음을 앞둔 환자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5가지의 단계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퀴블러로스 사망단계라고 부른다. 물론 이 과정은 순서대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사람에 따라서는 거치지 않기도 한다. 때론 각각의 단계가 서로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죽음을 받아들이는 1단계 - 부인

자기 자신의 죽음에 이른다는 현실에 대해 부정을 하게 된다. 치료가 끝나고 건강해져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건다.

▷ 죽음을 받아들이는 2단계 - 분노

환자는 죽음에 맞닥트리면 왜 자신에게 이런 죽음이 빨리 왔는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된다. 스스로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

▷ 죽음을 받아들이는 3단계 - 협상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지되는 것들에게 타협점을 찾으려 한다. 의사에게 언제까지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등, 스스로 믿는 신에게 언제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한다. 그렇게 남은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만큼이라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그에 대해 흥정을 하기도 한다.

▷ 죽음을 받아들이는 4단계 - 우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력을 잃게 된다. 모든 것에 대한 의지를 잃고, 미래를 기대하지도 않으며, 병마와 싸울 의지도 포기하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상태가 된다.

▷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 수용

세상을 곧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 받아들인 뒤, 스스로가 정리해야 할 것을 정리하고, 버킷 리스트와 같은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정하고 이뤄가거나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한다.

② 노부부의 용기

짧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장면이 있다.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노부부의 모습인데,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누운 채 물이 차오르는 방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대사 하나 없지만, 노부부의 오래된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차가운 바닷속에 남아 따뜻하게 서로를 보듬어 주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배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

어떤 이는 '물은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사랑은 채울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아내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런 아내를 위해 남편은 볼에 입맞춤하며 안정시킨다. 노부부는 담담하고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구명조끼조차 입고 있지 않았던 그들은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적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를 했다거나, 남편을 타이타닉호에 두고 혼자 구명선에 탈 수 없었던 아내의 선택일 수도 있다.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선 둘 사이에 믿음이 필요하다. 먼저 침대에 누워 선실에 남자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는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서로를 의지 하고 있는 노부부의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을 용기가 존재했을 것을 알 수 있다.

③ 비극적인 사랑

생면부지였던 로즈와 잭은 우연히 타이타닉호에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로즈는 끝없이 이어지는 무도회의 연속과 늘 똑같은 사람들, 의미 없는 수다뿐인 생활이 절벽에서 있는 듯하였다. 자신을 이끌어 줄 사람도, 관심을 주는 사람도 없음을 절망하며 뱃머리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려 한다. 난간에 올라서는 로즈를 발견한 잭은 로즈를 말린다.

급속도로 사랑에 빠지는 그들이었지만 가문을 위해 칼과 결혼을 해야 했던 로즈는 잭을 밀어낸다. 칼을 사랑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며 말이다. 뱃머리에 있는 잭을 찾아가면 로즈는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단단한 관계가 된다. 그날 밤 잭은 '대서양의 심장'을 목에 건 로즈의 나체화를 그렸다. 로즈는 배에서 내린 뒤 잭과 함께 도망칠 거라 말한다. 그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미래를 약속한다.

파티장으로 끌려 다니며 행복하지 않은 인생에 대한 회의감만 가득했던 로즈는, 잭을 만나며 점차 자신의 내면에 있던 용감한 본성을 일깨운다. 로즈는 구명선에 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탑승을 거부한다. 심지어 한번은 내려가고 있는 구명선에서 뛰어내려 타이타닉호의 매달린다. 잭이 도둑으로 몰려 선원실에 수갑을 한 채 갈렸을 때 로즈는 그 누구보다

1 로즈의 약혼자 칼이 로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한 다이아몬드

용기 있게 재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물이 차올라 헤엄쳐 재에게로 가야 했지만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뛰어든다. 재의 수갑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위층으로 올라가 도움을 구해보지만, 아비규환인 승객실에서 도움을 줄 사람은 없었다.

로즈는 도끼를 구해 재에게 달려간다. 수갑을 끊고 위로 올라가던 그들은 3등실 사람들의 혼란을 이유로 달아놓은 철장 속에 꼼짝없이 갇혀버린다. 물은 익사할 정도로 차올랐고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고 탈출에 성공한다. 갑판 위에 도착했을 때는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배 역시 심하게 기울고 있었다. 로즈와 재는 바닷물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배의 뱃머리를 향해 달렸다.

결국 배는 바다로 가라앉았다. 배의 잔해에 올라간 로즈는 재의 손을 꼭 잡았다. 재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당시 바닷물의 온도는 1도에서 2도 정도였는데 이는 건장한 성인이 30분을 겨우 버틸 수 있는 온도였다. 이미 몸이 물에 젖어버린 재는 더 빠른 속도로 죽음에 다가갔다.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게임에서 판 티켓으로 로즈를 만난 것이라고 말하며, 로즈에게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약속해달라고 한다.

"Don't you do that. Don't you say good bye. Not yet. Do you understand me? Listen Rose, your gonna get out of here. You're gonna make lots of babies, and you're gonna watch them grow. You're gonna die an old lady, warm in her bed. Not here, not this night, not like this. Do you understand me?"

"그러지 말아요. 작별 인사는 하지 말아요. 아직 아니에요. 알겠어요? 잘 들어요. 로즈 당신은 살 거야. 여기서 살아남아 아이도 많이 낳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도 보고 나이가 들면 따뜻한 침대 위에서 편하게 죽을 거예요. 여긴 아니에요, 오늘 밤, 이렇게는 안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재는 남은 사진 한 장 없이 영원히 로즈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다. 재의 마지막 말은 로즈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며 동시에 로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 만약 재가 로즈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로즈는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이다. 차가운 물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재의 손을 붙잡고 슬퍼하며 함께 죽음을 선택하였을 지도 모른다. 로즈가 구조선 탑승에 거부하고 재에게 달려간 것은 재를 사랑했고 또 '함께'가 아니라면 구조선을 타고 생존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즈는 재가 죽은 것을 확인한 뒤 얼어붙은 그의 손을 떼서 깊은 바닷속으로 떠나보낸다. 만약 재가 로즈에게 이 곳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고, 살아남으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되뇌며 죽었더라면, 로즈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재의 얼어붙은 손도 놓을지 망설였을 것이다.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라는 재의 마지막 말을 되뇌며 로즈는 살아남는다.

로즈는 그곳에 소중한 사랑을 남겨두고 온다. 재와 로즈의 오랜 시간 동안의 이별은 타이타닉호가 발견되며 끝이 난다. 둘은 다시 재회한다. 로즈의 꿈속인지 아니면 짧지만 아름다운 사랑을 한 재의 곁으로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른다.

재와 로즈에게 죽음은 분명 두려운 존재지만, 사랑 앞에서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하는가 하면 서로가 위급한 상황일 때 몇 번이고 도움을 주었으니까 말이다.

④ 명예로운 죽음

명예로운 죽음이란 무엇일까? 명예의 사전적 정의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람.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이라고 한다. 과거에 전쟁으로 나라, 국민, 가족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사람들의 죽음,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린 사람, 예를 들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소방관이 안타깝게 죽었을 때 우리는 흔히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한다.

영화 <남한산성>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충돌하는 모습이 우리가 사는 모습과 비슷하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다. 영화에는 명길과 상헌의 목숨에 대한 대립구도를 이룬다. 명예를 잃어도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삶인지, 목숨을 잃더라도 명예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 그에 대한 결과도 판이하게 달랐다.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상헌은 결국 자살을 택한다. 자결을 함으로써 겉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 영화 속 상헌은 명예로운 죽음이 삶을 위한 길이라고 말한다. 삶의 길과 죽음의 길, 명길은 삶을 무겁게 여기고 헛된 죽음을 막고자 한다. 상헌은 삶보다 무거운 죽음이 있으니 죽음으로서 삶을 이어가자고 말한다. 삶의 길은 실리요. 죽음의 길은 명예였다.

프랑스 영웅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전역하는 퇴역 군인들에게 훈장을 나누어 주며 그들의 공을 찬양한 적이 있었다. 이때 그는 자신이 노병들을 장난감으로 속이려 한다는 혹평을 듣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사람은 장난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상징하는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나폴레옹이 지적했듯이, 쓸데없는 허영과 명예욕이 인간을 괴롭히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를 추어올려 주고 명예욕을 자극하면 그를 분발하게 만드는 데 효과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는 "부귀와 명예는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가 문제이다. 도덕에 근거를 두고 얻은 부귀와 명예라면 산골에 피는 꽃과 같아 충분한 햇볕과 바람을 받고 필 수 있다. 사치한 생활 속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을 마치 태양을 그려놓고 빛이 비추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느 공장에 매우 촉망 받는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작업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었다. 공장장은 그가 다시 분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봤으나 특별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하던 공장장은 심의부라는 부서를 만들어 그에게 맡겼다. 그랬더니 그 직원의 작업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공명심에 불타게 되었고, 작업 실적도 3배 이상 향상되었다고 한다.

국내 굴지의 인쇄소 사장에게 회사의 기계공 한 명이 작업량이 너무 많다고 투덜대며 자기 밑으로 직원을 한 명 더 뽑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회사 여건상 그 기계공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사장은 사원도 뽑지 않고 작업량도 줄이지 않으면서 충분히 그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사장은 그 기계공 전용으로 작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사무실 문 앞에는 그의 이름과 직위를 써 붙여 주었다. 그는 어엿한 간부가 된 것이다. 그는 일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작업 능력은 배가 되었다.

이러한 명예욕에 관한 인간의 심리에 대해 "광세"의 저자 파스칼은 "인간의 최대의 우열함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간을 우수하게 하는 최고의 표적이다"라고 말했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미련한 행동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우월한 지위 확보를 위한 본능적 욕구로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비록 허울뿐이라도 명예를 부여 받으면 기뻐한다. 인간의 명예욕을 허영의 쓸모없는 그림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명예욕은 인간의 심리를 만족시켜 주는 명약임이 분명하다.

화이트 스타 해운의 선주 제이 브루스 이즈메이의 한 마디로 인해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시작 되었다고 생각한다. 타이타닉 호를 크기와 속도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면, 예상도착시간보다 이를 먼저 뉴욕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장의 마지막 항해가 영광스럽게 하고, 최고의 은퇴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상하다 엔진에 무리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누구나 명예 앞에서는 눈먼다. 사람들은 살아가며 잘못된 행동을 되풀이 할 때가 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인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은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당시 통솔에 힘쓰다가 구명선에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에 남았다. 선장실에서 묵묵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배가 빙산에 부딪힌 사실을 알고 난 그의 표정은 죄책감과 좌절함이 느껴졌다. 그가 선원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다.

"well boys, you've done your duty and done it well, I ask no more of you, I release you, You know the rule of the sea, It's every man for himself now, and God bless you."

"제군들이 수고했다. 자네들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그것도 아주 잘....."

나는 자네들에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가 없구나. 자네들의 임무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바다가 얼마나 험한 곳인지 잘 알 것이다. 이제 자네들의 살길을 찾아라. 신의 가호가 있기를....."

스미스 선장은 명성을 위해 배를 무리하게 빠르게 몰았고 속죄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짚어진다.

2등석에 타고 있던 토마스 바일스 신부는 죽음을 앞둔 신자들과 기도를 하였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듯 했지만 배가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고해성사와 미사를 봐주다가 승객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던 이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승객들의 구조에 힘쓰고 물에 뜰 수 있는 것들을 던지며 바삐 움직였던 선원들은 구조선에 탑승할 것을 거부하고 배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그는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를 가리지 않고 다 같이 기도했다. 존엄하고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 그들의 일화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억되었다.

⑤ 명예로운 8명의 악사

배가 기울어가며 패닉이 된 갑판에서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음악을 연주해주는 악단이 있었다. 악단의 단장은 '웰레스 하틀리'였다. 8명의 악사는 죽음을 눈앞에 둔 승객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기 위해 끝까지 악기를 놓지 않는다. 침몰 소식을 들은 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곧 다가올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처럼 힘차게 연주를 계속 이어 나갔다. 이들은 갑판에 물이 차오르자 '행운을 비네.'라고 하며 흠뻑 젖는다. 하지만 웰리스 하틀리는 그 자리에 남아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고 악단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그에게 돌아와 같이 연주를 한다.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바로 이 8명의 악사가 아닐까 싶다.

⑥ 윌리엄 맥마스터 머독(William McMaster Murdoch)

머독은 1등 항해사로, 빙산 출동 당시 배의 지휘를 맡고 있었으며 우현 전타 명령을 내렸다. 구명선을 내릴 때는 철저하게 여자와 아이들만 태운 라이틀러와 다르게 여자와 아이들이 더는 보이지 않으면 성인남성들도 탈 수 있게 해주는 등 관대한 조치를 했다. 영화 속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한 스미스 선장, 윌리엄 하틀리, 스트라우스 부부 등 승객들과 비열한 행동을 한 칼 등과 달리, 대재앙에 직면해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는 여러 인간적인 면을 입체적으로 보이는 인물로 묘사된다.

칼은 여성과 아이들을 우선하여 태우고 있는 구명보트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머독에게 지폐 다발을 주며 매수했으나, 머독 자신도 승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패닉에 빠진다. 구명선을 타려고 다가오는 남자 승객들을 총으로 위협한다. 당황한 칼이 "우리는 거래를 했잖소!"라고 따지자, 그에게 받은 지폐다발을 얼굴에 내던지며 "당신의 돈으로는 당신도, 나도 살릴 수 없소. 그러니 뒤로 물러나시오!"라고 소리친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그는 공황과 죄책감에 자신의 머리를 향해 총구를 겨눈다. 머독은 비록 살인을 했지만, 영화에서 악역으로 그려지는 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린 것, 오히려 상당히 우호적인 시선으로 묘사된다. 화이트 스타 해운의 전무이사이자 선주인 이즈메이가 몰래 구명보트에 탔을 때, 이를 알아차렸지만 구명보트를 바다로 내린다. 이것은 그가 단지 회사의 이사이기에 살려줬다고 보긴 힘들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죽게 만들 순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장면만 봐도 그가 타인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으며, 후에 그가 자살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장면. 즉 개인적 고뇌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시선 등 굉장히 입체적이고도 깊이 있는 캐릭터이다. 마지막 로즈의 꿈 장면에도 등장한다. 타이타닉이 더욱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고귀한 책임감과 속죄의식으로 죽음과 마주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조연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이지 아닐까.

⑦ 희생에 대하여 타이타닉

타이타닉호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던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다. 이등 항해사 찰스 라일로터는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을 공개했다.

생존자모임에서 스미스 부인이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제 두 아이가 구명선에 오르자, 만석이 되어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일어나 저를 구명선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올라주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스미스 부인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사람들을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 기념비를 세웠다.

희생자중에는 억만장자 아스테드, 저명 신문가 험스테드, 육군 소령 바트, 저명 엔지니어 로우부어 등 사회의 저명인사가 많았지만, 이들은 모두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타이타닉호의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찰스 라이틀러를 제외한 전부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생을 마감했다. 새벽 2시, 각자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연산사 존 필립스는 여전히 전선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입력하였다.

1912년 타이타닉호를 기리는 자리에서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 해운은 희생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Unsinkable(가라앉지 않는)'의 저자 다니엘 알란 버틀러는 약자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 승객과 선원들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잃지 않고 지켰던 책임감과 희생정신은 두려움을 이겨낸 숭고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 결론 : 죽음에 대하여

중학교 때 꾸었던 꿈 중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이 있다. 내가 죽으면 두 명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게임에 반강제로 참여를 하게 되었고 사람의 수는 두 명에서 한 명씩 점점 늘어갔다. 게임의 이름은 '사망예정자' 라고 누군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사망예정자는 내 친구와 가족들, 모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가 죽을지 다른 사람이 죽을지 선택하기 전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뒤 선택을 하는 것이었는데 죽어야 하는 사람의 수가 작거나 죄가 많은 사람이면 그 사람들을 죽였고 가족이나 친구가 포함되었을 때는 내가 죽었다. 게임은 무한반복이었고 나는 죽고 살아나고를 반복해야 했다. 꿈에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낀 나는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기숙사 복도를 몇 번 왔다 갔다 한 뒤에 잠에 들었다. 그 이후로도 나는 죽음에 관련한 꿈들을 자주 꾸고는 했다. 대부분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나 사고를 당해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들을 말이다.

인문학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본 타이타닉은 나에게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저 두렵고 부정적인 존재였던 '죽음'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죽음에 대한 글을 읽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죽음을 맞이하는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품위 있고, 온화하고, 단호하며, 이상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여진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죽음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죽음이 축복인지 최악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치 죽음을 가장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는 죄, 청소년을 타락시킨 죄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는다. "죽음이 두려워지 않느냐?"라는 배심원의 질문에 "내가 그들보다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있다"라고 꼬집는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죽음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신의 명령대로 철학행위를 계속 할 것이며 죽음을 당한다 해도 다른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에 임했을 때의 당당한 태도를 볼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이 더욱 명백해 보인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우리에게 과연 가치 있는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과제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과연 우리들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체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타이타닉 속 노부부가 자신들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나는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해진다.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과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무의식 중 자리 잡게 된다. 매체에 보도되는 죽음에 관한 소식들이 그 이유일수도 있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죽음이 두려움과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면 과연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가능했을까? 지배와 복종, 전쟁과 정복은 가능했을까? 인간이 쌓아온 문명이라는 것은 전부 죽음과 승부한 결과물이 아닐까?

철학가들과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죽음은 과연 부정적이고 나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며 나만의 철학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고민했다.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자신의 앞에 펼쳐질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채울 수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었다. 죽음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철학자들의 죽음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과 이론들을 깨우칠 수 있게 되고 가치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내 생각들을 정리하며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게 된다면 어떤 것을 할 것 인지, 스스로가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다.

4. 결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던 영화 속에서 많은 뜻과 의미를 찾아 해석했다. 분명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 이상한 떨림을 주기도 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질문에 질문을 던지며 답을 만들기도 계속해서 답을 찾기도 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접하고, 자료 또한 접했다. 우리가 이번 인문학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배움은 이것이 아닐까 싶다. 그저 보기만 했던 것에서 물음을 찾아 질문을 던지고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고, 그 답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지 고민했다. 우리는 인문학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이다.

영화해석은 정해진 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다소 난해하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해석의 여지는 자유롭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영화해석의 길을 트는 것이 우리 조의 목표이다. 대중문화인만큼 익숙한 유희거리로 다가오는 '영화'가, 이 글을 읽음으로써 낯설어졌으면 한다. 보이는 것과 감독이 숨겨놓은 진짜 의도는 다를 수 있음을 의심하고, 의문을 고민으로 이어갔으면 한다. 영화에서 얻은 고민을 자신의 삶과 비교해보고, 인물의 성장과 자신의 모습을 대비해본다면 그것이 영화인문학이라 할 수 있겠다.

1. 동기 및 목적
2. 양심적거부자들 뜻과 종류
3. 한국의 양심적거부자들의 역사
4. 다른나라의 실태
5. 우리나라 양심적거부자들의 현 실태
6. 마무리

동기 및 목적

나는 이제 졸업을 해야 한다. 1년만 지나면 나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 직업도 찾아야 했다. 좋아하는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즐겨 했던 것들은 컴퓨터 게임, 축구..... 컴퓨터 게임은 친구사이에서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축구도 그러 했다. 그래서 인턴십을 하면서 나의 미래의 직업에 고민을 많이 했다. 내가 인턴십을 갔던 곳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시간이 많아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 인턴십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자유시간에는 컴퓨터를 많이 다루게 되었고 컴퓨터로 주로 군대관련 영상과 글들을 보거나, 모으고 있는 도중 내가 굉장히 즐겨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군인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 어떻게 하면 군인 중 군인이 될 수 있는지 사이트를 찾게 되었다. 특수부대는 일반사병과는 다르게 훈련도 빠세고 똑똑해야하며 정신력이 버텨주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군부대였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련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고 노력을 하려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 너무 뿌듯했다. 인턴십 근무 할 때는 푸쉬업을, 방학 때는 복싱과 수영 그리고 맨몸 운동으로 꾸준히 나를 가꿔왔다. 그리고 개학 후 학교에 오게 되었다. 6학년 2학기가 되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 배우고 강의까지 직접해보는 인문학이 남아있다. 그래서 진로를 엮어서 하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군대라는 주제를 정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주제를 잡고 싶었다. 그러다가 담임선생님의 제안으로 요즘에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다뤄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하였고 나는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 너무 멋져보여서 더 특수한 곳에 지원까지 하려고 하는데 "왜 거부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책을 읽다보니 생각보다 나에게 흥미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인문학 주제로 잡게 되었다.

양심적거부자들 뜻과 종류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행위. 영문 용어인 'conscientious objection'의 번역어이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에 입대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병역의 의무 전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른다.

양심 (어질 양 : 좋다 훌륭하다 어질다) (마음 심 : 마음의 뜻 의지 생각)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종교적 신앙 : 사람을 사랑하고 살인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총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신념 :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살상하는 무기를 드는 것에 대해서 생명존중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력 거부의 종류

보편적 거부: 모든 형태의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것.

선택적 거부: 특정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것. 예를들어, A전쟁, B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 C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선택적 거부라고 볼 수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해당 전쟁이 국제법상 불법임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한 군인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집총 거부: 군복무 자체는 받아들이지만 총기를 다루는 것을 거부하는 것.

회색 거부: 해외 국적 취득, 비전투병과 지원 등의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군복무를 혹은 집총을 피하는 것. 이것이 "확장된 의미의 병역거부"다. 20세기 초반에도 병역 거부는 군 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단순한 개념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적 거부와 회색거부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완전 거부: 군복무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것.

한국의 양심적거부자들의 역사

1939~1945

한국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처벌 받은 여호와의 증인 : 기독교 계열의 신흥종교이다.

¹여호와의 증인

1939년 세계2차대전 시절 일본은 승리를 위해 조선의 사람들을 징병하게 된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기독교계열에 신흥종교(한국의 신흥종교는 1860년 최제우의 동학을 시작으로 수많은 종교들이 창립되었다.)의 신도들이 신앙양심을 위반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게 되고, 일제는 병역을 거부했던 신도 38명을 잡아들여 투옥생활을 하게 하였다. 그중 33명은 1945년 8월 일제에게 해방이후 옥문을 나설 수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은 열악한 수감 환경과 학대로 옥사하게 된다. 신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양심을 지켰을 뿐이라고 했지만 정부에서는 대한독립을 위한 운동이라며 '등대사 사건'으로 기록을 했다.

1 여호와의 증인 : 기독교 계열의 신흥종교이다.

한국 전쟁 기간

1950년 ~ 1960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이 된다. 전쟁 와중 징총거부로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하려는 개신교 중² 안식교(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개신교의 교파 중 재림파에 속하는 교단이다.

안식교인 일부 신자들이 병역을 거부하게 된다. 이들은 군대 내에서 비전투업무를 맡아서 일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안식교 신자들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지휘관들은 비전투업무를 맡김으로써 이들의 신념을 존중했다고 한다.

양심에 따른 징총거부가 법적으로 처벌받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다.

안식교인들은 일단 군에 입대한 뒤 징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았다. 1956년에는 예비역 훈련에 소집된 안식교인들이 징총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70여일 만에 석방됐다. 정부에서도 안식교인들을 처벌 일변도로만 대한 것은 아니다. 1957년 4월3일 국방부 장관 김용우는 장관 특명 '국방총제2288호'를 통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안식교인 병사들을 위생병 또는 기타 직접 무기를 휴대치 않는 병과에 가급적 배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 1959년부터는 현역 입대자가 징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기 시작했다. 논산훈련소에서 징총을 거부한 신학생 출신 안식교인 청년 2명이 6개월형을 선고받은 것을 시발점으로 1년에 10여명씩의 안식교 청년들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형량은 길어야 1년 이내였다.

한편 감리교신학대학(한국 최초의 개신교 신학대학)장을 오래 지낸 홍현설 목사는 일찍이 1959년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양심 때문에 징총거부를 한 것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양심적 비전투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아직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61년 ~ 2000년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 이후 군인들이 정치를 하여 대한민국 전쟁이 군대가 되어버린 암울한 시기가 시작되었다. 병역거부자를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반하는 악법으로써 탄압하기 시작하자, 안식교 지도부는 신도들에게 1970년대부터 병역거부 신념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 시작하였으며 교회 차원에서 병역거부를 포기한 1975년 이후로는 안식교인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을 거부하였다.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 장소를 급습하거나 병역거부로 출소하는 이들을 교도소 문 앞에서 연행하여 반복 처벌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탄압하였다. 강제 입영되어 구타와 고문으로 사망한 인권유린사태들이 발생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염두에 두고 균형법상의 최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거부 신념을 지키게 된다.

1963년에 처음 입대해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6년에 걸쳐 네 번 징역을 살고 나온 안식교회 성직자 채의국 목사는 몸이 엄청나게 쇠약해진 상태였으나 다시 논산훈련소로 보내졌다. 그는 마침 훈련소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는데, 그를 붙잡고 여긴 훈련소에서는 훈련소 5수생이 된 그를 한 달간 입원시켜주었으며 징총을 강요받지 않고 이등병을 달았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벌어질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는 자대에 배치됐는데, 연대장이 기록을 보고 깜짝 놀라며 "너같이 믿음의 굳은 늬은 처음 봤다. 내 부하가 2천명인데 너 하나 못 봐주겠느냐"라며 절대로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해 무사히 병역을 마쳤다.

이런 와중에서 안식교회 지도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 선교사들을 대신해 한국인 목사들이 교단의 지도부에 올라서고, 또 이들의 자제들이 군대에 갈 연령이 되자 안식교회의 상층부는 동요했다.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된 이후, 한국 사회의 군국주의 경향은 눈에 띄게 나타났다. 1968년 1월21일 이복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시발점으로 푸에블로호 나포사건,³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토예비군 설치, 울진·삼척지구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주한미군 감축, 국가비상사태 선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군사훈련 실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으로써 독재하는 유신헌법의 확립으로 치달려간 역사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설자리는 더욱 좁아진 것이다. 1970년대에 안식교회 간부들과 삼육대 교수들은 훈련소에서 징총을 거부한 청년들을 찾아가 징총거부의 신념을 철회하도록 설득했다.

1975년을 마지막으로 안식교회의 징총거부 전통은 오랜 기간 단절됐다가, 2002년 봄 한 안식교 신자 청년이 징총거부를 선언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을 거부하였으며,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 장소를 급습하거나 병역거부로 출소하는 이들을 교도소 문 앞에서 연행하여 반복 처벌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박정희 정권은 병역기피 일소를 다잡하면서 모든 기피자들을 색출해 일단 군대로 끌고 갔다. 1974년부터는 병무청 직원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를 포위해 젊은 사람들은 다 군대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자 여호와의 증인들도 병역법 위반이 아닌 항명죄로 처벌받게 되었

² 안식교(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개신교의 교파 중 재림파에 속하는 교단이다.

³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안식고도들이 집총거부를 포기하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시쳇말로 '독박'을 쓰고 시범 케이스로 얻어맞게 되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공산괴뢰를 쳐부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총을 잡으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할 뿐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고, 자식이 죽어가도 수혈도 거부하는 존재로 비쳤다. 그러니 그들은 기독교에 의해 이단으로 배척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주의·가족주의·반공주의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하였다.

한편 강제 입영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타와 고문으로 사망한 인권유린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염두에 두고 균형법상의 최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거부 신념을 지키게 된다.

2001년 ~ 2003년

2001년 이후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고 외에도 평화주의자이며 불교인인 오태양씨의 병역 거부 선언 이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오태양씨 이전에 이미 1만 여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의 명령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해 징역을 살았다.

2001년 1월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을 규정한 현행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2001년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오태양씨에 이어 병역거부를 선언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치윤씨, 유호근씨 등은 1심 재판부의 보석과 재판 연기 결정으로 풀려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호근씨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나동혁씨를 포함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쓸데없는 구금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2002년 12월 10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연갈색 수의를 입은 나동혁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청을 나온 동료학생들은 조용히 손뼉을 쳤다. '고난과 승리'를 상징하는 보라빛 수건을 목에 두른 동료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넨 그가 재판장 앞에 섰다. 재판부는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이슈는 점차 확산되었다.

2002년 당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양심수는 200~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당시 대한민국에서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 중인 청년은 1600명 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이다.

2004년 ~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수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고 수십 회의 토론회와 학술 발표가 있었다. 병역 거부의 이유도 다양해져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고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한다.

2002년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으며, 2004년 5월 21일에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04년 7월 15일과 8월 26일에 각각 유죄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다수의 의견으로 대체복무 도입을 권고하였다.

2004년 국민노동동당 고 노회찬 의원은 국회에 대체복무제 법안을 제출하였다.

역시 고 노회찬 의원의 안과는 별도로 임종인 의원도 대체복무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2007년 5월 1일에 울산지방법원은 예비군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지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 2007년 10월 26일에 충북영동지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2008년 9월 5일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지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을 하였다. 그 후 대전천안, 전주, 수원, 대구김천 등 4건의 위헌제청이 뒤따르게 된다. 2011년 12월 현재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은 761명이다. 2011년 8월 30일에 헌법재판소는 7대 2로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렇듯 사회 전반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 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현역병의 2배인 3년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보수주의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백종건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1년 2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다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무료 변론 활동을 하다.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을 잃고 구속됐다. 2017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가 2017년 10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예비회의(Pre-Session)에 초청돼 세계 각국 대표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연설하면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겪는 인권상황을 증언했다.

2011년 9월 세계난민판사협회 총회에서 호주 판사가 발제하여 대한민국 판사 대표에게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물으면서 "호주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병역거부자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다른나라의 실태

대만은 비교적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체복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서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대체복무자는 경찰이나 소방 등 사회치안 분야에서 일하거나 병원, 양로원, 요양시설 등의 시설에서 봉사한다. 고정 시설 활동, 과학 연구 등 교육 봉사를 하거나, 화재 방지, 공공건물 관리하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체복무 기간이 긴 그리스는 우체국이나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그리스·스위스 등은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만은 합숙 생활을 하는 등 근무 형태도 다양하다.

대체복무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체복무가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현역 군복무와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고민으로 대체 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더 길게 설정한다. 스위스는 현역(390일)보다 약 1.5배 더 근무하고 그리스의 대체복무 기간은 23개월로 현역복무기간의 1.9배다. 그러나 점차 그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9개월)이나 노르웨이(12개월)의 경우 현역 복무 기간과 대체복무 기간이 같다. 현역 복무 중에도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한 나라도 있다.

북한

북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애시당초 종교 자체가 받을 불일 수 없는 토양 탓인지 종교를 이유로 병역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폐쇄성 탓에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잘 알 수 없다.

다만 한국전쟁 직전에는 징집된 재림교회 교인들이 집총을 거부하자 귀가조치 시킨 바가 있다고 한다. 전쟁 발발 후 이들 중 일부는 재징집되었는데, 결국 비전투 병과에 복무시켰다고 한다. 사실 당시에는 남북 할 것 없이 군사주의적 성향도 약했고 통제도 잘 안 되고 해서 오히려 현대보다 병역거부에 더 관대했던 시대였다.

싱가포르

1년 10개월 ~ 2년. 월 480달러의 월급을 받고 복무를 시작한다. 대체복무가 마련되어 있어서 경찰이나 민방위대로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완전 병역거부자들은 약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선고를 받고 수감된다.

이스라엘

복무기간은 남성 및 여성 전투병 32개월/여성 비전투병 24개월. 유대교와 드루즈교 신자만 징병되며 나머지는 모병제를 시행한다. 다만 언제나 이스라엘에서도 유대교, 드루즈교 신자가 아닌데도 입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에 따라서 타 종교를 믿는 경우도 해당 군종장교를 운영한다. 근데 근본주의 유대교 즉 하레디라 불리우는 집단은 모병한다. 참고로 이 나라는 징병 인원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다. 월급은 다른 국가들의 징병제에 비하면 적지만 전역 후에 대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바우처를 제공하고, 군필자는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징집 거부에 따른 처벌 기록이 확인되는 국가는 터키 등 8개국, 미확인된 국가는 북한, 이집트, 수단 등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는 느슨한 편이며 터키는 대학생에게 복무기간을 줄여 주고, 해외에 나가서 3년 이상 생활하거나 돈을 내면 병역을 면제해준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과거 독일에서도 있었던 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치 독일에서는 병역거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1만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이 중 상당수가 사망했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였으나 1949년부터 헌법에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었으며 1960년부터 대체복무법이 시행되었다. 핀란드에서는 6개월의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2배인 1년 동안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스위스, 독일, 핀란드, 이스라엘 등)에서 징병을 경험한 예비역들은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를 "나랑 상관없는 문제"로 취급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단 국가 전반의 지배적인 분위기 뿐만 아니라, 그만큼 국가에서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이다.

병역을 이행하는 인원들에게는 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의 예비역들은 딱히 병역거부자들을 증오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오히려 해외 징병제 국가 출신 예비역에게 한국에선 병역거부자들은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경악한다고 한다.

4 대체복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서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사실 역사적으로 대체복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거부감보다 징병제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다. 국민개병제의 원형이라 불리는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기에 30만명의 징병령이 내려진 후, 광범위한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야 했다. 특히나 개인의 자유를 숭상하는 영국은 1차 세계대전이 될 때 까지 징병제의 도입을 미뤘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 후 징병제가 시행되었으나, 몇몇 지방에서는 병무청이 불타기도 했고, 징병 대상에 포함된 젊은이들이 당시 신 개척지였던 홋카이도로 도망가는 바람에 지방 모병관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심지어는 자신이 살던 집 옆에 개집같은 움막을 하나 짓고, 그 집을 면사무소에登記 등록을 시킨 뒤에 자신을 호주로 등록 시킨 뒤, "내가 이 집 장손이다. 그러므로 나는 군대에 못 간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던 사례도 있었다.

한편 세계적으로 징병제는 오히려 권리의 확대를 가져 왔다. 이것은 국가주의의 확산과 국민국가 성립에 중요한 요소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징병을 시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바깥에 있던 노동자, 청년 등 피지배계층에게 어쩔 수 없이 참정권 확대나 의회 구성 등 보다 나은 조건을 약속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앤서니 기든스는 "지배의 변증법"(dialectics of control)이라 부르는데, 지속적인 자원 동원을 위해서 자원 제공자의 최소한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권력의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은 소위 말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왔고, 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와 압제로부터의 해방 및 식민지 해방으로 연결되었다. 이처럼 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이란 전쟁 동원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그리고 국가와의 협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권리'와 '의무'의 평화로운 교환처럼 포장되었지만, 그 바탕에는 시민들의 손에 총을 들게 하려는 국가의 탄압과 시민들의 치열한 저항이 깔려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과정 없이 징병제가 도입되어 버리는 바람에, 징병제를 단순히 교육제도같은 것처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 강하다.

우리나라 양심적거부자들의 현 실태

2018년 4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는 약 235명이며 연평균 약 570여명의 병역거부자가 나온다고 한다. 과거 누적 총계는 약 19,300명가량이다.

대법원은 69도934 판례에서 "양심상의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 판결에서 합헌 :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⁵합헌7 ⁶위헌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위헌2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본권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협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여전히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불법이다. 군 입대를 안 할 경우 병역기피로 처벌받고 있다. 군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에는 대부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과거의 처벌과 비교하자면 이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정확히는 전시기근면역, 즉 민방위로 편입)되므로 재차 처벌되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과거에는 반복 처벌하거나, 군형법 44조에 따라 입대 이전에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입영을 강제한 후 징역을 거부하면 다음 날 다시 징역을 강요하다 거부할 경우 경합범으로 2회에 걸쳐 병역을 거부 취급하여 법정 형량인 징역 2년에 1.5배 가중처벌하였다. 징역 3년형을 딱딱 채워 선고했으나, 2001년 이후 병무청의 강제입영 관행이 사라지며 거의 1년 6개월로 형량이 통일되었다.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병역거부자들을 흉악범들과는 따로 분류하여 육체노동보다는 사서 같은 교도소 내부 행정업무를 맡긴다. 이들은 형기의 75%를 채운 1년 2개월 되는 시점에서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용했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 ⁷헌법불합치 :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처벌조항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으로 사용된 서기석 헌법재판관과 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합헌의견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헌법에 위반되나, 이는 법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석으로 무죄판결을 하면 충분한 것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병역거부자가 아닌 병역기피자 처벌조항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합헌 의견은 사실상 한정위헌 : 위헌의 소지를 포함한 법령을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판결을 회피하는 결정방식

한정위헌의 의견이나, 처벌되었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기술적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판시했다. 이로써 2019. 12. 31.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는 병역법 제5조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원은 매년 500명 가량으로서 500~600명 선에서 T.O를 정한다. 2020년부터 전원 교정시설(교도소,

5 합헌 :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6 위헌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7 헌법불합치 :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구치소 등)에서만 3년 합숙으로 복무할 예정이다(소방서 등에서는 복무하지 않는다)

마무리

행복은
생각보다...

본문

행복해지기 위해선 어떤 조건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흔히 재력, 다음으로 건강을 꼽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쉽게 간과하는 부분인데 바로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묻고 싶다. 거지들은 꼭 불행한가?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는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들은 행복감을 더해주는 작은 요소들에 불과하다. 물론 부유함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며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불행과 행복은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현대인의 행복을 방해하는 불행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뤄 볼 것이다.

(1) 사회

(시간을 맞추지 못해 경쟁 사회에 대해 쓰지 못한 저의 무능력함을 비탄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반하는 생활 방식이나 세계관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도덕관과 신념이 여러 계층으로 갈라져 있고, 이런 견해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불행이 빚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위 사람들과 마음이 맞아야 한다. 물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시대의 문화와 주변 인물들의 가치관에 어느 정도 순응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 마음이 맞는다. 하지만 결코 이런 순응적인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드물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적,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소수의 부류에 포함되는데 이들은 유년기 시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때, 또 그것이 또래의 집단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라면 온갖 수모를 겪는 경우가 있다. 만약 지나치게 소심한 사람이 이 부류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강약약강이란 말은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대중은 자신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쉽게 건들지 않지만 행여나 자신들보다 약하다고 생각되거나 무서워하는 낯새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들기 때문이다.

운이 좋아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났다면 다행이다. 그들 앞에서는 몸을 사리거나 위선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취미나 신념을 숨기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기에 발생한다. 세상사에 무관심해서 자신의 환경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무지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된 말로 '꼰대'로 불리는 사람의 무지가 악순환을 이루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여론과 어긋나는 자신의 견해가 다른 곳에서는 평범한 상식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꼰대들은 세상 경험이 많은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격분한다. 결국 이 환경은 사람들의 열정을 위축시키고, 재능의 싹을 짓밟는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의 바람을 강요해서 안된다. 어쨌든 자신의 삶이 아닌 젊은이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시행착오를 겪을 권리가 있고, 자신과 맞지 않다고 해도 바꿀 시간은 충분하다. 그렇다고 원하는 바를 실행할 때 전문가의 의견까지 무시해서는 안된다. 초보자는 그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목은 어찌됐든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해준다. 또 한가지는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발전시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고난 성격대로 행동하되, 반사회적 행동을 범해서 안된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쉽게 얻을 수 없다.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면 당신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대중은 관대해지고 여론은 당신의 편이 될 것이다.

(2) 걱정

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다. 이 중에서 현대인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것은 정신적인 피로다. 오히려 육체적인 피로는 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행복의 원인이 된다. 깊은 잠과 왕성한 식욕을 불러오고, 휴일에 만끽할 즐거움에 대한 열의를 북돋아주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 혁명 전까지는 성별을 불문하고, 어린아이까지 과도한 노동을 감수해야 했기에 빠른 노화와 과로사가 심각한 문제였지만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산업 환경의 개선 덕분에 이 부분도 상당히 해소됐다. 하지만 정신적인 피로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이것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걱정과 불안이다.

먼저, 도시인에게 있어 소음으로 인한 피로는 켈래야 켈 수가 없는 것이다. 소음은 긴장상태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휴식을 방해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 괜히 팔만 아프듯이 소음을 듣지 않으려고 애써도 무의식적으로 더욱 피곤해지기만 한다.

그리고 그 소음 공해 속에서 낯선 사람을 매일 만나야 하는데 당연히 이 자체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일

초가 아까운 현대 사회에서는 낯선 이를 만나면 어떤 태도로 대할지부터 탐색하는 동물의 본능을 억누르고 생활해야 하는 탓에 본의 아니게 분노를 느끼게 된다. 만약 이 분노를 해소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다면 정신적 피로는 덜 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해고 당하지 않기 위해 공손하게 행동해야 하고, 사장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느라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파산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도 그 지위에 올라서기까지 오랜 기간의 노력이 있을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항상 민감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경쟁자의 음모에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 끝에 자신이 원했던 지위를 얻는다해도 그는 지칠대로 지친 상태일 것이 분명하다. 그의 희생 덕분에 그의 후손들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금수저'라 부르며 부러워하지만 그런 환경조차 그들만의 사치스러운 걱정거리를 만들기 마련이다.

결국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신경을 혹사하는 생활을 살고 있다. 이로 인한 피로는 삶의 생기를 앗아간다. 주변 사람들은 이유 없이 짜증날 것이고,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에 무관심해질 것이다. 더군다나 이 피로는 휴식으로만 해소할 수 있는데 지나친 걱정이 온전한 휴식을 방해한다. 당장 손 쓸 수가 없는데도 그것만 고민하게 되는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때만 고민하고, 효과가 없을 때는 다른 생각을 하며, 밤에는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또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대처다. 언젠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걱정을 머릿속에서 내쫓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필요할 때만 고민하는 태도가 피로도를 훨씬 줄여주고, 능률도 증진시킨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걱정거리가 생각보다 별 거 아니란 것을 깨닫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줄여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문제든 최악의 가능성을 직시하면서 그것이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은 이유를 스스로 제시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소리다. 실제로 내가 예비 인문학 캠프 때 발표를 참 뒤같이 해서 상당히 심란 했었는데 마침 책에서 이 단락을 읽었다. 그런데 거지말처럼 마음이 편해졌다. 정신적 피로 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이 세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깨달을 때 성공의 집착은 줄어들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3) 질투

걱정 다음으로 불행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질투다. 질투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 중 가장 보편적이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에 속한다. 한 살짜리 아이조차 다른 아이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때 금세 알아차리고, 화를 낸다. 어른도 마찬가지이며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이다. 또 서양 고전 <오이디푸스 왕>에서 유래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들어봤을 것이다. 자식이 이성의 부모와 성적 결합을 갈망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알기에 동성의 부모를 질투하는 증상이다. 아이들에게 있어 이런 불행은 겪으면 겪을수록 질투하는 버릇을 들게 하고, 커서도 질투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하는 사람은 예외없이 분배의 정의를 지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좀 더 밀접한 예를 들자면 인스타그램에 한 아름다운 여성이 근사하게 차려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 대부분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칭찬을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 애쓸 것이다. 그리고 이 일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별이 여성인 것은 사실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구라도 험담을 듣거나 해본 경험은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근거가 희박하더라도 사실처럼 얘기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질투는 평범한 인간의 본성 중 가장 불행한 것이다. 질투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안기고 싶어하지만 그것을 행할 때 자신 역시 불행해진다. 그래서 질투는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무욕과 행복이 있는데 성자가 아닌 이상 무욕은 불가능에 가깝고, 남은 것은 행복이다. 그러나 질투에 사로잡힌 동안은 절대 행복하지 않을텐데 행복해지지 않으면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장은 논리에도 어긋나고,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막연한 행복보다는 질투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것이다.

먼저, 매사를 비교하는 것부터 그만둬야 한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충분히 즐겨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과 비교하는 행위는 그 즐거운 일을 하찮게 만들어 버린다.

"A는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큼의 보수를 받았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그는 분명 만족해있는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더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며 누군가의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을 망치지 않는다. 처음으로 돌아가 질투하는 버릇을 고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그것만큼 부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어차피 당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을 손에 넣어봤자 또 다른 비교 대상이 기다릴 뿐이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쓸데없는 생각을 줄이고, 주어진 것으로 본능을 만족시키는 생활을 확립할 수 있어야 된다.

불필요한 겸손도 질투와 관계가 깊다. 겸손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재수 없다는 소문이 자자하겠지만 그렇다고 겸손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지나치게 겸손을 떠는 것은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다. 미덕을 지키기 위한 겸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낮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버릇처럼 들먹이는 사람들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 점이 질투와 더불어 불행하다는 생각을 품게 한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리더만 있을 뿐.”

문득 생각난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책의 표지 문구다. 나는 저 말에 격하게 동의하는 편이다. 누구나 강점 하나쯤 가지고 있음이 분명한데 내가 남들보다 뒤떨어진다는 생각,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교육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래야 자기자신을 혐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죄의식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부모란 절대적인 존재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도덕적 규칙을 가르치고, 자식은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이유까지 논리적으로 납득시켜 주는 경우는 드물어서 이것은 자식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 중에는 합리적인 규칙을 찾을 수 없어서 동의하지 못하는 규칙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규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아가 성장하고, 혼자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우리의 의식에 개입하지 못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잠들게 된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특정한 상황에서 무의식의 목소리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흔히 '양심'이라고 부른다.

양심은 여러 가지 다른 감정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단순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발각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때 엄습한다. 우리 학교를 예로 들면 고백의 시간에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들은 발각되지 않았거나 발각될 가능성이 낮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잊어버리지만, 반대의 상황에 처한다면 뒤늦게 후회하고, 주위 사람들의 비난에 맞서기를 두려워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반면에 아무리 생각해보도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죄라고 생각하게 되는 행동들도 있다. 술, 담배를 했거나 욕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말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술, 담배를 하는 것 자체는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욕을 쓴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거짓말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용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도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양심을 어겼다는 일념 하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타락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규정 짓고 있는 도덕과 윤리관이 합리적인 근거를 따르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 헛갈리지 말아야 할 점은 도덕적 원칙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신적인, 즉 합리적 근거가 없는 도덕 원칙을 지니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을 어겼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죄의식은 나 자신을 절망감에 휩싸이게 하고, 자존심을 갉아먹는데 이것이 좋지 않은 일인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 규칙을 어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인격을 모독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애초에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사람임은 알아둬야 한다.

(5) 피해망상

극단적인 피해망상은 정신질환이다.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를 심하게 해코지하는 상상을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가상의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걸핏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는다. 이 지경까지 온다면 누구라도 정신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으로 가야 할 그들보다는 거의 모든 사람이 겪는 가벼운 피해망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래의 네 가지의 원칙을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찢린다면 당신은 이미 피해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들을 이해한다면 피해망상을 충분히 스스로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동기가 생각보다 이타적이지 않을 수 있다. 흔히 신념 혹은 동정심을 갖고, 이를 행하며 타인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타인도 저마다의 견해가 있고, 원치 않는 도움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인습적인 도덕에서 강조하는 이타주의를 실현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생각보다 이타주의를 완전히 실천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설령 고결한 목적이 있다해도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행동에는 열정이 쉽사리 생기지 않기 마련인데 열정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뤄낼 수 없다. 이런 거짓된 확신은 자기기만이며 쉽게 피해망상으로 이어진다.

둘째, 자신의 강점을 과대평가 하지 마라.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 고민해봐야 할 것. '누구의 오행인가'이다. 다만 역사에는 생전에 인정받지 못한 위인들도 있기 때문에 성급히 판단해서도 안된다.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면 한가지 기준이 있는데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당부한다. 그것은 인정 욕구의 우선순위이다. 인정 욕구는 한마디로 인정 받고 싶은 욕구를 뜻한다. 만약 이것이 이차적인 사람 즉, 인정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할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는 영웅적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이 욕구가 우선되는 사람이라면 인정을 받기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깨끗이 포기하는 게 낫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를 타인의 오행이라고 단정지어선 안된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관계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하지만 잊기 쉬운 것이 있다. 그것은 누구나 본인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관계의 두터움과 개인의 감정에 따라 희생을 자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강요하고,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선 안된다. 언젠가 불평이 생기는 것도 자신의 자아가 상대방의 이기심을 건드릴 때까지 확장됐다는 뜻이고, 그 지나친 욕망에 대항하는 자연스러운 반

응 일 뿐이다.

넷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 피해망상이 현재 진행형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도 그들만의 관심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게다가 피해망상은 없는 사실까지 더해가며 모든 인물, 사건을 자신과 연관 짓는다. 물론 어떤 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면 사실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음에도 대단한 사람인 척 하며 현실로부터 도피한다. 이러한 자기기만에 의한 만족감은 허영심이지 행복이 아니다. 때문에 불쾌하더라도 진실에 입각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Punk Attitude

1970년대 시작된 펑크 문화의 대한 연구

목차.

1. 주제를 선정한 동기 및 목표
2. Punk란?
3. 펑크의 탄생과 발전
 - 3-1. 펑크의 기반이 된 프로토 펑크
 - 3-2. 뉴욕 펑크의 탄생 및 몰락
4. 런던 펑크
 - 4-1. 1960 ~ 70년도의 영국 사회
 - 4-2. 1977년 런던 펑크의 폭발
 - 4-3. 런던 펑크의 종말
5. 펑크의 잔재들
 - 5-1. 포스트 펑크, 뉴웨이브 등으로의 발전
6. 마무리

박재성

1. 주제를 선정한 계기 및 목표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인문학 이랬다. 나는 많은 인문학 분야에서 그나마 흥미롭게 할 수 있는 예술과 음악, 문화 분야를 내 주제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큰 주제에서는 음악을, 음악이라는 분야에서는 문화에 가까운 것을 찾기 시작했다. 예술, 음악뿐만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것이 필요했던 것 같다. 문화 현상은 그 당시의 사회의 영향을 받아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게 탄생한 문화 현상은 다시금 사회에 영향을 주곤 한다. 그 당시 사회와 영향을 주고 받은 거대한 문화에서 음악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음악사를 찾고 싶었던 것이다. 며칠을 고민하던 중 'God Save The Queen'이라는 노래로 영국의 여왕을 조롱하던 밴드 섹스 피스톨스가 떠올랐다. 그들의 음악은 펑크라고 불렀다. 그것은 나에게 꽤나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그저 록의 하위장르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흥미가 생겨 더욱 찾아보았다. 알게 된 것은 펑크는 록의 음악을 선두로 패션까지 만들어진 문화이며 당시 영국에선 하나의 사상까지 이어진 문화 현상이었다. 그 당시 영국의 불황, 빈곤하던 노동계급의 영국인들에게서 저항의 불꽃으로 타올랐던 펑크는 인문학 주제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나의 인문학 주제로도 꽤나 마음에 들어 선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펑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자 한다. 펑크의 기원부터, 1970년대 폭발했던 펑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당시 영국 사회의 어떤 부분이 펑크의 기반이 되었는지, 어떤 영향으로 탄생해 다시 사회의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 그 시대와의 밀접한 관계를 들여다 보려고 한다. 또한 반항의 음악인 펑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펑크라는 태도에 대해서도 공부해본다.

2. Punk란?

Punk의 의미는 폐물의 의미로 쓰이다 양아치 등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허나 속어인 만큼 확실한 정의를 찾을 수 없다. 뮤지션 제임스 찰스의 말에 따르면 성관계를 당하는 사람을 칭하는 뜻으로 교도소에서 쓰였던 말이라고도 한다. 펑크는 1970년대 뉴욕에서 시작된 록 음악의 하위 장르의 이름이다. 쓰리 코드로 진행되는 단순한 음악과 반항적인 메시지, 비주얼이 펑크 록의 대표적인 원형이다. 그러나 뉴욕에서 이루어졌던 예술적인 시도와 후대까지 이어져온 펑크를 따져보면 그 원형만으로 펑크를 정의할 수 없다. 1970년대 후반에는 런던에선 펑크가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다. 그 당시 영국의 불황과 겹쳐진 펑크의 유행은 문화, 운동까지 하나의 서브컬처로 발전해 펑크 문화라고도 부른다.

3. 펑크의 탄생과 발전

3-1. 펑크의 기반이 된 프로토 펑크

1963년 비틀스, 롤링 스톤즈, 더 후 같은 영국의 밴드들이 미국으로 대거 진출에 성공한다. 영국 밴드들에게 영향을 받은 미국의 청년들은 그들의 음악을 흉내내기 시작한다. 그렇게 음악을 시작한 청년들은 연주실이 없기에 차고에서 연주를 했고, 실력 또한 전문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조잡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음악이 나왔다. 그러한 서투른 부분들이 스타일 로 드러나면서 차고(garage)라는 뜻을 차용해 개러지 락으로 불린다.

서투르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개러지 락은 오히려 원초적인 락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펑크의 시초가 된다. 또한 환경과 능력이 되지 않아도 누구나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정신은 후대 펑크 뮤지션들에게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한다.

1960년대 후반에 과격한 음악과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던 MC5, 무대 위에서 기행을 일삼아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던 스투지스, 이기 팝 등의 뮤지션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거칠고 과격한 퍼포먼스와 음악, 반항적인 메시지 등은 펑크의 기반이 된다. 프로토 펑크라 불리며 훗날 펑크 뮤지션들에게 재조명된다.

3-2. 뉴욕 펑크씬의 탄생 및 와해

비슷한 시기에 좀 더 의식적으로 대안적 예술형식을 모색하던 뉴욕의 언더그라운드에서 펑크의 흐름이 있었다. 1960년대 후반 벨벳 언더그라운드, 1970년대 초 뉴욕 펑크의 아버지라 불리는 뉴욕 돌스로 흐름이 계승되었고 1970년대 중반 '뉴욕 펑크'라고 불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내었다.

1973년, 클럽 CBGB가 뉴욕의 빈민가 보웨이에 자리잡는다. CBGB는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들을 무대에 올리는 작은 클럽이었다. 이 곳에서 텔레비전, 패티 스미스, 블론디 등의 뉴욕 펑크의 주역들이 공연을 하며, 펑크가 발전한 의미 깊은 장소가 된다. 그러므로 CBGB에 있던 밴드들은 펑크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 이유는 정식으로 록 평론가들 사이에서 "펑크 록"이란 장르가 하나의 확립된 장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 전까지 뉴욕에는 뉴욕의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록 음악이 별로 없었다. 뉴욕은 오로지 재즈와 포크 음악의 고향이었고, 미국의 록 밴드들은 1960년대 후반 내내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는 히피 문화의 중심지가 샌프란시스코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0년대 초반에는 글램 록의 부흥으로 영국과 미국이 록 음악을 주머니 받거나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뉴욕에서 정체성이 잘 살아있는 음악이 등장하자 뉴욕의 언더그라운드 음악 씬은 환호했던 것이다. 세계 최초의 펑크 잡지인 "PUNK"도 이 시기 뉴욕에서 발행되었다.

미국에서 펑크 록은 분명 언더그라운드에서 번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의 음악이 후대까지 계속 전해지고 발전하려면 메이저에 진출한 밴드가 한두 개쯤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밴드가 없었다. 라몬즈는 차트 바닥을 기었으며 텔레비전은 영국에서 인기를 얻으려는 차나 해체했고, 패티 스미스는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협업한 'Because the Night'가 히트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직후 결혼한 뒤 은퇴했다. 토킹헤즈는 해체하지 않고 비교적 오래갔으나 음악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 소수의 인기에 머물렀다. 그나마 블론디가 디스코를 결합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지만 고작 4년 밖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뉴욕 펑크는 확실한 한계가 있었다. 패티 스미스와 텔레비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나치게 예술적이고 과격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대중과의 거리가 너무 컸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여러모로 영국이나 유럽보다 보수적인 국가였다. 물론 미국 사회 내부는 마약이나 총기 문제로 병들어가고 있었지만, 대중매체는 오로지 반듯하고 정화된 음악만을 공급하려 노력했고, 각 지역의 프로모터들 또한 대중의 취향에 맞는 "좋은 음악"만을 공급하려고 했다. 또한 1960년대의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금이라도 과격하거나 외설의혹이 있는 공연은 어김없이 경찰관 입회 하에 진행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실제로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나라였고, 1960년대의 사회갈등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오일쇼크까지 겹쳤지만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디스코를 찾았다. 뉴욕 펑크는 세상에 뛰어 나오기 전에 넘어야 할 진입장벽이 너무나도 높았던 것이다.

4. 런던 펑크

4-1. 1960 ~ 70년대 영국 사회

미국에서 펑크 록이 단순히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음악을 일궈내는 운동이었다고 하면, 영국에서의 펑크 록은 좀 더 복잡한 사회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일단 영국은 당시 거의 막장 상태였다. 미국도 오일쇼크에 충격을 받기는 했으나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영국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효율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본가들은 과거의 태평성대만 믿고 혁신을 게을리 했으며, 노동자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건에 불만을 품고 끊임없이 파업을 강행했다. 노동당의 정책은 족족 실패했으며, 결국 국제 통화기금의 구제금융까지 받는 형편이 되었다.

영국은 그야말로 망조가 들어가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기능을 하지 못했고,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수당에 의지해 살아갔고 학교는 계속해서 실업자를 쏟아냈다. 중년층 이상은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이 투쟁해왔던 지난 10년"을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의 나태를 질타했다. 영국은 오랜 세월 너무도 변하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황에서 지루해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종갈등까지 겹쳐서, 자메이카 등에서 넘어온 흑인, 파키스탄인, 기타 등등 다양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영국으로 1950~60년대 내내 넘어왔으며, 인종갈등에 대해 전혀 대비책이 없던 런던의 빈민가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특히 영국의 앵글로색슨 백인들은 배타적이었고, 영국의 노동계급은 불안한 사회상황과 인종문제로 인해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사상적으로도 극단주의가 횡행하게 된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지지도가 올라갔을 정도다.

당시 펑크 뮤지션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알만 하다.

당시에는 엄청났어요. 매일같이 신문과 뉴스에는 파업 소식이 들려왔고, 환경미화원들이 파업해서 길거리에 사람 키보다 높이 쓰레기가 쌓이기도 했고, 무덤 파는 인부들이 파업을 해서 시체가 줄줄이 쌓여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으로 살아갔죠.

- 스티브 존스, 섹스 피스톨즈의 기타리스트 - 영화 The filth and the fury 중에서

사실 저는 그때 직업이 없었어요. 일자리를 구해보려 해도 (급료가 턱없이 낮거나 너무 힘든 일이거나 해서)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었구요. 그래서 "노느니 뭐하냐 밴드나 해보자"하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 빌리 아이돌 - 다큐멘터리 "히스토리 오브 로큰롤" 중에서

저는 그때 집이 없어서 연수실에서 자거나 스쿼팅을 해서 살곤 했어요. 한때는 템즈 강가의 망한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살기도 했는데, 더 클래쉬의 초기 곡들은 거기서 쓰여졌죠.

- 조 스트러머 - 더 클래쉬의 리드싱어, 기타리스트

영국은 미국과 달리 독특한 생활양식을 고수하는 노동계급이 있었다. 이들은 펑크록의 태도와 정신에 일치하는 면이 많았다. 상류 계층에 대한 적대감, 계급의식, 거칠음 등 다른 나라의 노동계층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계층이었다.

4-2. 런던 펑크의 폭발

펑크의 핵심은 록 평론가 그레이일 마커스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사실의 부정"이다. 런던 펑크에는 급진적, 강렬한, 전복적 등의 말이 어울리는 것도 펑크의 거부의 태도 때문이다. 런던 펑크가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사운드였다. 기존 체제에 반대하는 결과물을 구성하고자 했던 열망은 당시의 주류 록 음악에 대항하여 대안적인 사운드를 만들고자 했던 음악적 시도로 나타났다. 미래 없는 노동계급 청년의 분노, 좌절, 폭력 등의 감정은 단조롭고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사운드의 효과를 통해 드러났다. 똥똥거리는 베이스 기타와 반복적인 비트를 두들겨대는 드럼, 기고 없이 어설픈게 읊어대는 기타, 아무렇게나 내지르는 보컬은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최상의 혹은 유일한 음악적 수단이었다.

런던 펑크가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75년 11월 6일 세인트 마틴 예술학교에서 가진 섹스 피스톨즈의 첫 공연이었다. 이후 1975년과 1976년 사이 런던에 자그마치 200여개의 펑크 밴드가 결성되면서 런던 펑크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 절정은 1976년 9월 20일과 21일 런던 옥스퍼드가에 있는 100 클럽에서 열린 브리티시 펑크 록 페스티벌이었다.

펑크 전성기의 대표적 사건은 섹스 피스톨즈의 "God Save The Queen"이 순위 차트 1위에 오른 것이다. 이때 영국 의회는 섹스 피스톨즈를 크게 비난했다. 우파는 사회주의자라고, 공산주의자들은 파시스트라고 그들을 몰아세웠다. 결국 차트 1위 자리는 빈 칸으로 제시되었다.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가 불법 밴드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차트는 이들이 불법 밴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주류를 거부하는 펑크 록 밴드의 자랑스러운 사실이 되었다.

런던 펑크에게 있어서 이른바 음악성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아트 록의 음악적 실험이나 전자 기술의 사용 등은 너무도 먼 것이었다. 그렇지만 런던 펑크를 쉬운 음악으로 정의할 수 없다. 숙련된 뮤지션들로 구성되어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표현한 클래쉬, 스몰 페이스스, 후 등 이 있었다. 그리고 대중적인 멜로디와 신랄한 가사를 연결시킨 펑크 팝 밴드 버즈콕스, 음울한 고딕 사운드를 들려주었던 수지 앤 더 배쉬스, 등 많은 펑크 밴드들은 독자적인 음악을 추구하려는 시도들을 보여주었다.

펑크의 에너지를 레게와 결합시키려 했던 투톤 무브먼트도 빼놓을 수 없다. 투톤 레이블 소속에는 스페셜스, 실렉터, 매드니스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흑인과 백인은 하나의 피부색, 두가지 다른 톤이라는 가치 아래 두 문화 사이의 음악, 문화적 교류를 이루었다. 이런 흑백 교류의 모습은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록이란 페스티벌의 개최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성 펑크 밴드들의 등장이다. 엑스 레이 스페이스, 슬리츠, 레이크코츠 등이 그들이다. 펑크는 록 음악의 복잡한 장비와 화려한 기교 등을 제거하고 그로 인해 여성이 대중음악의 주체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여성의 집단적 목소리가 들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하드코어의 남성중심성에 반대한 소녀 펑크 집단 '라이어트 걸' 또한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갔다.

이제 1970년대 후반이 되면 펑크에서 일관된 음악을 찾기는 힘들게 되었다. 이는 섹스 피스톨스 등이 모든 사회적 사실의 부정이 카오스 혹은 무정부상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펑크 2세대들은 대책 없는 반항보다는 다소 일관된 정치적 입장을 요구 받게 되었다.

신기한 사실은 펑크가 록 음악을 부정하려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 전체에 활기를 넣어줬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다(Anyone Can Do It)라는 펑크의 구호를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Anyone Can Be a Star)로 전환시킨 이들이 있었다. 다시금 대중적인 음악의 선두로 흐름이 뒤집혔고, 영국의 경제는 점점 정상화되었다. 1979년 마거릿 대처가 권좌를 차지했던 것이다.

4-3. 런던 펑크의 종말

그렇게 펑크 록의 종말은 찾아왔다. 워낙 소수지향적인 문화였던 펑크 문화가 주류 미디어의 간택을 받고 대중매체에 편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펑크의 정체성 자체가 분열을 뜻했다. 물론 당시의 펑크 록 밴드들에게는 상업적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무했고 당시 밴드들은 새로운 음악에 빠졌을 뿐 펑크와 같은 배타적인 음악에 빠져든 것은 아니었다.

음악으로 상업적인 수익과 사회운동을 겸하는 것이 잘못된 전제이기도 했다. 진짜 사회운동을 하려면 굶직한 움직임을 일으켜야 했지만 그러지도 못했다. 음악 그 자체로 놓고 봤을 때 기존 록 음악의 부정적인 음악이었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이 주류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얼굴을 비추고 기존의 락스타들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펑크 록의 주장은 모순이 되었다. 가사와 음악으로는 니힐리즘이나 기존의 세계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들이 새로운 질서의 주류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올라간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조그마한 클럽에서 공연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였다. 결국 펑크 록은 1977년에 정점을 찍고, 1978년에 뉴 웨이브, 파워 팝 등으로 분화된다. 이때부터 펑크 문화도 세분화되어서 더 이상 1977년도 그대로의 펑크문화는 남지 않게 된다

5. 펑크의 잔재들

5-1. 포스트 펑크, 뉴 웨이브 등으로의 발전

포스트펑크란 음악 장르가 아니라 펑크 이후의 씬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다. 그렇지만 펑크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펑크를 넘어서는 음악적 시도를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음악이 현실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핑크, 레게, 재즈 등 흑인 음악의 리듬을 가지고 실험에 몰두했기 때문에 아방가르드 핑크라고도 불린다.

섹스 피스톨스의 보컬 조니 로튼이 결성한 PIL은 펑크와 아방가르드 사이의 곡을 보여주었다. 리즈 출신의 갱 오보 포는 펑크의 공격적 사운드, 도발적 가사, 핑크의 리듬을 결합하였고, 브리스톨 출신의 팝 그룹은 펑크에 핑크, 레게 등을 도입하여 거칠고 황량한 사운드의 풍경을 만들었다.

뉴 웨이브라는 장르도 시기적인 표현에 가깝다. 청중과 거리감을 좁히려 했다는 점에서는 펑크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펑크처럼 노골적으로 공격적, 반항적이기 보다는 풍자를 동반한 비판을 앞세웠다.

미국에서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뉴 웨이브가 등장했다. 카스, 데보, 블론디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단조로운 보컬과 반복적 리듬을 통해 냉소적인 정서를 표현했다. 한편으로는 댄스 성향의 일렉트로닉 음악, 다른 한편으로는 제3세계 음악이나 흑인 음악 등을 수용했다.

특기할 것은 영국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펑크와 뉴 웨이브가 뚜렷이 구별되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반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펑크는 상업적인 성공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뉴 웨이브는 적합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또한 미국에서 펑크는 영국에서와 달리 여전히 언더그라운드에 머물러 있었다. 개인주의적이고 지식인 문화와 결합되었던 점도 작용했다. 이들 중 토킵헤즈와 필리스 등은 어느 정도 대중화된 경우이다.

한편 보다 런던 펑크를 충실하게 계승한 흐름은 1970년대 말에 형성된 이른바 하드코어 씬이었다. 섹스 피스톨즈와 댄드의 미국 순회 공연 등을 통해 미국에 상륙한 펑크는 하드코어라는 수식어를 달게 되었다. 미국 하드코어는 노동계급이 아니라 중산층 대학생을 중심으로 했다. 메시지 또한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히피들의 고루한 가치를 비판하고 레이건 정부의 대외 정책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음악도 펑크보다 공격적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뉴 웨이브의 절충적인 성향과 하드코어의 비타협적 성향은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갔다. 소닉 유스, 빅

블랙 등은 '포스트 하드코어' 혹은 '아트 펑크'라고 불렸으며, 불량한 정서를 담았다. 허스커 두, 픽시즈, 다이너소 주니어 등도 거친 노이즈와 대중적 곡조의 공존이라는 사운드를 제시했다. 이들 모두는 1980년대의 얼터너티브 음악이라고 불린다. 시애틀 그린지와 뉴 펑크 팝은 그 중의 '하나'다.
너바나가 등장한 1991년은 다시 한번 "펑크 록이 분출한 해가 되었다. 그러나 커트 코베인이 사망한 1994년에 사망했다. 같은 해 플래티넘을 기록한 그린 데이와 오프스프링의 성공은 펑크가 새로운 팝으로 완전히 정착했음을 보여주었다.